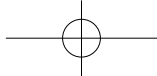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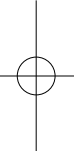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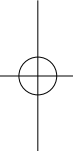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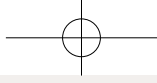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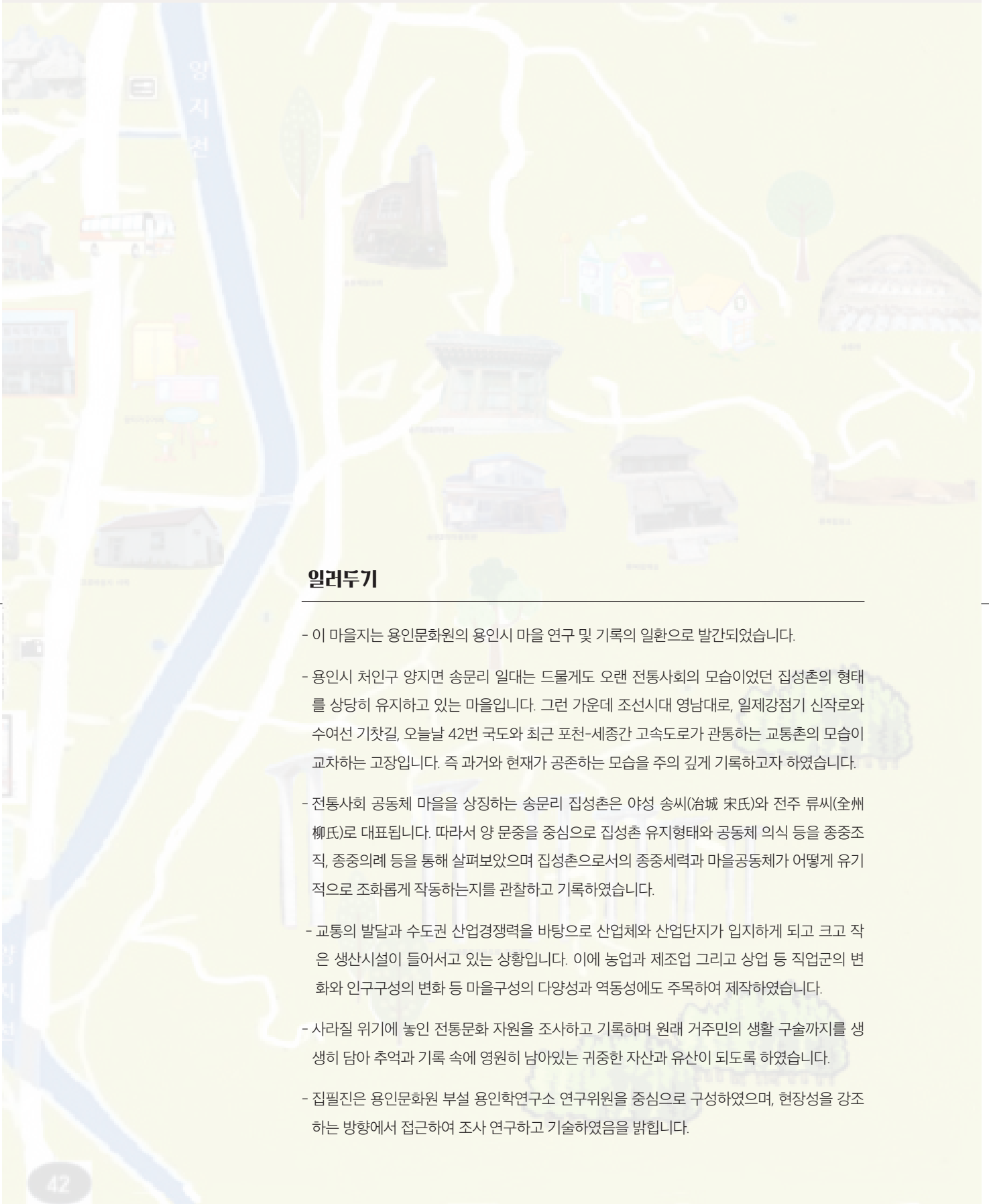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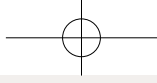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충효 전통 품고 발전하는 양지의 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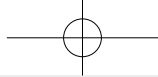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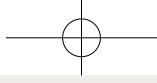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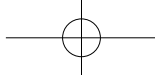
일러두기

- 이 마을지는 용인문화원의 용인시 마을 연구 및 기록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일대는 드물게도 오랜 전통사회의 모습이었던 집성촌의 형태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시대 영남대로, 일제강점기 신작로와 수여선 기차길, 오늘날 42번 국도와 최근 포천-세종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촌의 모습이 교차하는 고장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 전통사회 공동체 마을을 상징하는 송문리 집성촌은 아성 송씨(冶城 宋氏)와 전주 류씨(全州 柳氏)로 대표됩니다. 따라서 양 문중을 중심으로 집성촌 유지형태와 공동체 의식 등을 종종조직, 종중의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집성촌으로서의 종중세력과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 교통의 발달과 수도권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산업단지가 입지하게 되고 크고 작은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상업 등 직업군의 변화와 인구구성의 변화 등 마을구성의 다양성과 역동성에도 주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전통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원래 거주민의 생활 구슬까지를 생생히 담아 추억과 기록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귀중한 자산과 유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집필진은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 조사 연구하고 기술하였음을 밝힙니다.





송문리



| 발간사 |

송문리 마을은

삶과 문화유산 축적의 보물창고

마을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선조들이 대대로 거주해 온 생활공간이자, 민속·의례·신앙 등 생활 문화를 형성해 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을은 역사적 전통과 함께 고유한 문화적 원형을 품고 있어 문화 생성의 샘터이자 전통적 문화 유산을 축적한 창고이기도 합니다.

용인은 50여년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인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 특례시가 된 오늘에는 처인구의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전통 마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SK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처인구에 남아있는 전통 마을도 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통적인 주거환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떠나면 당연히 문화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마을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긴급하고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한 마을지 편찬은 마을 전통문화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고 용인의





심언택
용인문화원장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도 재정립될 것입니다.

용인문화원에는 2017년 기흥구 지곡동을 시작으로 이미 5차례에 걸쳐 마을지를 편찬 하였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 대상지는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 농촌 마을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수백년전부터 야성 송씨와 전주 류씨가 정착하면서 집성촌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문리 일대에 개발이 예정되어 마을의 전통문화 자원이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이에 본 문화원에서는 송문리 일대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채록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마을지를 편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송문리 마을지 집필에 참여해 주신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김태근 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편 마을지 편찬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용인시와 송문리 각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지도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속 사 |

옛것과 새것의 융합 속에 '용인 르네상스' 꽃피우길

오래된 마을 하나가 책 속에 담기는 풍경을 생각합니다. 책장을 넘기면, 마을에 떠돌던 저녁연기와 멀리 개 짖는 소리가 함께 흘러나올 듯합니다. '마을지'는 우리가 자칫 잊고 있거나 잃어버렸던 시간과 공간을 담아, 우리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양지면 송문리 마을지' 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하고 알찬 이 책을 펴내느라 수고하신 용인문화원과 용인학연구소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노적산 아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는 농촌마을의 고즈넉함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엔 조선시대 중기에 야성 송씨(冶城 宋氏)와 전주 류씨(全州 柳氏)가 정착하여 집성촌을 형성했지요. 문중(門中)의 분위기가 남아있고 전통문화의 원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지'라는 책 한권은 그냥 책이 아니라, 마을이 기록으로 숨쉬고 있는 '책속의 박물관'이라 할 만합니다. 거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자취가 있고 기억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용인학연구소의 활약이 귀하고 소중한 까닭은, 우리 용인 속에 숨겨져 있거나 묻혀 있는 문화적 가치들을 발굴하고 기록하여 기억의 양지(陽地)로 끌어





이상일
용인시장

내어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한국 문화의 근간을 지키는 위대한 노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더욱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참모습을 기록하고 그 마을마을마다 지니고 있었던 독특한 풍경과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와 놀이를 연구하는 일은 지금 해야만 할 우리 세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통문화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영감(靈感)과 에너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정비전인 ‘용인르네상스’도, 그 옛것과 새로운 것들이 서로 내통하고 융합하면서 일으키는 상승작용이라 하겠습니다.

‘양지면 송문리 마을지’는 단순히 한 마을의 내력이 발굴되고 채록되고 기억되는 것을 넘어서서, 향후 스토리텔링이나 좀더 깊이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문화콘텐츠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밑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이 갈수록 큰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을지’ 또한 그런 가치로 꾸준히 재평가될 것입니다.

마을지 발간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 용인의 마을 하나가, 책 속에서 새로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하 |

마을지 발간은 역사와 문화 품은 콘텐츠 발굴에 크게 기여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윤원균입니다.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스토리가 있는 「처인구 송문리 마을지」발간을 110만 용인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로이 발굴하여 용인시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헌신해 오신 용인문화원 심언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 시대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은 삶의 흔적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자료와 기억들, 그 사소함이 모여 마을의 역사가, 나아가 용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용인의 향토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23년이 되시길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

기록 작업은 마을 정체성 재확립의 계기 편찬사업 참여 모든 분들께 감사

안녕하십니까 수백 년 이어 온 송문리는 용인에서도 대표되는 여러 장점과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고장이나 마을보다 고유한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여 전통과 변화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고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마을에 안녕과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있으며 또한 시제와 종종 의례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지만 송문리는 여전히 지켜지는 것을 넘어 더욱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송문리 중앙으로 42번 국도와 수여선 기차길이 지나가고 자연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고가도로가 생기는가 하면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집성촌은 옛말인가 싶게 전원주택을 짓거나 공동주택을 지어 입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변하는 시대의 추세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여러모로 소중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은 자치와 분권을 축으로 하는 지방화시대





송설재
송문리 마을지 편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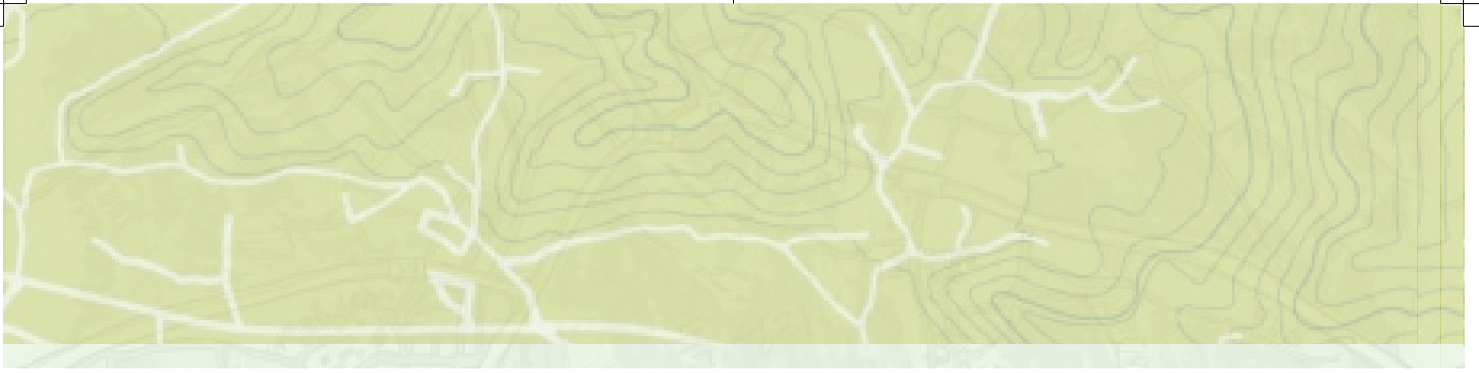
하고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소중한 전통문화 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마을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 이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송문리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송문리 마을 기록사업은 용인문화원과 함께하여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여러 연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같은 값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님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을지 편찬사업에 적극 협조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마을 주민과 여러 어른 그리고 마을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례 |

1장 송문리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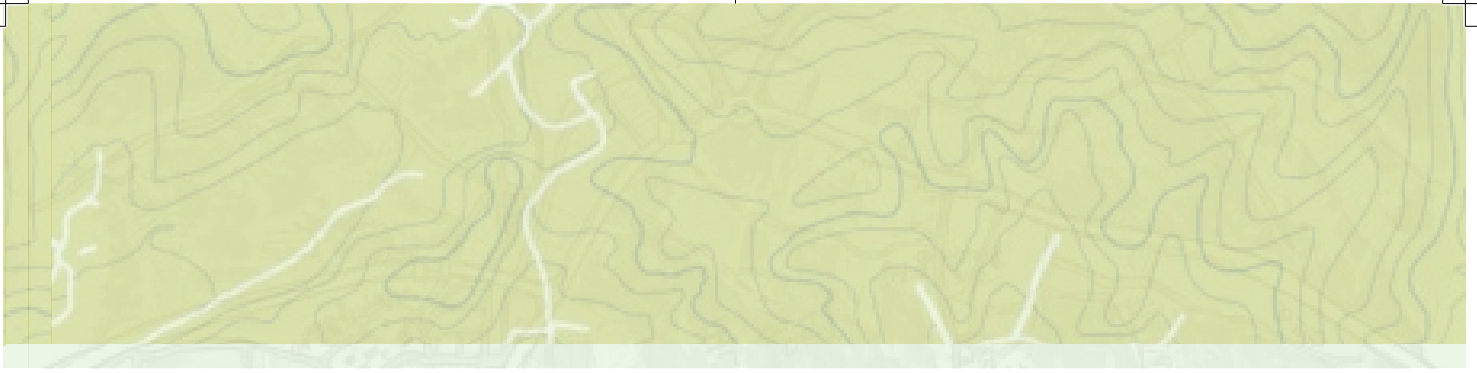
- 1절. 송문리 마을연혁 • 018
- 2절. 송문리 마을지명 유래 • 020
- 3절. 지리환경을 통해 본 양지면과 송문리 • 028
- 4절. 항공사진을 통해 본 송문리 • 039
- 5절. 송문리 산업환경 변화 • 047

2장 송문리 생활·민속·놀이

- 1절. 송문리 일생의례 • 066
- 2절. 송문리 세시풍속과 의·식생활 • 078
- 3절. 송문리 종교와 교육 • 108
- 4절. 송문리 민간신앙과 구비전승 • 132

3장 독성·죽능리 공동체와 문화유산

- 1절. 송문리 세거성씨와 인물 • 152
- 2절. 송문리 마을조직 • 165
- 3절. 송문리 근·현대 인물 • 199
- 4절. 송문리 문화자원 및 문화유산 •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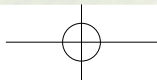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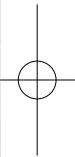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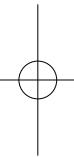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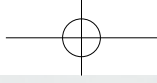
4장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민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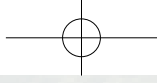
- 바빠서 저승사자도 물리친 버들고리 장인
김계일 선생 • 221
- 반정마을에서 삶을 일군 어린 농사꾼 송문3리
류장희 선생 • 229
- 장애의 역경을 딛고 인장(印章)을 새긴
류희송 선생 • 249
- 역동적인 삶 속에서 피어난 구심점 송문2리
송철재 선생 • 265
- 살맛 나는 삶을 살고 계신 서각(書刻)가 산촌
송병우 선생 • 285

5장 마을 전경과 이모저모

1. 하늘에서 본 송문리 • 296
2. 송문리 국채보상운동 자료 • 306







1

송문리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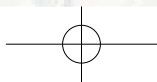
1절, 송문리 마을연혁

2절, 송문리 마을지명 유래

3절, 지리환경을 통해 본 양지면과 송문리

4절, 항공사진을 통해 본 송문리

5절, 송문리 산업환경 변화





I. 송문리 마을연혁

송문리(松門里) 마을 연혁

송문리는 양지면에 속한 리(里) 가운데 하나로 양지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양지리와 남곡리에 접하고 남쪽은 동부동으로 구 용인읍의 운학동에 닿는다. 서쪽은 역시 동부동으로 구 용인읍의 신평리로 이어지고, 송문리의 북쪽은 주북리로 연결되고 있다.

송문리는 42번 국도가 동서로 관통하며 도로 북쪽으로 양지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경안천으로 들어간다. 42번 국도의 남쪽에는 반정마을이 있고 서쪽에는 정문마을이 있으며, 42번 국도와 양지천의 북쪽에는 송동마을이 있다. 반정과 정문마을은 전주 류씨(全州 柳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송동에는 야성 송씨(冶城 宋氏)가 집중적으로 거주했는데 두 성씨 이외의 유력한 성씨는 없는 편이다.

용인이 산업화로 들어가기 이전인 전통적 농업사회였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반정마을은 50여 호 가운데 약 30여 호가 전주 류씨이고, 정문은 약 20여 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주 류씨였다고 한다. 송동은 야성 송씨 집성촌으로 30여 호가 넘는 주민 가운데 역시 절반 정도가 야성 송씨였다고 한다.

송문리는 42번 국도와 양지천이 동서로 흐르는 이천과 용인 방향은 개방되어 있고 송



동마을의 북쪽은 주북리와 경계를 이루며 낮은 구릉이 동서로 이어지고 있다. 남쪽의 반정마을은 마을 입구인 북쪽을 제외하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동남쪽으로 가장 높은 산인 형제봉에서 흘러내린 능선과 골짜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으나 형제봉은 행정구역상 운학동에 속한다.

42번 국도는 용인에서 양지를 지나 이천으로 연결되며 양지천 건너 송동마을 앞에도 과거 수여선(水驪線) 철도가 지나던 길이 마을 안길로 조성되어 있다. 송문리 북쪽의 소롱골에서 동쪽의 양지장례문화원 방향으로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송동마을에서 북쪽 주북리로 가는 작은 농로와 반정마을에서 남쪽의 운학동 어둔이 마을로 가는 비포장 농로가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송문리는 본래 양지현 주서면(朱西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반정리와 정문리, 송동의 일부를 합치고 송동과 정문의 명칭을 따서 송문리가 되었고, 내사면에 편입되었으나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식 지명을 정비할 때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는 양지면 송문리가 되었다.

<구술인 : 유장희(80), 송병우(67), 유희송(77), 송철재(70), 이상욱(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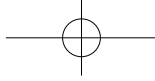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II. 송문리 마을지명 유래

반정(盤亭)

송문리에 딸린 마을 가운데 하나로 송문리에서 으뜸 마을이다. 반정이, 반쟁이라고도 부르며 마을 뒤편에 주변보다 높은 곳에 큰 소나무 밭이 있어서 그 형국이 소반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반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반정이라 불리는 곳에는 송문리 전주 류씨 문중의 입향조(入鄕祖)인 목계공 류복립 선생의 5대손 묘가 있다고 하며 족보나 가승(家乘)에는 반곡(盤谷)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반곡을 우리말로 옮기면 소반골이 되는데 풍수상으로 금반형(金盤形)의 길지라고 전해지고 있다.

금반형은 큰 부자가 나거나 인물이 나는 명당이라고 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금반형으로 전해지는 명당이 존재하는데 반정마을의 반곡도 그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마을에서 금반형이라는 명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난리통에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란지라는 설명은 있는데 실제로 6.25사변 때도 마을이 폭격을 당해 집이 부서지거나 인명이 상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전한다.



송동(松洞)

송문리에 딸린 마을의 하나로 굴안, 구란이라고 한다. 마을에는 송씨가 많이 살고 있는데 마을 일대에 소나무가 많아서 송문이라고 하였다고도 하고 마을에 나무전을 개설하고 솔문을 세웠기 때문에 송동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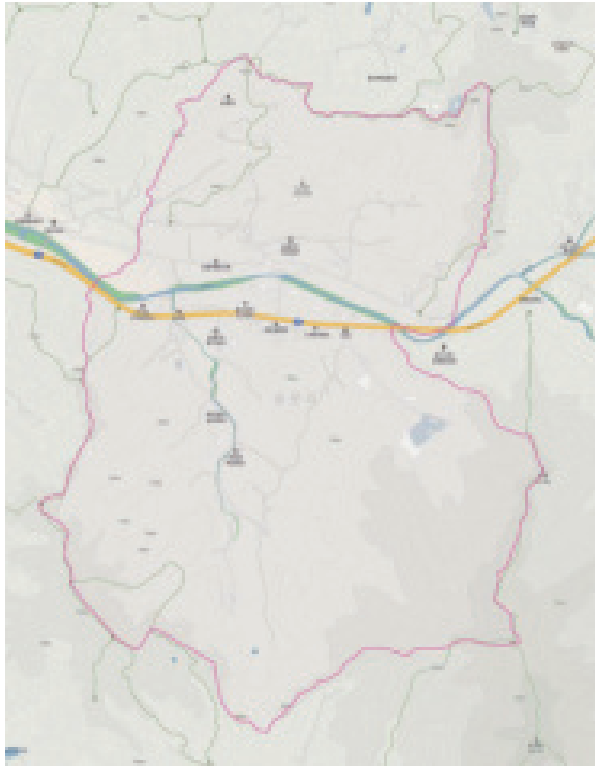
소나무가 많아서 송동이라고 불렀다는 유래는 송동(松洞)의 한자표기를 그대로 글자풀이 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없는 마을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송문리 안에서는 반정마을이 송동보다 소나무가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송동(宋洞)이라고 표기했다면 송씨가 많이 살아서 생긴 이름이라는 풀이가 나왔을 것이고, 송동이 야성 송씨 집성촌이니 오히려 맞는 표기가 됐을 것이다. 따라서 송씨들이 많이 살아서 송동이라고 했는데 한자표기를 송(松)으로 쓰는 바람에 위와 같은 설명이 나왔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

굴안은 굴(窟)속이 아니라 골[谷]안, 즉 골짜기 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풀이가 된다. 원삼면 두창리의 골안이나 호동의 구람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모두가 골짜기 안에 있다는 뜻이다. 송동은 송씨마을로, 골안은 골짜기 안쪽에 있는 마을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풀이라 할 것이다.

정문(旌門)

송문리에 딸린 마을 가운데 하나로 정문말, 또는 정말이라고 한다. 마을 가운데 임진왜란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충신 류복립장군과 후손 류순의 처 안동권씨의 정려각이 있으므로 정문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정문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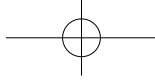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향교가 있는 곳은 향교말, 서원이 있으면 서원말로 부르는 게 일반적인 것처럼 열녀정문이나 충신, 효자 정문이 있는 곳은 대부분 정문거리나 정문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송문리의 정문(마을)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다.



송문리 지도/ 다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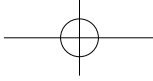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속지명

- ▶가는골 : 반정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강당터 : 마을 중앙에 있는 터. 강당이 있었다고 함.
- ▶갱변(별) : 송동마을 입구에 있던 별판. 예전에 양지천이 갈라져 흐르며 섬처럼 남아 있던 둔치로 하천 정리로 육지가 되어 크로바 가방 공장이 있던 곳임.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소를 내다 매거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던 곳이라고 함.
- ▶검은골(곡) : 송문리에 있는 골짜기.
- ▶골밭(들) : 송동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옷말 안쪽이 됨.
- ▶구란(마을) : 송문리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로 맞은 편 남쪽 형제봉에 굴이 있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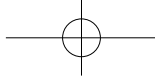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굴에서 내려다보면 송동 마을만 보인다고 하여 굴안이라고 부른다고 함. ≡ 굴안, 굴안이, 송동.

- ▶굴안뜰(뜰) : 송동마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굴바위(바위) : 송문리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굴이 있음. 형제봉 아래편이 됨.
- ▶그네보(보) : 송문마을 남쪽 양지천에 있는 보. 송동교 상류쪽으로 국제농기구 뒤편이 됨. ≡기네보
- ▶남평뜰(뜰) : 송문리에 있는 들.
- ▶너마지기뜰(뜰) : 반정마을과 양지짜말과 중간에 있는 들.
- ▶노적산(산) : 송동마을 뒤편 북쪽에 있는 산.
- ▶노적산꼴(골) : 송동마을 뒤편 노적산 아래 있는 골짜기.
- ▶당골(골) : 반정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산제당이 있었음. 씨엔시스템 서쪽편이 됨.
- ▶당모랭이뜰 : 송문리에 있는 들. 마을 모퉁이에 있음.
- ▶대명골 : 반정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방통골 왼편이 됨. 지금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음.
- ▶도장골 : 송동마을 동북쪽 골밭 안쪽에 있는 골짜기.
- ▶동갱이꼴(골) : 송봉마을 북쪽 노적산 우측 아래편에 있는 골짜기.
- ▶동산들(뜰) : 마을 뒤편 동남쪽에 있는 들. 밧동산과 안동산의 가운데 있음.
- ▶뒤틀봉(산) : 반정마을 동쪽에 있는 산. 형제봉 줄기가 됨.
- ▶뒤틀동산(산) : 반정마을 동남쪽에 있던 작은 산.
- ▶뒤틀번던뜰(뜰) : 송문리 동쪽 송문 다리에 인접된 들.
- ▶때꼴(골) : 송동마을 동쪽 끝 양지 방향에 있는 골짜기. 코다리 음식점이 있는 부근임.
- ▶매봉재(산) : 송문리에 있는 산.
- ▶명에보(보) : 정문마을 북쪽 양지천에 있는 보.
- ▶명에터(뜰) : 정문마을 북쪽 양지천 건너편에 있는 들. 양지천 건너 송학빌라 사이가 됨.



- ▶ 물방거리(터) : 송동마을 입구 동쪽에 있는 터.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함. 지금은 외딴집이 있음.
- ▶ 물탕꼴(골) : 반정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약물터가 있었음. 어둔이꼴 오른쪽에 있음.
- ▶ 반정(盤亭)(마을) : 송문리에서 가장 큰 마을. ≡ 반정이, 반쟁이.
- ▶ 반쟁이(마을) ≡ 반정.
- ▶ 반정3교(다리) : 반정마을도 들어가며 첫 번째 있는 다리.
- ▶ 반정5교(다리) : 반정마을 안쪽 마을회관 남쪽에 있는 다리.
- ▶ 밧동산(터) : 반정마을 동북쪽에 있는 터. 전주류씨 집안의 묘소가 있음. 바깥쪽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으로 안동산과 대칭되는 이름임.
- ▶ 밤송이뜰(들) : 정문 마을 앞 동쪽 편에 인접한 들.
- ▶ 방동꼴(골) : 반정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방씨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함.
- ▶ 별구란(마을) : 구란마을 남쪽 별판에 있는 마을.
- ▶ 변소꼴(골) : 반정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화토꼴 오른쪽이 됨.
- ▶ 붓당꼴(골) : 반정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변소꼴의 오른쪽에 있음.
- ▶ 베틀못(연못) : 반정마을 서쪽 당골에 있던 연못. 가물 때 파면 비가 온다고 함. 깊게 파면 명주실이 한 꾸러미가 들어가며 은베틀, 금베틀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음. 깊게 파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는 전설이 있다고 함.
- ▶ 사청골(골) : 송문리에 있는 골짜기.
- ▶ 산제사골(골) : 송동마을 동쪽 큰 석박골 입구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산제사를 지내던 산제당이 있었다고 함.
- ▶ 상막터(터) : 송동마을 동북쪽 큰 석박골 입구 오른쪽 아래편에 있는 논. 태버던 아래편이 됨.
- ▶ 서낭당고개(고개) : 변소골에서 오얏골로 넘어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 섬뜰(들) : 반정마을 입구에 있는 들.



- ▶**섬말(골)** : 송동 북쪽 소룡골 고개 오른쪽 아래편에 있는 골짜기. 전주 류씨 재실이 있음.
- ▶**섬배미(논)** : 반정마을 안쪽에 있던 논, 논 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소나무가 심겨져 있었다고 함. 일대가 배의 형상이어서 돛대 삼아 심었다고 함.
- ▶**소당바위(바위)** : 큰가골에 있는 바위.
- ▶**소룡골(골)** : 송동 마을 서북쪽 신평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 마을 뒤편 능선 넘어 있음.
- ▶**소룡골고개** : 송동마을 서북쪽 소룡골로 넘어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쇠재(터)** : 큰가골에 있는 터. 홍씨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함. 홍씨 집안에 장사가 나서 용마난골에서 용마가 났는데 아기장수를 놀려 죽인 후 홍씨 집안이 망해서 나가고 후에 류씨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함.
- ▶**송동(松洞)(마을)** ☞ 구란.
- ▶**송동지골(골)** : 반정마을에 있는 골짜기. 방동골의 오른쪽이 됨.
- ▶**송문교(다리)** : 송동마을 입구 양지천 위에 있는 다리. 예전에는 섣다리가 있었다고 함.
- ▶**송릉원(묘지)** : 송동마을 소룡골고개 넘어 주북고개 부근의 야성송씨 문중 묘원. 입향조부터 후손들의 묘가 나란히 조성되어 있음.
- ▶**쉬구덩이(논)** : 별구란에 있던 논. 수령이 있어서 빠지면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함.
- ▶**쉬구덩이(논)** : 소룡골에 있던 논. 수령이 있었음.
- ▶**승지골(골)** : 정문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신평리 방향이 됨.
- ▶**숫가마골(골)** : 반정마을 남동쪽에 있는 큰가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숫가마가 있었음.
- ▶**시역목(터)** : 송문리에 양지 방향으로 나가는 장례식장 입구 부근의 병목같이 좁아지는 길목. 겨울에 바람이 매섭고 주막이 있었다고 함. 여름철에도 막걸리를 데워 먹는 곳이었다고 전함. ☞ 시영목
- ▶**아랫말(마을)** : 송동마을에서 서쪽 편을 가리키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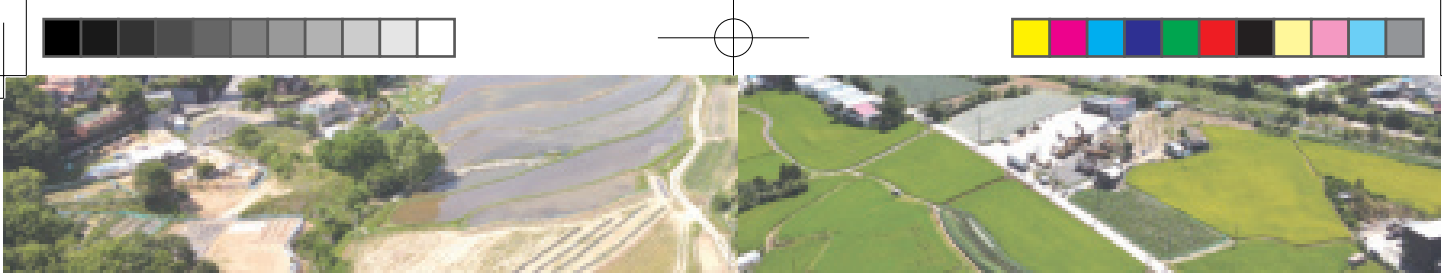


- ▶ 안쿠란(안굴안, 안구란)(마을) : 송동마을 안쪽에 있는 마을.
- ▶ 안동산(산) : 송문리에 있는 산. 실제로는 산이 아니고 평지보다 조금 높은 지형으로 전주류씨 집안의 묘소가 있음. 풍수상 금반형의 길지로 반정의 유래가 생긴 곳이라고 함. ☞반정(盤亭), 반곡(盤谷).
- ▶ 앞산(산) : 반정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
- ▶ 양지짜말(마을) : 반정마을 입구 양지편에 있는 마을. 반정마을의 일부로 4~5집이 있었음.
- ▶ 어둔이고개(고개) : 반정마을 남쪽 어둔이골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운학동 어둔이마을이 됨.
- ▶ 어둔이골(골) : 반정마을 남쪽 어둔이 마을 방향에 있는 골짜기. ☞어두니골.
- ▶ 오얏골(골) : 반정마을에 있는 골짜기 오얏나무가 있었음.
- ▶ 옷물(샘) : 반정마을 서쪽 당골에 있던 샘. 옷나무는 없어지고 샘의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함.
- ▶ 옷물(샘) : 송동 북쪽 섬말 옆에 있는 샘. 예전에 마을 사람들 식수로 옷나무가 있었음.
- ▶ 용마난골(골) : 반정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용마가 날아갔다고 함.
- ▶ 용마바위(바위) : 용마난골에 있는 바위. 용마가 날아가며 바위가 갈라졌다고 함. ☞용마난 바위.
- ▶ 옷골(골) : 반정마을 서쪽에 인접한 골짜기. 방통골 오른쪽이 됨.
- ▶ 옷골뜰(뜰) : 옷골에 있는 뜰.
- ▶ 옷뭇뜰(뜰) : 송동마을 남쪽 남곡리 방향으로 인접한 뜰.
- ▶ 옷말(마을) : 송동마을에서 동쪽편을 가리키는 이름.
- ▶ 위터골(골) : 송동마을 서북쪽 소룡골 고개 왼편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가골(골) : 반정마을 남동쪽 큰가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석박골(골) : 송동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오얏골(골) : 주막거리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장구배미(논) : 반정마을 입구 첫번째 다리 건너편에 있던 논. 장구모양으로 생겼음.
- ▶장수바위(바위) : 오얏골에 있는 바위.
- ▶재넘어밭꼴(골) : 송동마을 뒤편 노적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정문말(마을) : 정문, 정말. 정려말.
- ▶정문안꼴들(들) : 정문마을 남서쪽에 인접한 들.
- ▶주막거리(마을) : 반정마을 입구 동쪽 42번 국도에 인접한 마을. 주막이 있었음. 반정마을 입구에서 고박사냉면 일대가 됨.
- ▶주막거리뜰(들) : 주막거리에서 42번 국도 북쪽 건너편에 있는 들.
- ▶주북고개(고개) : 송동마을 북쪽 소룡골 고개 넘어 주북리와 경계를 이루는 고개. 야성송씨 문중 묘원인 송릉원 옆이 됨.
- ▶중보뜰(들) : 송동마을 아랫말 북쪽에 있는 들. 신평리와 경계가 됨.
- ▶진골(골) : 반정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붓당꼴의 우측이 됨.
- ▶큰가꼴(골) : 반정마을 남동편에 있는 골짜기. 형제봉 아래편이 됨. 큰골과 숫가마꼴이 있음.
- ▶큰골(골) : 큰가꼴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왼편에 있음.
- ▶큰석박골(골) : 송동마을 굴안들 서북쪽에 인접한 골짜기.
- ▶큰오얏골(골) : 반정마을 입구 주막거리 동남쪽 골짜기. 한컴라이프케어 공장이 있음.
- ▶태버던(번던) : 송동마을 동북쪽 큰 석박골 입구 오른쪽 아래편에 있는 밭.
- ▶덧말꼴(골) : 송동마을 북쪽에 인접한 골짜기.
- ▶화토꼴(골) : 반정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활터(터) : 반정마을 남쪽 앞산 아래 있던 터. 활을 쏘던 곳이라고 함.

 정양화



III. 지리환경을 통해 본 양지면과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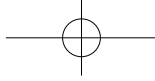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1) 양지면 위치와 일반 환경

양지면은 용인특례시에 속한 3개 면 가운데 하나로 동쪽 끝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광주시 도척면과 용인특례시 포곡읍에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이천시 마장면과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용인특례시 동부동과 원삼면과 경계를 이룬다. 서쪽으로는 용인특례시 유림동, 동부동과 접하고 있다.

양지면의 수리적 위치는 양지면 평창리 도창 동쪽 끝이 동단(東端)이다. 서단(西端)은 양지면 주북리 숲원이 서쪽 끝이다. 남단(南端)은 양지면 남곡리 어둔봉 남서사면 끝이다. 북단(北端)은 양지면 대대리 말치 고개 끝이다.

2022년 11월 현재 용인특례시 행정체계는 3구(처인·기흥·수지구), 4읍(포곡·모현·이동·남사읍), 31동, 3면(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31동(洞) 가운데 처인구에 속한





동은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등 5개 동이다. 기흥구에 속한 동은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보정동 등 15개 동이다. 수지구에 속한 동은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 성북동 등 11개 동이다. 양지면(陽智面)은 용인시 처인구에 속한 면(面)지역으로 백암면, 원삼면과 함께 3개면 가운데 하나다.

양지면은 10개 리(里)로 구성되어 있다. 양지리, 남곡리, 평창리, 제일리, 추계리, 식금리, 정수리, 대대리, 주북리, 송문리가 이에 해당된다.

인구총계로 보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2022년 10월말 현재 1,093,194명(남 543,644명, 여 549,550명)이다. 각 구별로 보면 각각 처인구 270,211명, 기흥구 442,987명, 수지구 379,996명이다. 처인구 인구는 용인시의 24.7%에 해당한다.

처인구에서 각 읍면동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유림동 36,652명 포곡읍 34,374명 역북동 32,481명 모현읍 28,138명 중앙동 26,781명 남사읍 24,448명

이동읍 21,668명 양지면 21,071명 동부동 13,956명 삼가동 12,631명 백암면 9,373명 원삼면 8,638명 순이다.

양지면은 12개 읍면동 가운데 8번째 인구에 해당되며 처인구 전체로 볼 때 7.8%에 해당하는 인구다. 최근 원삼 SK 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등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호재가 있음에 따라 인구 증가와 순위는 매우 유동적이며 인구 증감 역시 크게 영향을 받는 추세다.

면적으로 살펴보면 용인특례시는 591.23km²로 서울특별시 면적 605.02km²의 97.72%에 해당한다. 각 구별로 보면 처인구는 467.57km² (79.08%), 기흥구 면적은 81.6km²(13.80%), 수지구 면적 42.1km²(7.12%)에 해당한다. 처인구 면적이 용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인구와 구별 면적을 대비해 볼 때 처인구는 면적 대비 인구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면적은 79.08%인 반면 차지하는 인구는 24.7%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밀집

도와 도시화 비율이 기흥구와 수지구보다 매우 낮다는 점을 말해 준다.

양지면을 살펴보면 면적이 57.6km²다. 양지면만으로도 수지구 면적(42.1km²)보다 훨씬 크다. 경기도에선 부천시 면적이 53.4km²로 그나마 양지면과 비슷한데 인구는 2022년 11월 현재 81만 명이 넘으니 얼추 40배에 달하는 지경이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양지면은 여전히 농촌형 저밀도 지역공동체라는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2) 양지면 리별 면적과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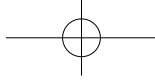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양지면 전체면적은 57.6km²다. 리별로 살펴보면 대대리가 9.5km²로 약 16.4%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남곡리 8.7km², 주북리 7.4km², 평창리 6.7km², 양지리 5.4km², 식금리 5.0km², 제일리 4.8km², 송문리 4.6km², 추계리 4.1km², 정수리 1.8km² 순이다.

양지면 인구 및 세대현황과 면적을 리(里) 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 11. 1. 기준, 단위 : 명)

구분	인구수			세대수	면적(%)
	계(%)	남	여		
총계	20,536(100)	11,081	9,455	9,370	57.6km ² (100)
양지리	5,639(28)	2,966	2,673	2,815	5.4km ² (9.3)
남곡리	5,951(29)	3,266	2,685	2,986	8.7km ² (15.1)
평창리	2,387(12)	1,218	1,169	780	6.7km ² (11.6)
제일리	2,176(11)	1,269	907	729	4.8km ² (8.3)
추계리	499(2)	262	237	251	4.1km ² (7.1)
식금리	495(2)	319	176	177	5.0km ² (8.7)
정수리	208(1)	111	97	108	1.8km ² (3.1)
대대리	1,069(5)	544	525	465	9.5km ² (16.5)
주북리	1,291(6)	689	602	648	7.4km ² (12.8)
송문리	821(4)	437	384	411	4.6km ² (8.0)

*통계자료 제공 : 양지면 총무팀



양지리는 양지현(縣) 당시부터 치소가 있던 수부로서의 위상과 전통이 이어오며 당당히 양지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사회 공교육 기관의 중심이었던 양지향교를 비롯해 양지면행정복지센터, 양지면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양지소방소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 양지리에 밀집해 있다. 양지초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양지신협, 용인농협 양지지점 등 준 공공기관도 양지리에 소재한다.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양지IC가 있고 CJ양지 물류센터 등 교통과 물류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도 양지리다. 양지마을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 단지 외에도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 속속 준비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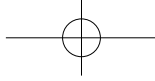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리별 마을명

통(리)별		마을명	통(리)별		마을명	통(리)별		마을명
양지	1리	교 동	남곡	1리	용 곡	식금리	식 송	
	2리	서 촌		2리	평 대		정수리	정 수
	3리	암 곡		3리	은 이	대대		1리
	4리	등 촌		4리	-		2리	하 리
	5리	학 촌		5리	-		3리	사기점
	6리	교 동	1리	평 촌	4리		음달안	
	7리	교 동	평창	2리	도 창	주북	1리	박 성
	8리	교 동		3리	-		2리	임 원
	9리	서 촌		4리	-		3리	가 장
	10리	서 촌	제일	1리	산매동		4리	고래실
	11리	서 촌		2리	개나리		5리	배 실
	12리	서 촌		3리	삼성전원		6리	-
	13리	교 동	추계	1리	외추계	송문	1리	정 문
	14리	다락골		2리	내추계		2리	송 동
							3리	반 정

남곡리는 42번 국도를 기준으로 양지리와 마주하는 남쪽지역이다. 인구가 2022년 11월 1일 현재 5,951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양지면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규모다. 8.7㎢의 면적은 양지면 전체의 15.1%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큰 리 단위이다.

남곡리는 천주교 성지에 다름 아니다. 양지성당, 골배마실 성지, 은이성지, 신덕고개 등 우리나라 천주교회사에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공간과 시설이 남곡리에 밀집해 있다. 또 한 축은 양지과인리조트다. 골프장과 스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종합레저단지라 할 수 있다. 많은 빌라단지와 저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앞으로 용인경남아너시빌 아파트 등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보이는 마을이다.

평창리는 양지면의 동남부에 위치해 이천 그리고 원삼면과 접하고 있다. 2022년 11월 현재 인구 2,387명으로 양지면의 12%이며 면적은 6.7㎢로 11.6%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면적 비율이 가장 근사치에 있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지산CC 일부가 속해 있는데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전원주택단지라 할 수 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국내 1번지라 할 만큼 오랜 역사와 많은 가구 수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는 영동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그리고 안온한 입지 여건과 근거리에 골프



장과 레저시설이 있다는 점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창리는 원삼면과 맞대고 있는데 좌찬고개를 경계로 물길이 갈려 평창리는 독조봉(432m)에서 발원하는 북하천의 상류이기도 하다. 북하천은 이천방향으로 흘러 남한강에 합류하는 만큼 수질오염총량이 적용되는 관리지역에 속해 각종 규제가 따르는 권역이다. 최근 대규모 물류센터와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제일리는 2022년 11월 현재 인구 2,176명(양지면의 11%)이 거주하고 있다. 4.8km² 면적으로 8.3%를 차지하는 곳이다. 양지리와 추계리, 평창리 사이에 위치해 형제봉과 미륵산이 남쪽으로 펼쳐지고 진산격인 금박산을 이고 있는 고장이다.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가 제일리에 있으며 제일초등학교도 있다. 교통이 원활했던 이곳은 물류 교환도 이끌어 간이장터가 서기도 했는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현 용인농협 발상지가 바로 제일리다. 이미 1935년경 동부 4개리 중심지 역할을 하던 제일리에 ‘동부저축조합’이 만들어졌던 마을이다. 선유대(仙遊臺)도 제일리를 대표하는 곳인데 신선이 노닐던 곳이란 뜻을 담고 있다. 고급전원주택가 역시 제일리를 상징하는 곳 중 하나다.

추계리는 2022년 11월 현재 인구가 499명에 불과하다. 양지면 전체의 2%에 해당한다. 면적은 4.1km²로 7.1%를 차지한다. 인구밀도가 양지면 내에서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추계 추씨(秋溪 秋氏)가 바로 양지면 추계리를 관향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 기독교순교자기념관이 있는데 이는 기독교 전래 100주년을 기념해 추계리에 건립했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송병준이 기거했던 ‘송병준 별저’가 있었으나 지금은 영화지(榮華池)라는 연못과 정자 주춧돌만 남아있고 별저는 허물었으며 그 자리엔 양지온누리 교회가 들어서 있다. 원주민들보단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온 유입주민들이 더 많다.

식금리는 2022년 11월 현재 49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양지면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면적은 5.0km²로 전체의 8.7%에 해당한다. 이천시 마장면과 접해있는 경계마을이다. 식금리는 대부분이 산지지형으로 금박산, 오봉산, 금백산, 뒷산, 몸포댕이산, 보현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그 가운데 당골산(250m)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인가는 식송마을과 골골이 자리잡은 전원주택이 대부분이다.



정수리는 2022년 11월 현재 인구 수가 208명에 불과하다. 면적 또한 1.8km²로 양지면 전체 면적의 3.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는 지리적 특성에 연유한다. 북동쪽 끝에 자리한 용인의 ‘하늘 아래 첫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고립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와 접하고 있는 정수리는 대부분 법정리가 몇 개의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 반면 정수리는 한 마을이 법정리 그 자체다. 지형적으로도 금박산과 정수산, 그리고 광주 태화산에 둘러싸여 늦게 해가 뜨고 일찍 해가 저 일조권이 가장 짧은 마을이다.

최근 수도권제2고속도로 화성-광주간 노선이 준공된 가운데 마을을 관통하고 인근 광주시 도척에 IC가 생기면서 교통 편의성이 좋아져 그간 폐쇄적 공간 구조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주변은 전원주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대대리는 2022년 11월 현재 1,069명이다. 면적은 9.5km²로 양지면의 16.5%를 차지한다. 한터로 널리 알려진 대대리는 마구산(말아가리산, 595m), 태화산(641m)과 연결된 정수산(395.9m)이 진산이라 할 수 있다. 그 축을 중심으로 ‘Y자형’의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 한터계곡은 포곡 금어리와 등을 대고 있으며 조랑말농장이 유명하다. 한터저수지와 한터초등학교가 있는 한터로에는 카페와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아시아나CC 대부분은 대대리에 속한다.

주북리는 2022년 11월 현재 1,291명으로 양지면 6%의 인구가 살고 있다. 면적은 7.4km²로 12.8%를 차지한다. 양지면은 크게 42번 국도라인과 주북천·대대천 라인으로 구분되는데 주북·대대·정수리를 묶어 ‘3북’이라 칭한다. 이는 지리적 자연환경과 더불어 한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군’도 영향을 미쳤다. ‘3북’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삼북체육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삼북체육공원 또는 한터초등학교에서 매년 ‘삼북체육대회’를 열어 단합을 과시하곤 한다.

주북리는 최근 가장 급격히 외양이 변하는 마을이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 휴게소가 있기도 한데 최근 포천-세종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JCT(합류입체교차지점)가 바로 마을에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송문리 현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3) 양지면과 송문리 하천과 지형적 특징

흔히 ‘물 길이 다르면 인심도 다르다’고 한다. 물길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물길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양지면에는 세 개의 수계(水界)가 있다. 북하천 수계와 경안천 수계, 노곡천 수계다. 북하천은 양지면 평창리 독조봉에서 발원해 평촌천이 되는데 제일리에서 북하천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공새울천, 공새울1천, 산매동천, 평촌천, 도창천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다시 추계리 내추계천과 식금리 식송천을 합류한 후 이천시 마장면에 들어서게 된다, 마장면 오천천을 만나면서 하천 폭이 제법 강의 모습을 갖춘다. 이천시와 여주시의 곡창지대를 두루 거친 물길은 마침내 여주 홍천면 계신리에서 남한강에 합류해 그 명칭을 소멸한다. 즉 용인시-이천시-여주시로 이어지는 하천이다.

반면 경안천은 양지리에서 시작하는 양지천과 정수리와 대대리를 경계로 대대천에서 남하해 주북천과 만난 후 고림동에서 경안천 본류에 합수된다. 정수리는 또 다른 수계를



가지는데 노곡천이다. 광주도척저수지를 거쳐 곤지암천으로 흘러가는데 용인시계 안에선 매우 짧은 구간에 불과하다. 길이로 보자면 경안천 수계가 가장 길고 북하천, 노곡천 순이다.

그럼 이처럼 양지면에서 3갈래의 수계가 형성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하천은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단층선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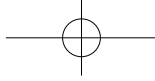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 수로와 평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단층(斷層, fault)은 암석이 힘을 받아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어긋난 구조를 말한다. 용인에는 4개의 단층이 있다.

단층에 따라 분수령(分水嶺) 또는 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하는 까닭에 용인에는 기본적으로 4개 단층을 기준으로 각각 물길이 갈린다고 보면 된다. 첫째 신갈단층은 신갈동 양고개를 지나는데 이를 기준으로 북류하는 탄천과 남류하는 신갈천(오산천)으로 갈린다. 분수계가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인 셈이다. 두 번째로 용인단층은 용인시를 거의 남북으로 관통한다. 이동읍과 남동 경계를 이루는 무너미고개가 그 중심인데 이를 기준으로 북류하는 경안천(김량천)과 남류하는 진위천(송전천)이 나뉜다. 분수계는 무너미고개다. 세 번째 단층은 원천단층이다. 청명산맥계가 그 중심인데 신갈동과 영덕동을 나누는 돌고개(석현)을 분수계로 하여 서남류하는 영덕천은 영통을 거쳐 황구지천으로 흘러들며 결국 황해로 흐른다. 마지막으로 정수·원삼단층이 있다. 정수단층은 금박산 일대로 하여 경안천과 노곡천의 물길을 가르고 원삼단층은 독조봉, 급등고개, 문수산, 쌍령산으로 이어지며 분수계 역할을 한다. 독조봉에서 발원하는 물길은 청미천과 북하천 양쪽으로 갈리는데 그 분수계는 좌천고개로 볼 수 있다. 문수산을 넘어가면서 물길은 북류하는 경안천과 남류하는 한천(안성천)으로 갈린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수산과 쌍령산 산령을 기준으로 원삼방면은 각각 학일리의 학일천, 문촌리의 내천·고초천, 고당리의 고당천(안산천·젯말천·고당1천이 합류해 형성)이 있으며 이 물줄기는 결국 한천을 만들어 안성천으로 합류한다.

4) 송문리 일원 지리환경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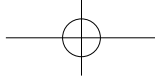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송문리는 양지면의 서남쪽 끝에 위치해 있는 관문이다. 용인 횡축라인의 중심이랄 수 있는 42번 국도가 마을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2022년 11월 현재 인구는 821명으로 양지



송문리 / 네이버지도

면 전체의 4%를 차지한다. 면적은 4.6km²인데 이는 양지면의 8.0%에 해당한다. 인구대비 면적비율이 2배인 만큼 주민 밀집도는 낮은 편이다. 송문리는 마치 양증맞은 울췌미가 앉아있는 형상이다. 북쪽(송문2리, 송동)이 머리에 해당하고 남쪽(송문3리, 반정)은 꼬리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지형상 남북이 높고 서쪽이 개방되어 있는 형국인데 북쪽은 태봉산(275.7m) 줄기인 노적산(168.5m)과 동쪽 된봉(313.4m), 동남쪽 형제봉(453.6m), 남쪽 국사봉(346.7m)이 이어지며 듅직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수리적 위치로 보면 송동마을이 경도 127° 15'이며 위도는 37° 13'이다.



인문지리적 환경을 보면 용인이 한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는 조선시대 여주 영릉으로 가는 임금님 행차 길에 송문리가 있었다. 한양-양재-과천-수지-보정-구성-어정-김량-양지-죽산-충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가 마을을 통과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서의 가치는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는데 1930년에 개통해 1972년까지 약 42년간 운행됐던 수여선 협궤철도 길이 바로 마을을 가로질렀다. 용인구간인 원천-신갈-어정-용인-마평-양지-제일-오천(이천)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 마평역과 양지역 사이에 송문리가 있다. 인천에서 동해까지 325.4km에 걸쳐 대한민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2번국도가 지나는 길 역시 송문리다. 최근엔 포천-세종간 고속도로가 송문리를 통과하면서 ‘길의 고장’이란 타이틀은 영원할 것으로 보인다.

반정마을을 중심으로 세거했던 전주 류씨(全州 柳氏)와 송골(송동)을 중심으로 터를 자리 잡은 야성 송씨(冶城 宋氏)는 전통적인 동족 공동체(또는 집성촌)를 상징한다. 이들의 경제적 기반은 당연히 농업이었다. 남평들, 당모랭이, 섬들, 옷골, 옷보들, 중보들 등 비교적 평야 농경지라 부를 수 있는 소지명으로 남아 송문리의 과거를 확인해 주지만 거주민이 증가함에 따른 주택 신축과 산업시설 입지 등으로 경작지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하천은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다. 북하천과 경안천이 갈리는 중요한 지점이 독조봉인데 북하천의 발원지가 된다. 경안천 수계는 마수고개가 경계가 된다. 읍내옷골천, 서촌천, 학촌천이 만나 양지리에서 양지천을 형성한 후 남곡천, 은이천까지 모아 송문리에 다다른다.

송문리 북쪽은 비교적 산세가 약하고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반면 남쪽에 위치한 형제봉은 풍수적으로 진산 역할 뿐 아니라 깊숙한 계곡에서 물길을 만들어 반정천으로 흐르도록 한다. 정문(송문리)에서 양지천에 합류한 후 신평천, 삼막천 물까지 담아 종합운동장 자리 앞에서 경안천이 된다.

 **우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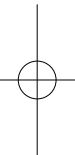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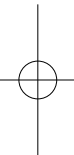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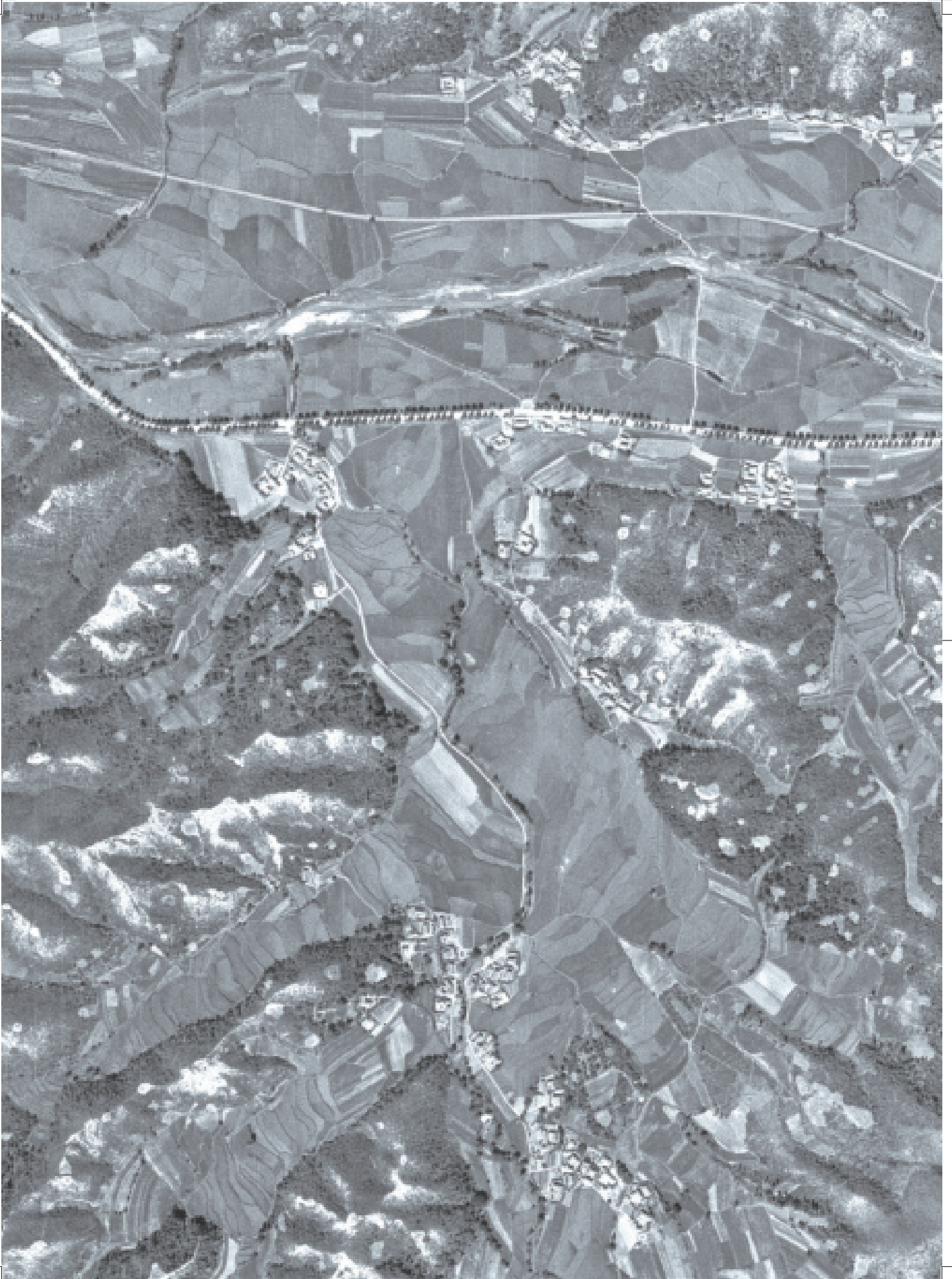
IV. 항공사진을 통해 본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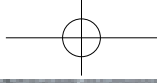
1969년 송문리 모습과 변화

인구성장과 변화는 그 지역사회의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국가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다. 특히 지역적으론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점개발방식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촌인구의 이탈을 강제적 이탈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생긴 이유다. 농업소득보다 임금노동 소득이 더 많아지면서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향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당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양지면(당시 내사면) 통계자료를 보면 1960년에는 9000명, 1966년에는 8091명, 1970년에는 709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 단위로 얼추 1천명씩 인구가 줄어 10년 만에 30%가 감소했다. 아마도 역사 이래 임란 등 전쟁과 전염병 등 엄청난 혼란기를 제외하곤 매우 이례적인 시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69년이다. 당시 마을별 통계가 없어 항공사진을 통해 볼 때 정문(송문1리)는 약 26호, 송동(송문2리) 약 25호, 반정(송문3리) 35호 정도로 추산된다. 마을 형태와 집성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정 마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과 42번 국도와 하천 그리고 수여선 철길이 나란히 동서방향 횡축으로 지나는 선명한 선이 나타난다.





1969년 송문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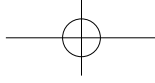


1969년 송문1리 (정문)



1969년 양지면 소재지





1969년 송문3리 (반정)



1969년 송문2리 (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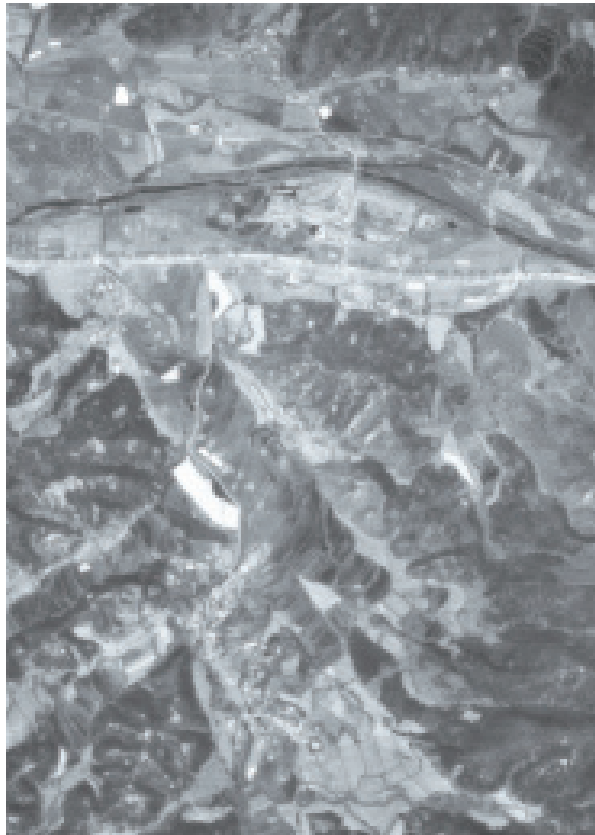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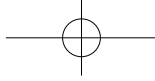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1981년 송문리 모습과 변화

60~70년대 줄곧 줄어들던 인구가 다시 반전하게 된 건 7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다. 75년 양지면 인구가 7147명으로 증가한 후 80년엔 8370명에 이른다. 송문리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몇 가지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다. 첫째, 1972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인근 양지리에 양지리조트가 들어서고 산업시설도 늘기 시작했다.

둘째, 산업시설의 입지다. 송문리에선 대표적인 것이 <크로바상사>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주로 6 (송문리 90-1외)에 자리잡은 크로바상사는 1972년 설립된 가방 제조업체로 미국 샘소나이트 가방의 국내 라이선스권을 보유해 가방을 생산했다. 사세 확장으로 1970년대 후반 송문리에 공장을 세워 가방을 생산하였다. 1990년대 중반 가방 제조를 중단할 때 까지 크로바상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항공사진을 통해 볼 때 또 다른 변화는 가옥구조의 변화와 비닐하우스 농법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가운데 지붕개량은 외관의 변화를 초래한 가장 큰 사업이었다. 초가지붕을 주로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은 오늘 날 철거에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노지재배로 농사를 짓던 작물은 온도와 비바람 등 외부 자연환경 변화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고소득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송문리 모습과 변화



1990년 중반 양지면과 송문리는 인구증감 형태가 다소 불규칙하다. 1996년 송문리 인구는 811명(세대수 252세대)이다. 다음해인 1997년에는 930명(296세대)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1998년에는 841명(267세대)로 줄었다가 1999년에는

885명(284세대)로 다소 회복력을 보인다. 그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90년대 중반 크로바상사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짐작이다. 그 밖에 송문리의 공간 환경이 전원주택이 급격히 늘만한 조건도 아닐뿐더러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와 같은 호재가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지면에서 그 시기 남곡리, 평창리, 제일리, 식금리 등 42번 국도와 17번 국도를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교통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2000년대 송문리의 변화와 미래

송문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일단 인구의 변화과정 만으로 보자면 변동성이 큰 편이다. 1997년 930명까지 증가했던 인구가 2022년 11월 현재 오히려 821명으로 줄었다. 경안천 수계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권역이란 제약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문리는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교각이 제 모습을 갖추면서 외양도 바뀌게 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일들이 생겨난다. 세계적인 대규모 산업시설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원삼에서 진행되면서 그 영향권에 드는 것은 물론이다. 용인시내 중심권역과의 지리적 이점과 57번 국지도 추진 등에 따라 아파트와 물류단지 등 개발압박도 커질 수 없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이길 바라본다.



📌 우상표



V. 양지면 송문리(松門里) 산업환경의 변화

예전에 송문리 일대에 시장을 개설하고 솔문(松門)을 세우고부터 “솔문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한자로 표기, 송문리라 하였다 전한다. 조선시대 한성에서 부산 동래까지 영남대로가 지나가는 길이니 만큼 객(客)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송문리다. 그러면서도 손을 타지 않고 오늘까지 제 모습을 간직한 마을임에 틀림없다. 생존을 위해 오가던 옛길, 지금은 목적만을 위해 변해버린 길, 하지만 기능은 여전하다. 햇빛처럼 머물다 바람처럼 가더라도 삶의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다. 송문리는 본래 양지군 주서면(朱西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반정리, 정문리, 송정 일부를 병합하여 송정과 정문의 이름을 따 송문리라 하여 양지면에 편입 되었다 한다. 42번 국도변 송주로 입구에는 의병장 류복립 묘(柳復立 墓) 안내표지판이 퇴색을 간직한 채 서 있다. 역사는 기억과 망각의 투쟁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송문리입구 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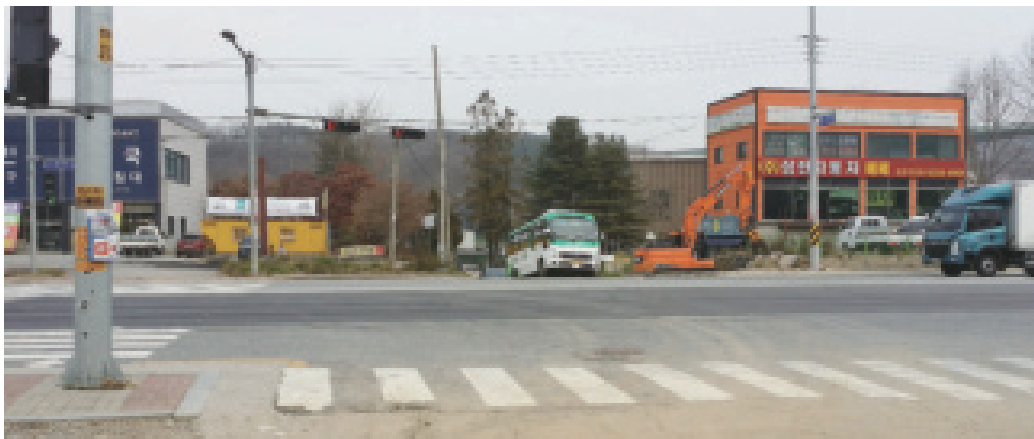
송주로 입구(류복립 묘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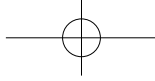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송문리는 양지면 서단에 위치하며 동부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밀집형의 상가형성은 되어있지 않은 한적한 농촌마을이다. 옛 수여선 철길을 따라 조성된 신송로 주변에 주택이 조성된 형태로 중부대로 이남에 있는 반정마을은 농업과 일부의 축산업 농가가 자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송문리는 정문, 반정, 송동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임진왜란 시기 류복립(柳復立)장군 일가가 이곳에 이주하면서 점차 커지기 시작한 마을로 불리운다. 정문(旌門)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사는 집 앞이나 마을 입구에 세우는 붉은 문을 뜻한다. 반정마을은 형제봉(453.6m) 등산로를 이용하여 운학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용인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970번 버스가 송동마을을 경유하여 추계리까지 하루 7회 운행 중이며, 식금리까지 운행하는 97번 버스가 반정마을을 경유하여 하루 8회 운행을 한다. 42번 국도로는 백암-수원을 오가는 10번과 용인-이천을 운행하는 3번 버스와 용인-청강대를 운행하는 103번 버스, 용인-원삼을 운행하는 11번 버스 등이 있다.

신송로 쪽의 주민은 교통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더구나 남곡리에서 송문리 일대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어디 가나 교통난과 주차난의 해소가 주민의 민원사항임에 틀림없다. 개발과 보전의 병행이 언제나 당면 과제로 보인다. 사실상 진척이 없는게 사실이기도 하다. 양지천을 가운데로 두고 양지 방면으로 보면 좌측에 신송로가 있고, 우측으로 중부대로 42번 국도가 나란히 자리한다.



송주로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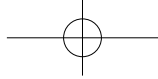


42번 국도를 따라 용인시내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신평리(마평2통)와 맞닿은 마을이 송문리이다. 양지면의 첫 동네인 셈이다. 양지천을 앞으로 보는 송동마을과 반대편의 반정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수여선 철도가 지나던 길은 이제 추억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도로변으로 가구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석재상,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이 산재해 있다. 노적산과 소룡골을 이어 봉두산(220m)이 용인 방향으로 자리하며, 반대편 반정마을 뒤로는 형제봉이 우뚝 서 있다. 1971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양지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31년 12월1일 일제의 수탈정책의 일환으로 강제 노역의 산물로 부설된 수여선은 수원역을 기점으로 용인, 양지,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의 73.4km를 달리던 열차는 1972년4월1일 폐선으로 교통의 대변환을 이루게 된다.

2021년 12월31일 현재 송문리의 인구는 417세대에 834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0-14세가 34명, 15~29세가 122명, 30~39세가 66명, 40~49세가 91명, 50~64세가 295명, 65세 이상이 226명으로 주민의 62%가 50대 이상이다. 현재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중 용인-안성 구간의 고가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도 하다. 노적산(168.5m) 인근이다. 아마도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도로건설 현장 주변



대한민국에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풍자가 있다. 이제는 전원생활은 고단한 노동이 아닐 수 없다. 힘들이지 않고는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현실은 언제나 기적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추억은 남기되, 삶의 질은 높아가며 사는 게 정한 이치일 것이다.



양지천 풍경



송문리 자전거 도로

워라벨(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과 힐링(healing:치유)이 우리시대의 키워드(key word)로 자리하고 있다. 근사한 전원형 타운하우스에 벅커형 주차장을 갖춘 집이 이곳 송문리에도 몇 군데 보인다. 인프라와 자연의 조화를 아울러 누리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송문리에는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과 단 한 곳의 병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리 단위로 병원이 서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사람이란 몸이 아프면 의료진과 시설이 우수한 가까운 병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요즘에야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다고는 하지만 노약자가 많은 동네에서는 거동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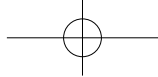
편하여 병원 방문을 미루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편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기흥구나 수지구는 공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수도권에서도 인기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처인구 읍. 면 지역의 주민들은 문화인프라 복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산하에 경제환경위원회가 있다. 용인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소통과 협조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있다. 물론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피부에 와닿는 기회가 생겨 나갈 바랄 뿐이다.

1. 농업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업경제를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왔으나 잘못된 관료사회와 착취구조 때문에 농민들은 언제나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리에서 차별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얽드려 사는 고향 사람의 모습은 아직도 남아 있다. 송문리는 이제는 산간지대 형태로 농사는 기피되어 주곡 생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태가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력의 활성화가 이제는 다급한 과제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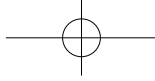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풍년이 고민”이라는 말이 들린다면 얼마나 씁쓸할 것인가. 쌀의 과도한 공급에 따라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라고들 한다. 식습관이 변하면서 밥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됐는데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벼농사를 짓고 있을 만큼 쌀 재배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요즘에 가루



를 내기 좋은 쌀인 분질미(粉質米)가 이런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보통의 벼와 수확방식이나 형태는 같지만, 그 성질이 밀과 비슷해 밀가루 공장 방식으로 빵, 면,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맵쌀을 물에 불려 가루로 만드는 방식의 전통 쌀빵은 식감이 딱딱한 단점이 있는데, 가루미는 밀처럼 바로 부스러뜨려 반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식감도 촉촉하게 개선되었다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쌀가루로 밀가루 관련 수요를 일부 대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역점 농정사업으로 내걸고 있다 전한다. 이른바 전략작물 직불 사업으로 가루쌀 혹은 밀,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재배면적(ha)당 50만-2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편성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가루쌀 산업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쌀 과잉 구조 때문이라 한다. 쌀 먹는 사람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쌀농사는 여전히 많이 짓는 탓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1년 기준 56.9kg으로, 1970년 136.4kg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한다.

농업이 다른 산업의 뒷전에서 있다는 힐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명산업이다 하면서 아무리 외쳐대도 별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농협 판매장에 가보아도 수입상품이 국산농산물과 같이 놓여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농민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하여야 하는 농협이 그저 이익창출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은 본령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농업육성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일인데, 농업정책 중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체감하기 힘들다. 다들 입만 열면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기만 한다. 청년농부들에게는 금융지원과 세제감면, 제도개선을 앞세워 지역환경에 맞는 농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이제는 양보다 질, 그리고 안전성의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 미래지향을 외쳐봐야 돌아볼 농민은 없다.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촌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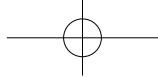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신문지상에 따르면 올 8월8일부터 11일 나흘간 용인시에 평균400mm가까운 폭우가 내렸다. 경안천 주변의 산책로나 운동기구의 시설이 파손되거나 떠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였던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과연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책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예고된 인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대응과 복구가 아무리 빨라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재난대응 매뉴얼과 전달체계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우위에 서야 한다. 이른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명무실로 끝내기 쉽다. 비교하기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송문리는 그나마 손실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어찌 되었든 삶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 작은 마을이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우리의 후손이 어떤 선택지를 택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송문리 밭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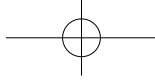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이곳은 1960년대 이전에는 그저 한적한 농촌마을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대추가 많이 산출되어 충북 보은 다음으로 대추산지로 유명하였다하나 지금은 대추나무 보기가 어렵다.

송문리는 골짜기와 들로 이루어진 묘한 동네이다. 마을중 가장 큰마을은 반정마을이다. 당모랭이나 섬들은 들판을 이르는 말이다. 송문1리 마을회관 입구부터 형제봉 밑으로 걷다보면 반정3교쯤부터 배추,과,무 농사를 짓는 곳이 다소 있으며, 안쪽으로는 요양원(백만송이 실버케어)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뒤쪽으로는 현대모비스품목지원센터와 GS리사이클링 등 창고, 공장이 복합되어 있으며 수량이 적은 개천이 흐르고 있다. 염소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기도 하다. 더 올라가 보면 반정5교를 지나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노인정 부근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구옥과 함석지붕의 집도 보인다.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가 제법 있다.

보기 드물게 교회(동일교회)가 있다. 상류 쪽에는 계단식 논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고즈넉한 실체가 아직도 존재하며, 살지 않는듯 한 집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와 나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 할 것이다.

자료(면지)에 의하면 1986년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능력있는 청년을 발굴, 지원하여 농촌의 안정적인 활력을 위한 인적 기반을 확보할 목적으로 농업분야와 축산분야가 있었다. 축산분야에서는 서승원(송문리365)씨가 두각을 나타냈고 낙농과 복합영농 원예 과수 등에서도 흥기(興期)가 있었다. 1970년 초반 새마을운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쌀의 증산과 자급의 달성을 목표로 하였고 남은 쌀의 처리로 고민도 하였다. 송문리의 영농회는 소규모였다. 마을진입 및 출입도로는 국도와 연결되어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역사가 오랜 마을로 송동마을은 농업을 기반으로 양지천을 감싸 안아 농경지와 산골짜기에도 많은 변화를 감내하였다.

1970년 초반 새마을운동의 근간인 근면, 자조, 협동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개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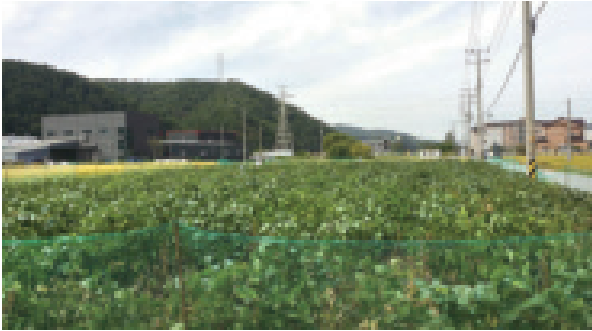


소득증대로 국민정신을 계발하는 국민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통적인 논농사를 비롯해 밭농사로는 보리와 양잠이 성행하기도 했었다. <누에치는 집>이라는 표찰을 대문에 붙여 놓은 예도 있었다. 마을공동체의 정신을 확고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였고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반정마을의 경우 안길은 옛 취락구조의 형태를 어느정도 간직하고 있다. 물론 곳곳에 전원주택이 들어서긴 하였다. 간절한 상황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것이다. 건든 뒤편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였고 거기에서 존재한다. 생겨진천 사거용인 하지만 생의 의지를 다지면서 살아 온게 용인이 힘이 아닌가 싶다. 인생의 격랑속에서 불시착 한곳이 송문리 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전설로 전한다. 무엇이 되었든 진실은 누구도 '정의'하지 못한다. 다만 거기에 다가갈 뿐이다. 노력할 따름이다. 지독하게 매운 삶을 오가는 이 없어도 길은 있다. 보호구역이 있다면 인간은 언제나 방문객에 지나지 않는다. 반정마을에 참나무가 많아 도토리를 주워 생계의 도움을 받는 마을 사람도 일부 있다. 뚝은 성분(탄닌)이 있어 물에 담가 뻘 후에 녹말을 재취하여 묵이나 밀가루를 섞어 부침개나 국수에 사용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 나가도 거의가 중국산이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다. 벌레와의 싸움이며, 새와 각종 야생동물과의 버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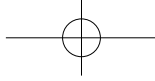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반정마을 풍경



송동마을 쪽으로는 제법 넓은 밭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김장용으로 가꾸고 있는 것이다. 배추는 무름병이 없으면 최고이다. 언제나 김장철 수급안정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김장철을 맞이한 상황에서 김치전문점에서는 ‘사먹는게 훨씬 저렴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포장김치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배추가격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을 무, 양파, 깎마늘, 대파, 건고추, 굵은소금, 멸치액젓등은 가격이 상승하고 어느 품목은 약60%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aT 농산물유통정보에 전하고 있다. 이른바 김치 속 재료의 가격폭등이 그것이다. 먹을 만큼 농사짓는 농가에서 일부의 김장 담그기가 그나마 이뤄지고 있다. 농협에서도 수입산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도불이를 외쳐대지만 수입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하게 되면 해당 가공품은 국산품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는 듯하다.

송동마을 풍경



더불어, 내년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올해 2021년9월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것이다. 기부자는 2023년1월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장 등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세액 공제된다고 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100만 원 이하 지역특산품 등으로 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재정의 확충, 재정불균형완화, 국가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등과 같은 지방문제의 해결 임무를 정부의 하향식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식 방법까지 활용해 공공과 민간부분이 그 역할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온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언제나 기부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부 유인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기술 개발에 지원이 더욱 가속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송문리는 산에 밀착된 논밭이 많기에 항상 산불을 조심해야 할 일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 하다는 당국자의 발표가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환경부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수거 취약 지역의 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민에게는 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 한다.

2. 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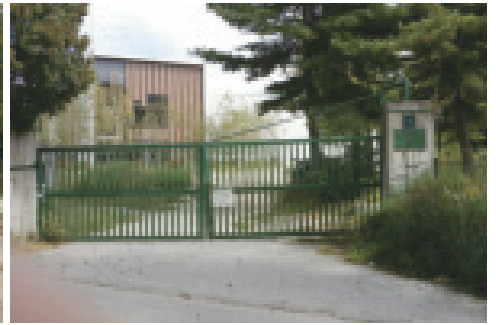
송문리는 지형상 용인과 이천간 인접한 곳으로 42번 국도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곳이다. 송주로 입구(구 크로바상사앞)에는 (주)삼진자동차매매와 창대자원(철강)이라는 고물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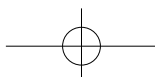
송주로 입구



크로바상사 사옥과 정문



돈만 벌어 잘 살면 된다는 일차원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지와 삶의 영역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1세대는 희생과 침묵으로 생을 살았다면 2세대는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들 한다. 여기에서 공업의 발전이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1996년 3월1일 용인시의 승격으로 도.농복합으로 보면 절반은 도시요, 절반은 농촌이다. 용인의 성장속도와 교통불편은 체증이 도를 더해 가고 있다. 1990년대 이웃도시와 더불어 용인의 서북부 개발의 열풍으로 급속성장으로 상전벽해의 맛을 보게 되었으나, 개발





과 보전의 병행이 언제나 당면 과제임은 차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이다 산업단지다 말이 무성했지만 태산명동서일필에 그치지 않았나 싶다. 말 그대로 헛공약 이 아니었나 본다. 소문만 무성해서 진척없는 마을로 남겨 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양지면지에 따르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마을에 무쇠 굽던 터(야철지)로 쇠재 라 부르는 곳이 있다. 70년대 용인이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새마을공장의 일환으 로 가방을 제조하는 크로바상사가 송문리 근대적 회사의 출발이기도 하였다. 유럽풍의 2층 건물로 주황색 기와에 흰 페인트 칠로 도로변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어울려 제법 멋 들어진 회사였다.

1972년 설립된 가방제조업체(양지면 송주로 6, 송문리 90-1외)로 미국의 샘소나이트 가방의 국내 라이선스권 보유자이다. 사세확장으로 1970년대 후반에 송문리에 공장을 준공하여 가방생산을 본격적으로 하였으나 1990년대 중단되었고 지금은 폐공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0년대 종사자 수가 400여명에 이르렀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각 마을에 하청을 주어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전한다. 현재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전하였다 한다. 그리고 1973년 폐유를 정제하여 모빌유를 만드는 해동정유가 2만여평 대지에 50여개의 폐유 탱크를 설치하여 30여명의 직원이 1977년까지 운영하였다 전해진다.

송문리 공장 현황

한컴라이프케어(산청기업) (송문리 185)

1971년 12월 산청기업사로 설립된 후 1976년 5월 방열복을 개발, 1987년 7월 인공호흡 기 및 순환식 산소호흡기를 개발하면서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서, 1996년 12월 (주)산 청으로 법인전환을 시도하며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하였다. 2013년 12



월에 필리핀 산청법인을 설립하였고, 2016년 10월에 K5 방독면 군납품을 실시, 2017년 7월에 한글과컴퓨터 그룹에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산 제품은 화재관련 복장과 호흡기, 마스크, 보호복과 생활안전용품 등이 있다.

세일공조산업기계(송문리 518-1)

냉·난방기기 제조업체이다. 송주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구 크로바상사 건너편이다. 1998년 6월1일에 설립되었다.

무학소주(양지면 양주로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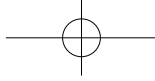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수도권 유일의 무학소주 공장이 송문리에 자리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기능을 주로하며 2005년 8월에 설립되었다. 과실주를 생산하고 있다.

충남석재(송문리 426-1)

2004년 석공사 전문업체인 (주)영보를 설립하여, 석재에 관한일만 고수해온 업체이다. 전문 기술력으로 납골묘, 납골당, 묘지조성공사와 더불어 자연석, 건축석, 석재 등을 취급. 판매한다. 또한 건축시공일체를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는 이두희 씨다.

3. 상업

조선시대에서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길가에 주막집이 있어 주막거리라 부르는 곳이 있다. 주막은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입을 챙기던 곳이다. 자료(면지)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생필품의 수요는 인근시장으로 용인,이천,백암,오천,경안장에 농산물을 가져가 판매 후에 그 돈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마을에는 붓짐.등짐 장사가 비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상품을 공급하고 주로 곡식으



로 그 값을 매겨 가져갔다고 한다.

금융기관으로는 양지리에 신한과 우체국 그리고 용인농협양지지소가 있다. 예전에는 양지군 주서면으로 되어있었다. 송문리와는 약간의 거리가 존재한다. 송문리의 경우 42번 국도변으로 중간 중간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로변이라 땅값이 만만치 않아 음식점도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대개 물류단지나 창고로 활용되는게 사실이다. 어디서나 교통여건이 주요 관건이다. 상점으로는 송동마을 입구에 1980년대 부녀회에서 운영하던 구판장(購販場) 있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현상’으로 가계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구4곳 중 한 곳은 “적자 살림”을 꾸리고 있다고 마스크업은 전한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소득이 느는 것 보다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해 필수 생계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550만에 소상공인이다. 한해에 100만의 사람이 도전하고 망하는 곳이다. 안전에는 마침표가 없다고 하는데 이곳이 그곳이다.

송문리에 가구단지가 들어서 있다. 용인시내 방면으로 양지노송퍼니처, 핸슨소파,EMOTION DESIGN,레이디가구양지점,썬월드퍼니처,토탈가구랜드,대한민국가구일번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규모나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가격이나 스타일도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 가구는 쇼핑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한 도로변에 있어 이용하기에 불



송문리 가구 단지



소파 가구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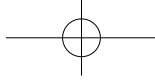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편하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더구나 여러 업체에서 납품을 받기보다는 공장 배송으로 비용도 짤 편에 속한다. 소파도 리클라이너형이 있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천방면으로 백암순대국, 충남석재, 세광토건중기, 코다리. 메밀막국수(국밥), 세븐일레븐, 우리인삼 경작판매, 용인가정식부페, 용인산삼삼마니협회, 고박사냉면, 차마고도농산(능이버섯판매), 토요타지게차대리점, 스위트무인호텔, GS주유소와 뒤쪽에 무학소주가 있다.

4. 요식업(料食業)

송문리를 말할 때 ‘길’을 빼 놓으면 허전하다. 언제나 길옆에는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주막이 있던곳이 지금의 음식점으로 변한 것은 당연하다. ‘음식으로 온기를 전한다.’는 말이 있다. 요즘은 맛집하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드는 세상이다. 탕반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네 음식은 늘 사랑받고 있다. 국을 끓이다 조금 졸아드면 찌개가 되고, 더 졸이면 조림이 되는 게 우리네 음식이다. 재미있는 순서이다.



송주로 입구 인근 풍경



고박사냉면(음식점)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90년 ‘산촌가든’이라는 갈비전문점으로 개업하여 30년을 넘게 토박이 음식점으로, 평택의 고박사냉면 비법을 직접전수, 개발하여 지금의 내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는 송병우 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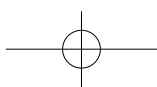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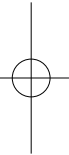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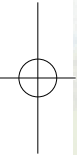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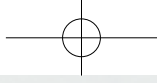
3층 건물로 2층에 150석 규모의 연회석과 각종세미나와 단체손님의 행사가 가능하며 마이크, 빔, 음향장치가 완비되어있다. 냉면은 2006년 8월부터 시작하였다. 냉면은 평양 냉면·비빔냉면·황태회냉면이 있으며 그 외에 녹두빈대떡과 수육, 갈비탕 등이 고객의 입맛을 돌귀준다. 말 그대로 송문리의 대표적 음식점으로 국도변에 위치하여 단골 고객은 물론이고 오가는 이가 눈여겨 볼만한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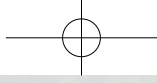
신코다리(음식점) 송문리 114-1

송문리 가장 끝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코다리조림을 판매한다. 대.중.소로 판매하며 포장도 가능하며 배달은 불가하다. 시래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차장이 넓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다. 러시아산 명태(코다리)로 매운 음식을 만든다.

<고박사냉면> 건너편에는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함바식당(청복식당)도 존재하고 실비집도 있다. 또한 근래에 본구이(BON92)라는 돼지갈비집도 생겼다. 도로 양편으로 용인방면에 에스오일과 양지방면에 GS 주유소가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읍으로의 승격이 유력한 곳이 양지인데 이미 면사무소옆으로는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이다. 유입인구가 늘게되면 자연히 상권의 부흥은 따라오게 될 일이다. 추억은 강력한 맛의 조력자이다. 대중이 만드는 문화의 최고봉은 ‘음식문화’라고 일컫는다. 문화전파의 마지막 단계는 음식이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마지막 에텐은 ‘음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제는 한식도 제품화의 시기에 이르렀다. 그리운 이의 또다른 이름을 ‘음식’이라 일컫는다.

👉 남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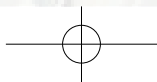




2

송문리 생활·민속·놀이

- 1절. 송문리 일생의례
- 2절. 송문리 세시풍속과 의·식생활
- 3절. 송문리 종교와 교육
- 4절. 송문리 민간신앙과 구비전승





I. 송문리 일생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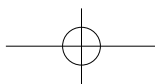
I. 중매와 결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가 결혼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결혼식 당일 배우자를 처음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다.

“중매는 아저씨 뻔 되는 양반이 아무개는 산꼭대기 가져다 놔도 안 굶어 죽을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중매를 하셨어요. 신랑이 결혼하러 올 때 가마 타고 고개 넘어왔어. 색시를 데리고 가려면 가마를 가져와야 하니까. 체구가 아담하고 머리가 영리했어. 사촌오빠 네 집에 오니까 삼태기가 있더라. 그래서 삼태기를 감춰대. 재를 던질까 봐. 재끄러미” 당할까 봐.” - 이한구(80세. 송문2리)

이한구(80세. 송문2리) 씨는 19살에 결혼을 했다. 결혼 당일 혼례를 올리고 남편이 가져온 가마를 타고 시댁을 왔다. 조심스럽게 안방에 앉아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뛰놀며 신

1) 혼인 액막이로 신랑에게 재를 뿌림.





부에게 짓궂은 장난을 했다. 동네 꼬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시동생들이었다. 어린 시동생이 다섯이나 있는 줄 모르고 시집은 것이다.

“오전 열한 시쯤에 혼례하고 그날 바로 신랑 집으로 갔는데, 시집와서 색시놀음을 하고 앉아있는데, 조그만 애들이 오몰오몰해. 근데 애들이 날도 어두운데 안 나가. 치마를 들춰보고 난리 버거지야. 속으로 애들이 왜 안 가나 했는데 다 시동생인 거야. 다섯이나 되는 줄 몰랐지. 많이 당황했어. 원 시어머니 소생이 4남매, 시아버지가 재혼해서 그다음 시어머니가 다섯을 낳았어. 내가 시집가서도 하나를 더 낳아 여섯이야, 모두 10남매야.”
- 이한구(80세. 송문2리)

양일선 씨는 “이렇게 이쁜 색시도 시골로 시집을 오네.”란 말을 들을 정도로 키도 크고 예뻐다. 신랑 또한 인물이 좋았다. “인물 좋고 헌병 출신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양대 2년제 다녔어.”

중매는 누가 했어요?

“우리 엄마가 9남매 맏이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좀 막내나 편한 데 보내려고 선을 많이 봤어. 그런데 팔자소관인지 안 맞더라고.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동네를 다니며 떡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엄만데 친정에 떡 팔러 왔다가 다림질하는 나를 보고 중매를 한 거야. ‘용인)장날’에 선봤어. 이쪽에서는 시어머니 큰 시누 나오고 난 친정엄마하고 둘이 나갔지, 먼저 나와 계시더라고.” - 양일선(75세. 송문2리)

농사를 짓지만 결혼하면 농사 안 짓고 수원으로 내보낸다는 말과 함께 결혼날짜를 잡고 했지만, 다음 장날까지 답을 주겠다고 헤어졌다.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지만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아버지는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엄마는 더 늦기 전에 시집보내려고 했다. 스물여섯이라 당시에는 결혼이 조금 늦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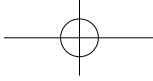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소원이니까 못생긴 것도 아니고 못 살지도 않으니까 ‘알았어. 엄마~ 그냥 갈게.’ 그랬지.” - 양일선(75세. 송문2리)

“집에서 약혼식을 했는데, 우리 큰고모가 호텔 주방장이었어요. 그니까 음식은 끝내주게 잘하지.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식구가 한 20명 됐을 거야. 사진도 찍었어요. 4월에 약혼식을 했는데 신랑 측에서 5월에 결혼식을 하자고. 좋을 때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동지선달 추울 때 하고 싶다고 해. 그래서 날짜를 동짓달 초여드레 날로 잡은 거야.” - 양일선(75세. 송문2리)

농촌은 봄부터 가을 추수까지 매우 바빠다. 그러나 김장까지 마치면 농촌은 크게 할 일이 없다. 이왕 가는 시집이라면 날이 춥더라도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딸을 시집보내려는 친정엄마의 지혜였다.

“결혼 당일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비가 봄마냥 보슬보슬 오면서 포근했어. 그런데 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 힘들었어. 그래도 예식장에서 식하고, 시댁에 왔는데 손에 뭘 지워주면서 자꾸 시켜. ‘떨어뜨려라~ 솔뚜방을 밟아라~ 바가지를 깨뜨려라~’고 해. 그걸 다 했어.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감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귀찮아. 감기 들었고 친구가 집까지 쫓아와 곁에서 수발을 다 들어줬어. 근데 내가 있는 방이 예전부터 불편한 방이 아니고 새색시 온다고 건넌방에 새로 만든 방이야. 연탄불을 피웠는데, 아궁이를 잘못해서 한쪽에만 팔팔 끓어. 감기 들어 힘들어하니 친구가 내가 해간 두꺼운 이불을 풀어 깔고 옆에다 (이불을)대주는데도 콧물이 하염없이 흘러. 그러다 어떻게 잠들었나 봐. 내가 죽겠으니까 신혼부부고 뭐고 없어. 친구랑 같이 셋이 한방에서 잔 거야. 신랑은 방 저쪽에 잠들고.” - 양일선(75세. 송문2리)

약혼식 후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았다. 남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문장력도 뛰어났다.



“우리 남동생하고 신랑 남동생하고 태성중학교 한 반이여. 그러니 신랑이랑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동생들이 전해줬지. 편지 잘 썼어. 문장이 기가 막혀요. ‘저녁노을 질 무렵 그리운 당신에게 보내는 글...’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소설가야. 내가 감동할 정도야. 그런데 생활력이 없어. 사는 내내 맘고생 많이 했어.” - 양일선(75세. 송문2리)

2. 임신과 출산

송문리 면담자의 경우 결혼연령과 상관없이 대개 결혼 후 1~2년 안에 출산했다. 첫출산은 대부분 집에서 시어머니가 애기를 받았다.

양일선(75세. 송문2리) 씨도 26살에 결혼해 1년 만에 임신했다. 입덧이 없어 잘 먹다 보니 오동통하니 살이 쪘다. 그렇다고 애기가 큰 것은 아니었다.

“정월 달에 큰 애를 낳았는데 좋아서 난리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낳은 애기여. 시어머니하고 사촌 형님 둘이 산간을 하는데, 애기 빨리 낳은 사람의 애기 띠를 가져와 문고리에 걸더니 나보고 잡아당기며 힘을 주래. 그전에 애기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들었으니 이를 꼭 물고 나 혼자 하나, 둘, 셋 하며 힘을 냅다 줬어. 사촌 형님이 ‘작은 어머니~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드나들기만 하고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 아이고 이거 죽는가보다 싶어 냅다 힘을 주니까 애기가 문지방에 가서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세게 힘을 줬던지 하마터면 문지방에 부딪힐 뻔했대. 애기가 작아서 속 빠져 나간 거지. 털도 못 벗었어. 찌빵 하나 못 얻어먹었어. 내가 알아서 오이 요만한 게 달려 있음 오이 따다 먹고, 가지 요만하게 달리면 가지 따다 먹고. 사촌 시동생인가가 오징어 장사를 하는데 오징어 눈을 한 말씩 보내면 세 집이 나눠 먹어. 시아버지에게 서너 번 찌개를 해드리고 나머진 내가 다 먹는 거야. 짹짹한 게 그렇게 땡기더라고. 먹을 게 없어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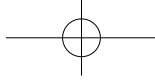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선간장도 찍어 먹어봤다니까. 시댁이 없지 않았는데 애기 선다고 간식거리를 사다 주고 이런 거는 없어. 일단 세끼 밥 먹는 그거지. 근데 세끼 밥 가지고 돼? 잘 먹었어도 활동량이 그때만 해도 빨래해야지 뒷바라지해야지 살림해야지 앓을 새가 없었어.” - 양일선(75세. 송문2리)

이한구(80세. 송문2리) 씨는 19살에 결혼해 스물에 애기를 낳았다. 입덧은 심하지 않았지만, 출산 전까지 쌍둥이인 줄 모르고 출산했다.

“입덧은 별로 몰랐는데 첫째 때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시아버지가 장에 장 다니시는 양반이니까. 사서 기름 자루에 몰래 갖다 놓으시더라고. 안방엔 당신 자손들이 많으니까, 떠느리 먹으라고. 기름 방에 갖다 놓은 사과 먹은 기억이 나. 시아버님은 잘해주셨어. 그러다 첫째를 음력 구월 열이튿날 낳았어. 쌍둥이인 줄 몰랐어, 병원에를 안 갔으니까. 밤새도록 앓다가 저녁때, 오후 네 시에 하나 낳았는데 또 배가 아파.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해. 애기 낳고 후산(분만 후 10~30분 걸쳐 태반 및 태막 등이 배출되는 것) 할 때도 아프대. 배가 아픈데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애기가 또 나오는 거야. 놀랐지. 먹지도 못하고 애기 둘을 낳았으니까 내가 기절했어. 근데 시어머니가 젊어도 영리하셔서 뜨거운 미역국을 자꾸 퍼넣었던가 봐. 나중에 눈 떠보니까 등잔 불은 켜져 있고 여기가 다 젖었더라고. 그리고 애기가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어. 하난 줄 알고 포대기도 하나만 해놨으니 포대기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자부동(방석의 일본식 표현) 속을 빼 갖고 하나 깔고 덮어줬나 봐. 포대기로 손을 안 씻으니 손이 자유롭잖아. 그래서 손을 뺀 거야.” - 이한구(80세. 송문2리)

이한구 씨는 쌍생아에 놀라고 긴 산고로 먹지 못해 출산 후 기절했다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깨어났다. 신생아는 태어나면 포대기로 손발을 못 움직이게 꽂꽂 싸매놓는다.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팔다리가 갑자기 움직이면 애기가 놀라기 때문이다. 하지



만 준비한 포대기가 하나였기에 뒤에 출산한 애기는 배고픔에 자유로운 자기 손을 빨고 있었다.

산후조리

“시아버지가 엄청 좋아했지. 그 해에 이 동네에 색시가 네 명이 들어왔어. 봄에 들어오고 여름에 들어오고 가을에 들어오고 겨울에 들어오고. 내가 겨울에 들어온 색시인데 그 중에 나 하나만 아들을 낳은 거야. 그때만 해도 아들~ 아들 했잖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우리 시아버지 연세가 육십넷이야, 그니까 손자가 늦었지. 금줄을 안팎으로 두 개나 메고, 그리고 산불을 놓는 게 있어. 산후조리하고 금줄 태우는 불을 산불이라 하는데 마당에 인제 그거 놓았지.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데, 우리 집 뒤에가 길이라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날이 정월 열사흘이니 정월 보름이 내일모레잖아. 그러니까 돼지들을 잡았어요. 사촌 시아주버니가 이장이었는데 돼지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난리법석이 난 거지. ‘이놈들이 아직 산도 안 가셨는데, 돼지라니.’하시며 호령을 치고 난리 버거지를 꾸며. 아들을 낳았으니 그런 거야. 그리고서는 엄청 위했지. 딸들이 아들 낳아 와도 조용없어. 오직 친손자여. 딸이 낳아 온 외손자는 쳐다도 안 봐. 먹는 것도 손자만 가져다주고. 세월이 흘러서 둘째를 가졌는데 또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우는 잘 받았어요.” - 양일선(75세. 송문2리)

산후조리는 며칠 했나요?

“한 달 넘게 했지. 못 나오게 하셨어. 정월 열사흘에 출산했는데 나와 보니까, 3월 꽃피고 새 울어. 내가 조금 피를 부렸어. 이왕 추운데 뭐하러 나가, 시아버지도 못나게 하는데. 때는 이뻐데 농사철이라 바쁘기를 해요? 그때는 좀 멀쩡하니까 미안해서 내가 밥을 해야겠다 싶어 나왔지.” - 양일선(75세. 송문2리)



구자열(73세. 송문3리) 씨는 아들 삼 형제를 낳았다. 첫째와 둘째는 집에서 낳고 셋째는 병원에서 출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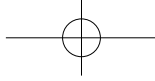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어. 저녁 해 먹고 자다가 밤에 낳았지. 한집에 살았으니까 시어머니가 받았어. 10월 8일이 아들 생일인데 애기 낳던 그날도 밭에 가서 콩 뽑았어. 배가 이렇게 불러 가지고.” - 구자열(73세. 송문3리)

산후 구완은 누가 했나요?

“산후조리를 3일 했나? 난 가을이니까 바쁘잖아요. 밥 해먹고 다했지. 미역국을 시어머니가 참기름 넣고 끓여주시더라고. 내가 누워있으려니 송구스러워 못 누워있겠어. 가을이니 막 뛰어다니며 일하시고 산모 밥 해주니 내가 3일 만에 나와서 밥해 먹었어. 그리고 둘째는 내가 하혈을 많이 해서 이십 며칠 만에 밖을 나와봤지. 죽다가 살았어. 집에서 낳았는데 애기가 커 하혈을 많이 했어. 그때 남편이 이장 볼 텐데 면에 영농교육이라고 받으러 갔다가 와서 나를 보니 얼굴이 노란 거야. 어머니가 하혈이 심하다고 하니까 당신(남편)이 뛰어 내려가 전화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왔어. 그때는 여기 전화가 없었어요. 의사가 와서 나를 수원제일병원으로 데려가 수혈을 해서 깨어나 그 밤에 왔어. 개울 건너에 시댁 큰어머니가 사셨어. 애기가 배가 고파 막 우니까 오셔서 보릿물을 끓여 거기다 가제 수건을 축여 입에 짜서 넣어줬대. 애기가 그걸 먹고 전딘 거지. 너무 힘들게 낳아 20일 넘게 있다가 밖을 나왔어요.” - 구자열(73세. 송문3리)



첫아들 돌(류장희 제공)



“셋째는 김량장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낳았어. 초저녁에 가서 새벽에 낳았어. 그리고 아침에 데리고 왔지. 3월 1일이 생일이야. 둘째 때처럼 또 그럴까 봐, 겁나서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나를 병원에 보내더라고. 아침에 애기를 데리고 오니까 이 양반(남편)이 딸을 안 낳았다고 쳐다도 안 보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들 둘을 낳았으니 딸을 낳아야 하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방에도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할머니가 ‘복에 겨운 소리한다’고 막 걱정하니 그때서야 들어와 보시더라고.” - 구자열(73세. 송문3리)

구자열 씨의 남편에게 첫아들을 얻었을 때 느낌을 물었다.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내가 그때 직장을 다닐 때거든.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라고 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첫아들이라고, 자전거 앞에 의자를 만들어 맨날 앉혀서 동네를 돌아다녔어.”-류장희(79세. 송문3리)

퇴근 후에 매일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 마을을 다닌 건 첫아들을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보인다.

3. 환갑 칠순 그리고 팔순 잔치

“어머니 팔순 잔치는 시내로 나가 ‘재성 웨딩홀’에서 했어요. 환갑과 칠순은 집에서 했는데, 환갑은 3일하고, 칠순은 하루 동안 했어요. 동서가 넷이에요. 큰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작은어머니가 계셔요. 그런데 큰어머니하고 셋째 작은어머니 칠순 잔치를 나가서 했어요, 우리는 집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샘이 난 거야. ‘남들은 나가서 춤추고 놀고 그러는데’ 하셔서 팔순은 나가서 재성에서 한 거야. 그리고 그날 내 환갑잔치도 했어요. 어머님 팔순 잔치날이 내 환갑잔치날이에요. 팔순



잔치하러 가서 내 환갑이라고 이렇게 옷을 입고 찍은 거야.”-류장희(79세. 송문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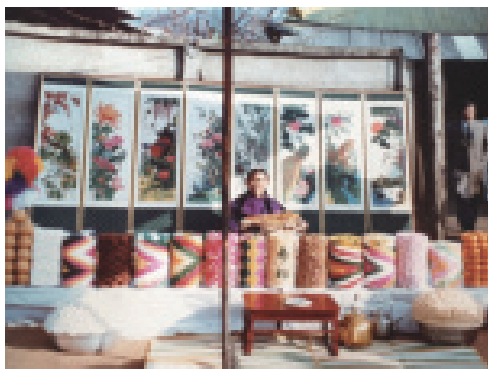
어머니가 팔순인 2003년은 류장희 씨가 환갑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생일 또한 비슷한 시기여서 어머니의 팔순 잔치날 류장희 씨도 환갑잔치를 겸하며 사진을 찍었다.



류장희 씨 어머니의 팔순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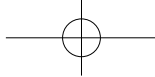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류장희 씨의 환갑잔치



류장희 씨 어머니의 환갑잔치

어머니 환갑이랑 칠순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때가 80년대 중반인데, 환갑잔치를 3일 동안 집에서 했어요. 동네 부녀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떡, 국수, 식혜, 고기, 과일 그리고 전도 부치고. 그리고 칠순은 하루 한 것 같아요. 그때도 부녀회에서 도와줬어요.



동네 분들 다 불러서 잡숫고, 집안 네들도 와서 잡숫고 그랬지요.”-류장희(79세. 송문3리)

4. 상례(喪禮)

상례는 인간의 최종 통과의례로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상례도 무속적인 상례, 불교식 상례, 유교식 상례, 기독교식 상례 등이 있으며 때론 서로 습합(習合)되기도 한다.

오늘날 상례는 도시적 생활양식에 대한 적응결과로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고, 가정보다는 병원에 부속한 장례식장을 주로 이용한다.

류장희(79세. 송문 3리) 씨는 아버지 장례는 집에서 그리고 어머니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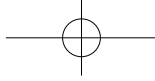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아버지는 집에서 했지. 3일장이죠. 옛날에 광주상회라고 있었어.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장례 물품을 취급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동네 부녀회가 없었어. 사 오면 동네 아줌마들이 집에서 손수 만들어요. 여럿이 모여 베옷도 꿰맸어. 옛날엔 다들 베옷들 입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요. 돼지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러는 거지요. 그 때는 이 마을이 한 40세대 정도였는데 동네 전체가 다 나서는 거지. 집 집마다 초상이 나면 며칠간은 집중적으로 가는 거지요. 요즘은 다 장례식장이야.” - 류장희(79세. 송문 3리)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여가 따로 있나요?

“옛날에 쓰던 게 있었는데 저 산에 갔다 뵈더니 집이 무너지면서 상여가 상했어. 그리고 옛날 거라 무거워 상여를 메고 나가려면 절절했다고. 84년도에 내가 천안 가서 사 왔어. 그때 내가 이장 볼 때야. 새로 사온 걸 사용했는데 그것도 무거워서 장강틀(상여를 운



류승원 제공



반할 때 사용함)이라고 두 개 있는데 그걸 가벼운 것으로 바꿨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꽃상여는 쓰지 그걸 안 써. 그래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사람들이 치위 달라고 해서 불살라버렸지. 산속 보관창고에 상여랑 삽이랑 괄이들을 두고 사용했어.” - 류장희(79세. 송문 3리)

송문3리에서 상여를 이용해서 장례를 치른 것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마을의 상여를 이용한 건 한 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류봉수 씨가 90살인가에 돌아가셨는데 동네 상여가 아니라 꽃상여를 썼지요. 꽃상여는 장례물품 파는 곳에서 사오는데, 구입하면 가게에서 와서 딱 설치해놓고 가요. 그리고 사용한 뒤에는 태워요. 그건 아주 가벼워.” - 류장희(79세. 송문 3리)

고 류봉수 씨는 2020년 작고했다. 유족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영구차가 아니라 꽃상여를 이용해 선산으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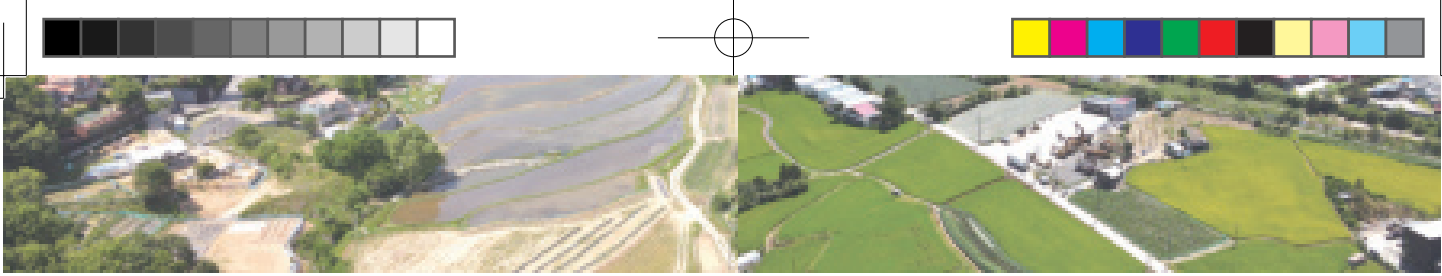
장례식장과 꽃상여가 있는 장례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양지향교에 전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유교 사상을 많이 선호하셨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조그마한 책도 내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자식에게도 집안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상여를 택한 거죠.” - 류승원(고 류봉수 씨 맏딸)

상여는 구입했나요?

“농협에서 꽃상여를 산 걸로 알아요. 마을에서 상여 꾸밀 때 마을 분들이 도와주시고, 매장할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는 아들 친구하고 동네 분들이 왔어요. 마을에서 열댓 명 정도 왔어요. 송문리에 있는 선산에 매장했어요.” - 류승원(고 류봉수 씨 맏딸)

 송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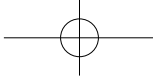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II. 송문리 세시풍속과 의·식생활

송문리의 세시풍속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건 해마다 같은 시기가 되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전승행위가 있게 마련이다. 이처럼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같은 양식으로 반복되는 특수한 생활양식을 우리는 세시풍속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시풍속을 요즘에는 흔히 연중행사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세시(歲時), 세사(世事), 월령(月令), 시령(時令)이라고 하여 계절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농작의 시작-제초-수확-저장 등이 지역의 풍토에 맞게 형성되고 전승되었다. 그 목적은 풍년을 기원하고, 액을 물리치며, 복을 빌고, 일년 내내 무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송문리는 세시풍속은 1960년대 이전을 주로 기술하였는데, 이 시기는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동안 지켜오던 세시풍속은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도 간소화되거나 변형이 되어 원래의 모습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으며,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각 마을의 원로들이 옛풍속에 대한 기억을 점차 잊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송문리의 각 마을에 계신 원로분들의 기억에 힘입어 아직은 기억되고 있는 송문리의 세시풍속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설날

설날은 흔히 원일(元日) 또는 신일(愼日)이라고도 부른다. 이날이 되면 송문리의 사람들은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조상에게 드릴 차례를 준비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이었다. 차례 음식은 보통 설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혹은 열흘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다. 제주로 사용할 술을 담그고, 엿이나 조청을 만들고, 두부도 정성을 들여 만들어 물에 담가놓는다. 삼색과일, 편, 적 두부 등을 마련하려면 설 무렵의 주부들은 허리 필 날이 없었다.

설날 아침이 되어 차례를 드리고 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는다. 설날에는 만두를 빚기도 하는데, 차례상에는 올리지 않고 차례를 물리고 난 후 떡국에 미리 빚어놓은 만두를 넣고 한 차례 더 끓인 떡만두국을 먹기도 했다.

“내가 만든 만두가 맛있다고 그래서 만두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 그때는 만두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 - 송문1리 김남이(85세)

설상을 물리고 난 후에는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지금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면 세배돈을 받지만, 예전에는 “공부 잘해라”, “장가가라”하는 덕담을 많이 받았다. 세배를 드린 후에는 따뜻한 옷을 단단히 여미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갔다. 그리고 설날 오후에는 작은집이나 큰집 등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녔다.

“나도 어려서 세배를 다녔는데, 지금처럼 세배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자나 약과 등을 받았어. 그것도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었어. 나이가 좀 있으면 술 한잔 받기도 했지.”

송문1리 이장섭 노인회장

집안에 들어오는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대문에 붙이는 그림이나 글씨를 문배라고 부른다. 문배는 세시풍속인 세화의 일종이다. 세화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새해를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을 가리킨다.

문배는 통일신라시대 처용상을 붙이는 풍속에서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용호도가 사용되었다. 대문 문짝의 향좌에 호랑이그림을 붙이고, 향우에 용그림을 붙였다. 그림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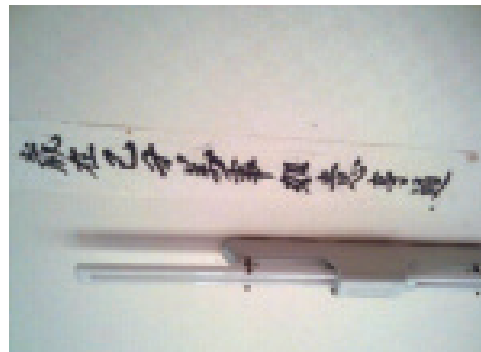


에 마름모꼴 종이에 虎호자와 龍용자를 붙이기도 했다. 호랑이 그림을 붙인 이유는 호축 삼재虎逐三災, 즉 호랑이가 삼재를 쫓는다는 의미로 액막이 역할을 한 것이다. 용그림을 붙인 이유는 용수오복龍輸五福, 즉 용은 만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로 길상적인 상징으로 사용했다. 대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잡귀를 쫓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복을 불러들임으로써, 가정이란 공간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용은 여러 가지 상징을 지니는 상상의 동물이다. 가뭄에 비가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 때 용그림 혹은 흙으로 용의 형상을 빚어서 제사를 지냈다. 수신水神인 용의 기능을 활용한 풍속이다. 19세기에는 용호도가 문배라는 세시풍속과 결합되면서 용호문배도로 성행했다.



故 류봉수 집 대문 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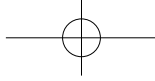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故 류봉수 집 천정

오늘날에는 ‘설’의 명절에 세배는 거의 없어졌다.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리고 성묘를 다녀오고 나면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지낸다. 집집마다 세배를 드리러 다니던 풍속은 사라지고 남은 시간은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가기 바쁜 시대가 되었다.

2) 입춘

입춘(立春)은 24절기 중의 하나로, 정월(正月)의 절기이다. 양력으로 2월 3일 또는 2월



4일이며 간혹 2월 3일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일 년 중 봄이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입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부분 이 때를 즈음해서 설날이 온다.

예로부터 입춘이 되면 동풍이 불고, 얼음이 풀리며,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상은 매년 불규칙적이어서 이때를 전후한 시기가 1년 중 가장 추운 해도 있다.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이므로 새해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옛어른들은 이날 '입춘대길'(立春大吉 : 입춘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뜻)과 같은 좋은 글을 써서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 혹은 천장에 붙였으며, 농가에서는 보리 뿌리를 뽑아 보고 그해 농사가 잘 될지 어떨지를 점치기도 하였다. 또한, 음력으로 한 해에 입춘이 두 번 들어 있으면 '쌍춘년'(雙春年)이라고 하여 그해에 결혼하는 것이 길하다고 받아들여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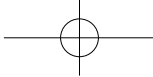
송문리의 여러 집에서도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현대식으로 새로 집에는 거의 없었고, 옛날의 구가옥들에 일부가 남아 있었으나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사진 자료를 남기지 못하였다.

3)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달로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설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는 사실상의 축제기간으로 이 시기에 연날리기, 널뛰기, 자치기, 윷놀이 등의 놀이가 시행되었고, 설날에 세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간에 세배를 드리러 다니기도 했다.

오곡밥과 나물반찬

대보름 전날인 14일에는 오곡밥과 여러 가지 나물반찬을 먹었는데, 밥을 아홉 번 먹고 나뭇짐을 아홉 번 해오는 풍속이 있었다. 이것은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땀감을 구해 놓아 바쁜 농사철에 나무하러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밥 훑쳐먹기

14일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하여 눈을 부릅뜨고 잠을 쫓으려고 하고, 삼삼오오 무리 지어 남의 집 부엌으로 밥을 훑치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마을의 각 집에서는 밥을 훑치러 올 것을 대비하여 솥 안에 밥 한 그릇과 나물반찬을 넣어 두기도 하였다. 훑쳐 온 밥은 인정이 넉넉한 동무의 집에서 들기름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꿀맛이기도 하고 또 비빔밥이 짜서 물을 밤새도록 들이키기도 하였다. 밥 훑치는 풍습은 이제는 추억에만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되었다.

귀신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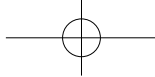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다른 마을에는 없는 송문3리만의 특별한 놀이로 ‘귀신놀이’가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귀신놀이를 했어. 옷을 하얗게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남의 집 우묵에 가서 서 있었다는 거야. 아랫말에서 했는데 옥경엄마가 너무 놀랐다는 말이 있었어.”
- 송문3리 류장희 전 노인회장(79세)

“옛날에는 솔바닥의 그늘음으로 얼굴을 꺼멥게 송없게 그려서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가서 서 있는 거야.” - 송문3리 심윤희 (89세)

더위팔기,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는 해가 뜨기 전에 더위를 팔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왜!” 하고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 이렇게 외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답은 안 하고 “내 더위 사가!” 하고 선수를 치면 꼼짝없이 그 해 여름의 더위는 처음 더위를 팔던 사람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땅콩, 호두, 등의 부럼을 깨물어서 이가 튼튼한지 살펴본다. 오복(五福)중에서 이가 튼튼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강녕(康寧)과 관계있는 경우로, 어른들의 이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럼을 통하여 건강을 점치는 것이다. 또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맑은 청주로 만든 귀밝이술을 먹었다. 귀밝이술을 마시면서 ‘귀가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하는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너무 어린아이는 입술에 묻혀만 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한다.

웃놀이

송문리의 웃놀이는 정월대보름에 마을마다 행해졌다. 노인회나 대동회의 주관으로 마을회관에서 행해졌던 웃놀이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가를 했다. 상품은 마을 주민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송문3리의 웃놀이는 약 25년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수지에 살던 ‘이상만’이라는 분이 100만원을 기부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수지면에 이상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기가 살던 수지가 개발이 됐나봐. 보상이 많이 나와서 여기다 산을 사서 이 사람 선조들을 거기에 모셨어. 그러다 보니 집안 사람들이 동네길로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해서인지, ‘혹시 동네에서 웃놀이 같은 것을 안 하나? 웃놀이를 하면 자기가 돈 100만 원을 내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지. 20년이 넘었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기부한다고 그랬어.” - 송문3리 류장희 노인회장(79세)

정월대보름에 마을회관에서 척사대회를 할 때는 필히 이상만씨를 오시라고 한다. 100만 원도 기부하고, 더구나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도 사 오고, 어떤 때는 연예인도 데리고 와서, 소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가고 그랬다고 한다. 받는 것이 미안해서 마을에서 돼지를 잡으면 다리 하나를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주기도 했지만, 먹을 사람이 없다고 안 받았다고 한다. 이상만씨가 기부한 100만 원으로 모자란 부분은 동네 기금을 보태서 척사대회를 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면서 3년 동안 웃놀이도, 지원금도 없게 되었다. 척사대회에 사용하던 기금이 남았는데, 남은 돈은 새마을 지도자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며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척사대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발길이 끊어졌던 이상만씨의 후원금이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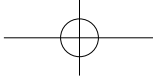
줄다리기의 정월 대보름의 가장 중요한 놀이였다. 이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다졌는데, 송문1리나 송문2리는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면민의 날’ 행사나 농·축협이 행사에서 진행되었을 때 참가하였다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송문3리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줄다리가 행해졌는데, 이장님도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못 보았고 선대에서 줄다리를 했지만, 마을이 작아서 외줄을 사용하여 줄다리를 했다고 한다. 지금은 줄을 잡을 사람도 없고 정월대보름의 행사도 아주 작아져서 줄다리는 안 한다고 한다.

지신밟기

두레를 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농악대는 정월대보름이면 집집마다 마당으로 장독대로 부엌으로 다니면서 방문한 집이 일 년 내내 무사하기를 빌어주면, 집주인은 술이나 음식 또는 돈으로 이들을 대접하던 풍속이었다. 지금은 농악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도 하거니와 동네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지신밟기의 풍속은 어르신들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풍속이 되었다.

달맞이, 망우려 놀이

줄다리가 어른들의 놀이었다면 망우려 놀이는 어린이들의 놀이었다. 망우려는 쥐불놀이라고도 하는데,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논둑과 밭둑의 해충들을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농작물에 대한 해를 적게 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짱통에 못으로 구멍을 뚫고 불이 붙은 나뭇가지를 넣고 빙빙 돌리면 못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불이 활활 붙는다. 이러한 짱통을 누가 멀리 던지나 내기도 하면서 즐기는 정월 보름밤의 재미있는 놀이었다. 정월 보름달이 동산에 떠오르면 달을 향해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면서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였다.



4) 나이떡 먹는 날(음력 2월 1일)

음력으로 2월 1일은 ‘나이떡 먹는 날’이라고 하여 자기 나이 수만큼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온 가족이 모여 송편과 비슷한 ‘나이떡’을 해 먹었으며 각자 자신의 나이만큼 먹었다고 한다. 한편 마을에서 머슴이 있는 집은 머슴들을 불러 모아 농사를 부탁하며 나이떡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머슴떡’으로도 불렸다.

“송편을 나이만큼 해 먹는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먹나? 내 나이가 90인데 90개를 어떻게 다 먹나?” - 송문3리 심윤희(89세)

이날은 봄의 절기 중 4번째 절기인 춘분과 관련이 있다. 춘분은 ‘봄을 나누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아지는 날이다. 옛날에는 춘분의 날씨를 보고 그해 농사의 풍년을 점치기도 했다고 한다. 춘분날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고 농사가 잘되어 풍년이라고 보았고, 반면 춘분에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면 열병이 들어 만물이 자라지 못한다고 여겼기에 춘분에는 구름이 많고 어두운 것을 좋다고 여겼다고 한다.

5) 삼진날(음력 3월 3일)

이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동면에 들었던 뱀이 깨어나는 날이라고 한다. 또한 나비나 새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고,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집안 수리를 하기도 한다. 이날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 둥근 떡을 만드는데, 그것을 화전(花煎)이라 한다.

“삼월 14일이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화전을 부칠 때 진달래 화전을 부쳤어. 그런데 진달래가 필 때도 있고 안 필 때도 있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꽃을 따 오느라고 고생을 했데. 왼쪽가서 진달래 따서 부쳐 먹었는데 지금은 산에 가지도 않아.” - 송문3리 심윤희(89세)

“잔치할 때 고임새를 하면 화전도 해서 올렸어요.” - 송문1리 이세용 이장



6) 5월 단오

단오날, 그네를 타고 놀던 곱디고운 젊은 아가씨들은 이제는 80이 넘는 할머니들이 되었다. 송문1리 노인회장님도 젊어서 송문리 앞 큰 개울에서 3동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광목 한 필을 타오기도 했다. 여기에서 선수를 뽑아 송문리 대표로 ‘면민의 날’ 행사의 씨름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송문리에서 가장 많이 행했던 단오행사는 창포물을 삶아서 그 물에 머리를 감는 일이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윤이 나고 술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철에 나는 쑥을 뜯어 쑥버무리를 해서 먹거나 쑥떡 또는 쑥개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이제 씨름대회나 그네타기는 없어졌지만, 마을 대동회 또는 노인회 주관으로 봄, 가을에 나들이를 갔다. 나들이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중지되었다가 올해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는 여파에 송문1리는 9월 21일에 포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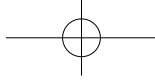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7) 유두

유두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으로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에서 나온 말이다. 사람들은 특히 동쪽을 좋아하여 동쪽을 향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재액을 없애고 길고 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 무렵이면 양력 7월로 지금처럼 집집마다 욕실이 없었고, 또한 목욕탕에 마음대로 가지 못했던 시절에 밤에 동네 냇가에서 목욕을 했다. 지금과는 다른 꼬불꼬불한 냇가의 인적이 드물고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곳에서 목욕을 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8) 삼복

삼복(三伏)은 여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7월과 8월 사이에 있는 초복, 중복, 말복을 말



한다. 송문리 3개 마을은 삼복 중 하나를 택하여 ‘복달임’ 행사를 하였다. 복달임에 먹는 음식으로는 주로 삼계탕을 먹는데,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삼계탕을 마련하여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대접한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을회관의 문이 일시 닫힘으로 인해 ‘복달임’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잊어버렸다고 하신다. 한 해만 안 해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잊어버린다고 하니 해마다 하는 행사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다. 삼복에는 마을의 각 가정에서도 삼계탕이나 추어탕, 보신탕으로 복달임을 하였다.

9) 백중

동네의 부잣집들은 머슴을 두었다. 송문리 동네마다 머슴을 두는 집은 두 집 정도 있었다고 한다. 머슴은 일 년을 살고 나가는데, 백중날이 되면 광목으로 옷 한 벌, 여름 복중에 베옷으로 한 벌, 추운 겨울에는 솜바지 저고리 한 벌을 해 주어서 일 년에 세 벌의 옷을 해 준다고 한다. 백중날에는 여비를 넉넉하게 주어서 머슴들은 받은 여비로 백중장에 가서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백중날에는 용인장(김량장)에서 씨름도 하고 농악대회도 했다고 한다, 씨름은 마평교 아래의 모래톱에서 했는데, 용인의 백중장은 없어지고 지금은 백암에만 백중장이 남아 있다. 백암의 백중장도 없어졌었지만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백중문화제가 생기면서 백중장이 다시 생겨났다고 여기고 있다.

10) 추석

추석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다.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추석이 되기 전에 친지들이 모여서 여름비에 무너진 무덤 보수와 별초를 한다. 차례상에 올리는 제물은 햇곡식으로 준비하여 조상에게 먼저 선을 보이며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전한다.



송문리의 추석에는 거북놀이 지신밟기 등의 민속놀이가 행해졌다. 송문1리의 거북놀이는 거북을 수수깡으로 만들고, 이장섭노인회장님이 팽과리를 치고 길잡이를 하셨다고 한다. 거북이 안에는 2명이 들어가고, 길잡이 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북, 장구, 징, 팽과리 등의 사물을 하는 네 사람과 소고치는 여자들, 그리고 관객들까지 하면 열 명도 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녔다고 한다. 좋아하는 집도 있고 짜증내는 집도 있었다. 길잡이였던 노인회장님에게 길잡이 선소리를 부탁하니 3일은 외어야 할 수 소리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잊어버리셨다고 하신다. 거북놀이패가 집집마다 방문하면 상위에 쌀도 놓고 돈도 놓고 술도 놓아주기도 하였는데, 아랫골에는 거의 다 방문하고 웃골에도 방문을 원하는 집에는 갔지만, 집집마다 다니려면 밤새워도 다닐 수가 없다고 하며 또 몇 집 다니다 보면 술이 취하여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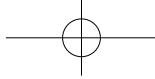
송문2리는 거북놀이의 추억을 전달해 주는 어른이 안 계셔서 알아볼 수 없었고, 송문3리의 경우에는 거북놀이가 이미 오래전에 실전되어 현재 유진섭이장님도 거북놀이는 본 적이 없고 “거북아 거북아” 하는 노래의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거북놀이는 마을에 콩쿨대회가 생기고 TV가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져 갔다. 노래자랑도 겸하고 있는 콩쿨대회는 한 번은 송문1리에서 한 번은 송문3리에서 번갈아 가며 했는데 사람들이 적어서 마을 청년들을 모아야 했다고 한다. 또한 연극발표도 했는데 연극연습은 한 달도 넘게 했다고 한다.

지금은 거북놀이도 콩쿨대회도 연극발표도 사라지고 추석의 차례와 성묘만 남아 간신히 추석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1) 10월 상달

일 년 중에서 음력 10월을 가장 좋은 달로 여겼는데, 이는 한해의 농사가 끝나 수확의 풍성함을 감사히 여겨 하늘에 감사함을 고하는 의식을 행하고,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하늘과 인간이 소통을 하는 달’이라고 하여 일 년 중에서 으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송문리에서도 마을에서 지내는 산제사와 가정에도 지내는 가을고사를 10월에 지내고 있다. 송문1리와 송문3리는 오래된 산제사를 아직도 지내고 있지만 송문2리는 산제사를 안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각 집에서도 터주안의 쌀을 꺼내어 시루떡을 장만하여 장독대, 부엌, 마당 등에 조금씩 떼어 놓고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또한 각 집안들은 5대조 이상의 조상들의 묘소나 재실을 찾아 시제를 지내는 것도 10월 상달의 행사였다.

송문3리 류장희 노인회장님은 전주 류씨로 한 번 시제를 지내면 일주일을 돌아가면서 지냈다고 하신다.

옛날에는 시제음식을 다 집에서 만들었는데, 조청 고아야지, 다식도 송화다식 깨다식



시제 지내는 모습



콩다식 3가지를 준비했다. 쌀다식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술 빚고, 떡 하고, 밤 까고, 초 하루부터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준비를 해서, 그 이튿날 시제를 지내러 갔다고 한다.

“약과를 해서 구멍 뽕뽕 뚫어 조청을 바르면 맛있어! 남자는 밤을 까는데, 밤 한 말을 까면 3되가 나오는데, 그것을 고여야 돼.” - 송문3리 류장희 노인회장

시제는 산소에 가서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음식들을 산소에 끓여지고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한 종류밖에 못 가지고 갔다. 가마 받침처럼 생긴 것에 어깨끈을 메고 두 명이 짝을 지어 끓여지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끓여지고 나른 음식들은 무릎을 꿇고 고였다. 고임새는 한 자 이상 고였다. 지금은 재실에서 하는 곳도 있고 산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류복립’어르신은 시제는 따로 지낸다고 한다.

시제를 지내고 나면 봉성을 나누어줬는데, 옛날에는 무릎팍에 모자를 씌워 놓고 그것도 뚫어 있다고 하여 한 뚫 더 받았다고 한다.

12) 동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이다. 동짓날에는 팔죽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송문리 또한 동지날이 되면 팔죽을 먹었다. 팔죽은 팔을 고아 채에 껍질을 걸러내고, 거기에 쌀을 넣고 끓이다가 새알심을 넣어 다시 한번 끓여 새알심이 떠오르면 먹는 음식이다. 팔죽은 먹기 전에 대문, 장독대, 부엌, 마루 등에 뿌려 혹시 모를 재액을 막기도 했다.

동지팔죽을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고 하는데, 중동지와 노동지에는 팔죽을 쑤지만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면 아이들에게 좋다 않다고 하여 쑤지 않는다.

올해는 노동지에 해당하니 붉은 팔으로 쑤 팔죽을 맛있게 먹어볼 일이다.



13) 대동회

송문리의 각 마을마다 매년 12월이 되면 마을의 결산을 하는 대동회가 열린다. 임기가 끝난 이장을 선출하기도 하고 일 년 동안의 마을 살림을 마을주민들에게 보고하는 날인 대동회날은 마을의 잔치날이었다. 돼지도 한 마리 잡고, 과일과 떡을 준비하여 동네주민들에게 점심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그래도 남은 음식은 집집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원주민이 떠나간 터전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관계로 마을 대동회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외지인들이 원주민들과 화합하여 마을이 번성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송문리의 다양한 세시풍속은 이제는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설날의 차례와 성묘, 세배, 정월대보름의 부럼깨물기, 오곡밥 먹기, 귀밝이술 먹기와 한식 때 조상묘 돌보기, 삼복의 삼계탕 먹기, 추석의 차례와 성묘 그리고 송편 먹기, 10월 상달의 산제사와 가을고사 그리고 시제, 동지 팔죽먹기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명절의 음식은 정성을 다하여 집에서 만들던 것들도 모두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다가 쓰니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옛것이 가면 새것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봄이 되면 동네어른들과 주민들의 꽃놀이 여행과 가을의 단풍여행이 생겨났고, 양력 5월이면 경로회원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며, 연말이면 마을의 여러 대소사를 결산하는 대동회를 하면서 동네주민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비록 꽃놀이 여행이나 단풍여행을 가면 어르신들은 점심 먹을 때 외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집을 떠나서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설레임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라져간 풍속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미풍양속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정희



의식주(衣食住)

1. 의(衣) 생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한 모습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차츰 서양식 옷차림의 편리함과 세탁과 관리가 편한 옷감이 대량생산됨에 따라, 한복은 점차 예복화 되었다. 송문리의 의생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겨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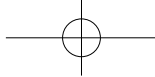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비누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 용도에 따라 모양과 향 그리고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처럼 종류가 다양하지도 흔하지도 않았다. 세탁할 때도 외출복이나 귀한 옷은 돈 주고 산 비누를 사용하지만, 대개는 집에서 만든 ‘겨비누’를 사용했다. ‘겨비누’는 보리나 쌀을 찼을 때 나오는 겨를 채로 쳐서 그 가루에 잿물을 부어 만든다.

“산비누는 아까워 빨래도 좋은 거나 빨고, 막 빨래는 그냥 겨비누를 만들어서 쓰는데 때도 잘 가(빠도 잘 빠져).”

빨래

겨울에 무명이나 명주에 솜을 넣어 만든 솜옷은 참으로 따뜻하다. 하지만 세탁과정은 길고도 험난하다. 솜옷은 그대로 빨면 솜이 뭉쳐져 못 입는다. 더러워진 솜옷은 바느질한 실을 모두 뜯어 옷 속의 솜을 따로 떼어 보관한다. 그리고 분리한 옷감을 빨아서 풀을 먹이고, 밟고, 두드려 주름을 편 후 다시 솜을 넣고 바느질을 한다. 솜옷은 따뜻하지만, 매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입을 수 있다.

이한구 씨의 시아버지는 못자리도 보고, 한의사는 아니지만 침도 놓고 한문도 가르치는 다재다능한 분이였다. 사랑방에서 중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에게 천자문과 명심보감 등을 가르쳤는데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꼭 두루매기(두루마기) 입으시고, 평소에도 한복을 입으시고 그랬어. 겨울에는 기지(生地)두루매기, 여름에는 모시 두루매기를 입으셨는데 모시는 풀 먹이고 두드려야 해. 여름 두루매기도 박는 것하고 붙이는 것 두 가지야. 박아서 하는 두루매기는 한여름 두루매기고, 그다음 춘추 두루매기는 모시인데 접어서 풀로 해서 다려서 만들어. 두루매기가 힘들어. 두루매기 안에는 중의 적삼”을 입지. 여름에는 (삼)배 입으시고 모시 입으시고, 그다음에 옥양목 입으시고 겨울에는 솜 바지저고리 입으셨어. 솜바지 저고리 입으면 빨래가 보통이 넘어. 솜이랑 옷을 뜯어 빨래를 해. 그리고 다시 또 원래대로 꿰매 붙이니까 고되지. 우리 애기 키우고 시누까지 키우느라 고생했지. 젊어서는 고생했지. 지금은 편하지.” - 이한구(80세. 송문2리)

빨래터

마을 빨래터는 방망이를 두드리며 스트레스도 풀고, 마을의 최신 정보와 삶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송문리의 빨래터도 그러했다. 이곳의 물은 먹지만 못할 뿐이지 과일과 채소를 씻고, 빨래할 정도로 맑고 수량도 풍부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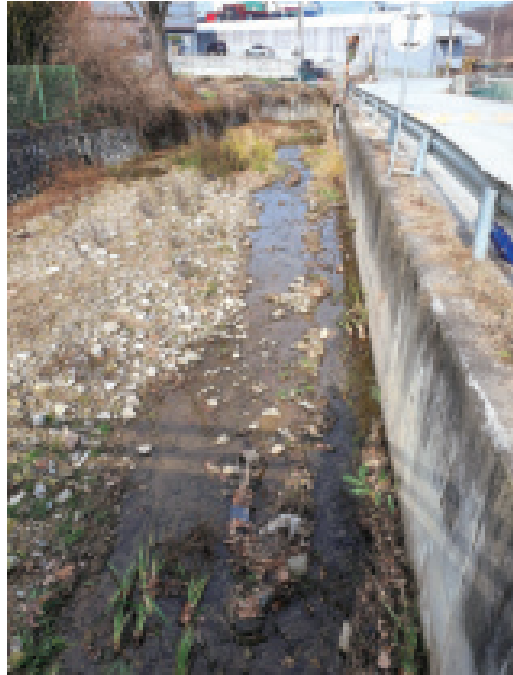
“나도 시집온 지가 48년 됐는데 빨래터에서 빨래해 입었지. 그 빨래터 물이 너무 깨끗해서 김장배추도 씻고 감자껍질도 까고 그랬는데 개울에서 빨래를 안 한 지는 오래되었지. 한 이십 년쯤 되었나... 세탁기 나오면서 안 했지.” - 구자열(73세. 송문3리)

“백암 살 때 거긴 개울이 없어. 물웅덩이에서 똥 기저귀를 빨면 송사리가 달박달박해. 송사리가 그 똥 먹으려고 아주 바글바글해. 웅덩이가 크니까 그곳에서 빨래 빨고 그랬어. 그러다 여기 이사 와서 봇들랑에서 빨래했는데 거기는 빨래하기 좋게 만들어줬어. 앞 개울에서 논으로 내려가는 곳에 봇들랑이 있어요.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것이. 리어카로 실어다 절인 김치도 씻었는데 만든 지가 50년은 넘었지요. 아랫마을에서는 봇들랑을

1) 남자의 여름 훌바지와 훌저고리.



송문2리 빨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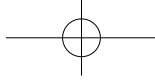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송문3리 빨래터

이용하고, 윗마을은 개울이 가까우니 그곳에서 빨래했어요.” - 이한구(80세. 송문2리)

“여름이면 마른빨래를 가져가지만, 겨울에는 도끼로 얼음을 깨고 빨래했어. 손이 시려 워 집에서 더운물도 끓여가고.”

빨래터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어졌지. 송문3리에도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는데 빨래터가 달라요. 그전에는 흙바닥으로 걸어 내려가서 빨래했는데 지금은 높잖아요. 길 넓히면서 저렇게 됐지. 길도 넓히고 개울 바닥에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 정화조 물이 개울 바닥으로 나가게 설치하면서 독을 높인 거지. 여기서 나가서 포곡으로, 그리고 모현으로 빠져나가요. 상하수도 시설을 냈가 아래도 설치하다 보니 개울이 깊어졌지. 비가 많이 오면 옛날 개울로는 안되니까 개울을 넓히고 독도 높인 거지. 90년대에 한 거예요. 내가 이장 볼 때 했어요.” - 류장희(79세. 송문3리)



세탁기

송문리의 여성 면담자들은 한결같이 ‘빨래는 참 힘들었다’고 했다. 그런 그들에게 세탁기는 신세계였다. 하지만 항상 세탁기를 돌리진 않았다. 편리하지만 세탁기를 아끼느라 혹은 옷이 늘어난다며 세탁기 대신 빨래터로 달려가 손빨래를 했다. 그랬던 그들도 이제는 세탁기 없이는 빨래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고, 빨래터도 사라졌다.

“우리네도 한 2~30년 전 그때 샀지. 한 동네에서 누구네가 샀다고 그러면 샘이 나서 다들 사지. 너무 좋지. 누르면 알아서 빨아주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큰딸이 사준 것 같아. 큰딸이 신원리로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돼지를 먹였어. 신원리는 돼지들을 많이 먹였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은행에 돈을 갖다 놓을 줄 모르고 돼지 판 돈을 비료 푸대에 담아 벽장에 두고 꺼내 쓰더라. 시집가기 전 딸이 경리보며 세무관리까지 다 하던 애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똑똑한 며느리만 들어와 우리 금방 부자 돼요.’ 그러더라고. 지금 부자 돼서 살아요.” - 이한구(80세. 송문2리)

비로도 (벨벳)와 뜨개질

사진 속 자주색 벨벳 한복은 구자열 씨가 결혼할 때 받은 예단으로 만든 것이다. 벨벳은 고급원단으로 깃털처럼 부드럽고 감촉이 좋으며, 아름다운 광택으로 널리 사랑받았다.

“자주색 비로도 입고 둘째 유치원 졸업 때 가서 찍은 사진이야. 비로도는 채단²⁾이라



초록 뜨개옷을 입은 둘째 아들 (구자열 제공)

2) 채단은 혼인에 앞서 예단용으로 신붓집에 보내는 비단인데 치마나 저고릿감으로 쓴다. 전통혼례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순서로 진행되며, 채단은 이 의례 중 납폐 때 보내는 예물을 말하는 것으로, 비단을 썼기 때문에 비단 단을 써 채단(采緞)이라 한다.



해서 결혼 전에 함 속에 있었어. 그걸 여기(시댁) 와서 꿰매 입은 거지. 그리고 시댁에서 연두색 저고리랑 감색 치마도 해줬어. 시집을 때 입고 왔지.”

뜨개질

뜨개질로 만들어진 니트는 신축성과 통기성은 좋지만, 한참 뜨다가 틀린 곳이 있으면 지금까지 뜬 것을 모두 풀어 다시 해야 한다. 틀린 곳을 그냥 돌 것인지 풀어서 다시 뜰 것 인지 고민이 시작된다. 뜨기는 오래 걸리지만 푸는 것은 한순간이다.

옷이나 모자 등은 코 줄임과 코 늘임 등의 기술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려면 한 코 한 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뜨개질이다.

“내가 떠서 입힌 게 아니야. 손아래 동서가 둘째에게 옷도 떠서 입히고 모자도 떠서 씌워주고 그랬어. 동서가 딸만 돌이었는데 그렇게 둘째 아들에게만 옷이랑 모자를 떠 주더라고. 아들 낳고선 안 했어.” - 구자열(73세. 송문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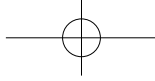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씨아와 목화



씨아 (류장희 제공)



목화 (류장희 제공)



목화를 키워 씨를 찾기 위해서는 목화솜과 씨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씨아’는 목화에 붙어있는 목화 씨앗을 빼내는 기구이다. 류장희 씨의 화분에 목화가 심겨있다. 갈라진 껍질 속에 하얀 솜이 한가득하다. 목화의 어린 열매는 ‘다래’라 하여 먹으면 맛이 달콤하고 익으면 하얀 솜이 된다. 목화솜은 좀 무겁긴 하지만, 천연 솜으로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발생시키지 않아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 사용하기 좋다.

2. 식(食) 생활

장 담기와 장독대

장독대는 벌이 잘 드는 곳에 물이 잘 빠지도록 돌을 2~3층가량 쌓은 다음 판석을 깔아 만든다. 가장 큰 독에는 간장, 중간 독에는 된장을, 항아리에는 고추장이나 장아찌류를 담는다. ‘음식 맛은 장맛’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장은 요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여 집안의 식탁을 책임진 어머니들은 해마다 장을 담고 정성껏 보살폈다.



구자열 씨가 담근 된장



장독뚜껑을 열어보는 구자열 씨

매년 장을 담그세요?

“그럼요. 된장도 만들어서 먹지요. 콩을 저 술(야외 무쇠술)에다 푸우욱~ 끓여다 삶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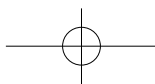
송문리의 메주 말리기

요. 지금은 자루에 넣어서 밟더라고. 밟아서 다라에 넣고 메주 틀에 꼭꼭 밟아서 모양을 만들어줬다가 굳은 다음에 밖에다 매달아 놓아요. 그걸 한 1월쯤에 따뜻한 방에 재워 메주를 띄워요. 그래서 2월쯤에 장 담아요. 혼자서 매년 장 담아요.” - 구자열(73세, 송문3리)

장독대를 보면 그 집안의 규모와 안주인의 살림 솜씨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환경과 산업이 변함에 따라 그것도 옛말이 되고 있다. 장성한 자식들이 떠난 집에는 나이든 부모와 빈 장독이 장독대를 지키고 있다.



송문리의 장독대





두부 만들기

구자열(73세, 송문3리) 씨네는 콩을 가는 두유기가 있을 정도로 한때는 집에서 두부를 많이 만들었다. “지금은 방앗간에서 갈아오지요. 많이 할 땐 저걸(두유기)로 했어요.” 지금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야외아궁이에 콩을 삶아 두부를 만든다. 힘들지만 사 먹는 두부와는 그 맛이 확실히 다르다고 한다.

“콩을 깨끗이 씻어 불려요. 예전엔 집에서 맷들로 갈았는데, 요즘은 방앗간 가서 갈아 와요. 갈아서 물을 팔팔 끓여서 간 것을 집어넣어요. 그럼 확 끓어 올라요. 그럼 간수를 넣고 바가지로 떠서 자루에 부어요. 그리고 쳇다리에 올려놓고 짜요. 남편이 20여 년 전 버드나무로 만들어줬어요. 요런 판에 순두부를 펴서 누르면 두부가 되는데 작년 까지도 만들어 먹었어요. 힘들긴 한데, 사 먹는 거랑 맛이 틀려요. 구정 때랑 추석 때 만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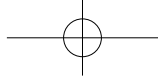


두유기 (류장희 제공)



쳇다리 (류장희 제공)

쳇다리는 나무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짜서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나무가 두 갈래로 갈라져 아귀진 부분을 잘라서 만든다. 술이나 장 등 국물이 있는 것을 체로 거를 때 받는 그릇 위에 걸쳐 둔다.



구자열 씨의 야외 아궁이



절구 옆의 구자열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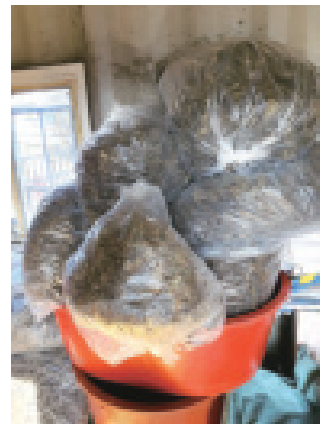
야외 아궁이

20여 년 전 새집을 지을 무렵에 만든 야외 아궁이를 2021년에 장독대 옆 현 위치로 옮겼다. 현재 야외 아궁이에는 두 개의 무쇠솥이 걸려있고, 그 옆에는 시부모님이 사용하던 절구가 있는데 햇수로 60년이 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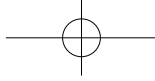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메주 쭈고 나물 삶고 두부도 해 먹고 곰국도 끓여요. 가스는 힘들잖아요. 이 양반(남편)이 만들어줬어요. 절구는 내가 시집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거예요. 떡방아도 찧고 벼도 찧고 메주 쓸 때 삶은 콩도 찧고... 나는 찹쌀을 찌서 인절미 할 때 사용했어요. 최근에는 잘 사용 안 해요.” - 구자열(73세. 송문3리)

나물 말리기

나물은 말려 묵혀두었다가 먹는다 해서 ‘묵은 나물’ 또는 ‘묵나물’이라 부른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계절마다 나는 채소를 말리면 색깔은 거무튀튀하지만 요리해두면 깊은 맛이 난다. ‘동국세시기’에 ‘묵은 나물을 먹으면 다가올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묵은 나물을 건강식으로 생각했다. 묵나물의 최대 장점은 저장성과 높은 활용도이다.



말린 나물들 (구자열 제공)



시래기

나물은 어디서 뜯나요?

“집에서요. 이 양반(남편)하고 강원도 나물 뜯으러 가서 뿌리를 캐왔어요. (집에) 심어 씨를 받아 뒀다가 뿌렸어요. 여름 되면 온 집안이 나물인데 그걸 뜯어서 말린 거예요. 종류가 많아요. 미역취, 곰취, 곤드레, 비름나물, 고구마순, 시래기 그리고 산에 가서 뜯어온 다래 순도 말려뒀어요. 봄에는 산에 가서 다래 순을 뜯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한 번 가면 한 치마 가득 뜯었어요.” - 구자열(73세. 송문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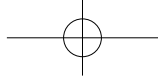
묵나물은 어떻게 요리해요?

“삶아서 말렸지만, 물에 담가 다시 한번 또 삶아요. 깨끗이 헹궈 들기름에 집 간장 넣어서 무쳐 다시 볶아요. 그래서 정월 달에 먹는 거죠. 다 그때 먹는 거예요. 고구마순도 삶아서 말렸다가 물에 불려 다시 한번 삶아요. 썰어서 들기름, 마늘, 파, 깻가루 그런 거 넣어요.”

매년 소설 즈음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진다. 이때 월동 준비를 위해 시래기를 엮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어두기도 하고 무말랭이나 호박을 썰어 말리기도 한다.

김장

김치는 전통 발효식품으로 우리나라 밥상과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골손님이다. 요즘에야 비닐하우스 재배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신선한 채소를 언제든 구할 수 있지만 추운 겨울이면 아무래도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한해 먹을 김치를 대량으로 준비한다.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김치를 만드는 재료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먹는 김치는 누가 담아요?

“노인네들이 모여서 여기사 담았어요. 저기 김치냉장고에 있어.”

“올해 김장은 2주 전인가 그 전인가 노인회원들끼리 모여서 담았어요.”

“대여섯 모여서 했어요.”

“배추 큰 것 네 쪽으로 쪼개서 15포기 정도 담았는데 고춧가루랑 젓갈이랑 다 사 와서 했어. 회관에 많이 모여야 여섯이야. 동네행사를 하면 많이 모이는데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니 주로 오는 사람들이 여섯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어.” - 심윤희(89세), 김학순(87세), 이옥분(78세). 송문3리



김장 (구자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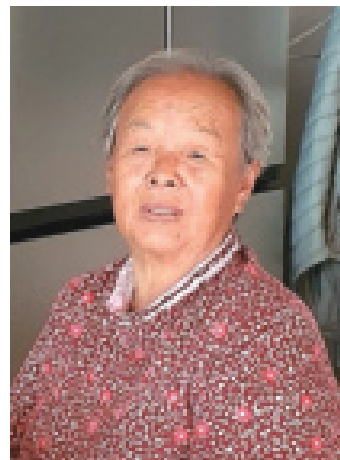
마을회관(송문3리)의 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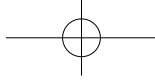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심윤희(89세)



김학순(87세)



이옥분(7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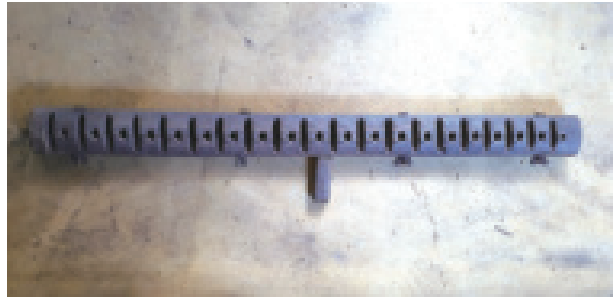


가마니틀과 고드랫들

류장희 씨 창고는 작은 농업박물관이다. 농기구가 기계화되면서 우리 곁에서 사라진 가마니틀, 고드랫들, 길마, 소 멩에, 벼 수분 측정기, 흘태 등을 모아두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상당하다.



고드랫들



가마바디

가마니³⁾는 1970년대 말까지 정부에서 매입하여, 농가에서는 부업 삼아 농한기에 이를 많이 짰다. 기계를 이용하므로 두 사람이 하루 20장까지 짤 수 있다. 가마니는 사용 용도에 따라 비료가마·벧가마·쌀가마로 나뉘는데, 근래에 마대·비닐포대·종이부대 등이 대량생산되며 가마니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저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한 70년은 된 것 같아요. 나도 가마 짰어요. 내가 열여덟 그즈음에 동네에 4H가 있었는데 회원들이 판다고 그걸 짰어요. 가마 틀이랑 바늘도 있었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저거 하나만 남았어. 저건 또 두 가지야. 쌀가마 틀이 있고 막가마틀이 있어요. 저건 막가마틀이야. 쌀가마 틀은 구멍이 저거보다 작아요. 새끼가 촘촘해야 쌀이 안 새잖아요. 막가마는 거친 것 담는 거고.” - 류장희(79세. 송문3리)

3) 가마니는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들어왔으며, '가마니'라는 이름도 일본말 '가마스(かます)'에서 비롯되었다. 가마니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섬을 썼으나, 섬은 날 사이가 성겨 날알이 작거나 도정된 곡물이 아니라 벼·보라·콩 등을 담았다. 섬은 가마니에 비해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지만 무거웠다. 그에 비해 가마니는 한 사람이 나르기에 적당하고 높이 쌓기에 편리하며 날과 날 사이가 잘 다져져서 어떤 곡물도 담을 수 있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드랫들은 발이나 돛자리를 짤 때 한 올 한 올 대를 엮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돛자리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예전에 많이 만들었어. 보기만 했지 직접 하진 않았어.”

길마와 소 멩에

길마는 소 등에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해 엮는 일종의 안장이다. 소의 등에 올려 놓았을 때 소 등이 상하지 않게 멩석 등으로 길마 안쪽에 뒀다. 예전에는 길마를 ‘기르마’라고도 했으며 지방에 따라 ‘질매’·‘지르마’·‘질마’·‘기르마’라고도 했다. 류장희 씨는 ‘소구라’ 혹은 ‘마초’라 불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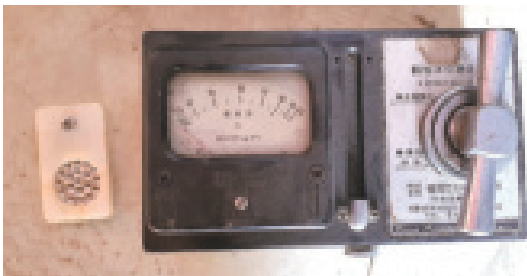
길마



소 멩에

소 멩에는 일자형으로 곧은 것과 반달꼴로 굽은 것이 있다. 곧은 멩에는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 때, 굽은 멩에는 1마리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쓴다. 굽은 멩에는 류장희 씨가 20대에 만든 것으로 50년이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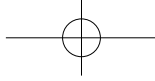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벼 수분 측정기와 훌태



수분 측정기



훌태



벼 수분 측정기의 왼쪽 동그란 부분에 샘플을 담아 우측 기계에 넣으면 수분 함량이 표시된다. 주로 농가에서 가져온 벼를 수매할 때 사용했다.

홀태는 벼베홀깨, 홀쟁이, 벼훤이, 호리깨라고도 부른다.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며, 벼단의 끝을 가지런히 맞추고 홀태 앞에서 벼단을 아래로 내려 벼단을 내 앞으로 주우욱 당기면 벼가 후두둑 떨어진다.

3. 주(住) 생활

우물

송문3리에 상하수도 들어오기 10여 년 전에는 집집마다 우물을 가지고 있었고, 우물이 없는 집은 마을 내 공동우물을 이용했다.

“지금은 다 메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송문3리에 두 개가 있었어요. 우물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우물을 이용했는데, 우물 자리가 291번지랑 357번지예요.” - 류장희(79세. 송문3리)

마을에 수도는 언제 들어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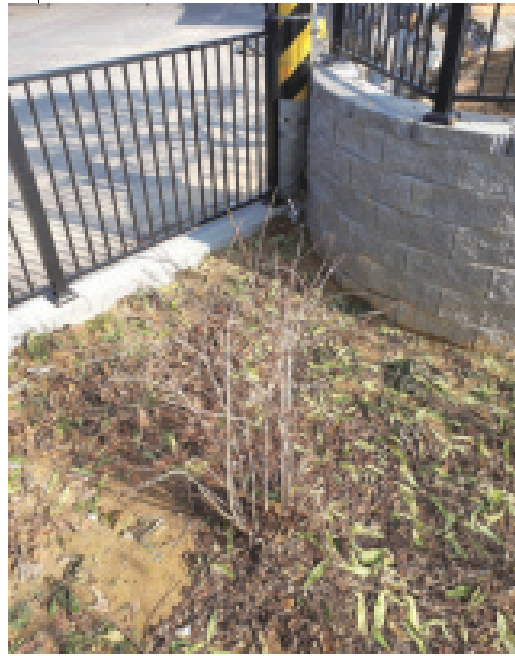
“한 10년? 12년? 그 정도 되었나 봐요. 상수도는 나 이장 볼 때 그때 들어 왔어요. 그거 들어오면서 오수관도 같이 묻었잖아요.” - 류장희(79세. 송문3리)

“전기는 송문리 전체가 비슷할 거예요. 내가 60년생인데 아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도는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전엔 지하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공동 우물터는 이 동네(송문2리)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류복립 묘로 가기 전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 바로 뒤에 있고, 다른 하나는 송설재 씨 집 앞으로 올라가면 거기 있었어요.” - 김우용(63세. 송문2리 이장)

“나두 시집와서 우물 떠먹었어요. 지금은 다 메웠는데 주방에서 조금 나가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다시피 했어요.” - 구자열(73세. 송문3리)



주방 문 옆이 구자열 씨의 옛 우물터이다.



우물터 (구자열)

지하수

구자열 씨는 3~40년 전에 설치한 지하수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당시 마을에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먹었는데 지금도 물이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해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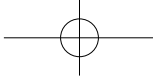
“저거 설치한 지 오래됐지요. 한 20년 전에 이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집 짓기 전부터 지하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한 3~40년 되었나 봐요. 지금도 지하수 먹어요, 깨끗해요. 물 양은 우리가 쓸 만큼 나와요. 우리는 아직 수도를 설치 안 했어요. 그때 집 지을 때 상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엔 다~ 지하수 먹었어요.”-구자열(73세. 송문3리)



야외 지하수도(류장희 제공)

떨감과 난방 연료

심윤희(89세. 송문3리) 씨는 1960년대 초 용인에서 송문리로 이사와 시부모님과 합가했다. 시댁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있었다.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난



방이 되고, 실내에서 편안하게 요리하지만, 송문리로 이사 온 60년대 초에는 난방과 음식을 모두 아궁이에 나무를 때서 해결했다.

난방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가스지만 예전에는 나무 땀지. 땀감은 일꾼들이 해오지. 일꾼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구해오고. 난 시집을 때까지 아궁이에 불을 때보지 않았어. 친정에선 농사가 많으니까 남자, 여자 일꾼들이 있었어. 그리고 올케들이 하다 보니 생전 불을 안 때다가 여기 와서 불을 땀어. 용인 살 때는 몰랐어, 여기 와서 알았어. 그냥 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고 쪽쪽 뺀 나무, 그게 여름 나무래요. 그걸 소가 끄는 커다란 구루마에 싣고 오면 그걸 사서 때는 거야. 그런 날이 따로 있고 어떤 날은 청솔가지만 가져와, 그럼 청솔가지를 때고, 참나무이파리를 가져오면 그걸 때는 거야. 아버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땀감을 잘라놓으셔. 그런데 그걸 안 해놓으실 땐 내가 잘라서 때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옷나무가 있지 뭐야. 여기도 옷이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해서 고생 진탕 했어. 아궁이에 불 땀 줄도 모르고 시집왔어. 한 십 년도 더 땀 것 같아. 연탄 땀 때도 조그마한 솔 하나만 때고 나머진 나무 땀어. 우리가 저 꼭대기에 살았는데 지금은 차가 올라가지만, 그땐 못 올라가. 연탄을 꼭대기까지 올리려면 힘들어. 송문리에서 이사 세 번 했어. 지금은 저 아래 살아.”

송문리에서 이사를 여러 번 하셨네요?

“예전엔 영감님(남편)이 오토바이를 태워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줬어, 집에서 머니까. 그땐 여기에 동네 버스가 없었어. 그런데 영감도 늙으면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며, 그땐 어떻게 걸어 다녀. 그래서 땅 사서 집을 지어 이사했지. 버스정류장이랑 가깝잖아. 그런데 이제 저기 살아도 괜찮아. 동네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생겼잖아.”

 송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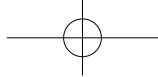
III. 송문리 종교와 교육

종교

1. 현황

종교는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고자 할 때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구하는 문화 체계를 말한다. 종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연유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시시대 수렵의 성공을 기원하는 벽화나 영혼의 존재를 믿고 치르는 의식 등 자연과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던 때부터를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와 심각한 갈등이 초래할 때, 질병과 죽음과 같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인간은 무한하고 초월적 존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가 바탕이 된 것이다.

종교의 특징은 그 대상이 무한하고 초인간적이라는 것과 신앙적 공동체를 이뤄 결집을 통해 교리를 가르치고 선악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초기적 신앙 형태인 애니미즘(무생물계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 토테미즘(특정 동물이나 식물 신성시)에 서부터 세계 종교에 이르는 샤머니즘(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샤먼(무당) 중심),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과 같은 비제도적이거나 제도적인 형태로 다양하다.



한국의 종교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개항 이후로 본다. 1860년 동학이 탄생하였지만, 개항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종교 단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 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한 조사를 2018년 실시해 2008년에 약 510개, 2011년에 약 566개의 교단·교파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외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두고 종교박물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1년 4월 8일 자로 고시한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 56개의 명단을 보면, 대체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관련 법인들이 많은 편이나 대순진리회, 대종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원불교, 천도교유지재단, 남묘호렌계교라 불리는 한국에스지아시아(GSI) 등과 같은 신흥 종교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갤럽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구 분포, 호감 가는 종교, 종교 활동 빈도 등을 물었다. 2021년 5월 18일 공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나타났고, 2014년 대비 종교인의 종교 활동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문리 주민의 종교 현황은 설문 조사를 통해 데이터화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갤럽의 데이터 결

질문) 귀하는 현재 믿으시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종교를 믿으십니까?

2021년 5월 18일~4월 7일	사례수 (명)	현재 믿는 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없음
전체	1,500	16%	17%	6%	0.8%	60%
성별						
남성	743	12%	16%	5%	1%	66%
여성	757	20%	18%	7%	0%	55%
연령별						
19~29세	281	4%	14%	3%	1%	78%
30대	238	6%	19%	5%	1%	70%
40대	284	11%	19%	6%	0%	64%
50대	287	23%	14%	6%	1%	57%
60대 이상	432	29%	23%	8%	—	41%
직업별						
농·임·수산업	27	—	—	—	—	—
자영업	189	25%	18%	6%	0%	51%
기능노무서비스	646	19%	16%	6%	1%	60%
사무/관리	300	10%	19%	7%	0%	64%
판매/서비스	347	28%	20%	6%	—	46%
학생	82	3%	13%	4%	1%	79%
무직/불특정/기타	109	10%	20%	6%	—	64%
지역별						
서울	291	15%	21%	6%	—	58%
인천/경기	474	10%	20%	7%	0%	64%
강원	46	—	—	—	—	—
대전/세종/충청	160	11%	21%	7%	1%	61%
충주/전주	149	12%	22%	7%	0%	60%
대구/ 경북	149	24%	12%	4%	1%	59%
부산/울산/경남	231	32%	6%	2%	1%	59%

- 표수질 여파 반영률 때문에 백분율 합계는 101%가 발생 가능하며, 이는 오류가 아님
- 60%의 국민은 수직 계서서치임을.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2021 | www.gallu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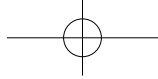


과를 따르고 있지 않은 듯하다. 송문리에 잘 알려진 종교 시설은 송문 제일교회가 유일하다. 불교와 천주교 신자, 기타 종교의 신자들은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와 유교를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마을 주민을 만나 조사하던 중 남묘호렌계교라 불리는 한국 에스지아이(GSI) 신자가 있어 이 또한 살펴보도록 한다.

2. 불교

송문리에는 지적도상 불교 시설로 나타나는 곳이 없다. 마을 주민 중 불교 신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찰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다만 송문3리 반정 마을 전주류씨 가문에서 태어난 류희송 씨(1946년생) 증언에 따르면 용마난골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그곳에 돌아가신 형님을 모셨다고 한다. 주지 스님은 경봉 스님이다.

송문리 반정마을에는 용마난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골짜기 마을에 홍 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슬하에는 자식이 없었다. 치성을 드려 어렵게 자식을 하나 얻게 되었으니 홍 씨 내외는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길렀다, 어느 날 아이가 없어져서 혈안이 되어 찾아보니 방구석 뿔대 위에서 아기가 방실거리며 놀고 있었던 것이었다. 기던 아기가 뿔대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 홍 씨 내외는 기겁하였다. 놀란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있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이는 역적이 된다고 해서 나라에서 아이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몰살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부는 사색이 되었다. 홍 씨 내외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여 후환을 없애고자 했다. 아이가 죽자 마을 뒷산에 용마가 나타나 슬피 울다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숨을 거뒀다. 원래 장수가 나면 용마도 따라 난다고 하였으며, 그 장수가 죽으면 용마도 주인을 따라 죽는다고 한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용마가 나온 골짜기를 ‘용마난골’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3. 기독교-송문 제일교회(송문리 526-4 / 031-332-0527)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



송문 제일교회 전경

1977년 6월 22일 이상표 장로와 박양수 전도사가 10여 명의 신도와 함께 개척하였으며, 개척 당시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다. 1978년에 건축면적 66㎡ 정도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7년에는 건축면적 231㎡ 규모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있으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있다. 구역예배는 각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일 예배는 저녁 4시 30분, 금요일 기도회는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다. 선교활동으로 다른 교회와 함께 캄보디아, 캐나

다,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된 국외 선교사를 도왔으며, 봉사활동으로는 매년 용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고 있다. 1970~80년대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송문 제일교회 유치원이라고 했지요. 목사님이 캐나다로 이민 가셨는데, 가시기 전인 80년대 초까지 꽤 오래 했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45살 용띠 이고, 막내가 41살 개띠인데 그 애들이 다녔으니 한 10년 했던 것 같네요. 우리 애들 다닐 때가 학생이 제일 많았어요. 7살만 다니고 초등학교 갔어요. 지금처럼 유치원을 몇 년 씩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교회 유치원에 다닌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송문리 1리에서 3리하고 신평리에서도 왔어요. 교회 신자가 아니어도 원생으



송문 제일교회 70~80년대 유치원 행사 사진. 왼쪽부터 유치원 졸업식, 생일잔치, 성탄 행사 (사진 제공 구자열)



로 받아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애들한테 꿈이 뭐니 물으면 목사 된다고 그랬지.(웃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구자열 씨, 73세)

4. 천주교-양지성당(남곡리 497-1 / 031-338-3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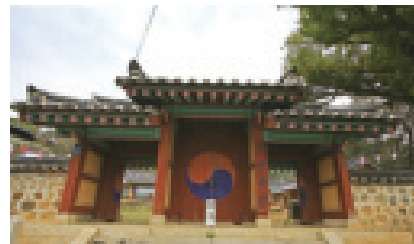


양지성당 전경

평일 미사 화·목요일 19:30, 수·금요일 10: 00,
토요일 18:00 청소년 미사, 주일 08:00 성인 미
사, 10:30 교중 미사로 진행한다.

1927년 9월 14일 설립하여 주보 성인은 성 김
대건 안드레아, 신자 수는 1,500여 명이다. 현재
미사는 염지원 베드로 주임신부가 집전하고 있
다. 양지성당의 관할 구역은 교동, 서촌, 신원, 등촌, 벌터, 은이, 송문, 한터, 제일, 평창, 배
마실, 센텀이므로 송문리 천주교 신자들은 양지성당에서 미사 참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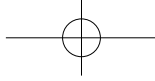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5. 유교-향지향교(양지리 379)



양지향교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 공자가 체계화한 사
상으로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공자는 인과 덕
에 의해 천명에 따르는 이상 세계를 인간의 힘으
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의 사상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지
만 주로 국가 운영원리로서의 유학이었다. 종교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고려말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 문묘를 세우고 공자와 성현의 위패를 모셔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민
간에서도 유교 사상에 따른 제사 풍습 등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중요시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행하는 제의는 기복을 바라는
행위에서 진행하지만, 유교의 제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교의 제



의는 주술적 요구를 배격하고 세속 세계를 도덕화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양지향교는 1523년(중종 18)에 창건하여, 1697년(숙종 23) 대성전을 증수하고 1792년(정조 16) 명륜당을 증건하여,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

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양지향교는 마을 뒤쪽 구릉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경사진 대지의 아래쪽 터에 명륜당이 있고 위쪽에는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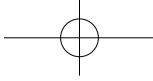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양지향교지에 따르면 양지향교는 향교내 추양학교가 설립되면서 유학 중심의 강학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이 지역 유림에 의해 대성전에서 분향하고 매년 석전제만 올리게 된 것이다.

6. SGI(Soka Gakkai International/ 창가학회(創價學會))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은 불교의 명호중 하나다. ‘남묘호렌게교의 ‘남(나무, 南無)’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귀의(歸依) 한다’, ‘귀명(歸命) 한다’는 뜻이다. 즉, 남묘호렌게교는 ‘묘호렌게교’에 귀명한다는 뜻이 된다.

‘남묘호렌게교’로 많이 알려진 이 종교의 정식명칭은 SGI(Soka Gakkai International)이며 ‘창가학회(創價學會)’라고 부르기도 한다. SGI의 설명에 따르면 ‘묘호렌게교’라는 말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인데 ‘생명의 법’의 표현으로 ‘우주를 꿰뚫는 자비의 생명을 근본으로 삼아 자신의 생활과 인생에 발현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남묘호렌게교’를 부르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정화되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이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교(儒敎)) 참조.



넘친다고 주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의 종교 현황’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7대 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외에 60여 개의 군소 종교단체 중 국내 SGI의 신도 수가 15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SGI는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본부를 두고 있다.

“내가 시집오기 전부터 아팠어. 그런데 6촌 형님이 ‘자네가 이렇게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봐, 괜찮을 거야’ 그래서 시작한 거야. 오래됐지. 형님은 70년대에, 나는 80년대. 삼가동에 있는 절이야. 절은 본인이 어디 다닌다고 말하고 그러지 않아. 가고 싶은데로 가는 거니까. 내가 몸이 자꾸 아프니까 귀명식을 얘기하셔서 간 거야. 스님이 염불을 하면서 빨간 팔과 콩을 던지면 몸에 붙은 잡신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걸 했어. 그런데 귀명식을 하면 탄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 대신 간 거야. 친정엄마가 원래 좀 아프셨는데 갑자기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지. 젊었을 때 아프면 꿈을 꿔는데 꿈에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 ‘네 걸 가지러 왔다’고 하니 막 뒤숭숭하더라고. 그런 걸 보고 옛날에는 뭐가 붙었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귀신이 어디가 붙을 때도 없지만 그때는 그게 나한테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귀명식이란 거를 하러 간 건데 그거하고 돌아오는 그 이튿날 우리 엄마 돌아간 거지.

내가 믿는 종교는 나무묘법연화경 7자를 줄여서 남묘호랭개교라고 해. 절하고 비슷해. 거기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이 좋은 것만 말해 줘. 교회처럼 매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회합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데 시간이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고. 초 팔일에 가고 그런 거는 없어. 헌금은 따로 없지만 말쑤 1년에 한 번 자기 마음대로 해. 만 원을 하던 이만 원을 하던 성의껏 하는 거지.” (양일선 씨, 75세)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참 예뻐. 우리 딸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시골로 시집오냐고 할 정도로 아주 예뻐. 근데 몸이 자주 아팠지. 그런데 귀명식을 하고 나서는 나왔어. 그러니 명이 길 거야.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한거야.” (이한구 씨, 80세)



교육

1. 송문리 서당

글방이라 불리던 서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등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 분류한다.

조선의 교육정책은 인재의 육성과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국립대학인 성균관과 지금의 중고등 수준인 사학과 향교를 설치 운용한 것이었다. 한양에 설치된 국립학교인 사학은 동학, 서학, 서학, 남학, 중학의 사학(四學)으로 거주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없었으나 서울이나 주변 지역의 사대부층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사학은 성균관의 예비학교로 지방의 향교와 같은 성격의 교육기관이었다. 지방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향교는 지방의 각 행정단위인 군과 현 329개 단위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지방관이 관리하도록 한 교육기관이었다. 지방관의 7가지 주요 직무 가운데 ‘수명학교(修明學敎)’라는 항목을 두어 향교를 감독하고 교육을 진흥하도록 할 만큼 국가의 관심이 지대한 기관이었다. 성균관과 사학,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하였으므로 지금의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자의 몫이 된다. 또한 교육 대상이 원칙적으로 양반이니 일반적인 아동에게는 수혜 되지 않는, 그 혜택이 극히 한정적인 교육시설이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지방 세세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는 혜택이었다.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이 존재하여 그 틈을 충족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중등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이므로 그러한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준비 교육이 필요했다. 서당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주도하는 관학의 혜택이 지방 곳곳에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당은 양반층에 의해 독점화된 유교적 지식을 일반 서민에게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의식을 높이고 사회변동을 가속했기에 사설 교육기관인 서당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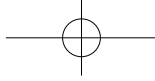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서당은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설립자의 자유 권한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기도 하고, 입학과 퇴학이 자유로우며 학습 기간과 교육 내용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서당의 종류는 훈장자영서당(訓長自營書堂)과 유지독영서당(有志獨營書堂), 향촌조합서당(鄉村組合書堂), 유지조합서당(有志組合書堂)이 있었다.

훈장자영서당(訓長自營書堂)은 훈장 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나 교육을 취미로 하여 설립한 서당을 말한다. 유지독영서당(有志獨營書堂)은 마을 가운데 집안이 넉넉한 자가 자기 집안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훈장의 급여를 혼자 부담하고 이웃집 자제도 무료 수업하는 서당을 일컫는다. 향촌조합서당(鄉村組合書堂)은 마을조합서당이라고도 하며 한 마을이 훈장을 초빙하여 마을 아동을 가르치는 서당이다, 유지조합서당(有志組合書堂)은 뜻을 같이한 개인들이 모여서 훈장을 초빙하고 모임 구성원의 자제만 교육하는 서당을 말한다.

유지비는 훈장 가족의 생활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되 땀나무와 식량 등을 현물로 제공하며 훈장이 객지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의 의복, 식사까지 학부모들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서당의 구성은 훈장, 접장,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당의 구성은 훈장, 접장,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훈장은 혼자서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였으며, 간혹 학생이 많을 경우 나이가 많고 실력이 우수한 학생을 접장으로 뽑아 대신 가르치기도 하였다.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하여 개인별 능력에 따라 학습지도가 결정되는 무학년제, 개별 학습 형태였다.

훈장은 학식의 표준이 일정하지 않았다. 강독으로는 경사, 백가를 통달한 실력있는 훈장은 드물었고 주석과 언해를 참고하여 경서의 글뜻이나 해독할 정도가 많았고 벽촌에서는 한문의 활용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극히 저열한 훈장도 많았다. 작문으로는 표



(表), 책(策), 기(記), 명(銘)의 글을 짓고 시율의 골수는 아는 이는 드물었고 율시의 하나로 오언이나 칠언의 시나 18구의 시를 읊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난한 마을의 훈장은 작문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접장은 비교적 규모가 큰 서당에서 많은 학생을 훈장 한 명이 가르칠 수 없으므로 연령과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접의 장으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접장은 자신이 훈장에게 배우는 한편 부하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훈장은 학문과 덕행이 고명할수록 접장도 훌륭한 인물이 골라지는 것이다. 접장은 직접 학생을 만나고 가르치는 만큼 서당의 풍기에 미치는 영향이 훈장보다 큰 경우가 많았다.

학생은 7~8세부터 15~16세의 아동들이 중심이고 20세 내외 내지 25세 이상도 있는 경우가 많다. 학력의 정도는 다양했다.

학과는 강독, 제술, 습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독에는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소학, 사서삼경, 사기, 당송문, 당율 등이 보통이었다. 춘추, 예기, 근사록 등의 책을 읽힌 서당은 드물었다.

제술로는 5언·7언 절구 시율과 고품 18구시 작문 등이 보통이었고 서당과 훈장의 품위와 식격에 따라 각종 문체를 연습하기도 했다. 가난한 마을이나 조그마한 마을의 경우 작은 서당에서는 제술이 전연 제외된 곳도 많았다. 습자는 해서와 초서였으며 자획이 갖추어지면 책을 베끼는 것과 서찰의 연습으로 실용에 힘쓰는 것이 보통이었다.

강독은 날마다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저하여 배우고 하루 동안 숙독하되 주산을 놓고 읽은 횟수를 센다. 일 단마다 백 번 이상 읽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루 동안 숙독한 것은 이튿날 통과한 후에 새것을 배운다. 만일 암송 하지 못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또다시 숙독시킨다. 개인마다 빠르고 늦음이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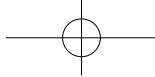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천자문의 경우 낱글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같은 것으로 낱글자를 붙여서 음독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다음에 구두(句讀)의 문리를 가르치고, 이후 한 문장의 뜻을 가르친 다음 스승 없이 스스로 해석하고 읽게 된다.

계절에 따라 과목을 조절하였는데 여름의 더운 날씨일 때에는 머리를 쓰고 연구하는 학과의 강독을 폐하고 흥취를 끄는 시와 율을 읽고 쓰는 것으로 일과를 삼고 봄과 가을에는 고문 같은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중간쯤 되는 문장을 읽고 겨울에는 경서를 읽는다.

일본인이 바라본 서당

일본인은 서당에 대하여 관찰한 후 ‘조그마한 방에서 한문 서적을 가르친다.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학과를 가르치지 않는다. 불건전한 사립학교보다 사상 문제가 없다. 유래가 오래됐고 보통교육이 넉넉지 않은 지역에 고치고 폐지하는 것은 민도(民度)에 부적합하니 적절한 조치로 지도 개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여 1918년 2월 총독부령 제 18호로 서당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어떠한 일을 관청에 고하는 방식의 제출식은 매우 간단하였다. 이때 공포한 규칙의 예를 든다면 ‘급격한 개선이나 통폐합을 강제하는 것은 피하고,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있더라고 실정을 살피고 실행할 정도 내에서 지도하라. 학교와 같이 다수의 학동을 수용하되 현지 사정과 서당 실정에 따라 한문 외에 일어와 산술도 가르치게 하며, 서당의 이름을 빌려 사립학교 규칙의 적용을 면하려 하면 단속하라. 서당의 교수 서적을 종래의 관례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이나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열거하니 그 안에서 골라서 쓰도록 하고 발매 금지 기타 불량 서적은 쓰지 말도록 하라. (천자문, 유합, 소학, 격몽요결, 계몽편, 효경, 사서, 삼경, 고문진보, 통감, 명심보감, 문장계범, 당송 8대가, 동시(東詩), 당시(唐詩), 법,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서당에 대한 정책을 알 수 있고, 서당을 무시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송문리의 서당

송문리의 서당은 향촌조합서당(鄉村組合書堂)인 문중서당(文中書堂)과 유지자영서당(有志獨營書堂)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서당을 이용하는 학생의 연령은 보통 7~8세에 시작하여 15~16세까지였으나 청년기의 20세가 넘는 학생도 있었다. 송문리의 서당에서 교육한 내용은 일반적인 서당에서 가르치는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소학, 사서삼경, 사기, 당송문, 당을 중 보통은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정도를 학습했다.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의 경우 시나 글을 짓는 제술(製述)을 가르치는 서당이 흔하지 않았으나 송문리의 문중서당에서는 가르쳤다. 학습 방법은 강독과 암송이 주를 이루었으며 학생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지도해 나가는 수준별 교육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 훈장께 큰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훈장은 학생들에게 책을 펴게 한 후 강독시켰다. 무릎을 꿇은 채로 뒤로 돌아앉아 어제 배운 것을 소리 내서 읽게 했다. 만약 제대로 읽지 못하고 더듬거릴 경우 종아리를 걷고 토막 위에 올라서게 한 후 회초리로 쳤다. 학생의 게으름을 일깨워 주고 다시 전날 배운 것을 강독한 연후에야 다음 진도로 나가는 완전 학습 제도였다. 서당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천자문의 단자를 익히게 했다. 단자를 익히고 나면 동몽선습을 천자문의 글자 한 자씩 붙여 음독하게 하는 것을 가르친 후 문리를 가르쳤다. 교사 없이 스스로 읽고 해독하도록 학습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학비는 강미라 하여 쌀로 내었으며 강미의 양과 종류는 다양하여 쌀, 벼, 보리, 등을 추수기에 훈장께 드렸다. 형편이 여의치 못할 경우 필요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훈장이 거주하는 집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등교 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으며 하교는 4시경이었다.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집에 가서 먹고 오도록 했는데 대부분은 점심을 먹기보다는 근처에서 놀다가 들어가서 오후 수업을 마쳤다.

책 한 권을 펴 때는 시세를 행했는데 송편 등과 같은 떡을 하여 훈장께 드리고 학동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었다. 공부하는 공간은 숙사(塾舍-글방과 숙소 겸한 서당) 없이 주로



사랑채를 활용하였다.

반쟁이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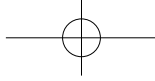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1930년대 유씨 문중에서 선생을 초청하여 살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게 했다.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송문리, 마평리, 운학리의 학동들이었다. 학생이 많을 때는 30여 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서당의 크기는 한 칸의 마루와 방 2칸이었다. 그리고 선생이 살림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주었으며 훈장 방은 1.5칸 가량 되었다.

당시 수업 내용은 천자문, 동문선습, 명심보감, 통감, 소학, 대학을 가르쳤다. 인근 어느 서당보다도 훈장이나 학생들의 학문이 깊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농협 조합장을 역임한 유홍석, 전 양지 향교 전교를 역임한 유봉수 등이 있다.¹⁾

“반정마을 유학자 집안에서 1930년 태어난 유봉수 선생은 8~9세 나이에 이 마을 문중 서당인 강당에서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비롯한 한학을 공부하고 조금 늦은 나이인 10살에 양지보통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쳤다. 가업인 농사일을 도우며 틈나는 대로 유학을 공부했다.” (양지향교지 역대 양지향교 전교 중)

“여기도 강당 터가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어. 나는 강당에는 안 다녔지. 시방 100살 넘는 사람들이 다녔지. 그리고 엄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께 천자문을 배웠어. 천자문 혼자 읽거나 글방 선생한테 배우고 그랬지. 나는 글방은 안 다녔어. 학교 다니니 글방을 다닐 이유가 없었지. 처음에 계몽 편 배우고 그다음에 동몽선습 다음에는 명심보감 이런 순서로 배웠지. 명심보감만 공부했어도 많이 배운 사람이야.

1) 양지면지 제7장 교육 송문리 반쟁이



송문3리 반쟁이 강당 터

1970년대에 새마을회관으로 짓고, 그 땅에 1996년에 정부로부터 건축비 받아서 마을 회관을 증축했지. 방이 하나 있고 회의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동네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한문 공부도 가르쳤지. 우리 큰애(현재 47살) 또래 자랄 때 회관에서 한문을 가르쳤지” (송문 3리 유장희 80세)

송문리 야학

2차대전 전에 송문 3리 229번지에서 유정(柳呈)이 문맹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한글과 일본어를 가르쳤다. 겨울에는 6시부터 12까지 공부하였다 (양지면지 교육 편에 유봉수 (1930년생) 씨가 생전에 구술자 한 내용)

송문리 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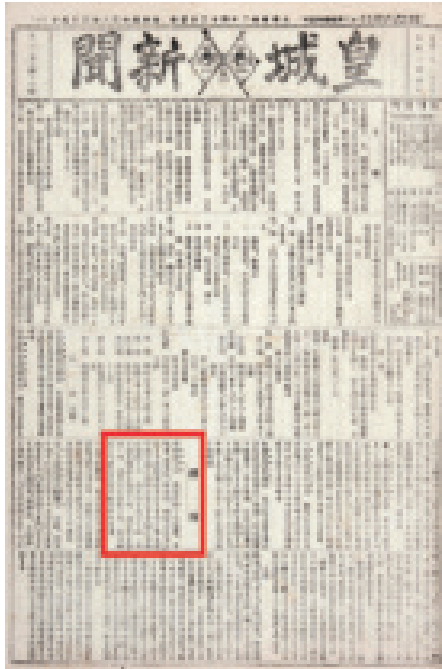
“시아버지께서 사랑방에서 중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에게 천자문과 명심보감 등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한의사는 아니셨지만 침도 잘 놓고 한문도 잘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평소에도 두루마기까지 갖춰서 한복을 입는 단정한 분이였지요.”(이한구 씨, 80세)



송문2리 유지지역서당 터

“내가 송문리에서 12대째 살고 있는데 여기 사는 터에 황 선생이라고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어. 이 집에 살던 막내아들이 다리가 불구자였어. 다리를 절어서 양지초등학교를 못 갔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나한테는 아저씨인 분이 같은 유 서방네니까 개를 위해서 한문 선생은 모셔 온 거지. 황 선생이라고. 그 한문 선생에게 밥을 먹여 쥐가면서 아들 한문 가르치게 얹혀 놓은 거야. 그때 나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나무해 놓고 그럴 때라 거길 가서 공부했지. 나를 데려다가 얹혀 놓은 거야. 명심보감을 가져가서 보는데 꽤 많이 배웠는데 이 집 둘째 아들이 시기를 하더라구. 자기네 집에서 공부한다고. 싸울 수도 없어서 그만뒀지. 그때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17살~18살 정도 되었을 거야. 그 막내아들은 황 선생한테 한문을 많이 배웠어. 배우던 중에 도장 새기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 괜찮아서 막내아들이 그걸 배운 거야. 그래서 용인 시내에서 그걸 했지. 아주 유명했어. 여기서 그 사람 쫓아갈 사람이 없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새긴 도장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쓰고 있어.”(유장희 씨, 80세)

2. 양지 추양학교(秋陽學校)



황성신문 1908년 4월 3일 '추양학교 설립' 기사

1908년 4월 3일 황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지군 신사 송종헌, 이만승, 유장근, 신양균, 유벽 제씨가 발기해서 추양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군수 심의혁 씨와 재무 서장 정규현 씨의 도움으로 재정 보조, 서적 및 물품 구입과 교사(校舍)를 수리하고 학생을 모집하는데 군민 전체가 일체가 되어 학교의 장래에 희망이 보인다'고 했다. 또한 같은 신문 1908년 9월 1일 기사에서는 군수 심의혁씨가 교육 심의를 기울여 유지신사(有志紳士)들과 논의하여 자금을 모금하여 학교를 설립하니 학도가 90여 명 달해 열심히 학문에 힘쓰고 있다며 보도하고 있다. 상기의 기사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추양

학교는 군수와 재무서장 등 관공서의 기관장과 송종헌을 비롯한 일진회 및 부호의 의견을 설립되었으며 일제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는 학비(월 쌀 1 말)가 없어 학교에 못 다닌 경우와 능력이 있으나 왜놈의 학교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 정원 부족으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교사들이 마을을 다니며 땀겨 머리한 어린이들을 붙들어서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후 1920년대 들어와서 양지공립보통학교로 인가받고 학생이 늘자 구술시험을 볼 정도가 되었고 학생은 양지, 도척, 원삼, 마장 등지에서 왔다.”²⁾

2) 양지면지 교육편 참조



양지향교 대성전(한국향토문화대전)

추양학교에서 초창기 사용한 교과서를 보면 설립 당시 명칭은 추양(秋陽)의숙(義塾)이었다. 이 학교는 유근과 원영의가 저술한 신정동국역사를 교과서로 사용하였으며 표지에 추양의숙지인(秋陽義塾之印)이란 학교의 직인이 찍혀있다. 유기송(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1 거주) 씨가 보관해오다가 2001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책이다. 이 책은 그의 조부인 유기수(추양학교 1회 졸업생) 씨가 사용하던 책으로 휘문의숙에서 간행한 것을 필사한 것이다. <양지향교지 136쪽 참조>

유근은 양지군 주서면 출신으로 동향 친척인 유장근과 유벽이 학교 설립에 참여하였으므로 교과서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3. 양지초등학교

(양지면 양지리 350/ 031-338-2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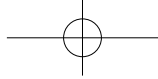
학교 연혁

- 1908년 4월 1일 사립 추양의숙으로 설립
- 1911년 9월 1일 양지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4년제)
- 1920년 4월 1일 6년제 개편 인가
- 1996년 3월 1일 양지초등학교로 변경

양지초등학교의 전신은 1908년 4월 1일 설립된 사립의 추양의숙이었다. 3년 후 1911년 4년제인 양지공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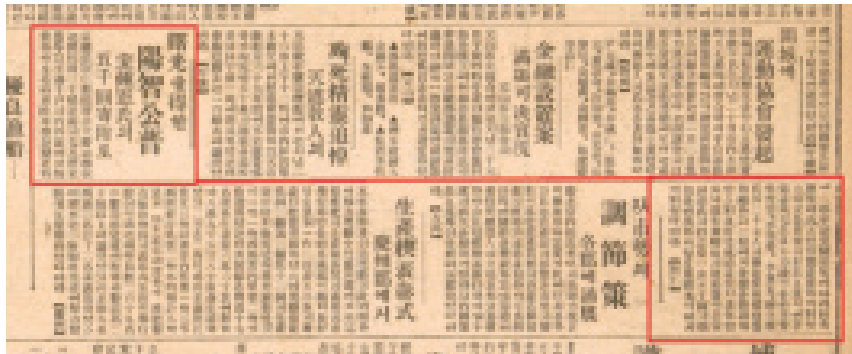
양지초등학교 변천(용인시민신문)



통학교로 설립인가되면서 공립학교로 일제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교육 시설이 되었다. 1912년 제1회 졸업생은 추양학교에서 4학년에 편입하여 165일 수학하고 졸업한 것이다. 이때부터 교장은 일본인으로 1911년 12월 1일부터 1912년 4월 1일까지의 1대 소천홍오랑(小川興五郎)을 시작으로 11대 총본육칠팔(塚本六七八) 교장이 1942년 6월 5일부터 1945년 9월 24일까지 역임하였다. 학교장인 일본인 교장의 월급은 8원이었다. 이후 광복을 맞이하면서 1945년 10월 31일부터 한국인이 교장으로 역임하며 이명구 교장이 선임되었다. 한국인 교장의 월급은 7원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940년 쌀값을 기준지표로 2005년까지를 환산한 결과 상승 배율이 6,717,239,9배인 경우 1940년 쌀 80Kg 1가마의 가격 22.68원이었다. 현재가치로 152,347원에 해당한다. 당시 7~8원은 많은 월급은 아니었다.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향교 경내에 있던 부속건물들이 낡고 퇴락하자 일제는 지방유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대성전과 강당만을 유지해 춘추향사만을 받들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속 건물들은 모두 헐어 버렸다. 또한 1911년 조선 총독부령으로 구한국 학부 소관으로 되어 있던 향교의 전결(田結)을 정리하여 전용하는 등으로 향교에서는 향교전(鄕校田) 수입에 의존하던 재원이 크게 위축되어 춘추 제향에 쓸 제수 마련조차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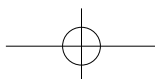
1921년 보통학교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고 학생이 증가함으로써 더 이상 향교의 규모를 가지고 증가하는 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교사 증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지역의 임철재, 이계영, 유장근 등 27명의 유지가 발기하여 양지보통학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금 모금하였으나 불과 1000호의 가난한 양지면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실행할 수가 없었다. 이때 추계리 송병준의 아들 송종헌이 5천 원의 거금을 기부하여 숙원을 이루었다. 유지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돈을 합쳐 새로 마련된 교사로 이전된 이후 지금에 이르렀으니 양지향교는 양지초등학교의 모태가 된다. 이 내용은 1926년 12월 29일 중외일보에 보도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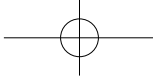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中外日報 1926년 12월 29일 '송중헌이 양지공립보통학교에 5천 원 기부' 기사

1930년에는 2~3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입학 정원 60명 중 단지 10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학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양지공립보통학교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 소풍 등의 행사는 동아일보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학교였다. 불행하게도 1951년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학교에 관한 기록이 전부 없어졌다. 1951년 1월 중공군 침입으로 교원과 학생이 철수하고, 철수 기간 중 폭격 및 병영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교사 대부분 파괴. 비품 및 장부 일체가 불에 타 없어진 것이다.

양지초등학교에서 발견되어 현재 용인문화원이 보관 중인 친일파 송병준의 아들 송중헌이 친필로 쓴 '팔굉일우' 비석에 대한 일화는 용인 내에서 유명하다. 화장암으로 된 투박한 표주박 형태의 <팔굉일우>비는 하단 너비 최대 64cm, 상단 너비 25cm, 높이 149.5cm, 두께 41cm, 무게 450kg로, 비석 전면에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글자가 한자로 음각돼 있다. 그 글자 왼쪽에 '삼위 백작 야전중헌 근서'라 써여 있어 송중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면에는 '개교 30년 기념 소화 16년 9월 1일 동창회 후원회 증정'이라 쓰여 있어 양지초등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194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21년 교사 기금 마련에 송중헌이 5천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기부한 것에 대한 보은으로 보이는 송중헌 영세기념비와 송병준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용인문화원이 보관 중인 <팔굉일우비>는 대표적인 친일 상징물로서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 및 독립운





동 100주년 기념 자료전' 등을 통해 공개 전시 되었다가 최근에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용인문화원 전시장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총 23학급, 특수학급 3학급과 유치원 2학급이 있다. 학생수는 558명,으로 학급당 평균 인원은 24명이다. 교직원 5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교 비전은 자연, 사람, 문화의 어울림이 있는 양지교육이고 교육 철학은 감성과 지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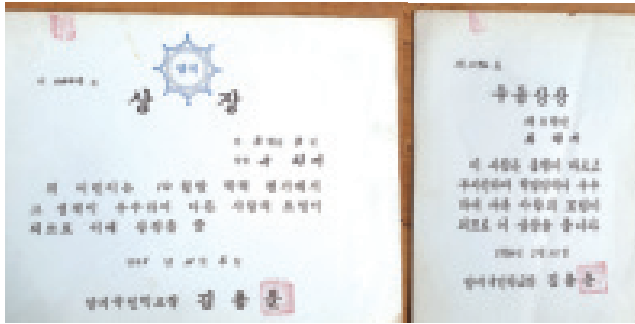
팔굉일우비(용인문화원 전시관, 용인시민신문 사진)

송문리의 학령기 연령의 아동들은 모두 양지공립보통학교를 이용하였다.

“여기 송문리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4km 정도 되지만 모두 걸어 다녔죠. 그전에는 웬만하면 걸어다녔어요.”(양일선 씨, 75세)

“그때는 점심이라는 걸 몰랐으니 한 반에 몇 명이 도시락을 싸서 다닌지 몰랐어. 있는 사람이나 보리쌀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들고 왔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6.25 직후니 미국에서 우유 가루를 줬어. 그걸 솔에 찌면 딱딱해지잖아. 그걸 입에 넣고 학교 갈때까지 입에 물고 가는데도 안 녹아. 그걸 먹고 학교에 다니곤 했지.” (유장희 씨, 80세)

“아들만 셋인데 모두 양지초등학교를 나왔어. 큰애가 47살인데 그때도 이쪽에 초등학교가 그곳밖에 없었지. 운학리, 광주 도척, 안성 일죽 쪽도 양지로 다니고 그랬어. 오촌서도 양지초등학교를 다녔을 거야. 학교에서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르치지만 옛날에는 기억, 니은, 디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배웠다고. 지금은 글자를 통으로 배우지만 우리 때는 한 자씩 배운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쳤지.” (유장희 씨, 80세)



양지국민학교 상장(991년, 유장희 씨 제공) 양지국민학교 우등상장 (1989년, 유장희 씨 제공)

“양지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주로 걸어서 학교에 다녔지만 가끔은 마을 앞 마평 정거장에서 수여선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가기도 했다.” (송병우 씨, 양지초 55회 졸업)

수여선은 1930년 일제가 조선의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수원~여주간에 부설했던 협궤열차이며, 광복 이후에는 통학이나 통근 목적으로 이용되었지만 1972년에 폐선되었다.

수여선은 1931년 일제가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철도로였다, 수원에서 용인을 거쳐 여주로 가는 총 73.4km의 구간이었다. 궤도 간격이 762mm로 표준궤도인 1,435mm보다 좁아 협궤열차 혹은 꼬마기차로 부르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도민들의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다가 1971년 12월 신갈-여주 구간의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승객이 줄어 이듬해인 1972년 4월 1일 폐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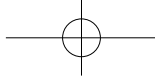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4. 용동중학교(양지면 남곡리 164-1 / 031-338-2907)

학교 연혁

- 1952. 02. 25 학교법인 신생학원 설립 인가
- 1952. 04. 01 신생중학교 개교
- 1955. 03. 30 신생중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
- 1955. 04. 01 신생중학교 설립 인가
- 1957. 12. 12 용동중학교로 교명 변경



용동중학교



2022년 현재 총 17학급, 학생 수 495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9명이다. 교직원
은 교원 36명,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은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송문리의 학령기 연령의 아동들은 모두 양지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수는 용동중
학교로 입학하였고, 일부는 용인중학교, 태성중학교 등 용인 시내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
거나 수원에 있는 학교로 다녔다.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는 용인상업고등학교, 태성고등
학교, 용인고등학교, 수원북중, 수원농업고등학교 등 외부로 통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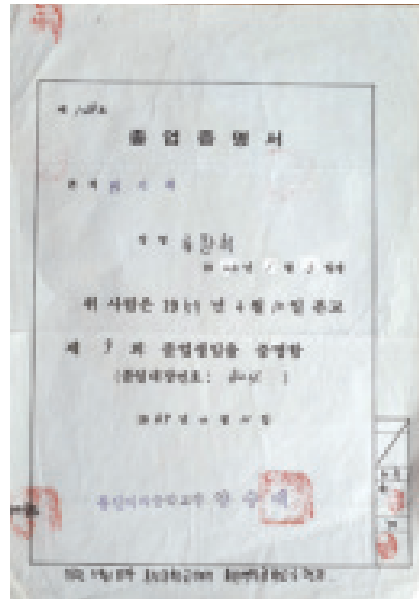
“나는 아들 하나에 딸 넷인데 모두 양지초등학교를 나와서 용동중학교를 다녔어요. 고
등학교는 딸들은 용인상고를 나왔고 아들은 태성고등학교를 보냈지.” (이한구 씨, 80세)

“중학교는 각자 사정에 맞게 가는데 용동중학교를 많이들 가고, 시내에 있는 태성중학교
나 용인중학교도 가고, 수원이나 이천 쪽으로 학교를 다닌 애들도 있고 그랬지. 우리 아들
은 셋이다 중학교가 틀려서 용동 중학교, 태성중학교, 이천에 있는 학교로 다녔어. 내가 중
학교 다닐 때는 한문을 조금 가르치다가 중국 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쳤어. 1학년만 하고 그
만 뒀어. 그리고는 못 배웠으니 한문을 알겠어? 신문 보고 익히거나 집에서들 배우고 그랬
지. 감투 글이라는 게 있어. 무슨 말이고 하니, 보면 알어! 뜻은 모르고. 글자를 읽을 줄만 알
때 쓰는 말이야. 용 용자를 예를 들면 용자인 거만 아는 거지. 무슨 용자인지 모르고, 쓸 줄
모르는 걸 감투 글이라고 해. 쓸 줄도,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나도 한글
로 써놓은 책을 사다가 천자문 익히고 동문선습을 공부하긴 했어.” (유장희 씨, 80세)

“용인중학교 다닐 때 학생이 한 반에 40명이 넘었어. 남자반 여자반 따로 한반 씩 있
었지. 그때는 안보 교육을 학교에서 시켰어. 중고등 합쳐서 우두머리가 연대장이고, 남자
만 있는 곳을 모아서 대대장, 여자만 있을 곳을 모아서 대대장, 중학교는 중대장, 각 학년
별로 소대장 이렇게 해서 사열하고 그랬지. 조회설 때는 학교별로 서고, 총 들고 훈련하



고 그랬어. 한번은 아침에 조회 선다고 나오라고 하잖아? 모두들 교실에 가방 내려놓고 조회하려고 나갔는데 한 놈이 안 나와. 왜 그러냐 했는데 조회서는 동안에 애들 도시락을 뒤졌던 거야. 맛있는 거 뭐 싸 왔나 하고.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그 도시락을 뒤집어서 가운데를 파먹은 거야. 그런 다음 다시 얹어놓고, 도시락 주인이 점심 때 뚜껑 열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빈 거지.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일이지. 그런데 그때는 애들이 그런거 가지고 말 안 했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지.” (유장희 씨, 80세)



1959년 용인중학교 졸업증명서(유장희 씨 제공)

“초등학교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원북중학교로 진학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내심 가까운 태성중학교로 진학하길 바라셨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 멀리 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지요. 수원까지 수여선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열차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때가 많았어요. 수여선은 석탄으로 가는 증기 기관차였기 때문에 용인역에서 정차해 급수를 해야 했어요. 새벽 5시 반에 기차를 타더라도 수업시간에 1시간씩 늦기 일쑤였지요. 그 후 수원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수여선을 3년 더 타야 했어요.” (송병우 씨, 양지초 55회 졸업)

5. 예원 요양원(송문리 436-7 / 031-335-6286)

고유번호 : 713-80-01126 대표 : 양예순

예원 요양원 측이 밝힌 입소 대상은 뇌졸중, 파킨슨, 치매, 만성질환 등의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 노환, 신체 기능상 문제로 의료·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분,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



신 분, 출장, 외국 여행, 집안 행사 등으로 단기 입소가 필요하신 분이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식사 보조, 청결 보조, 배변 보조, 안전 보조 등의 요양 서비스와 튜브 관리, 투약 관리, 당 체크 등의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정신적 안정 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촉탁의 의료 서비스와 장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6. 백만 송이 실버 케어(송문리 373-16 / 010-2226-3190)

고유번호 : 447-80-02010 대표 : 정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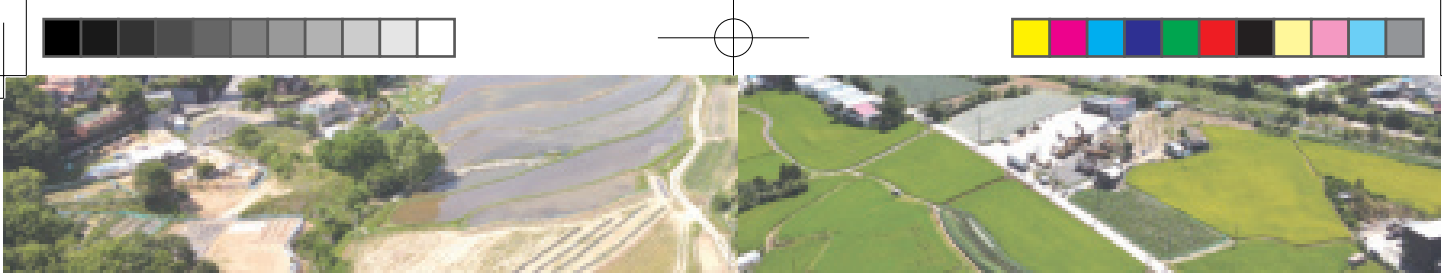


백만 송이 실버케어가 밝힌 입소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중 시설급여, 건강진단에서 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신 어르신, 기초생활보호대상 어르신의 경우로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있는 분들이 해당된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간호 상담, 욕창, 상처, 틀니, 영양 관리, 산소 제공, 호흡기 치료, 관장 등 간호 서비스와 작업치료 서비스, 실버 미술을 포함한 인지 여가 및 정서 지원 서비스가 있다. 연중 행사로 신년(송년) 행사, 나들이, 어버이날 행사, 명절 행사, 근력 강화 운동, 생신 잔치, 노인의 날 행사 등이 있다.

시설 현황으로는 로비와 생활실(1~2인실과 4인실) 거실, 정자, 텃밭, 찜질방, 야외 정원이 있다.

👉 김지혜



IV. 송문리 민간신앙과 구비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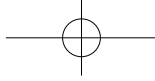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송문리의 민간신앙

1) 송문리의 마을신앙

우리의 전통적인 민간의 신앙생활은 크게 마을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체 신앙과 마을 안에 있는 각각의 집마다 무사함과 평안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제의로의 가신신앙으로 나눌 수 있다.

송문리는 양반층이 세거한 곳이기 때문에 유교적 예법의 영향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제사의 중요한 제물로 지금까지 소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마을의 변화가 심하고 인구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전통적 마을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고, 또한 종교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의 예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드물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의의 절차는 점차 간소화되고 있으며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금기의 기간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짧아졌다. 이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통마을을 구성하고 있던 주민들의 감소와 더불어 편리함을 쫓는 이기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송문1리와 송문3리는 마을제의를 지켜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한다.

송문1리 산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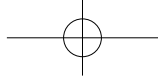
송문1리는 송문리의 3개 마을 중에서 외지인의 유입이 가장 많은 마을이다. 예전에는 송문1리와 송문2리는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45번 국도의 영향으로 각각의 마을이 발전하면서 1리와 2리로 나누어졌고, 반정마을은 송문3리가 되었다.

송문1리의 산제사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해마다 음력 10월 1일 오후 9시에 제의를 지낸다고 하는데, 2022년 올해는 용인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송문리 마을지를 위해 특별히 오후 5시에 산제사를 지내기로 했다고 한다. 송문1리의 산제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의의 규모와 절차는 간소해지고 있다.

마을의 회의를 통하여 지관(당주)로 지정되면 예전에는 7일 동의 기도 기간을 지켰는데, 제의가 간소화되면서 3일 동안 3식을 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하루 동안 개인기도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마을의 인구는 많아졌지만, 외지인들이 많고 본향 사람들은 적어 산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시간이 되는 분들로 정해서 산에 올라간다. 올해는 세 분이 산에 올라갔다. 노인회장님이 지관으로 참여하고, 두 분은 불목이라고 한다.

제물은 마을공동기금으로 마련하는데, 산에 올라갈 분들은 음력 10월 1일 낮에 목욕탕에 같이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 시장에 들러 제물을 준비한다고 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배 5개, 사과 5개, 감 7개, 밤 한 되, 대추 한 되, 북어 한 마리와 술을 준비하는데 삼색과일도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한다.

10월 1일이 되면 불목(이장님)은 제당에 미리 올라가서 주변을 청소하고, 밥을 지어 놓고 시간이 되어 지관(당주)이 올라오면 제의를 시작한다. 제의는 간단한데, 음식을 차려 놓고 절을 하고 난 후 음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송문1리는 작은 마을이라서 축문은 따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축문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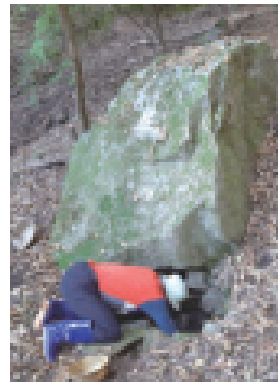
제의가 끝나고 내려오면 지관(당주)댁에서 마련된 음식과 제의에 올린 음식으로 산에 다녀온 분들이 늦은 저녁을 드신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산제를 지내야만 마을에 큰일이 생기지 않고, 산제사 음식을 먹으면 1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산제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산제사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분도 계셨고, 또 산제사 음식을 드시면 일 년 내 운수가 좋아진다고 하며, 이장섭 노인회장님은 고스톱을 치실 때, 진 적이 없었다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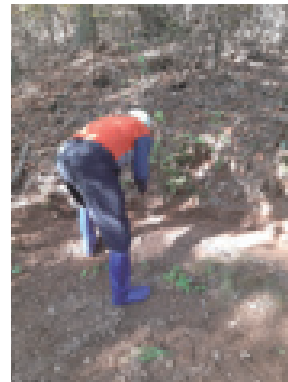
산제사에 올린 제물은 10월 2일에 마을회관에서 동네어른들에게 점심으로 대접을 하는데,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라서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신다고 하여 모이지를 앓는다고 한다. 그래서 산제사날 저녁에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도 회관에



산신제 준비 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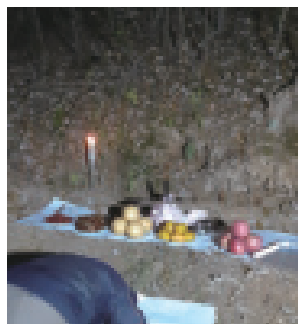
우물치우기



제단 마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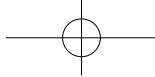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산신제 진설



산신제 절하기



산신제 후 밥먹기



늘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인회장님 사모님과 이장님 사모님이 회관으로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차려 드린다고 하신다.

2) 송문3리 산제사

송문3리 반정마을의 마을제사 명칭은 산제, 또는 산제사이다. 반정마을의 산제사는 약 200여 년 동안 내려오는 유서깊은 산제사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사람들이 산을 의지하여 살아야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송문3리 뒷산인 어은산(御隱山)의 산신을 모시는 제의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산제와 관련된 마을회의를 통해 음력 10월 초에 손 없는 길일을 잡아서 길일 자정에 드렸는데, 시대적 흐름이 현대화 도시화 되면서 점점 간소하게 하자는 뜻을 모아서 음력 9월 마지막 날 밤 12시로 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음력으로 9월 그믐날에 올라가서 10월 1일에 내려온다.

제관은 길일과 맞는 사람을 선출하였으나 본향 사람들이 줄어들어 따라 제관의 수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현재는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산제사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당주, 시장에 가서 제사 지낼 여러 가지 물건을 마련하고 잡다한 일을 담당하는 유사, 잔 올리며 절하는 헌관과 축문 읽는 대축은 실제적인 산제사의 제의 절차를 담당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고기 삶고 음식 만드는 불목 등 다섯 명이 동네를 대표해서 산에 올라간다. 헌관에게 술잔 따라주고 옮겨주는 집사가 있었으나 점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없었다고 한다.

제수비용은 ‘수합전’이라고 해마다 1만 원씩 걷었다. 그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등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지 않기 때문에 수합전은 갈수록 줄어드는 형세이다. 교회를 다니는 집도 동네의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낸다는 분도 계신다.

당주는 제사 지내기 전에 산에 3~4회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싹 해 놓고 풀도 깎아 놓는 등 제사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의 당주는 힘이 들었다고 한다. 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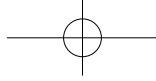
술이라는 제주도 담귀야 하고, 제사 지낸 다음 날 다시 올라가서 설거지도 해야 한다. 산에 내려오는 도랑물을 청소하고 물을 모으는 것도 당주가 할 일이다.

당주로 정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을 타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초상이 났다거나, 해산하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산제사 날짜가 정해지면 토정비결을 보는 것처럼 나이와 날짜와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 예전에는 산제사를 앞두고 두 가지 금기가 설정되었는데, 한가지는 산제를 지내기 3일 전부터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삼가게 하고, 또 하나는 제관들 집에도 금줄과 황토를 설치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삼가게 하였다고 하지만 현재는 모두 없어진 풍습이 되었다.

산에 올라갈 당주가 정해지면 그 집 문 앞에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표시하는 황토를 깔고 당주는 일주일간 부부관계는 물론 어디에도 갈 수 없고, 나쁜 것을 봐도 안 되고, 피우던 담배도 금하고 술도 안 먹고 비린 것도 못 먹고 꼼짝도 안 하고 기도와 정성을 들였다. 심지어는 파리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살생을 금하기도 했다. 지금은 개화가 됐다고 하신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지 기간이 약해져서 사흘 동안 하다가 지금은 하루 정도만 금기를 지킨다고 한다. 당주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올라갔다.

불목은 산제사 날이 되면 미리 올라가서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도 많은데 호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으나 동네의 안녕을 비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당주, 헌관, 등 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불을 피우고, 돼지도 들고 올라가서 잡아서 물을 끓여서 털도 뽑아 손질하고, 밥을 하고 떡도 찌는 등 산제사 음식 준비를 산에서 했다.

지금이야 당주, 헌관, 대축, 유사, 불목 등 모두 함께 아무 옷이나 입고 올라가서 함께 준비하고 제를 지내니 예전보다는 수월해진 것은 분명하다. 산에 올라갈 분이 없어서 함께 올라가 달라고 사정해야 한다고 하신다. 산에 올라갈 남자들이 부족하면 여자들을 참여시켜 주어야 진정한 개화이겠지만 아직은 여자는 부정 타서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를 끝내고 내려오면 청소를 하는 것은 여자를 참여시킨다고 한다. 준비는 남자



어은산제 신위

가 하고 끝나고 난 후 청소는 개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여자를 참여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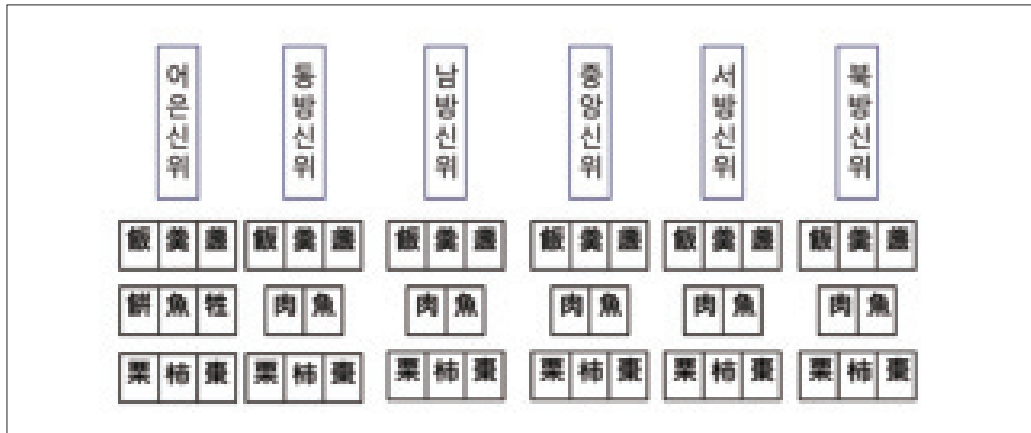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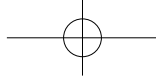
산제단에는 ‘동’ ‘서’ ‘남’ ‘북’ ‘중앙’ ‘어은(御隱)’의 6명의 신위를 모시는데 제일 왼쪽에 어은산신을 모시고 오방신은 오행상생의 질서를 따라 동-남-중앙-서-북의 순서로 자리를 잡는다. 여섯 기의 신위는 2~3cm의 굵기로 길이가 30cm 정도의 밤나무를 준비하여 가지의 한쪽 끝부분을 10cm 깎아서 여기에 각 신위에 대한 명칭을 적어 땅에 꽂아서 사용한다. 예전에는 사용된 신위들을 땅에 꽂아 둔 채로 나두고 다음 해에는 다시 마련했지만, 지금은 사용한 신위는 회수하여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한다고 한다.

당집은 어은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데, 마을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한칸 규모의 맞배지붕에 슬레이트가 올려져 있고 나무기둥에 흙벽인데, 산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문짝을 떼어가고 솔도 없어졌다고 한다. 무거운 무쇠술이었는데 훔쳐 가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감수하고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제당의 지붕은 짚으로 엮었었는데, 슬레이트로 바꾼 후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기도 사기그릇으로 만든 비싼 것이었는데 그 제기를 도둑을 맞아 없어져서 다시 장만을 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고물상이 오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많았는데 집집마다 은수저가 없어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시간을 기다려서 10월 상달이 되는 가장 빠른 시간인 밤 12시가 되면서 제를 시작한다.

제장은 당집에서 동쪽으로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낸다고 한다. 매년 마을에서 산제당까지 길을 닦는다고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땀감을 산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풀을 우거져 있어서 길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제장의 모습은 밋밋한 경사면에 풀을 제거하고 평평하고 널찍하게 2단의 제단을 만든 것인데, 하나는 신위의 제물을 놓는 자리이며 다른 하나는 제관이 절을 하거나 독축 등



어은산제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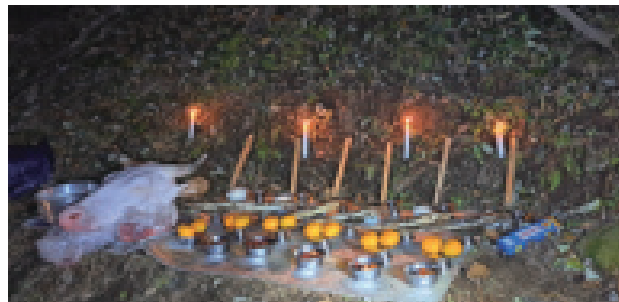
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물은 유사가 산제를 지내는 날 낮에 장을 보아 준비한다. 장은 주로 용인시내를 이용하는데, 제물로는 소머리 1개, 감 12개, 북어 6마리, 대추 한 되, 밤 한 되, 소고기 3근, 시루떡, 제주(술) 이렇게 준비한다. 제주는 예전에는 직접 담가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시장에서 사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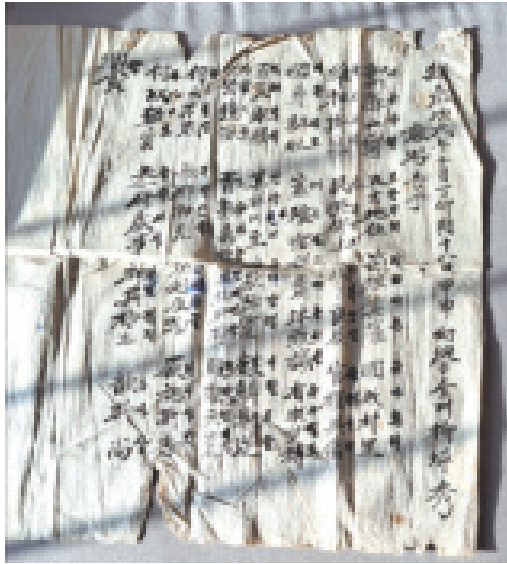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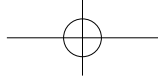
예전에는 제물 중에서 소는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렸는데, 소의 머리만 제물로 썼다고 한다. 그 이후 동네 자금이 줄어들면서 돼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소머리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나 돼지를 한 마리 잡을 때, 제물에 쓰이고 남은 부분은 10월 1일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래도 남은 고기는 집집마다 가져갔다. 그 이후 동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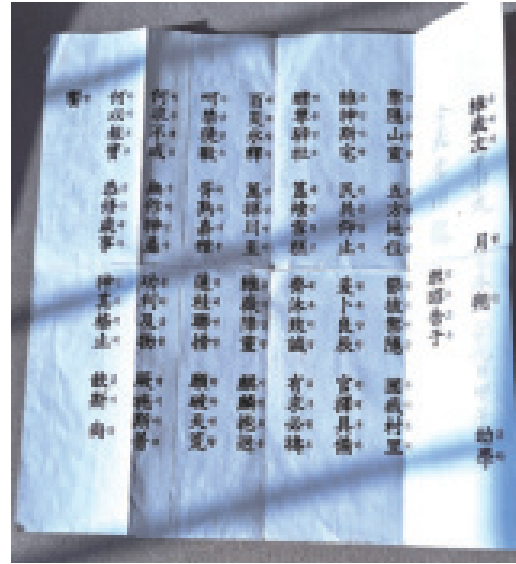
어은산제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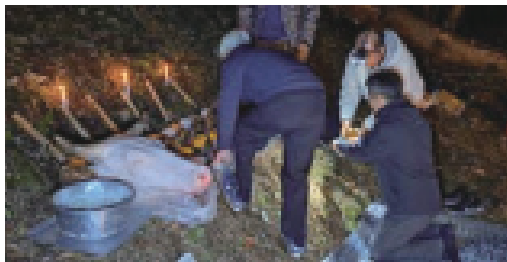
어은산제 진설 (상차림)



1978년 무오년 축문



2004년 갑신년 축문



어은산제 준비



어은산제 축문 읽기

養 何以報賈 恭修歲事 神其格止 敢斯尚	何求不成 無作神羞 功利及物 厥施斯普	呵禁饒獸 膏熟嘉種 蓮桂聯榜 顯破天荒	百災永釋 萬祥天至 維靈降靈 顯麟抱送	體尊驛社 盪煖雪糕 齊沐致誠 有求必禱	維神斯宅 民共仰止 爰卜良辰 官擇具備	梁隱山靈 五方地位 節彼梁隱 罔我村里	維歲次 月 朔 幼學 敢昭告于
-------------------------	---------------------	---------------------	---------------------	---------------------	---------------------	---------------------	--------------------

어은산제 축문의 내용



금이 줄어들면서 돼지를 잡았다. 현재는 산제사에 소머리를 놓고 지내는데, 거세 안 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거세를 한 것 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사실 거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단골집을 정해 놓고 맞추기 때문에 믿는 수밖에 없다.

산제사 날 자정이 가까워 오면 제관들은 제당으로 이동한다. 제단의 맨바닥에 여섯신위를 세워 꽃고 제물을 차려 놓는다. 북어, 밤, 감, 대추, 술(조라), 메(밥)은 여섯 신위 앞에 동일하게 놓지만, 소머리, 소고기, 백설기시루떡은 어은산 신위 앞에만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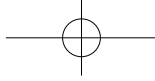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준비해 온 제물은 나누어 담고 잔을 올린다. 절을 하고 부복한 채로 축문을 읽고 다시 절을 하고 음복하고 내려오는데, 제를 지내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 예전에는 올라가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다 준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산에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축문도 과거에는 축문을 읽고 난 후에는 소각을 했으나, 그 내용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축문을 태우지 않고 다음 해에는 그대로 베껴서 사용한다고 한다.

제를 지내고 내려오면 ‘수합전’을 낸 사람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 온 사람은 뒷다리나 시원치 않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되니 말썽이 되어, 제비뽑기를 했다고 한다. 제물에도 번호를 정해서 번호로 뽑은 것과 일치하는 제물을 가지고 가게 하니 공평해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산에 올라갔다 온 음식은 개도 안 주고 다 먹는다고 하는데 만약 못 먹으면 버릴망정 짐승에게는 안 준다고 한다.

10월 초하루 날 낮에 회관에서 산제사에 올린 소머리를 삶아서 동네분들에게 저녁을 대접한다. 음식은 수합전을 냈든 안 냈든 모든 주민에게 대접을 한다.

산제사를 지낸 제물로 봉성을 싸는데,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세 분을 추려서 봉성을 싸고, 나머지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올해는 산에 올라간 다



송문3리 어은산제 마을잔치

섯 사람과 가장 나이 많은 분 한 분을 더해서 모두 6명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동네의 남자분들이 없어서 남아 계신 남자들은 다 올라갔다고 한다. 그리고 백 살 되신 분과 구십 몇 살 되신 분까지 모두 7명이지만, 한 분이 겹쳐서 6명에게 봉성을 썼다. 여자분들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만, 여자분들에게는 제물을 나누어 주지 않고 회관에서 대접하는 저녁만 드신다고 한다.

2) 송문리의 가신신앙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터는 물론 가족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이를 가신(家神)이라고 하는데 10월 상달이 되면 소박하지만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 가신에게 고사를 지냈다.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문신, 축신 등 가신들은 집의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집안의 안녕과 복을 빌어 주는 일을 하였다.



송문리에서도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부분 가을이면 가신들에게 햇곡식으로 만든 시루떡을 대접하였지만, 지금은 가신들을 섬기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송문1리에서도 예전에는 안고사를 지냈었다고 한다. 집집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루떡을 해서 나누어 먹었다. 지금은 열 집 중에 한 집도 없을 정도로 고사를 지내는 집이 없다.

“이제는 농사를 짓는 집들도 많이 없고, 우리집도 예전에는 터주도 있었는데, 집사람이 아프고 나서는 고사를 안 지내. 고사를 지낼 때는 윗마을은 윗마을대로 돌려먹고 아랫마을은 아랫마을대로 돌려먹었어.” - 송문1리 이장섭 노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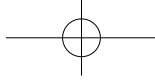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우리도 해마다 터주고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집 생일날 고사를 지내요. 집생일은 4월 초파일인데, 그날이 상량한 날이라서 그날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는데, 지금은 떡을 한다고 해도 가져다 줄 사람도 없어. 떡 한 시루 해 놓고 정한수 떠 놓고 절 한번 하면 끝이야. 쌀도 북어도 상량할 때 매달아 놔는데, 천정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 - 송문1리 이장섭 노인회장

“전에 우리 집에도 터주가 있었는데, 떡을 해서 터주부터 절을 하고 장광에 가서 빌고 그랬어.” - 송문1리 김남이 -85세

송문3리 반정마을은 음력 9월 그믐날 밤에, 남자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제사를 지내는 동안, 같은 시간



故 류봉수 님 터주



류장희 맥 터주



류장희 맥 터주안의 벼

에 집의 안주인들이 터주안의 벼씨나 쌀을 꺼내어 떡을 해서 장독대나 부엌 등에 올려놓거나, 새로 수확한 쌀을 올려놓고 안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올해는 10월 상달이 빠른 관계로 햅쌀을 수확하지 못하여 고사를 지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낱을 잡아서 한다고 한다. 선날은 썩은 달이라고 피하고 동지 달이나 정월에 낱을 잡아서 지낸다고 한다. 하지만 안고사하는 집도 이제는 드물어서 ‘젊은 사람은 젊어서 안 하고, 늙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신다.

송문3리 마을의 가신들도 거의 사라졌지만,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집이 류장희 씨 맥 한 집이 남아 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류봉수씨 맥에도 터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류봉수 씨가 돌아가신 후에는 터주를 없앴다고 한다.

“터주고사는 옛날부터 하던 것이라 가을에 떡 조금 해서 올려 놓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넘기면 안 되고 내 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산제 지내러 올라갈 때 떡을 해서 터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건데 없애려니 두려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하는 거지요.” - 송문3리 류장희 노인회장 사모님

류장희 씨 맥의 터주 안의 벼를 방앗간에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터주 안에 다시 넣고 헛벼를 바짝 말리고 있다고 하신다.



故류봉수 대문 소의 코뚜레

“터주안의 쌀로 떡을 하면 기다린 듯이 푹 익는데 그러는 것을 보면 없다 소리 못해요. 안 익 으라면 아주 죽어라고 안 익는데, 터주 안의 쌀로 떡을 하면 아주 푹 익어요.” - 송문3리 류장희 노인회장 사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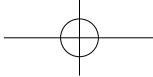
송문3리 반정마을의 돌아가신 류봉수 씨 대문 안쪽 문설주 위 들보에 소의 코뚜레를 걸어두었었는데, 이는 엄나무가지와 마찬가지로 객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 역시 류봉수씨가 돌아가신 이후로 흔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송문리의 구비전승

송문리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니 많았는데 들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을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아서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옛날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반문을 하셨다. 좀 더 일찍 자주 만났더라면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여기에 기술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송문3리의 반정마을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술한 것임을 알린다.

반정마을

뒤에 산에 소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유흥석이라는 사람이 다 밭매를 해서 없앴어. 그 뒤에 참나무가 많이 났는데 산주인이 다 없애고, 집을 지을 때 쓰는 상지목이라는 나무



를 심었어.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 뒷산에서 보면 풍수지리상 금반향의 지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정에서 반이 소반반인데, 금반향의 ‘반’이 그 글자야. 그리고 정자정, 쟁반처럼 동그랗다고 해서 반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 - 송문3리 류장희 79세

호랑이

신평리 앞에 승지골이라는 데가 있어. 용인하고 양지의 경계 지역인데, 옛날에 그곳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야 알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들은 얘기지. - 송문3리 류장희 79세

당골의 부자

당골이 있어요. 옛날에 당집이 있어서 당골인데, 그곳에 옛날에 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닭을 많이 먹었는지 닭뼈가 개울을 막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하인이 도둑 들었다고 얘기하니 “내버려 뉘라!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하니, 도둑이 밤새도록 도망갔는데 그 집 대문 못 나갔더라.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축지법을 쓴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못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 송문3리 류장희 79세

축지법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축지법은 있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니까, 옛날에 축지법을 써서 중국에서 대나무를 잘랐는데, 안 믿으시면 중국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대나무가 잘라졌다는 얘기가. 지금 하늘에 비행기가 날라다니는데, 쇧덩이가 날아다니는 말이야?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간다면 옛날에 쇧덩어리가 날라다니고 폭탄이 떨어져 불덩이가 됐다고 한다면, 원시인들이 고지 듣니? 그것을 못 믿듯이 축지법은 있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구. - 송문3리 류장희 79세



6.25 한국전쟁

신평리에 강당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들어섰어. 유익수라는 분이 아들 재희한테 난리가 나면 반정으로 피난을 가라고 했다. 그 양반이 뭘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 나는 그 얘기는 못 듣고, 난리가 나서 목리로 피난을 갔다 왔어. 목리도 여러 곳인데, 염치라는 곳이 있어. 우리어머니가 열일곱 살에 거기서 시집을 오셨는데, 거기 금점이 있어. 아래가 물구덩인데 그 위에 나무로 열기설기 올려놓고 그 위로 몇 집이 피난을 온 거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굴 안에서 그런 난리를 겪고 반정마을로 돌아온 거야. 나 어려서는 인민군이 말 타고 다니고 그랬어. 북한애들, 중국애들 말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피난을 갔다 왔는데 집 하나 허물어진 데가 하나도 없어. 아주 깨끗해. 저 아래 송문2리는 두드려 맞아가지고 엉망이고. 거기는 북한애들이 있어서 비행기에서 두드려 맞았어. 대종주유소 자리 뒤에 물레방앗간이 있었어. 6.25 때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몇 사람이 죽었어. 완장 차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죽었어요. - 송문3리 류장희 7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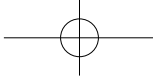
도깨비

우리 할아버지가 도깨비에 홀려서 그냥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어디를 헤매고 다녔는지 밤새도록 헤매고 다녔단 얘기만 들었어요. - 송문3리 김학순 87세

귀신놀이

초가집들 옛날 불 때고 그런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정월달이면 귀신놀이를 했다. 하얀 것을 뒤집어쓰고 머리 풀어 헤치고, 남의 집에 방문 열고 들어가서 우묵에 서 있는 거야. 그때 아주머니들이 그런 놀이를 했다. 그래도 화를 안 내고 웃고 말았다고 그래. - 송문3리 류장희 79세

도시락보재기



옛날에는 도시락도 보재기로 싸고 가방도 보재기로 썼는데, 그런데 내 도시락 보재기를 ‘광희 주라’고 하고 광희의 좋은 보재기를 뺏어 갔어요. 학교에서 집에 오다 길에서 만났는데, 깡패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재기를 빼앗겼어요. 어떤 놈이 오더니 광희 보재기가 탐이 났었나 봐. 내걸 ‘광희 주라’고 하고 광희 것을 빼앗아 갔어요. 책보재기였는데... - 송문3리 류진섭 이장

겨울이야기 1

겨울에 학교에 갔다 집에 올 때 논바닥 길로 가면 코가 새까맣졌다. 비포장이라 먼지가 쌓였는데, 길이 높고 논바닥이 얇으니까 추운 바람을 피하려고 몸을 웅크리고 논길로 아래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낙옆 속에 쌓인 먼지들이 코로 들어와서 코에 아주 새까맣게 먼지가 들어오는 거지. - 송문3리 류진섭 이장

겨울 이야기 2

옛날에는 엄청 추웠어. 옷도 부실하고 솜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솜두루마기도 없는 아이들은 동저고리 바람으로 다니는데, 바지와 저고리 사이로 살이 발갱게 많이 나와요. 그때는 길에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길 가다가 추우면 언덕배기에 햇빛 드는 곳에서 앉아 추위를 녹이고 오는 거야. 시집와서 얼마나 추운지 문고리를 만지면 찰칵 달라붙었어. 강제로 떼면 살점이 발갱게 묻어나요. - 송문3리 심윤희 89세

겨울 이야기 3

제사를 지내려고 상차림을 할 때 상을 고이면 접시가 죽 미끄러졌어요. 상을 닦으려고 걸레로 닦으면 물이 묻어서 죽 미끄러지는 거지. 집도 문풍지 하나로 의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오나? 흠벽도 얇은 벽이었고 문틈이 많이 벌어져도 문풍지로 해 놓아도 찬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물을 떠 놓으면 우묵에서는 얼어붙는 거지요. - 송문3리 류장섭 이장



은행나무 이야기

송문3리 마을회관 앞에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에는 가지 사이로 뽕나무 씨가 날아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연리목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은행나무의 모습이 보기에 안 좋다고 이 마을의 부녀들 사이에서 잘라버리라는 요구가 몇 번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연리목을 형성하던 뽕나무와 은행나무는 어느 날 은행나무 사이의 뽕나무가 싹뚝 잘려 나갔다.

이유인즉 송문1리의 주민이 몸이 자꾸 아파서 아는 무속인에게 물어보니 연리목의 가지를 잘라다 다려 먹으면 낫는다고 하여 주변의 연리목을 수소문하다가 송문3리의 은행나무를 알게 되어 잘라달라고 했다 한다. 마침 마을 부녀들의 요구도 있고 하여 뽕나무를 잘라 내어 송문1리 주민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먹고 나았는지, 아니면 나올 시기가 되어 나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픈 것이 거짓말처럼 나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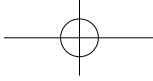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송문3리 마을회관 앞 은행나무

용마난골 전설

용마난골이 거기가 어디 있냐면 이 반정에서 어둔이 넘어가는데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가 형제봉 있죠? 형제봉이 어은산이거든요. 어은산 줄기로 저쪽으로 가면 운학리 국사봉이죠. 용마난골 쪽이 매봉, 용마난골 맞은편 짝에 두리봉이예요.



지금도 ‘홍장군묘’라고 산소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용마난골에 용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용마가 나왔다고 해서 ‘용마난골’이라고 하거든요.

1592년에 임진난이 났잖아요? 임진란이 나기 20~30년 전에, 우리 동네 그 위로 올라 가면 ‘큰가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큰가골이 있고 작은가골이 있고 큰가골 넘어 운학리 쪽으로는 가골이구요. 거기가 형제봉 그 밑이에요.

형제봉 큰가골에 세제라고 있는데, 거기가 ‘홍씨’ 촌이었어요.

그런데 홍씨촌에서 초상이 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용마난골 왼편쪽에 산소를 모신 거예요. 산소를 모시고 난 후 며느리가 꿈을 꾸었는데,

< 하늘에서 오색 무지개가 내린 그 집으로 며느리가 갔는데, 거기서 백발 노인네가 어린애를 하나를 안고 나와서 “이 어린애를 잘 키워라!” 그래 가지고 어린애를 받아드는데 모진 광풍이 일어나서 어린애를 이무기인지 흑룡인지 와서 채서 가버린 거예요. >

그 꿈을 꾸고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어가지고 어린 애를 낳았는데, 아마 날개가 달렸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날개가 달리면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을 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선 산모가 출산하고 닳새 되던 때에 뒷간을 갔다 온 거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린애가 없어진 거예요. 어린애가 없어졌으니까 발각 뒤집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다 어린애를 찾는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방에 이렇게 보니까 횃대인가 들보인가 거기에 올라앉아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어린애를 내려다보니까 날개 있는 게 발각이 났지 뭐야. 그래서 홍씨 집안에서 회의를 열린 거지. 이 어린애를 살 살릴 것 같으면 우리 우리가 다 죽을 거고, 그 어린애를 죽이면 우리가 살 게 아니냐. 결국 어린애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린애 하나 죽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 갖고 그 어린애를 방칫돌(다듬이돌)을 올려놨는데 방칫돌도 안 되고, 벼섬을 올려놨는데 벼섬이 들썩들썩하다 어린애가 죽은 거야. 어린애 숨이 끊어지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치면서 용마난골 바위를 친 거예요.



바위를 쳐 갖고 바위가 갈라지면서 용마가 뛰어나온 거지. 용마가 와서 그 집 마당에
서 와서 몸부림 치다가, 양지 가는데 그 수리너미 곡이라고 있어요.

수리너미 곡에 성황당이 있고, 고개 넘어 오얏골이고

근데 용마가 그리로 넘어가고 예계못이라고 했고 예지라고도 했고 그래요

예계못 거기가 옛날에 양지 고을 현감이 거기서 기분 좋을 때 뱃놀이 했던 곳이래요.

그 예계못에 빠져 죽은 거지

그리고 홍씨들은 그 저기서 그냥 다 싹 망하고 거길 떠났고 그 후에 우리 류(柳)가가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류가가 산 지 이제 한 400년 된 건데, 거기 옛날 홍 씨들의 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묘 흔적이 있는데, 흔적이 그 나무가 서 있고 왼편 쪽으로 있는 그 묘를
동네 사람들은 그걸 ‘홍 장군 묘’라고 해요. 바위도 옛날에는 그 커 보이더니 지금은 그
렇게 크지가 않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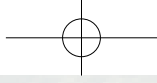
그 동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지

내 추측으로는 임진왜란 때 장사가 아니냐?

야사에서는 임진왜란 때는 날개 달린 장사가 김덕룡이라고 있었다고 그러잖아?

- 류희송(77세, 송문3리 반정 출신)

 김정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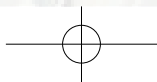
송문리 공동체와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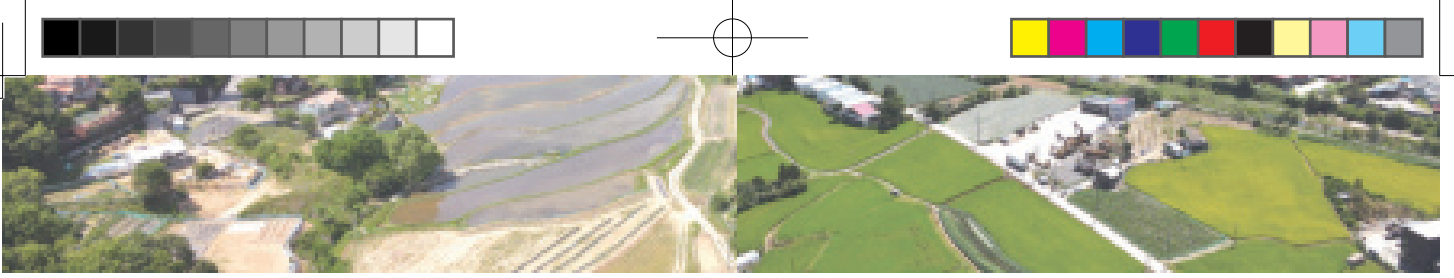
1절, 송문리 세거성씨와 인물

2절, 송문리 마을조직

3절, 송문리 근·현대 인물

4절, 송문리 문화자원 및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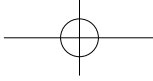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I. 송문리 세거성씨와 인물

송문리 집성촌의 형성 시기

송문리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지는 고고학적 근거와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추정하긴 어렵다. 다만 야성 송씨가 16세기 초에 송문리로 이거(移居)하여 야성 송씨 집성촌(또는 동족촌·씨족촌)을 이루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최소 500년 이전에 마을이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송문리 자연마을로는 정문, 반쟁이, 송동(굴안)으로 나뉘는데 굴안을 중심으로 야성 송씨가 집성마을을 형성했고 반정(또는 반쟁이)를 중심으로 전주 류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반정에 달성 서씨(達城 徐氏), 전의 이씨(全義 李氏)가 10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하여 몇 가구를 이루고 있고 정문(旌門)에 경주 최씨(慶州 崔氏), 달성 서씨가 또 100여 년 전부터 살고 있으며, 굴안에 원씨, 이씨가 살고 있다. 아무튼 송문리에선 유력한 집성촌을 형성한 것은 야성 송씨와 전주 류씨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문리 모습은 전통 농경사회의 모습처럼 같은 성씨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강한 연대감으로 모여 살던 주거형태와는 다르게 빌라, 전원주택, 산업시설 등이 혼재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야성 송씨와 전주 류씨들은 종친회를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과 별초, 시제 등 공동노동과 의례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하여 본고에서 야성 송씨와 전주 류씨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야성 송씨(冶城 宋氏)

본관 명칭 야성(冶城)은 시조 송맹영이 야성군(冶城君)에 봉해진데서 연유되며 야성은 현재 경남 합천군 야로면(冶爐面)의 옛 지명이다. 지금의 지명이 합천군 야로면이므로 합천 송씨(陝川 宋氏), 야로 송씨(冶爐 宋氏)라고도 하나 모든 문적에 야성송씨로 통일하고 있다.

야성 송씨의 시조는 송맹영(宋孟英)으로 고려 목종때 간의대부(諫議大夫), 총부의랑(摠部議郎)을 역임하고 야성군(冶城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야성 송문은 조선 시대들어와 송덕인(宋德仁)을 비롯하여 무과 합격자 4명, 송희규(宋希奎)를 비롯한 문과 합격자 20여 명을 배출하였다.

1) 야성 송문 입향(入鄕)

야성 송씨는 5세까지는 면면히 대를 이어오다가 6세 송덕수(宋德修)가 추밀(樞密)이 되면서 야성 송씨의 중흥기를 열기 시작하여 맏아들 희룡(希龍)은 총부랑(摠部郎)을 지내고 둘째 정백(貞栢)은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였다.

용인의 송문은 희룡의 4세손이며 경원절도사(慶源節度使)를 역임한 희미(希美)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보(保)는 장단에서 경북 칠곡으로 이주하여 후손들이 칠곡에 세거하게 되었고 둘째 성립(成立, 1424~?)은 선략장군(宣略將軍: 종4품)을 역임하고 장단에서 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으로 이거(移居) 함에 용인 야성 송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후손들은 야성송씨 10여파 중 용인을 중심한 송성립의 후손들을 선략공파(宣略公派)라 하고 있다. 선략공이 양지로 이거 한 것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당시 가까운 친척 간인 송구(宋構)가 경기감사를 역임하면서 감사의 인연으로 장단에서 이곳 양지로 이거 하였다고 추측된다.

선략공 이후로 벼슬한 이는 적지만 철종 조에 송지겸(宋之謙)은 양지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병환 중에 있어 겨울이면 추울세라 몸소 군불을 지피고 20여 리나 되는 곳에 피접 시킨 후 집에서 직접 약을 다려 먼 길을 걸어 병 구환 하였다 한다.

밤에 약을 달여 산길을 갈 때는 산신령이 감응하여 호랑이로 하여금 길을 밝혀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이를 알게 된 조정(철종14년, 1863년)에서 효자 정문을 내리고 정려각을 세웠다. 지금도 송문리에 정려각이 있어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효심을 일깨우게 하고 있다.

송문리 야성송문은 입향조로부터 12세부터 15세까지 독자로 이어지다 27세이 후로 자손이 번창하였으며 중앙으로 진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이는 적으나 조선중기부터 벼슬을 주로 무관직임으로 무관 집안이라 불리 우고 있다.

현재의 인물로 양지향교전교를 역임하고 용인 일원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하는데 주력하였던 송재문(宋在文, 1930~2022.8)이 양지면 대대리에 살았고 10대 용인문화원장, 경기도교육위원을 역임한 송재권(宋在權)이 김량장동에 거주하고 있다.

또 철학박사이며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송릉원의 입향조 비문을 쓴 송재운(宋在雲),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공학박사가 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송승호(宋丞鎬), 송운호(宋允鎬), 송성호(宋成鎬)가 있다.

종친회 총무를 수십 년간 보면서 오늘의 종친회기반을 닦고 양지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송병철(宋炳哲)이 있고 송창재(宋昌在)가 종손으로 송문의 가통을 이어오다가 사망 후 30세 종손 송철호가 자녀 없이 세상을 떠 선략공파 종손의 승계가 숙제로 남아있다.



2) 선락공파 종문들의 활동

㉞ 송릉원(宋陵苑)

송릉원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595-2에 조성되어 있다. 야성송씨 선락공파 종중 묘지로 선대 묘소들이 송문리, 주북리 일원의 종중림에 산재해있어 이를 한 곳으로 모아 보존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고 시제를 모시거나 각종 행사 때 더 많은 후손들이 모여 선조의 음덕을 기리게 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묘지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8년 납골 묘원을 조성하였다 한다.

묘원의 이름을 송릉원(松陵苑)이라 한 것은 18세손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희(僖), 희의 아우 통덕랑(通德郎: 정5품)에 오른 일(侁)의 묘소가 송릉곡(宋陵谷)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곳에 송릉원을 조성하여 송릉원(宋陵苑)이라 하였다. 왕가의 무덤이 아닌 일반인의 무덤에 령(陵)자를 넣은 것은 과거부터 송릉곡이라 하였기 때문이며 지금 사람들은 송릉곡이 변음 되어 소릉골이라 부르고 있다.

양지의 선락공파 후손들은 용인일원에 1980년대 까지만 하여도 100여 호에 이르렀으나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현재는 30여 호가 살고 있는 바 각지에 흩어진 후손들이 쉽게 참배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묘원 구조는 상단에 입향조의 묘소를 모시고 하단에 14기의 납골묘를 조성하였으며 유골 및 신위를 1기당 50여 명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약 700여 분을 안치할 수 있다. 현재는 약 120여 분을 모시고 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은 후손들이 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㉟ 시제(時祭)

송릉원 조성 이전에는 입향조 시제를 종손 중심으로 여러 후손들이 함께 시제를 올리고 입향조 이외 시제는 각 파별로 묘소에 가서 시제를 올렸다. 이때 제관과 참석자는 많지 않았으나 송릉원 조성 후 제관이 늘어나 70~80여 명이 된다.

시제 방법은 처음엔 선락공에 대해 시제를 올리고 다음으로 묘원 하단에 마련된 제단



에서 공의 후손들 중 시제를 받아야 할 모든 분들에게 시제를 올리고 있어 과거에 몇몇이 이산 저산 다니면서 여러 날 올리던 시제를 간소화 했다. 시제 때 어른이 시제 모시는 분의 업적과 가통을 전하며 더욱 알찬 시제를 드리고 있다.

제관은 송릉원 조성 전에는 몇몇이 제를 올리었으나 송릉원 조성 후에 경향 각지에서 참가하여 2022년 시제에는 80여 명이 제를 올렸다. 제물은 시제 전답이 있어 시제 전답을 경영하는 후손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 준비할 때는 송씨 집 안 며느리들이 모여 정성껏 제물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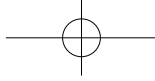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음복은 제물준비를 한 이의 집에 와서 점심 겸 음복을 하며 종친들 간에 친목을 도모한다. 제물은 일반 종중에서 모시는 것과 비슷하나 선략공과 시제 제물 중 특이한 것은 사과를 진설하지 않는 점이다. 그 이유는 사과를 일본과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옛날 전통은 적을 생으로 올리는 것인데 현재는 익힌 것을 올리고 있어 생것을 올리기 위하여 적과 아울러 간천엽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시제 때 어려운 한자 흘기를 읽지 않고 집사자가 일반 행사 때 사회자처럼 “지금부터 단기 몇 년 선략공 선조님의 시제를 올리겠습니다”로 시작하여 집전하는 이의 말에 따라 진행한다.

그리고 축문은 한자로 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3년 전부터 제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고 선조의 음덕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단기 0000년 시제를 맞이하여 기제를 올립니다”로 시작하여 순전히 한글로 축을 읽고 있다.

㊤ 종친회

종친회 업무는 장손 창재와 막내 삼촌 병철의 중심으로 해왔었다. 종사의 집중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각 호마다 쌀 1두씩을 걷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넘어간 종산일부를 되찾게 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한다. 이를 계기로 종친회를 조직하여 종사에 관한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종친회는 주북리, 송문리 일원에 산재한 선조의 묘를 이장하여 송릉원을 조성하고 선략공파 파보와 회원수첩을 제작 보급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종친회장은 철재, 부회장 설재, 총무 구재가 종친회를 이끌고 있다.

3) 송릉원에 안치된 인물

11세 송성립(宋成立, 1424~?)

공은 야성송씨의 지조 야성군(冶城君) 송맹영의 11세손으로 양지읍 송문리의 선략공파의 파조로 관직이 종4품인 선략장군(宣略將軍)임으로 후손들을 선략공파라 한다.

12세 송개(宋槩, 1464~?)

무관으로 군사조직의 오위(五衛: 군대 편제이름)의 종5품 관직을 역임하였고 부인은 충주 손씨다.

14세 송헌(宋獻, 1508~?)

조선시대 궁전에 토산품을 납품하고 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술과 안주를 등의 음식물과 직포등의 일을 맡은 관청인 내섬시의 정팔품인 봉사직을 역임하였다. 장인이 증중 조에 영의정을 역임한 장순손(張順孫)이다. 또 따님을 전주 류씨인 류지(柳墀)에게 출가시켜 이 딸이 임진왜란 후 손자 류호(柳昊)를 데리고 송문리에 와 터를 잡은 후 전주 류씨 자손이 번창하여 용인의 명문가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15세 송경(宋璟, 1508~?)

국가의 마필과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최고책임자인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역임하였고 정3품 당상관으로 통훈대부이다. 부인은 평산 신씨로 이조판서를 역임한 신정(申晟)의 따님이다.



16세 송복(宋復, 1554~?)

전력교위(展力校尉 영관급 무관) 행 용양위 부사과(龍驤衛副司果: 오위의 종4품)을 역임하였으며 묘소가 송릉원에 있다.

17세 송영범(宋永範, 1578~?)

자는 사방(士邦)이고 품계는 승훈랑(承訓郎: 종6품)으로 부인은 영인(令人) 고령 박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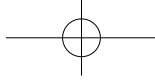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18세 송희(宋禧, 1612~1692)

자는 유백(惟伯), 품계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으로 관직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부인은 안동김씨 정부인(貞夫人: 2품 부인의 작호)이며 묘는 송릉곡(松陵谷)에 합장되어 있었는데 송릉원이 조성될 때 이장하였다.

2. 전주 류씨(全州 柳氏)

전주 류씨의 선계

본관 전주는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한 도시를 말하며 전주 류씨 시조 습(濕)이 고려 말에 전주로 이거하면서 후손들은 전주를 본관으로 하여 계대를 이어 오고 있는 성씨이다. 시조는 5남 1녀를 두었는데 큰아들 극강(克剛), 둘째 극서(克愨), 넷째 극제(克濟)와 사위 심효생(沈孝生)이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셋째 극수(克修), 막내 극거(克渠)는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대성의 기반을 닦았으며 아들들이 현달하여 시조공 습(濕)은 봉정대부 사헌부 장령에 추증되고 시조비는 삼한국대부인에 추봉되었다.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 무과합격자 79명 그리고 문과 합격자 류의손(柳義孫)을 비롯하여 97명에 이르러 명문가임을 말해준다.



1) 전주 류씨 송문리 입향

전주 류씨¹⁾가 용인에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은 류복립 장군이 진주성에서 순절함에 16세기 말공의 모친 야성 송씨가 손자 호(昊)와 함께 송문리로 이사하면서부터 라고 전해진다. 공의 모친은 야성 송씨 헌(憲)의 따님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장순손(張順孫, 1457~1534)의 외손녀가 된다.

야성 송문은 15세기 중엽부터 송문리에 일가를 이루며 세거하기 시작한 가문이고 야성 송씨 족보에 의하면 목계공 아들 호(昊)는 야성 송씨 할머니의 외조부가 영의정 장순손이고 순손의 형 말손과 조카 맹우가 문과에 급제한 명문가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공의 외가는 송문리에 넉넉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 송문리 야성송문에 전하는 이야기에 굴안 땅을 떼어주어 전주 류문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다.

목계공의 아들 호(昊)가 송문리에 이주하여 아들 괭(栝), 절(稅), 집(楸), 익(枳), 적(楸) 5형제를 두어 이들 모두 현달하여 후손들이 양지읍 송문리, 처인구 마평동, 운학동 일원에 거주하며 후손들은 전주 류문의 발전은 물론, 마을 리장, 조합장, 시의원 및 각종 사회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또 류기송, 류기민 등이 선조에 대한 기록을 찾아 각종 책자를 발간하여 전주 류씨 문중에 배포하여 전주 류씨의 족적을 알게 하여 승조정신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또 목계공 후손들 몇사람을 간략히 기술하면, 대한민국 2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한국 전쟁 중 납북된 류기수 그의 손자 류기홍이 현재 관악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에서 맨 처음 양지초등학교의 전신인 추향의숙을 설립한 류장근이 있다. 그 외 대학교수로 서울교육대학 교수를 역임한 종손 류한구 외 5명의 대학교수가 있다.



1) 전주 류씨는 유씨와 혼용되고 있으나 문중에서는 '류'로 표기하고 있다.



2) 전주 류씨 송문리 후손들의 활동

㉓ 종친회

송문리 전주 류문의 종친회는 목계공을 파조로 하는 종친회를 대종회라 하고 목계공 이하 정숙공파, 첨정공파 등 10여개의 지파 종친회가 있다.

종친회의 목적은 종원과 후손들에게 경조 사상양양과 종친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선조의 분묘, 유적수호 및 추계 시향을 모시며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송조사상을 일깨우기 위하여 <전주류씨> <목계공 현조추사록> <전주유씨소고> <전주류씨 목계공파종사> <목계공파의 족적> 등을 발간 보급하였다. 1997년 목계공의 충신정려각과 2007년에 목계공 묘소를 용인시향토 문화재로 지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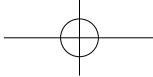
그 후 목계공과 고정공의 묘를 사초하면서 고정공 묘에 돌레석을 세우고 비를 건립하였다. 또 종원 류한중이 정려각 부지 60여 평을 기증하여 정려각 앞에 실전된 정려비를 세웠다. 매년 8월이면 선조의 묘벌초 행사를 하고 10월이면 종친회 주관으로 송문리 목계공 묘하에 재실에서 시제를 모신다.

시제 양식은 전통 제례 방식에 따라 홀기를 읽어가며 제를 올리고 축문 또한 전통양식에 따라 읽으며 제를 올린다. 제를 올릴 때 서울, 안양 대전 등 전국 각지에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제관이 늘어나고 있다 한다.

2022년 시제 때 50여 인이 올렸으며 이때 전주류씨 직제학공파에서 선조인물 재조명, 종원들의 종사 활동, 소감 등을 수록한 <호암(虎巖)>이라는 책자를 매년 배포하였다. 음복은 개인 종원 집에서 하는 것이 번거로워 식당에서 음복을 한다.

3) 목계공과 후손들

㉔ 류복립(柳復立, 1558~1593)



자는 군서(君瑞) 호는 목계(墨溪)이며 생부는 류성(柳城)으로 회헌공 류의손의 장손 지(遲)가 아들이 없어 장손 집으로 입양되었다. 공은 음직으로 주부에 명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삼촌인 경상우도 관찰사인 김성일(金誠-1528-1593)휘하에서 진주성을 공격해오는 왜적을 격퇴하였다.

이듬해 김성일이 병사하면서 성을 사수하라는 유언을 받들어 의병장 김천일, 병마절도사 황진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왜적과 싸웠으나 성이 함락됨에 김천일과 함께 자결하였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신 정려문이 내려지고 1802년 진주 창렬사(彰烈祠), 대구 임란호국 영남충의단과 안동 기산충의원에 배향되었다. 또 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신 정려각이 송문리에 있어 용인시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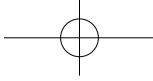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 류호(柳昊, 1574~1626)

목계공의 아들이며 자는 경청(景淸), 호는 고정(孤亭)이며 부인은 안동 전(全)씨이다. 공은 아버지가 진주성에서 순절함에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송문리에 의장을 하고 안동의 백부 기봉댁에서 가솔을 이끌고 할머니 친정인 현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로 이사해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장자 괏(括)은 일찍 죽고 둘째 절(稅), 세째 집(楫), 넷째 익(枳)은 동지(同知: 종2품)이고 다섯째 적(摘)은 통덕랑(通德郎: 정5품)이다.

㉯ 류근(柳瑾, 1861.9.26~1921.5.20)

공은 아버지 류최근(오위의 종6품 관직인 副司果 역임)과 경주 김씨 사이에서 현 마평동 신평마을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경집(敬集)이고 호는 석농(石農)이다. 향리에서 한학을 공부하다 19세기 말 혼란기에 뜻 한바 있어 1894년 상경하여 이듬해 김홍집 내각에 탁지부 주사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896년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자 관료 생활을 마치고 1898년 남궁억, 장지연 등과함께 국한문 혼용인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창간하여 독립정신 고취와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 황성신문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



聲大哭)를 쓸 때 장지연이 격분한 나머지 사설의 끝을 맺지 못하며 절친하며 동료인 류근선생에게 맺기를 부탁하여 우리 역사에 불후의 명사설이 탄생되었다 한다. 이 논설로 인하여 황성신문은 폐간된 후 휘문의숙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가 1907년 다시 속간되자 제 5대 사장에 취임하여 언론투쟁을 계속하면서 애국 계몽운동에 진력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4월에 개최된 13도 대표자 회의에 대중교 대표로 참석하고 <한성정부>라는 정부체제 선택과 각료선정 하는 일에 참가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동아일보> 창간 때 양기탁과 함께 고문으로 추대되어 우리민족이 장래 살아가면서 동아(東亞) 전체를 무대로 하여야 될 터이니 <동아일보>로 하자 하여 오늘날 동아일보라는 이름이 탄생되었다. 공은 후세 민족정신 교육, 언론활동 등을 하다가 1921년 5월 20일 영면하시어 현재 용인 현충탑 동편에 안장되어있다.

저서로는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 초등본국역사(初等本國歷史), 신찬초등역사(新撰初等歷史)를 저술하였다. 상훈으로 1962년 3월1일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에 추서되었다.

㉔ 류학수(柳學秀, 1858~1929)

1897년 관립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청주공립소학교, 함경남도 관찰부 공립소학교, 전라북도 관찰부 공립소학교 교원을 거쳐 1909년에 진남포 보통학교 훈도겸, 교장을 역임하며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다 영면 후 묘는 송문리에 있다.

㉕ 류영(柳玲, 1917~2002)

공은 전주류씨 시조로부터 20세로 부친 류원근과 수성최씨 사이에서 4남1녀중 3남으로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운향(雲鄉)으로 1943년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하고 경성일보 기사를 하였으며 이때 반일협의로 옥고를 치루었다. 광복 후 조선통신사 기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동대학 문리대 영문과에 편입 졸업하고 1949년 향리인 용인 태성고등학교에 교사를 역임하였다.



1956년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밀턴(Milton)연구 및 현대 영미시를 강의하였다. 1988년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명예 문학박사가 되었고 2002년 별세 하였고 공의 아들 둘이 대학교수이다,

1939년 유운향(柳雲鄉)이라는 필명으로 소설 “조갯살”이라는 소설을 써 문단에 등장한 후 영문학에 관한 각종 논문과 시로 전향하여 많은 시를 각 지상에 발표하여 영문학은 물론 시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공은 연세대는 물론 서울대, 중앙대 고려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고 문예사조 문학대상을 수여받았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평생을 영문학 연구와 번역에 헌신한 선생의 유지에 따라 <유영학술재단>을 창립하여 매년 <유영 번역상>으로 상금 1천만 원을 시상하고 있다.

조선시대 목계공 후손들(종4품 이상)

세	성명	생몰년대	품 계	관 직	부
11	류 절	1600-1681	정3품 절충장군	첨지	호
	류 집	1604-1696	종2품 가선대부	동지	
	류 익	1607-1692	종2품 가선대부	동지	
12	류여수	1636-1696	종4품 선략장군	선전관	집
	류창수	? - ?	정3품 절충장군	첨지	익
	류문수	1651-1720	종2품 가선대부	오위장	
	류형수	1630-1711	종4품 선략장군	선전관	적
13	류영수	1631-1706	종4품 정략장군	첨정	
	류덕기	1650-1743	종2품 가선대부	동지	광수
15	류승기	1672-1757	종2품 가선대부	동지	영수
	류 정	1710-1780	정3품 통정대부	증 승지	연진
16	류 주	1724-1803	정3품 통훈대부	증 사복시정	정석
	류양래	1736-1816	정3품 통정대부	증 좌승지	주
17	류겸철	1770-1838	종4품 정략장군	태안군수	협래
	류준양	1820-1902	정4품 조산대부	부호군	정래
	류두환	1765-1815	정3품 통훈대부	증 참판	사래
	류세양	1831-1907	척임관(1,2품의 관리)	의관	심
	류기양	? - ?	정3품 절충장군	첨지	손
	류태환	1760-1815	종2품 가선대부	증 호조참판	양래
18	류지양	1809-1877	정3품 통정대부	도정	명석
18	류 첨	1807-1885	종2품 가선대부	동지	두환
19	류당근	1818-1886	종2품 가선대부	오위장	은
20	류 원	1859-?	정3품 절충장군	영장	은근
17	류준양	1820-1902	종4품 조산대부	부호군	정래

현대 목계공 후손들(조선시대 종4품 이상 급)

구 분	세	성 명	생 물	부	비 고
국회의원		유기수	1902-1986		2대
		유치송	1924-2006		6,9,10,11,12대-
		유일호	1955-		18대와 국무총리 직무대행역임
		유기홍	1958-		
판사	20	유영(瑛)	1892-1950	유장근	
대학교수	20	유영(琿)	1917-2002	유원근	영세대학교
	21	유능수	1950-	유영(琿)	강원대학교
	21	유혁수	1953-	유영(琿)	일본 황빈국립대학교
	22	유원희	1952-	유찬수	인천대학교
	25	유한구	1945	유종석	서울교대(종손)
군인	21	유호수	1937-	유 관	육군대령
	23	유기호	1959-	유강희	육군중령
	21	유중수	1924-		육군대령
	21	유전수	1959		공군대령

㉞ 정려(旌閭) 받은 분

정려란 조선시대 충신, 효자, 열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상으로 정려를 받으면 오고가는 이들이 보고 배우라고 마을 어귀에 각(閣)을 세운다. 목계공 후손들 중에 정려를 받은 이는 목계공이 충신 정려를 받아 송문리에 정려각이 있다.

그리고 공의 15세손 유순의 처 안동권씨의 열녀(烈女) 정문을 1753년(영조29)에 받아 목계공 충신 정려각에 모셔져 있다. 또 유생 류관의 딸이 한양조씨 조병욱에 출가하였으나 남편이 병약하여 백방으로 병 구환 하였으나 일찍 죽자 16세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따라 순절(殉節)했다. 이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1905(고종5)년에 정려문을 내렸다. 정려각은 안성시 난실리에 350-2번지에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양지면지, 용인시사, 양종중 족보
 야성송씨 <송릉원>, 야성송씨 선략공파 종친회지
 목계현조 추사록, 목계공파의 족적,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종구



II. 송문리 마을조직

송문리는 당초 정문, 송정, 반정마을로 구성된 한 개의 법정리였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송정마을이 송문 2리로 가장 먼저 분할됐고, 그 다음에 정문마을 송문1리에서 3리(반정마을)가 갈라져 나왔다. 당초 각 마을의 생활권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3개 리로 나뉘어져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부녀회의 존폐가 논의되기도 한다.

원래 부녀회원들의 연령대가 노인회 입회 연령인 65세 이하로 구성 되는 게 맞다. 그러나 마을이 고령화 되면서부터 마을에 젊은 부녀자들이 드물다 보니 70대까지도 부녀회원으로 남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녀회가 70대, 심지어 80대 연령층까지 구성돼 있기도 했다. 일부 회원은 부녀회와 노인회 양쪽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연령대가 부족하거나 없는 부녀회 조직을 아예 없애고 전체 회원이 노인회로 옮겨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송문 2리는 10여 년 전에 이미 부녀회가 없어진 상태이고, 송문 1리 부녀회는 현재(2022년 12월)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회의를 앞두고 있다.

송문 3리 부녀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원주택에 이주해 들어와 살고 있는 젊은 부녀자들이 함께 마을 일에 참여하면서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 보통 전원주택 등에 이주해 들어오는 주민들의 경우, 마을 일에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송문 3리 부녀회는 현재 부녀회장 고향이 송문 3리로, 도시에 살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다시 고향 땅에 이주해오면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함에 따라 마을 일에 참여하는 젊은 이주민 부녀회원들이 늘어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송문 1리¹⁾

송문 1리 마을은 180가구가 넘게 모여 살고 있지만 외지에서 입주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원주민은 약 50여 가구다. 그나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혼자 사는 가구도 꽤 있다. 마을에 오염원이 없고 공기가 좋아서 빌라나 전원주택 등 외지에서 들어온 이주해오는 주민들이 많지만 마을 일에는 관심이 없고 참여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원주민 위주로 마을이 운영 되고 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린 막내들이 마을의 이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원주민들은 연령대가 70대, 80대 고령층이 많다. 특히 송문 1리의 경우 남자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여성들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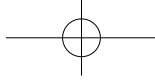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현재 자녀들은 대체로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고령화 추세를 막기가 힘든 상황이다. 과거에 마을에서 북적거리며 놀았던 윗놀이도 이제는 옛 향수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을회²⁾

마을 일에 참여하는 주민은 원주민 위주로 대략 50여가구 정도다. 과거에도 원주민 가구수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나간 집이나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몇 가구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다. 마을회 임원은 이장, 감사, 1반 반장, 2반 반장, 노인회장 등 다섯 명이 개발위원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장은 고박사 냉면 쪽이 1반 반장, 마을회관 쪽으로 2반 반장이 맡고 있다. 1반 반장이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있다. 이들 임원진은 개발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마을의 주요

1) 송문 1리는 이장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이 각각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보충을 해주실 분의 인터뷰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송문 1리의 경우는 세분 외에 원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다.

2) 마을회에 대한 내용은 이세용 이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



송문 1리 마을회관과 회관 마당에 세워져 있는 송문 1리 공동농기계창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쳐 동네 전체 회의에 붙이는 등 마을을 움직이는 중추적 기구로 활약하고 있다. 주로 도로포장 등 숙원사업을 비롯해 회관 수리, 운동기구 구비 등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올해도 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마을회관 바깥에 수도가 없어요. 그걸 또 올렸어요. 조금씩 조금씩 실행하면서 나아지고 있어요.”

임원 중에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이장이 새마을지도자와 반장에게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지만, 도장을 찍는 일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1순위다.

“동네에 뭘 산다든지 어디에 뭘 하면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찍어야 됐어요. 지금도 그렇죠. 동네서 큰 물건을 사든지 할 때 이장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도장이 우선이에요. 새마을지도자가 우선이에요. 1순위 도장을 찍는 경우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마을에 기금이 있다고 가정할 때, 마을에서 아파트 샀다면 새마을지도자 앞으로 하고 팔 때도 새마을지도자 도장이 있어야 권한이 있어요. 새마을회는 없어도 새마을지도자는 있어요. 명예로 세워놓는 거예요. 마을에서 한 명 뽑아서 면에 추천을 해요. 1반 반장이 새마을지도자를 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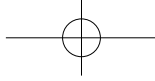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송문 1리 마을회관 1층에 자리잡은 남녀 노인정. 마을회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좌측이 남자 노인정 입구이고 우측이 여자노인정 입구이다. 출입문과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마을회관이 지어진 것은 1999년으로 벌써 20년이 넘었다. 2층짜리 건물이며 1층 좌측에는 남자노인정, 우측에는 여자노인정으로 공간이 완전하게 나뉘어있다. 마을회관 현관문을 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없이 좌우 양쪽으로 공간이 분할돼 출입문이 따로 있다. 2층은 바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회관을 짓기 전에는 개인집 같은데 회관이 있었어요. 마을 기금이 없으니까 누구네 집 건물을 얻어 가지고 세를 주고 회관을 쓴거죠. 그 이후에 회관 부지를 별도 장소에 마련해 회관을 새롭게 지은 거죠. 마을기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샀어요. 개인으로 당시 5만원, 10만원, 50만원 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돈을 걷어서 땅을 사서 회관을 지은 거예요. 땅이 있으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줘요.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거죠. 대지가 100평 정도 되요. 2층으로 건축했어요. 1층에는 노인회 남자방, 여자방. 방이 두 개예요. 2층은 운동하는 공간으로 썼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다보니 비어있어요. 2층에를 못 올라가요. 세를 놔도 안나가요. 운동기구는 아래층으로 다 내려다 났죠.”

마을회관 마당에는 송문1리 공동농기계창고가 한 칸으로 널찍하게 세워져 있다. 지난



2015년에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됐다.

주로 원주민들이 회관에 나오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도 들어올 주민들은 들어온다. 그러나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다.

“회관에 나오라고 해도 잘 오질 않으세요. 결국 모이다 보면 동네분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연세들이 있어서 많이 모여야 6, 7명이에요.”

현재 이장은 나이가 젊다. 올해 63세로 막내다. 이장 일을 맡은 지 올해 6년 차 됐다. 나름대로 젊게 운영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을 운영이 보다 활기차졌다. 전에 이장들이 70대, 80대의 연로한 분들이 보던 것과 달리 연령대가 60대로 젊어진 점이 최근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마을 조직으로 청년회, 4-H클럽, 상조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어느순간엔가 없어졌다. 다만 상조회는 명목상이지만 남아있다.

“알게 모르게 없어져버렸어요. 상여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지금은 상여 메는 일은 없어요. 지금은 상여도 다 소각해서 없어요. 상여 보관하던 터는 있어요. 개울 옆에 집을 지어나서 개울 옆이었죠.”

2022년 마을 대동회는 12월 18일 날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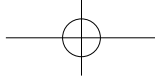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1년 내내 쓴 결산을 그날 보는거죠. 내년 사업같은 것은 그날 동네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올리는거죠. 제가 면에 가서 사업계획 그런 걸 올리게 되죠.”

연말이지만 송년회 잔치를 열지 않고 조촐하게 식사로 마무리 한다.

“그전에 옛날에는 마을에서 대동회 하는 12월달에 총 결산을 보면 마을에서 음식을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음식을 할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맞추다보니 노래부르고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식당에 예약을 하고 먹어요.”

원주민들의 연세가 대략 75세가 넘었다. 물론 토박이 가운데 50대 젊은 층들도 있지만 마을에 행사가 있어도 젊은층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 강제로 하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 이장 임기는 올해로 끝이다. 한번 재임해서 6년 동안 이장 일을 봤다. 이번 대동회



때 새로 선임되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마무리하게 된다. 원래 이장 임기가 3년 이고 재임해서 6년을 볼 수 있다. 현재 새롭게 이장 할 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마을에서 여행을 다닌다. 이때 시기나 장소는 개발위원들이 결정을 한다.

“개발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날을 잡죠. 장소는 연세가 많으니까 멀리는 못가시고 가까운 데로 다녀와요. 포천이나 서해안 쪽을 가요. 강원도는 이제는 못가세요. 고기가 드시고 싶다면 포천 이동갈비 쪽으로 가고, 회를 잡숫고 싶다면 서해안 쪽으로 가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다녔잖아요. 올해 다녀왔어요. 1년에 두 번 가는데 노인정에서 한 번가고, 동네에서 한 번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을 가요. 여행비는 노인정 주도로 갈 때 기업이나 가는 분들 가운데 찬조가 들어오면 다 노인회로 줘요. 그리고 동네에서 놀러 갈 때는 노인회에 찬조 들어 온 것을 동네에서 관리를 하죠. 이장은 노인회에서 주최할 때도 총괄 관리자로 참여를 해요. 이장이 날짜도 같이 잡고, 차량도 같이 빌리고 하는 거죠.”

마을 행사로는 한여름 복날에 식당에 예약을 해서 오리나 닭으로 복달임을 한다. 예전에는 척사대회도 열었으나 요새는 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흥겹게 놀다보니 어쩌다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아쉽죠. 요새 하고들 싶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시 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옷놀이 표를 팔아서 운영자금으로 썼다. “표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선물도 사고 먹을 것도 준비했어요. 마을분들이 많이 나오고 재밌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없으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표가 보통 5천원, 1만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가 본 저기가 아니에요. 들어와서 산지가 한 40년됐어요. 40년 살면서 새마을지도자, 반장을 15년을 봤어요. 아내(박정순씨)도 부녀회장을 10년 이상 봤죠. 동네가 북적북적 생기가 넘치고 흥겨웠던 동네예요.”



노인회³⁾

송문1리 노인회는 회원이 20명 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댓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할머니들이다. 많을 때는 28명정도 됐는데 다들 돌아가셨다. 동네에 남자들이 많이 작고해서 여성들이 많이 남았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한 명, 총무 한 명, 감사 한 명이다. 모이는 장소는 마을회관이다.



송문 1리 여자노인정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단체 사진이다. 사진 찍을 당시 부녀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현재는 노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인회는 90년대정도에 공식적으로 결성됐으나 노인회가 결성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사랑방에 모여서 술 먹기 내기, 나이롱뽕 같은 화투 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

냈죠. 여름에는 농사짓느라 바빠서 못하고 겨울에 모여서 여가를 보내는 게 재미있던 시절이었어요. 당시는 여가를 보낼 특별한 놀거리가 없던 시절이었죠. 때로는 모여서 새끼도 꼬고 가마도 치고. 나도 거기서 전부 같이 했어요. 옛날에는 노인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랬어요.”

현재 노인회는 가입 조건이 없다. 송문 1리에 거주하면 누구든 입회가 가능하다. 연령은 65세부터다.

“어떤 동네는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도



노인회관에서 이덕만 노인회장

3) 노인회에 대한 내용은 이장섭 노인회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까지 끝내고 모여서 화투를 즐기시는 노인회 여자노인 회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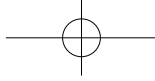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많지 않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들어와요. 모두들 바빠서 그러겠죠. 올해 연말에 한번 들어오라고 다시 권고를 해볼려고 하는데 어찌 될 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들어오는지는 모르죠.”

노인회비는 1년에 1만원 한 번 걷는다. 부족함이 없다. 시에서 전기료, 수도세 등 회관 유지비를 내주고, 노인회 부식비와 쌀 20kg이 매달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다.

“솔직히 노인회가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처인구지회에서 노인회가 쓸 돈이 나와요. 쌀도 다달이 20kg씩 나오고 전기비 이런 것 따로 주거든요. 거기서 돈을 주면요 그건 통장에 들어가요. 노인회 통장에 들어가면 연락이 와요. 반찬이 없다든가 하면 사주고 그러는거죠. 총무님이 살림을 하니까요.”

할머니들이 회관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점심을 드실 때 시간 되는 할아버지들도 식사를 같이 한다. 처인구지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라고 비용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바람 쏘이러 여행을 갈 때 노인회도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즐겁게 다녀온다.



노인회 월례회의는 농번기 때는 바빠서 잘 못하지만 농한기 때는 회의도 한다.

노인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꽂초도 줍고 휴지도 줍는 등 마을 청소를 한다. 이때 모이면 점심 대접을 하면서 친목과 건강을 다진다. 외식을 하면 모처럼 기분전환도 된다.

분기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2월 말에 정산서를 면에 제출하는 등 할 것을 다 한 후 잔고가 남는 게 있으면 반납을 한다.

“몇 천원 남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연말에 가서 다 정산을 해서 올리면 몇 푼 남으면 반납 할 건 하고 그래요.”

노인회 총회를 2월 중순 경에 마을 대동회와는 별개로 노인회만 따로 한다. 총회 때 노인회장 선출도 한다. 임기가 4년이며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8년 연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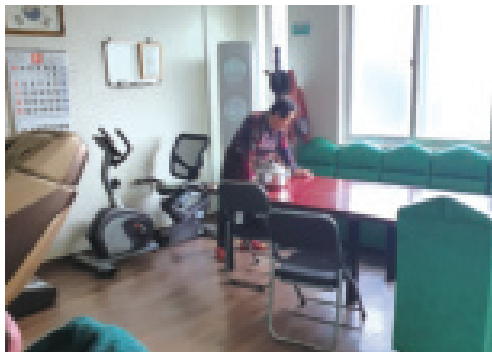
현재 이장섭 회장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난다. 한번 연임해서 8년째 된다.

“누가 혼자 회장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넘겨 줘야죠. 아쉬운 것은 없어요. 속이 시원하죠. 총무가 잘 하지만 일일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양지면에 가끔가다 나가서 회의를 한다고 오라고 하면 가고, 젊은이들이 청소를 하지만 우리 노인들도 자청해서 청소도 하고 그러죠.”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해온 이주민들과는 잘 친해지지 않는다. 얼굴을 알기는 하는데 안면만 있기도 하고, 아예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노인회에 들어오

라고 해도 한 명도 안들어온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한 명도 안온다. 노인회에 들어올 생각을 워낙 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회에서도 부를 생각도 안한다.

노인회 가입은 65세부터이지만 70세가 돼도 들어오라고 해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 입회비는 없다. 마을의 제일 고령자는 93세이고 70대, 80대가 대부분이다. 복달



송문 1리 1층 여자노인정에는 간단한 운동기구와 안마기 등이 놓여있다.



임 때도 식당에서 맞춰 먹는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소머리도 삶아 잔치를 벌였지만 이제 연세들이 들어서 귀찮다고 하지 않는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회관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자유롭게 나오게 되자 할머니들이 무척 좋아한다. 식사도 함께 해 먹고 운동도 하고 고스톱도 치면서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낸다.

부녀회⁴⁾

부녀회원은 현재 12명이다. 부녀회를 폐지할 지 여부를 묻는 회의를 12월 3째 주에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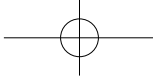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부녀회원들이 나이를 잡수셨다고 죄다 빠져나갔어요. 나가서 노인회에 입회했죠. 나이 칠십 되신 분들도 있고, 젊은 우리 또래들도 있는데 그냥 뭘 부녀회를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소리가 나오니까 회의를 해봐야 알아요. 남아있는 12명의 회원들이 부녀회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다른 지역 부녀회가 70~80대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회도 하면서 부녀회원으로도 활동하는 것과는 달리 송문 1리는 부녀회원들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녀회원들은 65~70세 정도까지다.

부녀회 임원은 회장과 총무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모이다가 이번에 회의 겸 처음 모이게 된다. 평소에는 모여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모이지 않는 편이다.

회비로 회의 후에 식사를 하기도 한다. 회비는 해마다 2만원씩 낸다. 매년 2만원씩 죽 걷어왔던 게 지금 남아있다. 남아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할 때 점심을 먹고 끝낼지 어찌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부녀회에 대한 내용은 장순자 부녀회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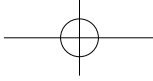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만약에 부녀회가 없어지면 현재 남아있는 65세부터 70세까지 부녀회원들이 다 노인 회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을에 부녀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마을에 젊은층이 별로 없다 보니 부녀회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없다. 외지에서 전원주택이나 빌라 이런 곳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부녀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 현재 원주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부녀회에서 활동하던 시어머니가 그만두면서 며느리한테 하라고 해도 며느리들이 안 들어온다. 안들어오는 이유는 또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들 나이든 분들이라서 나와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나오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부녀회장은 현재 부녀회장이 세 번째 연임 중이다. 양지면 부녀회 차원에서 급식 봉사도 하고, 개천 청소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많다. 동네 차원에서는 하는 일은 봄, 가을로 마을 청소를 하고 회관 청소를 한다. 노인회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식사를 해서 먹는 것과는 달리 부녀회원들은 회관에서 식사를 해서 먹지 않는다. 대신 부녀회원끼리 외식을 일 년에 한 두번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

한때 부녀회원이 30명씩 되고 재밌던 시절도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일부 빠지고 하다보니 불과 5년 정도 사이에 12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그 사이에 70대 후반부터 80세가 넘고 90세가 되신 분들이 생겨났다.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부녀회원들은 코로나 때 회관에 남는 쌀로 떡도 해서 돌리고 추석 때는 송편도 해서 돌렸다. 어버이날이나 설 명절 때는 떡국도 해서 돌리는 등 기본적인 활동이 있다.



송문 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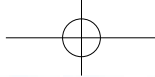
송문 2리는 용인시청에서 양지방면 42번 국도 좌측 동네로 과거 수여선이 지나던 동네다. 현재 10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마을 일에 협조가 잘 되는 가구는 원래 부터 동네에 살던 30여 가구다. 빌라에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마을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협조가 거의 없다. 다만 빌라 주민 중에 반장을 세워 마을과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반장 2명 가운데 1반은 원주민, 2반은 빌라 쪽 대표로 각각 반장이 한 명씩 있다. 빌라의 총 대표가 반장을 해서 주민등록 조사라든지 주민 조사할 때 협조가 잘 된다. 반장 밑에 동 대표들이 조직돼 있어 일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연세가 70대와 80대가 많고 60대가 둘 정도 된다. 이장이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다. 빌라에는 젊은층이 좀 많은 편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마을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동네 어르신들은 주로 텃밭을 가꾸며 소일을 하고 나머지 넓고 힘든 논밭은 임대를 주는 식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다. 마을 회의가 있을 때 어르신들 참여율이 100%다. 연세가 들었다고 빼거나 귀찮아서 안나오는 일이 없이 열정적으로 참석한다.

마을회⁵⁾

송문 2리는 최고령 할머니가 92세이고 남자는 88세이며 보통 60대가 넘었다. 마을회 임원은 이장, 반장 2명, 감사, 노인회장 등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임원진 외에 개발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발위원은 전 이장 등으로 조직돼 있다. 개발위원은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임원 회의에 참석한다.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등 마을

5) 마을회에 대해서는 김우용 이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 김우용 이장이 잘 모르는 부분은 송성재 1반 반장을 추천해줘 송성재 반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보충했다.



송문 2리 마을회관

사업 추진에 지지와 도움을 준다.

만약 마을 이장이 응벽 쌓기 등 동네 숙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먼저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형님들,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고 물으면 그거 하면 뭐하냐 그러면 안하는 것이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는 식으로 의견들을 제시해주죠.”

결국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미리 한번 거르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걸러진 의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업은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되며 이때 그분들이 잘해봐. 혹은 합시다라고 지지해주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따라가게 된다. 마을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마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도시가스 공사였다. 최근 2022년 11월 말에 도시가스 공사 사업을 마쳤다. 공사비는 송문 2리에 송전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송주법 지원금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송전탑 반경 내의 가구가 95%에 해당하고 있어 그간 3, 4년 동안의 한전 기금을 모아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를 마쳤다. 한전 기금으로 마을 여행을 한다든지 외식 등으로 비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송문 2리는 마을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송문 1리와 3리는 송전탑이 지나가도 해당 가구가 몇 가구밖에 없기때문에 한전 기금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마을회관은 빌라 뒤편에 있어서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옛날에 개인 땅에 방작은 것 하나에 창고식으로 지은 회관을 이용했으나 땅 주인이 땅을 반환해달라고 하여 별도의 땅을 구입 해서 94년 즈음에 새로 회관을 지었다. 현재 약 30여년동안 사용하고 있다. 땅은 마을에서 샀다. 동네에 기금 있던 것과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낸 돈을 보태 70여평의 땅을 샀고, 건립비는 정부에서 보조받아 지었다.

2006년에 한강수계에서 돈을 보조해줘 2층으로 증축을 했다. 1층은 회관 겸 경로당으로 쓴다.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연로해져 2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를 줘서 동네 운영자금에 보태쓰고 있다.

마을이 연로해지면서 부녀회도 사라졌고, 청년회도 사라졌다. 상조회는 마을에 부모님이 계시고 주로 나가서 살고있는 젊은층들이 모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활동은 없는 편이다. 상조회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락하지만, 마을에서 상여가 나가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고 있다. 대략 15년 전까지는 상여가 있었다. 점차 장례식장으로 막바로 가고 화장을 하는 등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여를 소각했다.



송문 2리 마을회관 1층 노인정에는 그간의 활동 내용이 담긴 사진들이 잘 전시돼 있다. 또한 진열장에 담긴 각종 표창장 등이 노인회 등 수상 내역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치렀지만 점점 바쁜 현대로 오면서 마을에서 상을 치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상을 당하면 하루 전날 가서 산소 자리 봐주고 그 이튿날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줬다. 현대로 올수록 동네 사람들이 직장이 바쁘고 시간을 내기 어렵게 되면서 상여와 상여집은 모두 없었다. 회다지 할 때 치던 북은 남아있다. 상을 당한 집에서 동네 기금으로 쓰라고 50만원, 산다는 집은 1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이때 부녀회에도 마을에 내놓는 기금과는 별도의 수고비가 주어져 부녀회 활동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녀회원들은 초상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



1층 노인정 액자에 담겨 있는 사진들은 단합과 다양한 활동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한 명 있다. 양지면에 동네에서 추천한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한다. 마을 조직 상 이장 밑에 새마을지도자가 있다.

4H 조직도 없어졌다. 젊은 시절 활동했던 분들은 있지만 어느새 연령대가 70, 80세가 됐다. 김우용 이장이 62세로 마을의 막내인데 중학교 시절에 4H 활동을 했었다. 추석 때가 되면 마을 노래자랑도 하고 설날에 윷놀이도 개최하는 등 마을 행사를 같이 했으나 지금은 그런 풍경이 거의 다 사라졌다. 윷놀이는 안한지 꽤 오래됐다. 코로나 때문에 맥이 끊긴 게 아니라 마을에 젊은층이 없다보니 저절로 사라졌다.

“저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마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중간에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막내데, 지금 부모세대들이 다 80세 이상이에요. 부모 세대가 안하고 젊은 친구들은 외지에 나가고 마을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일이 안되는거죠. 그래서 부녀회도 안되는 거예요.”



웃놀이 할 때 웃놀이표를 판매해서 상품을 걸어놓고 놀았다. 대표 도장이 찍힌 테켓을 판매한 돈으로 상품도 사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등 운영비로 썼다. 토너먼트식으로 웃놀이가 운영됐다. 표 값이 얼마였는지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 추석 같은 명절날은 팽과리치고 춤도 추고 놀았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다.

“노는 자체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다 돌아가셨어요.”

여행은 2000년대 넘어서 갔다. 국내 여행을 봄가을로 가는 해도 있었고, 보통 일 년에 한 번씩 버스 한 두 대 빌려 바람을 쏘이고 온다.

이장 주관하에 추석맞이 대청소를 하고 복날에는 복달임을 대접한다. 예전에는 이장이 복날 개를 잡는다든가 해서 마을 주민이 하루 모여서 동네 잔치를 했다. 보신탕을 해서 먹을 때는 회관 마당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했다. 바깥에서 삶아서 회관 안에서 잡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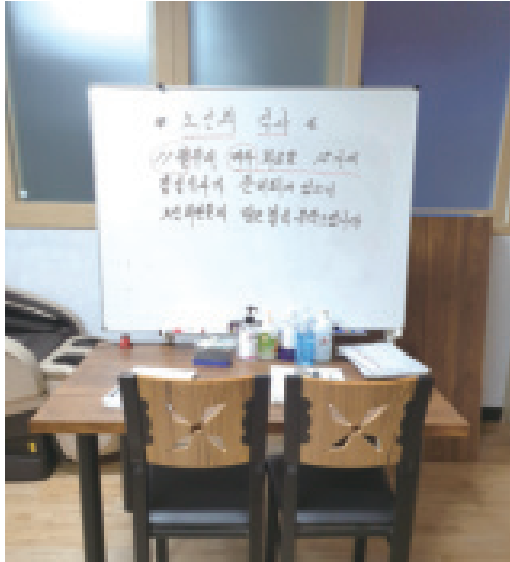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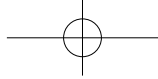
노인회⁶⁾

노인회 회원은 대략 30명 정도 된다. 그 가운데 남자 회원은 7, 8명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양일선(75) 할머니가 회장을 맡고 있다.

“여자 회장은 내가 처음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맡아서 한거지. 정신 사납고 그렇지. 노인들은 회관에도 잘 안 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 와봐야 서 너 명. 재미 없으니까. 그냥 앉았다 가고 그러는 거지 뭐. 노인회 총무를 한 5년 보고, 회장이 돌아가셨어. 할 사람이 급하게 없으니까 맡았는데 올해가 6년차야. 임기가 4년이결랑. 연임한 거야.”

회원들이 경로당 김치도 담구고 마을 청소도 한다. 김장은 공동으로 먹을 것을 담군다. 평일에는 할머니들끼리 회관에 모여 식사를 해서 드시지만, 매주 화요일은 경로당 전체가 점심을 해먹는 날로 정해놓고 노인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한다. 그때도 많

6) 양일선 노인회장이 바빠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는 송성재 1반 반장님으로부터 들은 노인회 이야기를 보충해서 정리했다.



화요일에는 노인회 식사 날임을 알리는 공지가 1층 노인정 거실에 공지돼 있다.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 공간의 모습.

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 15명 정도 나온다.

노인회에서 노래교실, 율동, 건강교실도 운영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게 스톱이 됐다.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에는 할아버지들이 참여율이 낮다. 거의 안나가는 편이다. 할아버지들이 다 해서 몇 분 되지도 않는다.

회관에 참여율이 낮은 이유 가운데는 노인 중에 7, 8분이 부업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직장이 있으니까 출퇴근 하다 보면 회관에 나갈 시간이 없다. 일회용 도루코 면도기 부업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이 있다 보니 더욱 건강해 보인다.

마을에 부업 일이 혹 생긴다 하더라도 부업 일을 하러 나갈 사람들이 없다. 대부분 농사가 있다 보니 텃밭처럼 조금씩 일을 하고, 넓은 논밭 힘든 일거리는 남한테 맡겨서 한다.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 있어도 주말이면 와서 거들어주고 있으며, 기계로 해야 하는 일은 돈을 주면 와서 해주니 농사 일들을 놓지 않는다.



송문 2리 마을회관 입구 경로당 현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양지면 송동 셋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띈다.



경기도로부터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이 된 때도 있었다. 경로당 이름이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다. 나를 기다려주는 경로당, 눈을 뜨자마자 나를 기다려주는 경로당에 가고 싶다는 의미이니 노인회원들이 경로당을 얼마나 알뜰살뜰 가꾸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노인회원들 스스로가 경로당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라 하겠다.

부녀회⁷⁾

현재 송문 2리 부녀회는 없다. 부녀회가 없어진 지 벌써 15년 정도 됐다. 부녀회원들의 연령들이 높아지다 보니 노인회 입회 연령을 넘어서게 돼 굳이 이중으로 두 단체를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노인회 하나로 통합이 됐다.

마을에는 부녀회 활동을 할 젊은 여성도 없다. 빌라에 이주해온 입주자들 중에는 젊은 층이 있지만 마을 일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녀회를 별도로 조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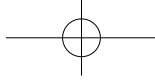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양일선 현재 노인회장이 부녀회장을 맡았었다. “노인회, 부녀회 할 것 없이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한데다 회원이 같으니까 하나를 없앤 거지. 마을에 노인회 입회 연령인 65세 안된 사람이 없어요. 그 밑에가 있긴 하는데 나가서 살고 흐트러지고.”

예전에는 부녀회가 잡화 가게도 운영을 해서 수익으로 놀러도 다니고 한때 활기찼던 시절도 있었다.

“옛날에는 활동을 많이 했었죠. 상당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다 모여서 거기 일을 다 해주고 그랬죠.”

상을 당한 집에서 다소의 수고비를 받게 되면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기금을 불리고, 그 돈이 부녀회 활동에 활력을 줬다.

7) 전 부녀회장을 맡았던 양일선 노인회장님과 송성재 1반 반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부녀회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정리해 기록했다.



송성재(71) 1반 반장에게 들은 송동 마을 이야기⁸⁾



예전에 송동부락이었으나 요새는 송문 2리라고 합니다. 야성송씨 집성촌이어서 송동이라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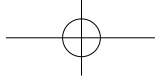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옛날에는 마을 기금이 별로 없었죠. 동네에 큰 일이 있거나 초상이 있거나 하면 기금을 모았죠. 옛날에 동네서 부역 같은 거, 공동사업 같은 데 안 나온 사람한테 얼마씩 받아 기금을 적립했어요.

옛날에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을 많이 했죠. 길이 좁았으니까.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리어커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하니까. 1970년대는 경운기도 없었고 소달구지를 많이 썼던 거죠. 새마을사업 하면서 길을 조금 넓힌 거예요. 정부에서 새마을사업 할 때 시멘트를 보조해주니까 시멘트를 받아서 포장하고 그런 거죠.

옛날에도 웬만한 거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도로 포장 길게 하는 큰 포장은 면에서 업체 선정해서 해주지만 조금씩 하는 거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했어요. 노동 일을 많이 했죠. 불만 없이 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

1970년대 초에는 퇴비를 많이 했거든요. 집집마다 많이 해서 쌓아놔었죠. 양지면 같은 데서도 담당 공무원이 새벽 한 5시 정도면 동네에 나와서 막 깨워서 퇴비하라고 그랬어

8) 송성재 1반 반장님이 송동마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셔서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보충 내용을 비롯해 과거 이야기까지 두루 들어 기록했다.



요.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퇴비 한 짐씩 베다가 퇴비 만들어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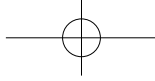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새마을사업 담당 공무원이 동네에 와서 예전에 불 나면 치는 종 같은 것이 마을에 하나씩 있었어요. 동네 사람 모이게 하는 종 같은 것이 있었는데 동네에 와서 종을 치면서 일찍 나와서 퇴비하라고 그렇게 많이 했죠. 자느라고 안나오면 집에 가서 깨워서 막 나오라고 그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요.

옛날에는 면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죠. 그때는 국가에서 시키니 담당 공무원은 잠만 자고 동네에 나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동네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옛날에 지붕 개량하고 그런 일 하느라고 힘들었던 거죠. 봉급도 얼마 못받으면서 동네 와서 같이 생활하고 막 그랬어요. 자전거 타고 나와서.

양지면은 70년대에 부락 단위로 퇴비 대회를 했어요. 면에서 각 동네별로 어느 동네가 많이 하나 경쟁을 했죠. 송문리에서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동네서 하고. 동네에서 낫질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몇 명 내보내면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 내기 하고 그랬어요. 면에서 각 동네마다 몇 명씩 뽑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네서 일 잘하는 사람들 내보내서 얼마큼 해서 쌓나 자로 재고 그런거죠.

만약에 올해는 송문리에서 한다. 한 군데 퇴비 쌓을 곳을 정해놓으면 양지 사람, 식금리, 주북리, 제일리 이런 곳에서 다 와요. 출전한 사람들만 선물로 삽도 주고 낫도 주고 그랬죠. 1등 하면 동네에 삽이나 낫 같은 농기구를 더 많이 주고 그랬죠. 공동체 일을 많이 했죠. 단합이 잘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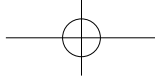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산아 제한도 했어요. 내가 결혼 70년대 말에 했는데 하나만 낳으라고 그러고. 둘까지는 낳으라고 하는데 셋을 나면 제제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수술들을 많이 했죠. 여자들 배꼽 수술이니 뭐 많이 했죠. 그때 셋 낳은 사람 거의 없어요. 나도 둘 낳았는데. 70년대 후반에 많이 했어요.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남자들은 예비군 교육가면 둘만 낳아



장례예식장 방향으로 향하는 송문 2리 마을 안길은 수여선이 다니던 철길이었다. 우측에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곳이 최근 공사한 지점인데 그 지점 아래에는 수여선 교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라 교육도 하고 정관 수술하면 교육도 빼주고 그랬죠. 여자들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때 심했어요. 정부에서 시키면 말들을 잘 들었죠. 실적을 많이 따진 거죠.

72년돈가 그때까지 수여선이 있었죠. 지금도 도로를 파면 교각이 다 나와요. 철은 다 뜯어가고 도랑 같은 거 있는데 시멘트 기둥만 남아 있어요. 다 뜯어내고 위에 콘크리트를 덮었으니까. 도로 포장은 90년대에 했어요. 70~90년대 그 사이에는 대충 비포장 식으로 길을 썼던 거죠. 철도청에서 구간 구간 용인 역전 자리 같은데 다 팔았잖아요. 양지 역전 자리 같은데 다 팔고, 마평동도 송학빌라 옆에 임시역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매각을 했고. 우리 동네는 마을길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매각을 안했죠. 우리는 신흥리(말구리)서부터 장례식장앞에까지 길을 낸 거 아녜요. 이 길이 기차길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얘기하면 기차길이라고 그래요. 기차길 그길로 해서 가면 된다는 식으로요. 수여선 탔던 경험이 있고 차표가 처음에 2원 요렇게 했었죠.



옛날에 저희 동네가 상여를 80년대 중반인가 그때 좌우지간 한번 구입을 했어요. 그랬다가 2005, 2006년경에 소각해 없앴죠. 그전에는 타 동네 장만해놓은 거 얼마간 돈을 주고 빌려다 썼죠. 초상이 나고 그러면 시내 상포집이라고 있어요. 그런데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죠. 초상이 나면 그 집에 가서 뭐든 용품을 다 가져오니까. 우리 동네에서 상여를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상여금을 좀 보조해줬어요. 우리는 동네에 큰 일이 있으면 다른 집 안가고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다 사오는거죠. 광주상점이라고 있었어요.

우연히 이용하다보니까 인연이 된거죠. 옛날에는 상포집이 용인에도 두 세 군데밖에 없었으니까요. 많지 않았어요. 각 동네에서 가는 집이 있으니까 한 집 정해놓고 그 집만 다니는거죠. 뭐든지 물건 해오고 그러니까.

동네 상여를 만들고 싶어서 상여를 장만했어요. 동네에 기금이 없으니까 상포집 같은데서 기금을 얼마 해주고 동네 있는 돈 조금씩 보태가지고 샀어요. 동네 큰 일이 나면은 장례가 난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도와주고 하면은 경비에서 얼마씩 수입이 생겨요. 지금은 다 화장문화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매장했잖아요. 상여 메고 가면 상주한테 돈 얼마 내라고 앞에 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회방아 하면 돈 얼마씩 내고. 그런거 모아가지고 동네 기금 쓰고 그랬죠. 제일 기금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런 거예요. 회달이 할 때 북치고 상여 나갈 때 요령 흔들고.

화장 문화가 생기는 데다 상여를 한 20년 쓰다 보니 낡아져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소각했어요. 2006년 정도가 동네 매장이 끝인가봐요. 그 후론 매장이 별로 없었어요. 다 화장문화로 갔으니까. 그 전에도 몇 분은 꽃상여를 사다가 썼어요. 깨끗하고 좋으니까.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져 일회용 꽃상여를 사다가 썼죠. 옛날 상여는 무겁고 보관이 힘들고 그랬어요. 상여는 옛날부터 집 가까이에는 못 두게 하잖아요. 산에 음습한데 조그만 움막 하나 짓고 그런데 가져다 두는데 잘못하면 비가 새고. 장마 때는 천 같은 것들이니까 전부 다 곰팡이가 나고 썩기도 하고 그랬어요. 신축 마을회관을 짓기 전에 동



네 가운데 구 마을회관 한 귀퉁이에 보관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나중에 회관이 헐리고 없어지니까 산에다 움막 조그맣게 짓고 거기다 보관하게 됐죠. 마을에서 이장 주선하에 마을 회의를 해서 소각하기로 결정 해서 소각했죠. 마을분도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술 한 말 가져다 놓고 고기도 사다 놓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고 소각을 했죠.

옛날에는 마을에 큰 일이 있으면 다 모여서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마을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외지 나간 사람들도 상여 메어주러 많이 오곤 그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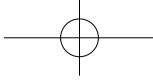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상조회가 없다고 봐야죠. 여기 살지 않아도 직장 다니는 젊은이 열 몇 사람들이 친목회처럼 모이긴 하는 것 같아요. 친목회 성격이죠.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회원이었죠. 4H는 군대 가기 밑에 사람들이 동네 단위로 다 있었죠. 회원들은 추석 때 윷놀이며 노래자랑도 했고 또 젊은 사람들끼리 논을 빌려서 감자 같은 것을 심기도 하고 그랬죠. 옛날에 논 같은 것 조금씩 얻어가지고 기금 만들려고 그런거죠.

마을에서도 공터 있으면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서 팔아가지고 마을기금도 만들고 그랬어요.

부녀회에서 구판장을 운영했었어요. 구멍가게 식이죠. 생필품 같은 거 이문 조금 남겨서 부녀회 기금 쓰고 한거예요.

마을에서 이장 주선하에 정월 보름에 윷놀이도 하고 그랬죠. 이장이 표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표 하나에 얼마씩 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런거죠. 한번 노는데 얼마씩 해서 돈을 받고서 놀게 한 후 70년대에는 상품으로 조그만 양은술, 삼 같은 농기구 이런 것을 장만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좋은 걸로다 하죠. 조그맣고 동그란 벽시계 같은 것도 선물하고. 비싼 것들은 안했구요.



송문 3리

송문 3리는 고령화 추세를 피하지는 못하지만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온 이주민들이 점차 마을일에 관심을 갖는 등 마을이 활기를 잃지 않고 있다. 특히 3리 부녀회장이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마을로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와서 살면서 원주민과 전원주택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다. 송문 3리가 모델이 돼 다른 마을도 젊은 사람들이 마을 일에 관심을 갖는 변화가 생기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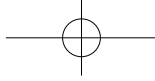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마을회⁹⁾

송문 3리는 100가구 정도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30가구 정도가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왔다. 전원주택 등을 짓고 들어와서 사는 외지인들은 마을 일에 큰 관심이 없고 마을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자녀들은 나가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명이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살게 된다. 독거노인이 15분 정도 되며 할머니가 많다. 마을 원주민들이 대체로 연세가 많아 60대는 별로 없고 70대, 80대이며 90대 고령층도 계시다. 자녀들은 외지로 나가서 살고 있다.

송문 3리는 송문 1리에서 분리가 됐다. 당초 송문리에서 2리가 먼저 분리가 되고 나중에 1리와 3리가 나뉘었다. 원래 생활권이 나뉘어 있어 각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분리하기가 쉬웠다. 분리하게 된 것은 인구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이 분리를 원해서 됐다. 분리한 지는 대략 30년 정도 된다.

노인회, 상조회,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상조회는 역할은 미미해도 회장 총무 등 직책은 다 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살고 있어서 자손들이 나가 살아

9) 유진섭 이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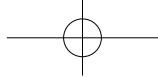


송문 3리 마을회관 모습. 마당에는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오래된 느티나무와 정자도 보인다. 바로 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 노인회와 부녀회원들의 정기적인 청소 덕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도 상조회에 많이 참석했는데 점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상조회에 가입은 돼 있어도 나가서 사는 자손들이 동네에 잘 오지를 않는다.

또 예전에는 매장문화여서 상조회 활동이 활발했지만 요새는 화장을 하다보니 상조회가 활성화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여집은 처음에 벽돌로 쌓아 지었다. 지붕이 초가였기 때문에 대동회에서 해마다 이영을 새로 이었다. 그러다가 독지가가 컨테이너를 주고 그곳에 보관하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주변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며 치위달라고 해서 없애게 됐다. 상여를 장만할 때 동네 기금으로 사왔지만 새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상여를 보관하는 것을 혐오시설로 여겨 싫어했다. 결국 상여도 다 소각했다.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상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또 상여가 무겁기 때문에 멜 사람도 없는데다 개인적으로 깨끗한 꽃상여를 사다가 쓰기도 했다. 요새는 꽃상여도 안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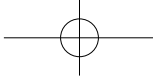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마을회관은 90년대에 지어졌다. 독지가가 땅을 내놓아 옛날에 콘크리트에 스테이트 지붕을 올린 회관 건물을 지어서 사용했다가 90년대에 그 자리에 건물을 부수고서 정부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아 새로 건립했다. 당시는 동네 사람들이 워낙 잘 모이고 친하게 지내던 터라 회관 부수고 나오는 고물을 골라서 팔고 빈병도 모아서 팔아 마을 기금으로 사용했다. 원래 마을회관 부지는 독지가가 내놓았던 것인데 회관을 짓고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작고하신 후 마을에서 회관 부지를 구입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처음에 마을회관을 단층으로 먼저 짓고 나중에 경로당 2층을 증축 했다. 그러나 노인들이 2층에 올라가기 힘들어서 층을 바꿨다. 연세가 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가장 힘들다. 노인들이 1층을 경로당으로 쓴다. 2층은 회의 있을 때 사용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 되면서 2층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신다. 따라서 주로 1층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2층이 필요 없는 상태다.

요새는 마을 기금과 노인회 기금을 모아 마당에서 회관 올라가는 바깥 계단에 붙잡고 다닐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었다.

마을회관에는 노인회원들 가운데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못나오고 대략 너댓명 정도 노인분들이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해서 잡숫고 놀다가 들어간다. 3리 주민들은 화투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모여서 화투를 치는 일이 없다.

마을회 가입 조건은 특별한 것은 없고 마을 규정에 따라서 한다. 들어온다는 의사가 있으면 이장이 노인회장하고 상의해서 받아준다. 입회비나 회비도 없고 아무 조건 없이 마을에서 동조하면 가입이 된다.

마을 운영 기금은 마을에 업체가 들어올 경우 찬조금을 내놓는 것 등을 적립해 놓았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초상을 치룬 집에서 장사를 지내고 나면 마을에 사례비를 내놓은 것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했다. 요새 화장문화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을에 기금을 내놓는 분들이 있다. 당연히 강제성은 없다. 다만 부모님들이 동네에서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해서 자손들이 알아서 기부금을 내놓곤 한다. 독지가가 있어서 마을에 돈을 내놓고, 마을분들도 찬조금 등 마을기금을 낸다.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1년에 1만원 이상으로 내는데 어떤 분은 5만원, 10만원, 여행할 때 기분 좋으면 몇 만 원씩 찬조하는 분도 있어서 마을 경비를 쓴다. 예전에는 이세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한 이후로 없어졌다.

총회는 12월달에 연말 결산 및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농로 포장 등 내년도 숙원 사업 및 기타 내용을 논의한다.

임원 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한다. 어버이날이 나, 복달임 행사, 마을 여행 때도 필요한 게 있는 지 물어보고 체크한다. 모였을 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분도 있다.

예전에는 복달임 때 나무 밑에서 개고기를 끓여서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개고기를 잘 안잡숫는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변화되는 바가 있어 무난한 삼계탕으로 대신하고 있다. 요즘도 복날에는 부녀회가 마을회관에서 삼계탕을 직접 끓인다. 식당에 맞춰 먹는 문화가 일반화 돼 있지만 3리는 여전히 직접 끓여서 나눠 먹는다. 마을분들 모두가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한다.

옛날에는 4H가 있어서 콩쿨이나 율놀이 등 행사가 많았다. 특히 율놀이는 30년전부터 송문 3리 반정마을에 조상의 묘를 쓴 독지가가 1년에 100만원씩 30년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 돈에 찬조금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행사를 풍성하게 잘 치르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다.

마을회관 마당에서 돼지를 한 마리 내서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찌개도 끓여 푸짐하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재밌게 하루를 즐긴다. 남자들은 바깥에서 놀고 여자들은 회관 안에서 율을 논다. 상품은 1등에게는 전골냄비도 주고 주전자 같은 상품을 준비하며 참가한 마을분 모두에게도 참가선물을 나눠드린다.

율놀이 하는 날에는 외부에 나가서 사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는 분들이



함께 하루를 놀다가 간다.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수원이나 서울 등에서도 고향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바쁜 일이 없는 한 참가한다. 코로나 전까지는 마을회관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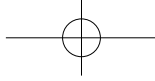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 날 산제사를 지낸다. 주민의 협조와 찬조를 받지만 강제성은 없다. 과거에는 산제사를 지낼 때 사주를 넣어 그날 일진하고 맞춰봐서 사람을 정했다. 요즘은 올라갈 사람이 동네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장이 몇 사람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다.

추석 때가 되면 해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길 옆에 무성한 풀을 베고 도랑을 치우는 등 동네 청소를 한다. 할머니들이 청소애 나오시면 회관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60, 70대 할아버지들이 예초기로 풀을 베다. 평소에도 노인회와 부녀회에서 정기적으로 합심해서 쓰레기 줍기 등 마을 청소애 나서고 있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마을 일을 위해서는 회관 부지도 내놓는 등 양보도 잘하고 인심이 좋았다. 마을 농로도 서로가 땅을 내놓고 길을 내서 경운기를 다니게 했다. 그러나 새로 이사온 사람들 가운데는 도로 지정은 안돼 있는데 길로 사용하는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길을 막는 바람에 애로도 있다.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정비 등 숙원사업을 추진 할 때도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쓰이는 점도 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다.

한강수계에서 회관 마당에 운동기구를 다섯 대 설치해놨다. 회관 안에는 안마의자도 있고 실내자전거 같은 운동기구도 있다. 어르신들이 회관 마당에 있는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1리 주민들도 3리까지 산책하러 왔다가 운동을 하고 가기도 한다. 바깥 마당에 비치돼 있어 누구나 지나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공기가 좋은 건강 장수마을이어서 1925년생 98세 되신 할아버지를 비롯해 92세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덕에 계시면서 생활하고 있다.



노인회¹⁰⁾

노인회 회원은 30분정도 된다. 이 가운데 할아버지가 10여분 된다. 노인회장 임기는 4년이다.

남녀 노인회원은 65세부터 90대까지 원주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2018년에는 면에서 노인회원을 30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준회원을 몇 명씩 가입 시킨 적도 있다. 노인회 가입 연령이 60대는 준 회원이고 6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마을 회관에는 할머니 5분 정도가 모여 점심 식사를 해서 잡숯고 놀다가 간다. 할머니가 많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들은 회관에 나오지 않는다. 할아버지들끼리 바깥에서 따로 모이지도 않고 집에 있다. 할머니들은 손수 끓여 먹지만 할아버지들은 회관에 나가면 대접을 받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잘 안나간다. 부부의 경우 할아버지가 회관에 안 나갈 경우 할머니가 집에서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두분 다 나가지 못한다. 96, 98세 되신 고령의 노인분들은 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회관에 나올 수 없다. 노인정에 들렀을 때



송문 3리 마을회관 1층 경로당에 모여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중인 회원들. 연세가 87세, 88세 되신 분들이 부엌일을 하고 있다. 함께 일을 해서 힘들지 않다며 서로 돕는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92세 되신 할머니도 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

10) 유장희 전 노인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록했다. 현 이덕만 노인회장님은 인터뷰하러 마을회관을 찾았는데 해외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송문 3리 마을회관 1층 노인정 내부 모습. 2층이 회의실이지만 마을분들 연세들이 많아지면서 1층에 모여 회의를 하곤 한다.

식사 준비를 하고 치우시는 할머니들이 87세, 88세 되신 고령자분들이었다. 92세 되신 할머니도 회관에 나와 점심을 함께 잡숫고 대화를 나누는 등 시간을 보내셨다.

직접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하니 서로 도우며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더욱 미안해서 참여하지를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회 회원들은 마을 회관에서 총회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참석율이 높다. 노인회 총회는 1년 결산을 한다. 면에서 시달된 게 있으면 노인회원에게 전달한다.

부녀회¹¹⁾

송문 3리 부녀회원은 15명이다. 50대에서 70대까지 있다. 한때는 27명까지 있었다. 예전에는 한 가구에 한 명은 부녀회원을 했다. 원래 노인회 가입 연령이 65세부터이기 때문

11) 유혜순 부녀회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했다.



에 현재 부녀회원 가운데 노인회와 중첩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70세까지는 보통 부녀회에서 활동할 만큼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중복해서 활동하는 추세다. 70대 중반, 80대까지도 부녀회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점점 고령화 되면서 부녀회원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부녀회 존속을 위해 계속 남아있게 된다.

노인회에는 65세부터 가입 연령임에도 잘 가입하려하지 않는 추세다. 보통 70세가 넘어서 가입하고 있다.

부녀회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돼 있다. 총무가 노인회 총무도 보면서 노인회의 점심 식사 등을 돕는다.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고 양지면 부녀회에서 김이나 미역, 젓갈 등을 가져다가 판매를 해서 약간의 수익을 남겨 부녀회 기금으로 쓴다. 예전에 송문리가 3개리로 나뉘기 전에는 절미저축으로 부녀회 기금을 만들던 때도 있었다. 회관도 없던 시절에 각자 집으로 마실가듯이 모여 집에서 먹을 것 가져다가 잘 모이고 잘해 먹던 때도 있었다. 초상이 나면 품앗이 일도 많이 했다. 상주가 내놓은 기금으로 일 년에 한 두번 여행도 다녔다. 요즘 부녀회와는 달랐다.

요즘은 마을에 젊은이도 없고 장례 문화도 바뀌고 전원주택에 새로 입주해오는 주민들의 경우 마을일에 관심이 없는 등 예전과 달리 부녀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유혜순 회장이 도시에 살다가 고향에 전원주택을 짓고 새로 이주해 오면서 기존의 마을 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 유 회장 덕에 전원주택에 새로 이주한 주민들이 부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통 이들 유입주민들은 마을일에 관심이 없지만 유혜순씨의 노력 덕으로 마을 일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놀라운 변화다.

그러나 부녀회가 기존에 입회비 등 기금이 남아있어서 새로 입회하는 부녀회원들에게 입회비를 걷는 여부에 대해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정식 부녀회원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된다. 현재는 이들 신입 회원들은 회원 가입이 정식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만 한다고 보면 된다.



부녀회가 연령이 높아지다보니 그간 한차례 파하고 다시 젊은층 위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모였던 기금 잔고는 당시 회원들이 나눠 갖고 파했다고 한다. 그 후 다시 결성되면서 입회비를 걷는 등 부녀회 기금을 새롭게 적립하기 시작했다.

입회비를 냈던 세대는 입회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최근 새롭게 이주해와 신입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측은 부녀회가 목돈을 내고 들어갈 곳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금이 많아서 좋을 것도 없고 적당하게 있어서 부녀회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다고 한다. 12월에 열리는 총회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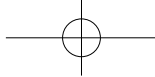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부녀회 사업으로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개울 청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달 집중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정도 시행하고 있다.

물론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편이지만 청소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화기에애해지고 정도 돈독해지고 있다. 또 마을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도 생기게 된다. 노인회가 마을 청소를 할 경우 청소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정부에서 한 달에 한번 소액의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어 함께 청소를 한 부녀회원들과 식사를 나누며 건강과 보람을 누리기도 한다. 또 가끔 청소하느라 고생한다며 협찬을 하는 동네 주민들도 있다.

류장희 전 노인회장으로부터 들은 반정마을 이야기¹²⁾

1970년대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었다. 방이 하나 있고 회의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동네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한문 공부도 가르쳤다. 그 땅에 1996년에 정부로부터 건축비 5000만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당초 1층으로 건립을 했다가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 등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야 됴에 따라 후에 2층으로 증축

12) 마을에 대해 알고 계신 게 많다는 이장님의 추천으로 마을 이모저모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했다. 마을회와 노인회, 부녀회 등의 내용에도 부분적으로 유장희 전 회장님의 말씀이 보태져 있다.



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새마을회가 활성화 됐다가 그 후부터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는 지금도 활동을 한다.

마을에 상여가 있었는데 오래 돼 84년도에 천안에서 새 상여를 구입해서 사용해왔다. 전통상여를 만드는 곳이 경기도에는 없어서 천안에서 사왔다. 가격은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을 회비 모아놓았던 기금과 마을에 길다란 길이 있던 것을 판 돈도 있었기에 살 수 있었다. 한때 상여를 메는 사람들이 무거워해서 나무틀을 파이프 틀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했다. 마을 상여를 10년전까지 사용했다. 그 후 꽃상여를 개인적으로 사다가 썼고, 4, 5년전에는 남아있던 상여를 소각 했다. 상여를 멜 사람도 없고 화장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었다.

이장을 오래 해서 마을에 누구네 손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요새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와서 알 수 없다.

산제는 동네를 위한 것으로 10월 초하루 날 어은산에 올라가 지냈다. 예전에는 소를 한 마리 사서 산에서 소를 잡아 산제를 지냈다. 그후 기금이 딸려 돼지를 썼다. 현장에 운반해서 산에서 잡아 지냈다. 점차 돼지 값도 비싸지고 운반도 어렵고 산에서 잡는 것도 쉽지 않아지자 지금은 소머리를 사다가 지낸다. 제주도 과거와 달리 사다가 쓴다. 산에서 밥도 하고 떡도 만들었다. 떡은 백설기를 썼다.


동네에서 현관, 대축, 유사, 당주, 불목 2명 등 깨끗한 사람으로 6명의 제관을 뽑아서 산제를 올렸는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날을 다시 잡았다. 부정을 타기 때문이다. 당주 등의 집에 일주일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집 대문에 황토를 퍼냈다. 신이 여섯분이다. 어은산신이 있고,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 6분이어서 상 여섯 개를 한꺼번에 차려 놓고 지냈다. 북어 6마리, 감 12개, 대추 한되, 밤 한되를 준비해서 올라갔다. 요새는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산제를 모른다며 돈을 안내는 편이고, 동네에서 내는 분들만 1만원씩 걸어서 준비해서 지낸다.



예전에 4H회에 정부에서 송아지까지 나왔다. 암수 한 마리씩 주고 키워서 늘리라고 했다. 외양간을 지어 여름에 돌아가면서 풀을 베다가 먹이고 키웠는데 소를 늘리지는 못하고 딴 사람에게 넘겼다. 회원들이 어리고 청년이다보니 군대를 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어렵게 됐다. 이들에게 소를 넘겨받아 소를 늘려 키운 분은 지금은 작고했다.

추석 때 동네에서 연극도 했다. 8월 초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다가 보름날 공연을 했다. 무대도 만들고 의상도 입고 얼굴에 분장도 했다.

웃놀이는 예전에 동네에서 웃놀이표를 만들어 팔아서 그 기금으로 상품도 사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놀았다. 그러다가 독지가가 100만원씩을 꼭 통장에 보내와서 마을에서 웃놀이를 이어오고 있다. 독지가가 웃놀이에 참석할 때는 노래하는 가수도 불러와서 흥을 돋워준다. 독지가가 오래된 앰프도 버리고 새로 앰프도 사다줬다. 동네에서는 독지가가 고마워서 농사 지은 참깨나 기름 등을 좀 보내주고, 소고기도 사서 보내주기도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웃놀이가 멈췄다. 웃놀이할 때는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와서 기부금도 내고 함께 어울려 논다.

 박숙현

송문회

송문회는 1993년 결성된 송문1리, 2리, 3리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30여 년간 이어온 모임으로 송문리(정문, 굴안, 반정) 전체 주민들과 기업체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마을 발전과 상생을 위한 모임으로 초기에는 회원 가정에서 모임도 하고 마을 주민들의 애경사 및 각종 행사도 서로 협력하면서 마을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회원명단(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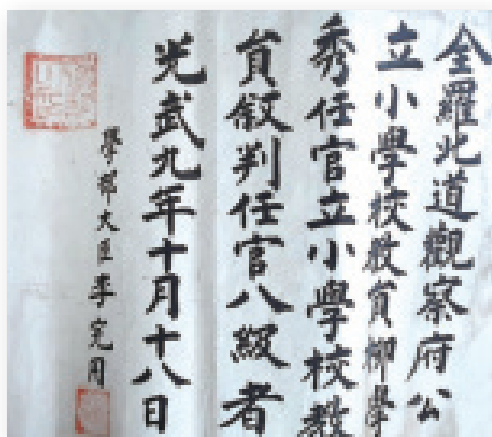
회장 송병우 총무 송설재

감사 송철재 김교인 김우용 김종규 권윤규 박정수 박종만 송성재 유한중 이두희 이세용 장태규 최한근 유진섭 이상욱



III. 송문리 근·현대 인물

■ 류학수(柳學秀, 字:경열景烈, 1858~1929년)



류학수 선생은 철종 9년인 1858년 송문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적부터 영특하셨던 선생은 지금의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문과에서 수학한 후 1897년 청주군 공립소학교에 교원으로 첫 근무를 하게 된다. 이어 1900년에는 김포군 공립소학교에서, 함경남도 관찰부 공립학교에서 근무했고, 1905년에는 전라북도 관찰부 공립소학교에서도 재직했다. 1906년에는 교

동보통학교에서 교원을 하셨는데 오늘날의 도교육감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최선을 다해 후학을 양성하였다. 부인은 경주이씨 집안의 이점순씨로, 이씨와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 특히 둘째 류완희씨는 양지초, 경성고보,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시인이면서 언론인으로 유명하다. 세째 류정희씨는 류완희씨 2살 아래로 양지초, 양정고보, 경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자강도에 있는 강계수력발전소의 전무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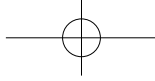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 류관희(柳寬熙. 1891~1963년)



류관희 선생은 1891년 송문리 반정마을에서 아버지 득수와 어머니 허덕희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농사를 지으며 사셨던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청렴한 분이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덕분인지 선생은 당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 대한제국 무관학교는 대한제국이 신식 육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98년에 문을 열었으며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1909년 폐교된 대한제국 무관학교였다.

이때 폐교된 무관학교 생도 중 42명이 일본육사에 입학했는데 선생도 육사에 입학하여 1915년 27기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군 장교로 임관하여 1919년 중위로 중일전쟁에 북중국 전선에 참전했으며, 평양의 승실학교와 개성의 송도고보, 서울 중앙고보에서 교관을 지냈다. 광복 이후에는 집안의 동생뻘인 류완희, 류정희 형제와 함께 용인여자중학교를 설립하는데 함께 했으며, 류완희 선생의 권유로 1948년 11월 용인여자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근무했다. 1949년 11월 3일에는 군 경력자로 다시 임관하여 육군 대령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었다. 그렇게 근무하던 중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전쟁터를 누비며 1952년 101사단 20연대장, 1953년 200여단장, 1954년 육군 경기지구 민사부장을 거쳐 충남지구 병사구 사령관을 맡았다가 1957년 전역할 때까지 대한민국 군인이었다. 1963년 1월 타계하였으며 후에 육군 준장으로 추서되었고 현재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국립이천호국원’묘역에 모셔져 계신다.



■ 류완희(柳完熙. 字:공벽公璧. 1901~1964년)



1901.11.25일 내사면 송문리 429-1 출생
 1915년 양지보통학교 졸업
 1920년 경성 제1 고등보통학교 졸업
 1923년 경성 법학 전문학교 본과 3년 졸업
 1923년 경성일보 편집부 기자
 1924.11월~1925.6월 동아일보 편집 사회 학예부 근무
 1925.6월 시대일보 중외일보 근무
 1927.8월~1934.3월 조선일보 편집국장
 1936년 손기정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조선. 동아일보 폐간
 1938년 평안북도 강계 기문사에서 출판사 총지배인
 1949.6월 용인 여자중학교 초대 교감
 1955.3월 송전중학교 초대 교장. 송전중. 태성중 등 교가 작사
 1955.12월 서울신문사 편집국장
 1956.9월~1960.11월 세계일보 논설위원

류완희 선생은 전주류씨 시조로부터 22세손, 목계공 14세손으로 1901년 처인구 양지면(당시 내사면) 송문리 429-1번지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을 지낸 아버지 류학수 선생과 어머니 이점순 여사 사이에서 3남 1녀 중 2남으로 출생하였다. 자녀는 영월엄씨와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다. 자는 공벽(公璧)이며, 호는 적구(赤駒)·유주(柳州)·송은(松隱)을 사용했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사용한 호는 '적구', 언론인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사용한 호는 '유주', 그러다 다시 신문사에서 근무하며 서정적인 시를 짓고 생활한 시기의 호는 '송은'이다. 어찌 보면 그의 호는 그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선생은 1915년 양지공립보통학교를, 1920년 관립 경성제1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를,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현 서울대 법대) 본과 3년을 1회로 졸업하였다. 경성법학전문



학교 본과 3년을 졸업했으나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경성일보 기자로 입사하게 된다.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파헤치는 기사를 쓰는 한편 시(詩) 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1924년 동아일보 기자, 1925년 시대일보와 중의일보 기자, 1927년~1934년까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 1928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조선문화원에서 미술교수로도 잠깐 재직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어·영어 등에 능통하여 언론에 있으면서도 외국 서적을 번역할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였다고 하니 미술에 관한 조예도 상상이 간다고 하겠다. 1934년부터는 조선·중앙일보에서 근무하였는데, 1936년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인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이 폐간되면서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1938년 고향 송문리로 내려오게 된다.

신문사에 근무하며 항일 관련 시·산문 등을 각 신문사나 동인지 등에 발표하며 항일운동의 의지를 다졌던 그에게 고향에 내려와서는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가 없었다. 무력하게 있을 무렵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두 살 터울의 동생이지만 경성법대의 후배로 항상 그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동생 류정희씨, 후에 제2대 내사면장(양지면장)을 역임했던 류정희씨는 그 당시에는 북한 자강도 강계수력발전소 전무로 근무하면서 형에게 ‘기문사’라는 출판사의 총지배인 자리를 추천했고 선생은 그곳에서 광복 때까지 근무했다.

1947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 당시 문교부장관을 역임하던 친구를 찾아가 “야! 용인에 태성학교라는 사학은 있는데 공립학교는 없다. 용인에도 공립학교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학교가 ‘용인여자중학교’다. 당시 교장으로는 집안의 류관희라는 형님이 계셔서 그를 초대 교장으로 모셨고 류완희 선생은 교감이 되었다. 1955년 3월에는 송전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시기에 송전중학교와 태성중고등학교 교가도 작사하였다. 이후 다시 서울신문사 편집국장과 세계일보사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다가 노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1964년 송문리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참조>

- 1925년 11월- 시대일보에 '객관주의 예술과 주관주의 예술'
- 1926년 4월 - 개벽에 적구 필명으로 여직공, 희생자, 찰나, 향락시장 발표
- 1955년 11월 - 시대일보에 '거지' 발표
- 1955년 12월 - 서울신문사에 3.1절, 6.25, 8.15 등의 기념시 신문에 발표
- 1956년 9월 ~ 1960년 11월 '유주'라는 필명으로 야담지 등에 야화(野話)를 발표
이외 '나의 요구', '나의 행진곡', '가두의 선언', '민중의 행렬' 등

■ 류홍석(柳鴻錫, 1928~1985년)



- 1971년 용내 단위농업협동조합 이사
- 1981.4.27일 제4대 용내농협 조합장
- 1984.4.26일 제5대 용내농협 조합장
- 1964.4~1970.8일 갯생보호위원회 위원
- 1966~1982년 태성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 1973~1985년 용인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 1974년 대통령 표창(재향군인회 육성업적)

용인에서 처음으로 농산물판매장을 개장해 지금의 용인농협 파머스마켓이 활성화되도록 기초를 다지셨던 류홍석 선생은 전주류씨 목계공 24세로 1930년(족보에는 1928년) 양지면 송문리 429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류기준과 어머니 송원의 여사의 장남으로 양지초등학교와 태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이어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50년 그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지체 없이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군인으로서는 복무했다. 1956년 육군 중위로 예편한 선생은 이러한 연유로 1961년부터 20년간 재향군인회의 용인군 연합 분회장과 재향군인회 경기도지회 이사로 재임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육성업적으로 대통령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뿐만이 아니라 과로로 순직하실 때까지 용인농협(용내농협-용인면과 내사면을 합해서 용내농협으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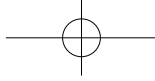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르다가 1996년 용인농협으로 개칭되었다)의 조합장으로서 업적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 되고 있다.

그의 아버지 류기준 선생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당시 송문리 리동조합장으로서 농협운동을 주도했었다. 농협운동은 박정희 정부에서 농촌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리 동조합을 통합시킨 정책이다. 농협과 농협은행을 합병하고, 리와 동의 조합은 면단위로 묶어서 내실을 꾀 하고자 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시간이 지나 리 동조합들은 면단위 농협으로 거듭났는데 당시 용인면과 양지면이 용내농협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류홍석 선생은 아버지 류기준 조합장에 이어 용내농협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81년 제4대 용내농협 조합장이 되었다. 그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부분에서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1981년 용내농협이 농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용인군에서 1위, 경기도에서 5위를 달성시켰다. 또한 당시 농민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이 농산물을 수렴해서 판매해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름하여 ‘복합영농 시범사업’이라는 사업을 착수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쉽 없이 꾸준하게 농협을 위해 헌신했던 그가 1986년 근무 중 과로로 순직하게 되자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고 농협에서는 류홍석 조합장의 분향소를 용인농협에 마련하여 ‘농협인장(農協人葬)’으로 장례를 진행했다. 재향군인회 이사로, 16년의 꾸준한 장학사업을 펼친 태성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용인농협의 조합장으로, 부모에 효성 또한 지극했던 류홍석 조합장. 그의 행적을 기리는 공적비는 그해 7월에 용인농협에 세워졌다.

<조합장 주요 업적>

- 1981.12.31 종합업적평가 용인군 1위, 경기도 5위 달성
- 1983.2.19. 복합영농 시범사업 착수
- 1984.1.15. 상호금융예수금 50억 달성
- 1984.7 경제사업장 이전 및 농산물 판매장 개장



■ 류봉수(柳鳳秀, 193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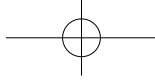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1930년 양지면 송문3리 반정리 출생
 1975.9.10일 양지향교 입적
 1980.3.15일 이승만 전교 재임 시 양지유도회 결성 조직
 1980.3.15일 양지유도회 지회장 임명
 1986.3.15일 양지유도회 지회장 사임
 1987.9.15일 양지향교 장의 임명
 1990.9.15일 양지향교 유도회 지부장 임명
 1993.8.15일 유도회 지부장 사임
 1993.9.15일 양지향교 전교 추임, 63세 최연소로 전교에 당선
 1996.12.18일 전교 재임
 1996.12.18일 경기도 재단 감사 임명
 1997.10.20일 전교 사임
 1998.11.21일 경기도 재단 감사 재임
 2000.3.11일 경기도 재단 감사 재임
 2000.9.15일 경기도 재단 원로회 조직

단정한 외모에 엄격한 성격이었던 류봉수 선생은 양지향교 전교를 역임하셨던 분이
 다. 선생은 1930년 송문3리 반정마을에서 전주류씨 목계공의 21세로 태어나 평생을 반
 정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어릴 적 마을 서당에서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수학했고, 10살이
 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양지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양지보통학교의 1회~4회 졸업생
 까지는 양지향교에서 수업했다. 양지향교에서 석전대제가 열리면 각 학년에서 1개 학급
 은 제례에 참석해야 했기에 선생이 향교와 친숙하게 된 시기도 그때부터다. 1945년 학교
 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고 있을 무렵 6.25 전쟁이 일어났고 선생은 제2국민병과 군인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형편상 어려웠다. 특히 아버지의 부
 재로 형제들도 학교 졸업 후 집안의 일손을 도와야 했다. 선생도 밤낮으로 일해야 했으
 며 그러면서도 틈틈이 주역과 풍수를 공부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향교에 나가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1975년 9월 8일. 가을이라 추수가 한창일 무렵 당시 양지향교의 전교였던 정영대씨가 논으로 찾아왔고, 그는 ‘집안에 내려오는 유림의 맥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향교에 나오기를 권유하였다. 이어서 며칠 후에 양지향교에서 석전대제가 열리는데 그때 집례를 맡아주길 청하였고, 얼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집례 홀기는 문장도 길지만 읽는 시간도 2시간이라 힘들었으나 연습하고 연습해서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75년 9월 10일 정식으로 양지향교에 입적하게 되었다. 이때가 45세로 무척 젊은 나이였는데 당시 향교 유림들 나이는 평균 70세였다. 다행히 얼마 후 또래 젊은 사람 두 명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향교의 많은 일을 해냈다. 1980년 3월, 연로한 정영대 전교에 이어 이승만씨가 전교가 되었다. 이승만 전교는 류봉수 선생에게 이동, 백암, 원삼에는 유도회가 조직되었는데 양지에는 유도회가 없으니 서둘러 조직하자고 말했고, 선생은 양지면에 속해 있는 각 마을 중 지역유지들과 선친이 유림에 속해 있던 자손들을 모아 야유회를 떠났다. 야유회 인원 70명, 그곳에서 양지유도회가 조직되었으며, 그는 양지유도회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조직된 양지유도회 회원에게서 1인당 월 만 원 회비가 모여졌고, 회비는 유도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선생은 유도회 지회장에 이어 지부장도 맡았다. 성균관 유림회의에 전교와 함께 참석해 성균관과 양지향교와의 관계도 돈독히 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63세로 11대 양지향교 전교에 취임되었다. 11대 전교인 이유는 전통 시대 자료가 모두 없어져서 광복 이후부터 11대가 된다는 의미이다. 선생이 전교가 된 후 새로 만든 직책이 있다. 바로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향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만든 직책이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향교에 들어온 두 분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사무장과 총무를 맡아 향교를 운영해 나갔다. 그러던 중 선생의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는 옛날부터 ‘상을 당한 사람은 공자의 제사를 모실 수 없다’는 전통 시대 규범에 따라 4년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전교를 사임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규범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진정한 유림이 아니면 지키기 힘든 규범을 류봉수 선생은 지



키려 했었고, 자신을 낮추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류봉수 전교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 류복성(1941년생)



우리나라 재즈 퍼커션의 거장이다. 류복성은 1941년 양지면 송문리에서 6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조부는 원곡 류벽(柳碧)으로 지리학을 연구하는 선비(학자)였으며 부친 류필수는 목상(木商)을 했다. 1948년(8세)에 양지초등학교 입학해 42회로 졸업 후 1954년 용인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음악공부를 위해 서울로 떠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끼가 있었다. 특히 타악기를 접하는 데에는 천부적인 감수성을 타고났다. 마을에 풍물패가 들어와 지신밟기나 두레 놀이를 하면 장단에 맞춰 몸을 흔들며 줄줄 따라다니곤 했다. 1958년 미8군 쇼에 입단한 이래, 1960년대 이봉조 악단과 길옥윤과 재즈 올 스타즈를 거쳐 1970년대 이후 라틴 코리아나(Latin Koreana) 등 수많은 연주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는가 하면 초대형 재즈 무대를 성공시킨 탁월한 기획자로서 한국 재즈의 역사를 개척한 예인이다. 1970년~80년대 국내에서 열린 굵직굵직한 재즈공연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기획되었다.

70년대 이후 정통 재즈보단 TV 프로그램과 대중가요에 퍼커션 세션으로 참여하면서 류복성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수사반장’을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 삽입음악을 만드는 것은 물론, 경음악 프로그램부터 ‘명랑운동회’까지 심심찮게 출연했다. 1990년대 이후에도 그는 ‘재즈 알리기’에 열성적이었다. 1992년의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997년 ‘서머 재즈 페스티벌’, 1999년 ‘아듀 재즈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연을 기획·연출한 그는, 국내에 활동 중인 재즈 뮤지션들을 대거 한 무



대에 불러 모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가 연출했던 재즈 페스티벌은 클럽에서의 재즈 연주를 대규모 무대에 올린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만큼 한국 재즈 역사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므로 류복성의 인생이 곧 한국 재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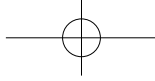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그의 대표곡으로 드라마 수사반장의 타이틀곡, ‘혼자 걷는 명동길’, ‘사랑하고 싶다’, ‘데킬라(Tequila)’, ‘프리워크(Free Work)’,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이 연주를 해서 세계적인 히트가 되었던 ‘테이크 파이프(Take Five)’ 연주곡 등이 있다.

■ 송재권(宋在權. 호:남선南善. 1941년생)



- 1941년 양지 송문리 송동 543번지 출생
- 양지초·용인중·태성고 졸업
- 1965년 부산 동아대 공대 토목과 졸업
- 1989년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1981~1997년 민족통일협의회 사무국장 10년
- 1982~1987년 용인시 직장새마을회장 5년
- 1983~1989년 아성송씨 종친회장 6년
- 1984~2002년 통일연수원 전문위원 18년
- 1987~2004년 용인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6년
- 1991~1995년 경기도 도교육위원 4년
- 1992~1999년 제10대 용인문화원장 6년
- 1993~2003년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10년
- 1997~1999년 용인시립도서관위원장 2년
- 1998~1989년 국제로터리용인클럽 회장
- 1999~2000년 국제로터리클럽 3600지구 부총재

용인문화원 제10대 원장을 역임한 송재권 원장님은 1941년생으로 송문리 송동 543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적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7살에 양지초



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조기입학은 했으나 우등생이라 어머니는 그에게 경기중학교에 보내주마고 약속했다. 그러나 9살이 되던 해 6.25 전쟁으로 청주로 피난했고 이로 인해 어머니를 여의면서 중학교 입학 시기엔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했다. 그는 경기중 대신 용인중으로 진로를 결정했고 이어 태성고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4-H 회장은 물론 웅변 실력도 대단했다. 웅변으로 교내 1등, 용인 1등, 도 대회 2등으로 실력이 있었다. 그러나 고3 가을, 밤나무에서 낙상하여 대학 진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서울로 올라가 경리학원에 다니게 되었으며, 당시 학원 원장은 그의 빼어난 말솜씨를 보고 학원 접수대에서 일하기를 권했다. 그렇게 낮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양대 공대에 다니다 이듬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군에서는 공대생이었기에 특과로 김해공병학교에 들어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병학교를 마치며 부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군기사에 근무하며 부산 동아대 공대 토목과에 입학했다. 복무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치고 서울에 있는 토건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역북동에 있었던 제일약품 공사 감독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제일약품에서는 공사감독업무만 했던 건 아니다. 관리과에 근무하며 약품 PTP 기계를 개발했고, 후생복지 회장으로 여직원들 위생지원, 문고 설치 등을 추진해 모범사원 표창장도 받았다. 1976년에는 제일약품 근무를 끝으로 퇴직했으며 용인 정착을 결정하면서 용인초등학교 앞에 동아서점을 열었다. 그리고 1년 후엔 김량장동 현 우리은행 건물에 65평의 대형서점으로 다시 오픈하며 서점은 20년 넘게 운영되었다.

1981년에는 새마을문고 부회장에 이어 1984년에는 2대 새마을문고 회장이 되었다. 회장이 되어서는 도서교환전, 무료급식봉사 참여 등으로 침체되었던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했다. 그는 용인새마을문고회가 생기기 이전에도 제일약품 식당 옆에 문고를 설치해 독서의 생활화와 저변확대를 꽤 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14년을 새마을문고에 몸담으며 10,000여 권 이상의 책을 기증하였다. 또한 용인문화원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책장과 책 5천 권을 기증해 기러기 독서회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적으로



1994년에는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 ‘경기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1991년 초대 도교육위원회 위원 재임 시에는 용인중학교에 강당이 건축되도록 했으며, 태성고등학교에 교실 3동이 건축되도록 하였고, 용인 바이오고(송전농고) 제과 제빵 학과에 제빵기계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추진했는데, 당시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관리 담당위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다고 한다. 특히 용인바이오고에 지원했던 제빵기계의 효과인지 용인바이오고의 제빵학과는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 중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되었다고 한다.

용인문화원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1992년 당시 부원장으로서 박용익 원장의 남은 임기를 승계받아 제10대 용인문화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문화를 선도하는 많은 일을 시작하였는데 먼저,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용인학연구소)를 개설하여 향토사 발굴, 기록, 고증, 연구 등 수많은 향토사 자료를 편찬해 냈다. 지역별 구비전승, 구성면지 등도 이 시기에 편찬되었다. 또한 1994년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한 것인데, 용인군민의날에 ‘용구문화제’ 전야제 행사로 용인문예회관에서 치러졌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생각하면 뿌듯한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단다. 그림만 제출하던 청소년 그림대회를 민속촌, 자연농원(에버랜드), 경기도 박물관에 현장에서 직접 그려서 내도록 대회 규칙을 변경했는데, 그렇게 다져진 실력으로 입상한 학생이 미대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받은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흐뭇하다고 한다. 1994년에는 문화원 2층에 문화사랑방으로 시작한 문화학교를 운영했으며, 특히 삼성그룹 후원으로 처음으로 실시했던 ‘용인향토유적 순례’는 당시 용인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해마다 예산지원 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이외에 1986년 처인성 승첩을 발굴해 최초로 처인성 퍼레이드를 시작했고, 주부대학개설, 신갈 분원 개소 등도 송재권 원장님 재임기에 실시되었던 사항들이다.

야성송씨 종친회장으로서도 소홀함이 없었다. 1983년~1989년까지 6년 동안 종친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종친회 규정상 2년의 임기와 1번의 연임이 가능하기에 보통은 4년이



재임 기간이다. 그가 처음 종친회장을 맡았을 당시 송문리 여기저기에 흩어진 종친들의 묘소를 보면서 종종 묘역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종원들의 회의를 통해 조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일이 추진되려면 먼저 용인시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했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회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종친회 회의로 임기를 연장하며 노력한 결과 드디어 인허가를 취득하게 되었고, 2008년 야성송씨 ‘송릉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송재권 원장의 활동과 업적은 이외도 민족통일협의회 사무장, 직장새마을회장, 용인선거관리 부위원장,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제로터리클럽 3600지구 부총재 등 봉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쉼 없이 활동했다.

■ 송철재(宋哲在. 1952년생)



1952년 양지면 송문2리 송동 492번지에서 출생
 양지초·태성중·수원농고 졸업
 1972년 용인군 청년4-H연합회 부회장
 1977년 대농그룹 입사
 2004~2010년 양지초 12대 총동문회장 6년
 제4대 용인시 4-H 연맹 회장
 현재 야성송씨 선락공파 종친회장

야성송씨 선락공파 종친회장인 송철재 선생은 1952년 8월 송문리 송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야성송씨 29세손이며 송문리 입향조인 선락공 송성립의 18세손으로, 누대로 살아 온 492번지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 어릴 적 부친이 수여선 철도의 기능직 공무원인 보선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쌀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집안 형편은 괜찮았다.


그는 양지초등학교와 태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원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수원농고로의 진학은 수여선 철도회사에 근무하는 아버지 덕택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공부하였는데, 조부의 기제사 때문에 송문리에 내려왔다가 우연히 4-H 하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얼마 후 용인군 청년4-H연합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선생은 ‘감자 다수확’으로 경기도 경진대회에 출전해 3등이라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4-H 활동은 이듬해 군에 입대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되었다. 1977년에는 대농그룹에 입사했다. 그는 대농그룹에서 운영하는 관악골프장에서 근무했는데, 젊은 나이였지만 헤드의 위치에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위해 관악골프장에 오면 직접 에스코트하며 다니기도 했던 유명인이었다 한다.

1991년 15년 근무한 대농그룹을 퇴사한 이후, 2004년에는 양지초등학교 총동문회의 12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하면서부터 양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 준비에 바빴는데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가며 준비했다. 이로 인해 2008년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에 뜻깊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또한 청년 4-H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인연으로 제4대 용인시 4-H 연맹 회장이 되었다. 4-H 연맹은 후배들의 4-H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수련회 등으로 친목도 도모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연맹 선배들이 지켜왔던 ‘절대 남에게 보이며 하지 말라’, ‘봉사 가서 사진 찍지 말라’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며 생활했었고 지금도 명심하고 있는 말들이다.

그는 현재는 야성송씨 선략공파 종친회장을 맡고 있다. 종친회장으로서 종종 의 자랑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종종 의 시제와 기제사를 양력으로 전환해 지내고 있다는 점과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축문을 써서 고한다고 말씀하셨다. 전통은 지켜가되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통 시대와 달리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시대에 예법을 따져 음력으로 시제, 제사를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은성



IV. 송문리 문화자원 및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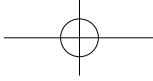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I. 류복립 정려각(柳復立 旌閭閣)

1997년 12월 10일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류복립 정려각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산 124-5번지(양지면 중부대로 1876번길 18-6)에 위치해 있다.

류복립은 왕실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을 기록하는 종부시(宗簿侍)의 주부(主簿)를 지냈는데,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학봉 김성일의 휘하에서 싸우다 성이 함락되자 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자결하였다. 그 뒤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1729년(영조 5년) 명정을 받아 고향인 양지현 송문동(지금의 양지면 송문리)에 정려문을 세웠다.

정려각은 1999년 7월에 1차 보수하였는데, 맞배지붕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서 고설삼문(高設三門, 左右 칸의 지붕보다 중앙 칸의 지붕을 1단 높게 꾸민 3칸 대문) 형식을 띠고 있다. 정평주초(定平柱礎, 주춧돌을 평평하게 다듬은 위에 직선으로 자른 기둥을 올려놓는 건축형식) 위에 민흘림 원기둥을 세웠고, 좌우 벽체에는 방풍판이 있다. 좌우와 뒷면 벽체는 석회를 발라 마감하였으며 앞쪽으로 홍살창을 내었다. 일부 망와에는 용(龍)자와 수(壽)자와 같은 글씨가 양각되어 있다.

중앙에 류복립의 충정을 기리는 내용의 정려문이 세워져 있다. 뒷면 벽 가운데에는 1746년(영조 22년) 당시 대제학 이재(李穡)가 찬하고 이조참판 신만(申晩)이 쓴 정려



기가 있고 왼쪽에는 1753년(영조 29년)에 명정(銘旌)된 안동권씨의 열녀문이 세워져 있다.

『양지읍지(陽智邑誌)』에 “학생(學生) 유순(柳淳) 처 안동권씨 열녀문이 있는데 영묘(英廟) 계유년(1753)에 명정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열녀문의 기록과 일치한다. 또 “금상즉위(今上即位) 18년 계축 3월 세우다.”라는 명문이 있다.

유복립 충신 정려문에는 “忠臣 贈 資憲大夫 吏曹判書 兼 知義禁村事 行朝奉大夫 宗簿寺主簿 柳復立之間 宗複紀元後 再己十二月日 命旌”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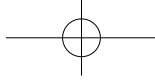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해동삼강실록(海東三綱實錄)』에는 유복립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유복립 전주유씨이다. 자는 군서 호는 목계 명종 무오(1558)생 관위는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숙부 학봉(鶴峰) 김공이 경상감사로서 진주성을 지키고 있을 때 공이 그를 부름으로 쫓아갔으며 수차에 걸친 대첩에 참가하였으나 불의에 학봉이 임종하면서 뒷일을 부탁함에 공을 대신하여 무리를 이끌고 싸웠으나 적병이 크게 불어나 이르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흰칼을 잡아 적에게 대항하였으나 마침내 순사(殉死)하였다. 숙종 기해(1695)년에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고 진주의 창렬사에 신위를 배향하였으며, 영조 기유년(1729)에 충신으로 정려되어 용인 정문동에 정려문을 세웠다.”

대제학 이재(李穡)의 <류복립 정려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忠臣贈參判柳公旌閭記

嗚呼此故忠臣贈吏曹參判柳公復立之間也公字君瑞完山人世宗朝名臣義孫之後早筮仕爲宗簿寺主簿壬辰之亂金鶴峯誠一以慶尙右監司守晉州城公往徒之協贊籌畫爲多屢告捷旣而鶴峯卒賊兵益大至癸巳六月二十九日城不守公與金公千鎰高公從厚諸人同死年三十六公歿後百有餘年五世孫奎錫始克搜集遺聞得公侄子友潛追祭於臺石樓下之女又得世譜所載實蹟以表揚之鄉人因方伯聞于朝肅宗己亥太宗伯閔公鎮厚覆奏贈以是職今上己酉又



旌其門公母夫人鶴峯之姊也仁祖朝嘗表其貞節公之忠盖有所由來矣公後裔居陽智縣五六世益繁至是設綽楔于宗孫深之家嗚呼公位不過下僚而當國家危急不肯竄伏草莽奮身赴難視死如歸是必平日氣節卓然有大過人者而其始晦而終顯盖天也若禮所謂稱揚先祖之美而明著之後世者奎錫有之可不謂孝乎是又不可使無傳也深請余爲文以揭于門旁奎錫之從子云 崇禎後再己未九月日 原任大提學 李緯 謹記

충신 증 참판 류공 정려기

아! 이는 옛 충신 증 이조참판 류복립 공의 정려이다. 공의 자(字)는 군서이며, 전주인으로서 세종 때 명신 류의손(柳義孫)의 후손인데 일찍이 종부시 주부(종6품)에 발탁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학봉 김성일이 경상우감사로 진주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공이 따라가 협력하고, 계책을 세워 여러 번 승전 보고를 올린 바 있다. 학봉 공이 별세한 후 적병이 더욱 많이 몰려와 선조 26(1593)년 6월 29일에 성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공은 김천일, 고종후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순절하니 공은 향년 36세이다. 100여 년 후 5세손 규석(奎錫)이 비로소 전해오는 이야기를 적극 수집하여 얻은 것은 공의 조카 우잠(友潛)이 축석루 아래에서 지낸 초혼제(招魂祭)와 또한 족보(族譜)에 기록된 사실들을 찾아내어 고향 사람들에게 밝혔다. 이로 인하여 감사(監司)가 듣고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 숙종 45(1719)년 예조판서 민진후 공이 임금에게 복명(復命)하여 증직한 것이 지금의 관직이며, 영조 5(1729)년에 또한 정려가 내려졌다. 공의 어머님께서도 학봉의 누님으로서 인조 때 일찍이 그 정절을 나타낸 바 있으니 공의 충성심은 모두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공의 후손은 양지현에 살고 있는데 5, 6세손은 더욱 번성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그의 종손 류심(柳深)의 집에 정문이 세워졌다. 아! 공의 지위는 하급 관리에 불과했으나 나라의 위기에 도망하여 숨지 않고 난리에 뛰어들어 초개같이 몸을 던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필시 평소의 기상과 절개가 타인보다 크게 뛰어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려졌다가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도다. 예절에 따라 이와 같이 선조의 미덕(美德)을 칭



송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다. 규석(奎錫, 목계공의 6세손)에게 그와 같은 이름이 있으니 어찌 효손(孝孫)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전(傳)하는 바가 없다고 하겠는가? 심(深, 목계공의 7세 종손)이 정려문 곁에 걸겠다고 내게 글을 청하면서 규석(奎錫)의 조카라 하였다.

영조 15년(1739년) 9월 전(前) 대제학 이재(李穡)가 글을 삼가 짓다.

※ 이재 (李穡, 1680~1746)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 사서 등을 역임하고, 중시에 급제하여 대사헌, 이조참판, 도승지, 대제학, 이조참판 등을 지냈다. 정미환국으로 용인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으며 <한천서원>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도암집> 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2. 송지렴(宋之濂) 효자정문(孝子旌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인물 송지렴(宋之濂)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각이다. 1863년에 건립되었으며, 1947년에 증건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균형과 격식이 손상되어 최근에 다시 중수하였다. 건물 안의 가운데 칸에 정려문이 있고 양쪽 칸은 비어있다.

이 정문(旌門)은 덩벙주초에 원주(圓柱)를 세우고 홑처마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이며 전면 양측에 퇴간을 두어 정면3칸 측면 1칸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정려각 안쪽 중앙에 정려문을 배치하였고 전면은 홍살 벽체로 마감하였으며 좌우에 방풍판이 있다.

송지렴은 송표(宋杓)의 아들로 본관은 야성(冶城), 자는 희주(希周)이고 영조 45년 기축(1769)년에 양지현에서 출생하였다. 천성이 매우 효성스러웠는데, 부친으로 부터 전수 받은 의술로써 명의라는 이름을 남겼다.


언젠가는 궁궐에 초치되어 왕의 진맥을 보고 곧 퇴궐하여 급히 탕제를 지어서 입궐하였더니 임금께서 이미 붕어하셨기로 왕의 환우를 치유치 못했다는 불충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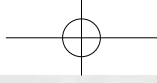




부친의 생존시에는 조석으로 문안하고 겨울에는 행여 방이 찰세라 군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였으며 하인을 시키지 않고 반드시 손수 하였다. 또 부친의 환우 중에는 험한 고개를 넘어 20여 리나 되는 타동에 피첩처를 정한 후 시탕(侍湯) 간병하였는데 늦은 밤에는 범이 나타나 길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

친상을 당하여서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거상 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소식하였다. 그의 효행이 부친의 생존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므로 향당(鄉黨)이 흠경(欽敬)하여 조정에 알림으로써 철종 14년(1863년) 효자 정문이 내려져 정려각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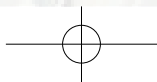
 김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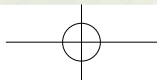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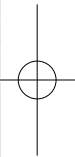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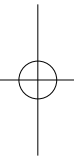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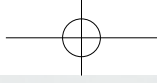


4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민과 삶

바빠서 저승사자도 물리친 버들고리 장인 **김계일** 선생
반정마을에서 삶을 일군 어린 농사꾼 송문3리 **류장희** 선생
장애의 역경을 딛고 인장(印章)을 새긴 **류희송** 선생
역동적인 삶 속에서 피어난 구심점 송문2리 **송철재** 선생
살맛 나는 삶을 살고 계신 서각(書刻)가 산촌 **송병우** 선생







바빠서 저승사자도 물리친 버들고리 장인 '김계일 선생'

송문1리 파란 지붕 함석집에 살고 계신 김계일 선생은 아마도 우리나라 유일의 버들고리의 장인이 아닐까 싶다. 언제나 누구든 흔쾌히 맞아주시는 선생의 고향은 용인이 아니다. 김계일 선생은 1941년, 경기도 연천에서 2남 4녀 중 2남으로 출생하였다. 6.25 전쟁 결과 연천이 수복되었는데, 이 지역은 전쟁 이전 조선인민공화국 관할이었기 때문에 당시 임진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국방군, 북쪽은 인민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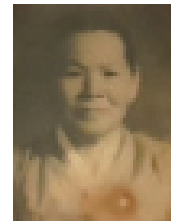


선생은 바로 그 경계에 살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선생은 가족들과 함께 한탄강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죽어도 고향에서 죽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가족들은 다시 짐을 싸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북으로 올라가던 과정에서 아버지는 눈이 쌓여 잘 보이지 않던 길 한복판에 놓여있던 지뢰를 밟아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아버지의 시신을 거들 틈조차 없었던 전쟁통에, 선생과 가족들은 정신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국군은 그들에게 ‘곧 원자폭탄이 떨어지니 어서 빨리 남으로 피난을 가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그렇게 가족들은 고향을 두고 다시 한번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에 걸친 고생길에 도착한 곳은 한강 이남에 위치한 지금의 송파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난민을 위한 천막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었고, 선생의 가족들은 그중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힘들게 자리한 피난민 막사는 옴, 벼룩, 이 등 벌레가 우글거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였고, 선생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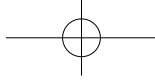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연천에서 송파로, 송파에서 용인으로

어머니의 결정으로 이동한 곳은 용인이었다. 당시 용인 역북동에도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다.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있던 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금학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 천변으로 피난민 수용소 천막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김계일 선생의 어머니

선생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지금의 효자고개인 정신병원 고개를 걸어 용인 수용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가족들과 함께 피난민 수용소로 향하던 선생은 수여선을 목격하였는데, 난생처음 목격한 기차가 자신을 향해 ‘광광 광광’하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 그만 겁에 질렸다고 한다. 도로를 따라 심겨 있던 아릅드리 이태리포플러 나무도



인상적이었는데, 선생에게는 이 모든 광경이 생경했기에 용인이라는 장소가 전반적으로 매우 낯설었다고 한다. 선생과 가족들은 피난민을 위한 천막 중 하나를 선택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갔다. 초창기에는 텅텅 비어있던 수용소 천막이 얼마 지나지 않아 피난민들로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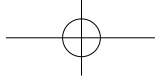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어느덧 용인에 익숙해진 선생은 가족들의 생계를 잇기 위해 먹고 살 궁리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다.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해 있던 그에게는 공부할 틈이 별로 없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책의 하나로 ‘문맹자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 선생은 운 좋게 공부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일명 ‘문맹 교육’은 동네 사랑채에서 사람들을 모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전쟁 당시 초등 2학년을 다니다가 피난길에 오른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선생은 동네 사랑채에서 못다 한 초등학교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의 장래를 위해 공부가 더 이어져야 했지만, 가정 형편상 중학교로의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는 매우 어린 나이였음에도 가족들을 위해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 되었든 가리지 않고 해야만 했다.

“그때는 도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간에 상관없어. 돈을 줄 테니까 모를 심어라 이거야. 일찍 끝나도 좋고 늦게 끝나면 손해야. 200평 한 마지기 모 심는데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좀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어서 모를 잘 심었어.”

3일을 꼬박 일해야 품값으로 쌀 한 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그 정도면 식구들이 며칠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으니 불평할 것이 없었다.

키 만드는 할아버지와 만남

스무 살이 되던 해, 선생은 같은 피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던 황해도 출신의 한 할아버지의 숙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키를 만들고 계셨다. 유희 거리가 없던



시절, 선생은 심심할 때마다 종종 할아버지의 숙소를 방문해 그가 키를 만드는 과정을 결눈질로 지켜보며 키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익혀 나갔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께서 점심을 드시러 자리를 잠시 비우셨는데, 선생은 그동안 어깨 너머로 익히고 있던 키 만드는 방법을 상기해 할아버지께서 만들고 계시던 키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여 그를 놀라게 하였다.

할아버지는 “너 이거 배워라.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라며 선생의 재능을 높이 사 그에게 일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하였다. 3일을 힘들게 일해야 쌀 한 말을 받았던 그에게 키 만드는 일은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벌 수 있게 해주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자, 할아버지는 선생에게 ‘재료를 직접 대어 줄 테니 독립하라’고 권하셨다.

할아버지의 조언을 귀담아들은 선생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어엿한 기술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 한창 인기가 있었던 키뿐만 아니라, 버들고리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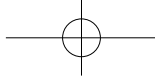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 숙소를 방문한 선생은 방 한 칸에 있던 오래된 동고리(버들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오직 자신의 재주만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선생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동고리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동고리가 오늘날까지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보물이 될 줄이야.

나 아니면 못 산다는 처자와의 결혼

군 입대는 선생에게도 피해 갈 수 없었다. 22살 되던 해 영장이 나왔다. 이웃사촌들의 배웅을 받으며 용인역에서 수여선을 타고 수원으로, 수원에서 논산훈련소로, 논산에서 파주 기갑사단으로 배치된 선생은 3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제대했다.



김계일 선생의 약혼 사진



“제대해 오니 나 아니면 못산다는 처자가 있어서 구원해준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둘 낳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허허허”

제대 후 결혼해 수원에서 몇 년을 보내다가 누이가 살고 있던 지금의 송문리에 자리를 잡은 것도 벌써 어언 50년이 다 되었다. 당시 초가집이었던 집이 이제는 함석집으로 변했고 크로바공장, 벽지공장, 돌 공장, 텐뿌라 공장 등 공업으로 성행했던 그때의 송문리는 폐업하여 사라진 공장의 터와 새로 생긴 건물들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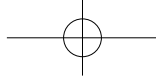
당시 클로버 공장은 직원만 해도 3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던 회사였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송문리에는 작은 방 여러 개로 구성된 집들이 많이 있었다.

이 시기 선생은 공예 기술자가 아닌 목수로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는데, 이유인즉 버들고리의 주재료인 버드나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연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군청에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제때 베지 못한 버드나무는 묵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고리에 사용할 수 있는 버들은 새순이 올라와 잘 휘어지는 때 채취해야만 제대로 쓸 수 있었다. 간혹 용인장에 버들을 가지고 나와 팔던 사람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사라지니, 그동안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줄 알았던 버들고리를 더는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목수 일을 하게 된 선생은 대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타고난 손재주와 눈썰미로 실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목수 일도 힘에 부쳤다. 그 무렵 건강도 나빠지면서 선생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평생을 쉽 없이 일만 해오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휴식은 맞지 않는 옷과 같았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선생은 마치 그 옛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던 버들고리 만들기로 돌아갔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다.



돌고 돌아 다시 고리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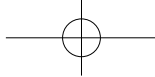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했듯, 버들고리의 핵심은 버드나무의 수급에 있다. ‘버드나무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고민하던 그는 무작정 차를 끌고 나갔다.

“무작정 나왔지. 일단 가 보는 거야. 그런데 이포라고 있어. 거기서 남한강을 타고 쪽 올라가면서 버들을 보면서 찾는 거야. 가다 보니 버들이 보여서 차를 세우고 뛰어 내려 갔어. 근데 가서 보니 못 쓰는 버들이야. 여러 군데 가봐도 못 쓰는 버들이었어. 그러다가 군락지를 찾은 거지”

버들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버들이 쇠어서 딱딱해졌다는 의미이다. 묵은 버들을 베어 내야만 이듬해 새순이 올라오게 되고, 제때 새순을 채취해야만 고리를 잘 만들 수 있게 된다. 묵은 버들은 연초에 잘라주고 새순은 단오를 기점으로 채취한다. 음력 5월 5일 단



날대를 실로 결을 때 사용하는 작업대/ 채취한 버들과 낫/ 창고에 보관 중인 건조버들\$



오부터 버들가지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충주의 목계나루까지 가서 구해오는데 보통 15일 정도 버들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벗기고 적당히 건조한 뒤 창고에 보관하면 일년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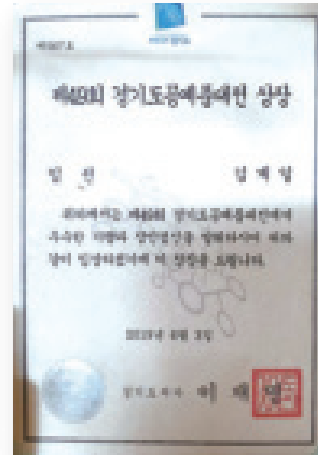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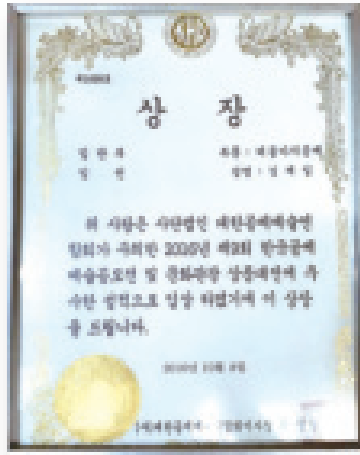
선생이 만든 버들고리는 둥그런 모양의 동고리, 네모난 모양의 모재비가 있다. 둘의 차이는 모양의 차이다. 보통 3개를 한 세트로 만들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예전에는 SBS 방송사의 '생활의 달인'에 '전통방식으로 만든 키의 달인'으로 소개될 만큼 선생의 키 만드는 솜씨는 아주 뛰어나다. 원주역 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공예전에서는 장려상도 받았고,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제43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입선하기도 하는 등 상도 많이 받았다.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영상으로 전시가 되어 있다. 나아가, 11월에 개관하는 수원 농업박물관에도 그의 작품은 전시가 될 예정이다.

바빠서 저승사자도 물리친 지금

전국적으로 그의 작품이 유명해지며 찾는 이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올해로 82세가 되는 선생의 연세를 생각하니 이제는 쉬엄쉬엄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 건강이 부쩍 나빠져 간과 쓸개까지 수술해야만 했다. 단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선생은 치료로 입원했을 당시, 병상에서 비몽사몽간에 저승사자를 두 번이나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시커먼 사람들이 두 명이 왔어. 둘이 와서 나에게 가자고 하는데 나 지금 못갑니다. 바빠서 죽을래도 죽을 새도 없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 봐라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눈 깜박할 사이에 없어졌어. 그렇게 또 한 번 왔는데 또 똑같이 말했더니 저승사자도 똑같이 말하고 사라졌어”



경기공예품대전
한국공예예술공모전
완성된 동고리
(국립민속박물관)

그때 멋모르고 저승사자를 따라갔더라면 죽을 수도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선생은 현재는 더욱 각별하게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전승자는 정하셨냐’고 여쭙니 선생은 적극적으로 버들고리를 배우겠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제자가 있다고 대답하셨다. 장인정신이 깃든 공예 기술이 제자에게 하루빨리 전승되어 김계일 선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한다.

✍️ 이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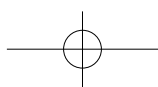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민과 삶



반정마을에서 삶을 일군 어린 농사꾼 송문3리 류장희 선생

반정마을에서 삶을 일군 어린 농사꾼송문3리 류장희 선생 • 229





광복 이전인 1943년에 서울에서 5남매의 맏이로 태어난 류장희 선생은 세 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인 송문3리 반정리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오고 8살이 되던 해에 6.25전쟁이 일어나 어머니의 고향인 이동면 묵리로 피난을 떠났다. 다행히 선생의 집은 물론, 반정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전쟁이 정전된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조사자: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제보자: 내가 43년도. 올해 80이야. 해방 전에 태어났어. 내가 3살 때 해방됐으니깐. 나는 본래 원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영등포 고척동에서 살았다고. 해방 되면서 내려 오거여. 여기로. 세 살 때 아버지 고향이 여기니깐. 해방되고 내려온거지. 그리고 7살 때 6.25가 터진거지. 50년에. 그 때가 여덟살. 내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조사자: 양지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제보자: 그렇지. 다 양지지. 여기는 양지니깐 다 양지초 갔지.

조사자: 그럼 피난도 갔다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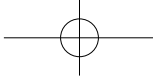
제보자: 갔지. 피난은 여기 묵리로 갔다왔어. 묵리. 이동면 묵리. 우리 외갓집이 거기있었어. 우리 외갓집이. 거기에 금 파던 구덩이가 있었어. 금광이지 뭐. 그게 있었는데 들어가서 크게 파 놓은거니깐 들어가서 물이 밑에 있으니깐 물 위에 이런 나무를 쭉 깔았어. 나무 깔고 그 위에 명석 깔고 거기서들 우리만 간계 아니고 몇집이 거기서들 모여 살았다고. 그랬다가 피난갔다가 들어왔지. 아버지는 군인병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서 묵리로 갔다가 온거지. 여기서 학교로 나가면 인민군들이 와 돌아다니고 그랬어.

조사자: 그럼 묵리에서 얼마나 계시다가 오신거예요?

제보자: 몇 개월 있다 왔지 뭐. 수복되면서 들어왔지.

조사자: 그럼 그 때 피난갔다가 돌아오셨을 때 마을 집들은 괜찮았어요? 폭격맞거나 그런 집들은 없었어요?

제보자: 없었어. 저쪽 개울 건너 동네, 송동 2리. 거기는 많이 당했지. 거기는 인민군 에



들이 있었어. 그래서 아군 전투기가 와서 막 들이붓고 그랬어. 여기는 까딱없었어. 내가 옛날에 그 때는 여 뒷집에 살았어. 뒷집터에. 내가 책이나 학용품 쓰던거 다 넣어두고 피난 갔는데 갔다오이 다 그대로야. 깨끗해. 벽 하나 헐어진게 없었어. 6.25가 나고 직후에도 여기서 목총들고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조사자: 마을에서요?

제보자: 응.

조사자: 그거는 누가 해줘요?

제보자: 그거를 어디서 했던고 하니 운동장 밭이라고 있었어. 거기서 내가 목총들고 훈련하는 걸 봤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는 어리니깐 안받고. 나보덤 6.25때 나는 여덟살 아홉 살 때니깐 한 20대 사람들이었지. 나이 좀 있어야 교육을 받지. 나같이 어린 애들은 교육을 못 받지. 내가 목총들고 훈련받는거를 봤다고. 그거 없어진지 얼마 안됐어. 내가 중학교 다닐때만 해도 반별로 수업 들었었어.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연대장. 그 다음에 학년 중대장 있고 반은 소대장이고. 그것도 다 없어졌지.

조사자: 외아들이세요?

제보자: 아니지. 5남매 만이야. 원래 9남매인데 우리 하나 위로 있었는데 낳자마자 죽었나봐. 내 밑으로다가 여동생 하나 있었고 남동생 둘이 6.25때 죽었어. 홍역으로. 그 때는 홍역이 심했잖아. 홍역이면 견디기 힘들니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기살 먹은 애가 태어난거야.

조사자: 그럼 여기 이사 오셨을 때는 부모님이랑 선생님만 오신거예요? 조부모님은 안계셨어요?

제보자: 난 할머니는 못 봤어.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갔나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갔는지. 할머니는 못 봤어. 할아버지는 일흔 일곱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 내가 17살인가 18살인가 그 때 가셨어.



선생의 이전 세대들은 강당이라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 서당이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선생의 집 마당을 ‘강당터’라고 부르던 것에서 강당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조사자: 여기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서당 다니셨던 적은 없었어요?

제보자: 서당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만 댕겼잖아, 들. 그러니깐 한문을 모르니깐 여기 내려가면은 지금 물류창고 같은거 하나 지나서 그 자리에 집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엄선생’이라고 제관이 하나 있었어. 글로 한문공부들 배우러 다녔어. 그리고 여기 이 집터 마당을 ‘강당터’라고 그랬어. 그러니깐 옛날에 이 터에서 글 가르치고 그랬나봐. 근데 난 모르지. 어렸으니깐. 들은 얘기가 그래. 노다지 ‘강당’이라고 그랬어. 강당이라고 하는거 보면 거기서 뭐라도 가르쳤나봐.

양지초등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용인중학교로 진학하였다. 당시 양지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용동중학교로 진학하지만 선생의 아버지는 용인중학교로 입학시켰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 이상의 진학은 포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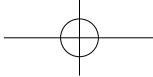
조사자: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양지에서 나오셨어요?

제보자: 아니. 나는 양지초등학교 나와서 용인중학교 댕겼어. 그 때 용동중학교도 있었어. 거기보다는 용인중학교가 낫다그래서 다 용인중학교 다녔어. 고등학교는 안다녔어. 그 때는 월사금도 제대로 못 내서 겨우 나왔어.

조사자: 그 때는 뭐 타고 다니셨어요?

제보자: 타기는 뭐를 타. 그 당시에. 9시까지 학교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걸어다녔지. 차 타려면 신평리로 가야되잖아. 신평리로 가려면 개울을 건너가야된단말이야. 저 신작로로 나가서. 몇 번 타고 댕기기는 해도 대부분 걸어갔어.

조사자: 그럼 학교 같이 다니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제보자: 있지. 대회라고. 그 사람도 류가야. 저 다리 건너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 살던 애가 있었어. 나랑 동갑인데 한 반이었어. 근데 여기 살다가 이사나갔지. 그때는 우리 둘이 용인중학교 가고 나머지는 다 학교도 못 갔어.

조사자: 중학교 졸업하시고는 계속 여기 계셨어요?

제보자: 그렇지. 계속 여기 있었지. 내가 못 간 원인이 우리 아버님이 쉰 하나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깐 아프시니깐 아무것도 못하셨다고. 그러니깐 내가 중학교 졸업맞고 바로 농사지었지. 열일곱살 때부터 농사짓기 시작한거여. 그 때는 안그럴 수가 없었고 하니. 여기 류평수 동생 류철수라고 있었어. 그 양반이 용인중고등학교 선생도 했었고 태성중학교 선생도 했었어. 자유당 때 국회의원을 나왔어. 그 양반이. 그때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당을 탔어야 됐는데 당을 못 타고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당이 안되니깐. 그러니깐 그 양반 선거운동을 다녔었어. 동네사람들이 다. 그래 아버지 선거운동을 나가고 하니깐 우리 또래들이 다 집에 농사지었지. 아버지들은 선거운동 다니고 하니깐 어떡해. 그 때 자유당이 판치던 판인데 무소속이 어떻게 돼. 떨어지지. 무조건 자유당이었는데.

조사자: 열 일곱 살때부터 농사지으셨으면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제보자: 그 때 고생안한 이가 누가 있어. 다 고생했지. 먹을 것도 없잖아 또. 먹을게 없으니깐 으레 저녁에는 김치죽 먹는거여. 잘 먹으면 콩보리밥 먹고. 감자 고구마 먹고. 소나무 껍질을 캐다 먹지를 앓나. 칩 뿌리를 캐다 먹지를 앓나. 다들 그랬어. 어떤 집이든. 잘 사는 몇 집들만 쌀 조금씩 먹었지. 다들 어려워서 찢찢 댔지.

조사자: 17살 때부터 농사지으시고 계속 여기 계속 계셨으면 마을 변하는거 다 보셨겠어요.

제보자: 그렇지.

선생의 학창시절, 마을의 어린이들은 때때마다 줄다리기, 윷놀이가 행해졌으며 서숙대를 이용해 놀잇감을 만들어 놀기도 하였다. 또 팔월 추석날에는 마을 사람들의 장기자랑 대회라 할 수 있는 ‘콩쿨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 콩쿨대회는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사전에 경찰에 알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한다.



조사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보자: 나 어려서만 해도 여기서 줄타기도 하고 그랬어. 줄 잡아당기고 했었어. 줄다리기. 사람 태우고. 앉혀놓고 양쪽에 줄 당기고. 가운데 사람이 앉았고. 양쪽에 잡아당기고. 여자 남자로 나뉘가지고. 여자 남자 편 나누면 여자가 이겨야지. 남자가 져 줘야지. 정월 대보름에. 이것도 나 어렸을 때 했으니깐. 지금 이장네 집 그쪽이었어. 보름에 또 서숙대. 조. 그거를 자기 나이만큼 묶어. 일곱 살이면 일곱 번 묶고 열 살이면 열 번 묶어. 묶어서 불붙여서 돌려. 이 다음에 나온게 깡통에 불 붙여서 하는거 쥐불놀이. 그게 이 다음에 나온거야.

팔월 추석에는 연극도 했는데 여자 역할도 했었어. 내가 여자 역할을 하니깐 작은 누나가 가슴을 채워주는거여. 우리 마당이 옛날에 마을회관 터였으니깐 우리 마당에서 많이 했었어. 그게 먼저 경찰에 가서 신고해야돼. 각처에서 다 모이니깐, 우리 동네만 오는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다 모이니깐 모여서 싸움 날까봐. 그래 연극한다고 하면 팔월 추석때 몇시에 한다고. 옛날에 콩쿨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정월에는 윷놀이 하고. 마을 노래 자랑하고 그러면 신평리에서도 오고 마평리에서도 오고 그러지 들. 이 동네 애들이 잘했었어. 근데 그랬던 애들이 다 나가고 없어. 정월달에 또 윷놀이 하잖아. 그것도 코로나때문에 못하고 있어.

류장의 선생은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이 되어 할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군대에 쉽게 입대 할 수 없어 28세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였다. 군대 전역을 며칠 앞두고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자 군대 전역을 늦게 하게 되었다.

제보자: 내가 군대를 안갈라고. 아버지도 편찮으셔서 누워계시지 밑에 동생도 어리지 그러니 안갈라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스물 여덟 아홉 살에 군대에 끌려갔어. 햇수로 4



년을 했어. 강원도 양구에서. 전방이여. 헛수로 4년 35개월을 하고 나왔다고. 그러니 나이가 서른이 넘었잖아. 그래 제대하고 얼마 안있다가 선 봐서 결혼했지. 내 나이가 있으니까.

조사자: 그럼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제보자: 내가 서른 두 살에 했나봐.

조사자: 군대를 28살에 가시고?

제보자: 응. 헛수로 4년을 했어. 왜그런고 하니. 김신조 바람에.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얼마 안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30개월도 안하고 나갔어. 근데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대가서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 땡겼다고. 이 다리 힘을 기른다고. 그 바람에 35개월로 늘어난거여. 군대를 늦게 갔으니 방법이 있어.

군대를 전역하고 1년 뒤에 외가쪽 친척 아주머니의 소개로 인천이 고향인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다. 이후 1년간의 연애를 한 뒤 1975년도 10월 30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수원 여성회관에서 예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생략한 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선생은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군생활 당시 모습

조사자: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제보자: 결혼은. 우리 아버지가 6남맨데. 6남매 속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 우리 큰집에도 나보담 나이가 어렸어. 위에 누나들만 둘 있지. 아들이 나보다 어렸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며느리를 봤으면 좋겠다고. 일흔 일곱 살 됐는데 손주며느리를 못 봤다고 손주며느리를 그렇게 원했다고. 그래 내가 강원도로 21살에 선을 보러 갔다고. 근



데 색시나 17살이여. 그 때는 다 그렇게 일찍들 결혼시켰어.

제보자: 우리 외갓집이 여기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갔어. 강원도 화천군 상선면 산양리라는 데로 갔는데 그 옆집에 그 여자가 있으니깐 나를 소개시켜준거여. 우리 외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선 보고 나서 연락도 안했어. 선을 봤는데 그 색시가 8남매야. 남자가 하나고 딸이 일곱이여. 근데 딸로 넷째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이고. 가면 골치아파요 나중에. 그러고는 연락도 안했다가 외갓집에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연락이 왔어. 내가 안한다고 했어.

그래 그래 군대 갔다오고 바로 중매로 만나서 1년 만나고 그 다음해에 결혼했어. 서른두 살에 했지. 그때 집사람이 스물 다섯 인가 그랬어. 원체 집이 인천이니깐.

조사자: 어떻게 인천까지 연이 닿았어요? 중매는 누가 해주신거예요?

제보자: 중매는 누가 했는고 하니, 우리 어머니 큰고모의 며느리가 했어. 그냥반이 고척동 살았거든. 영등포 고척동. 근데 직장 다니다가 봤대. 그 양반이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지.

조사자: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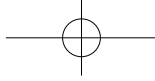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제보자: 수원서 했어. 나는.

조사자: 중간이어서 수원에서 하신거예요?

제보자: 그렇지. 저집도 어려웠거든. 그당시에. 근데 내 육십대로 이리로 다 끌고 와서 할 수는 없잖아. 수원 예식장도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했어 그냥. 75년도에 했어. 10월 30일 날에.



결혼식 사진



조사자: 그럼 여기 마을사람들도 가셔야되지않아요.

제보자: 가는 사람들은 가고 못 오면 마는거지. 거기서 그냥 국수잔치하고 말았지 뭐.

조사자: 마을에서는 따로 안하시고요?

제보자: 여기서 결혼식을 해야 잔치를 하지. 시방은 다 결혼식장에서 하고 끝나잖아. 몇 멧은 안오지 뭐. 못간다고 돈이나 보내고. 그 때는 차를 빌릴 수가 있어? 돈이 있어야 차를 빌려서 마을 사람들 오라고 하지.

조사자: 그럼 폐백은 집에 오셔서 하셨어요?

제보자: 거기서 하고 말았지. 그리고 신혼여행은 집으로 왔어. 우리 때 신혼여행이 어 있었어.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러니깐 예식하고 집으로 온거지.

조사자: 그럼 그 때는 신혼여행 안가시고 신접살림을 바로 차리신거예요?

제보자: 그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셨지. 우리 어머니는 아 혼 다섯에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신지는 이제 4년 됐어. 여기서 어머니랑 동생들이 랑 같이 살았지.

조사자: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제보자: 아들 셋. 삼형제야.

현재도 송문3리 마을에서는 산제사를 지낸다. 마을에 젊은 제관들이 많았을 당시에는 산제사를 지내는 것에 큰 문제가 업었다. 그러나 점차 제관을 맡는 사람들이 고령화 됨 에 따라 산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나 제물도 변화되었다. 이에 대해 류장희 선생은 소 머 리를 올렸던 과거 산제사부터 현재의 의례까지 꼼꼼히 기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 생이 제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산제사를 모시지 못했던 사례들도 들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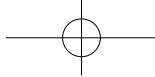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조사자: 그럼 예전에 산신제 지내고 하면 마을 기금으로 하잖아요.

제보자; 아니, 그전에는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소를 잡아놓고 지냈다고. 산신제를 지 낼 때. 그래서 우리 소도 한 번 제물로 쓴 적 있었는데. 소가 나하고 아버지를 받더라고.



그래서 그 소를 팔았더니 동네에서 사가지고 산신제 지내고 그랬어. 소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기금이 자꾸 줄어드니깐 돼지를 잡아 놓고 지냈어. 돼지를. 돼지를 쪼어지고 올라가야되잖아. 산에까지. 산에를 쪼어지고 올라가야되는데 돼지가 막 이러면 넘어져서 지게도 뿐질러 먹고 그랬다고. 돼지머리만 놓고 지내. 통으로 다 올라가지는 않고 머리만 가지고 올라가. 통돼지를 잡았으니 이거를 노나 먹어야되잖아. 그러니깐 산지사 지낸 사람들한테 다 찢라줘야 되잖아. 두근 이면 두근, 서근이면 서근, 그래 할당제로. 찢라놓고 돼지고기 가져가라고 하면 먼저 온 사람이 좋은거 싹 집어가버리잖아. 나중에 온 사람은 뒷다리 고기 이런 것만 가져가니깐 이래서 또 말썽이 낫다고. 그렇게 말썽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1번 2개, 2번 2개. 이렇게. 1번 뽑은 사람 1번 가져가고, 2번 뽑은 사람 2번 가져가게. 그래 자기가 뽑은건 꼼작못하게 그걸 가져가게 했지. 그런식으로 하다가 예잇 그것도 없애자 그래가지고 인제 소머리 놓고 지내는데. 올리려면 동네돈을 걷어야되잖아. 돈이 없으니깐. 동네 돈이 마땅치 않으니깐. 그래서 호당 만원씩 낸다고. 십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어. 가다가. 올해도 이집서 십만원을 냈다고. 작년에는 계란공장에서 십만원 내고. 그래 인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깐 몇 십만원 되면 그 돈으로 소머리 사야지, 떡해야지, 밥 해야지, 또 북어 한 마리 사야지. 감 열두 개 사야지, 밤 한 되 사야지, 대추 사야지, 소고기 서근 사야지. 그렇게 사고 또 술 한 병 제주 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거여.

거기가서 밥을 해서 제사를 지냈어. 밤에. 거기 가서 불을 놓고 앉았다가 12시가 되면 제사를 지냈다고. 근데 거기 가서 누가 밥을 해. 까딱 잘못 했다가는 밥이 설어. 남자들이 하니깐 제대로 되나. 그래 이장보고 그랬어. “거기가서 하지 말고 집에서 깨끗하게 해서 올라가자 그냥.” 그게 낫지. 잘못되면 밥 설고. 누가 이장 볼 때 올라가서 밥을 했는데 밥이 죽이 됐지 뭐여. 근데 그냥 아뭏소리 말고 그냥 해야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또 “아이, 밥이 곤죽이 됐네.” 또 이려고 앉았네. 아뭏소리 말고 그냥 지내면 되는거여. 자꾸 그러니깐 집에서 깨끗하게 준비하는게 낫지. 근데 거긴 또 차가 못 올라가. 판건 괜찮은데, 어깨에 미고 올라가면 되. 떡도 요만큼이고 밥도 요만큼이니깐 괜찮은데 이 소머리를 못



들고 올라간다고. 무거워서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나. 그래 트럭에다 싣고 올라가.

근데 여기도 이제 미고 올라갈 사람들이 없어지면 차츰 없어진다고 봐야지. 예전에는 가마솔이 거기 있었어. 물 끓이고 제기 닦고. 돼지를 거기서 잡으니깐. 물 끓이는 가마솔 하고 조그만 웅솔이 있었어. 밥 하는 솔이. 근데 누가 솔을 깨뜨려갔어. 그래 솔이 없어졌잖아. 그래 지금은 고무다라야 하나밖에 없어. 삽하고. 옛날에 오지그릇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지금 딱 하나 남았나봐. 다 없어지고.

조사자: 회장님도 제관 많이 해 보셨어요?

제보자: 그럼, 나도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갔으니깐. 옛날에 산지사를 지내러 가야되는데 날을 받아놓잖아. 근데 우리 내 밑에 동서가 같이 살았어. 산지사 지내려면 깨끗해야 되잖아. 아이 뭐가 터졌버렸네. 그거를 어머니가 또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계셨으면 됐는데 “애비야, 어떡하냐. 어찌고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깐. “아이, 어머니 그런걸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게 어머니가 잘못이여? 그렇잖아. 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사 지내러 못 갔지. 그래 다른 사람들이 가야지. 제관 맡기로 하고 황토 흙 다 퍼서 집앞에 뿌리고 했는데. 전에는 류봉수 씨 계실 때는 그이가 제관 될 때 날 잡고 그 날에 맞춰서 좋은 사람을 제관으로 뽑아서 올려 보내는데 화부 둘, 당주, 유사, 헌관, 개축 이렇게 6명이 가. 그래 시방은 누가 날을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깐 시월 초하룻날에 원래 지내는건데 구월 스무아흐렛날로다가. 그래 이거 날 잡고 할 수가 없으니깐 그냥 하는거여. 근데 원래는 시월 초 하룻날로 하는거여. 한시가 넘어서 지내면 딱 시월 초하룻날이라고. 그래서 중간을 따져서 12시에 지내는거여. 원래 1시에 지내는게 맞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지내야지. 할 수 없는거여.

만약 초상이 나거나 동네에. 산지사 지낼 때 날 받잖아. 날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사흘 기도를 하는데 ‘당주’ 이거 준비하는 사람은 산예를 밤에 올라가서 ‘조라’라고 감주. 그거를 해 놔야돼. 혼자 밤에. 그 다음에 또 시제를 지내러 또 올라가야지. 또 가서 설거지 해야지. 당주는 몇 번을 가야된다고. 산이니깐 안좋잖아. 위험하고. 그래서 둘 씩 땡기기로 했어. 당주를 둘 씩. 그랬다가 그것도 안하니깐 혼자 하는거지.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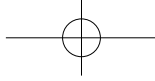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은 사흘을 기도 하고 당주는 일주일을 기도를 하는데 그 집 앞에 황토 빨간 흙을 가져다 놓고 외부 사람 못 들어오 막았다고. 그렇게 엄하게들 하고 있었는데 산제사날 잡아서 산제사 지내러 올라가야될텐데 어느때 아저씨가 인분을 치웠대. 그 날. 인분을. 그래 당주가 그걸 봤대. 그러니깐 “아니 이사람아, 산제사 지내는 날 이거를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야단을 쳤었나봐.

옛날에는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 지금은 안따져.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해. 갈 사람들이 없잖아.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잖아. 그러니깐 아무 피해 없으니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렇게 가는거지. 어떡해, 사람이 없는데. 황토 깔고 원새끼 꼬고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안해.

송문3리 반정마을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대대로 전주류씨 회헌공파 종원들이 거주한 집성촌이다. 반정마을은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목계공 류복립의 아들이 할머니의 친정마을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 이후 반정마을은 류복립의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고, 입향조나 다름없는 목계공의 정려각을 세우고 매해 시제를 올리며 지내왔다. 전주류씨 회헌공파 20세손인 류장희 선생은 마을의 어른들을 따라 안동, 전주, 고양시 등에 모여져 있는 선조들의 시제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마을에서는 시제를 지내기 위한 옷토도 사라지고, 지낼 수 있는 제관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어, 신평리와 용인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모여 남리에서 시제를 모신다.

조사자: 마을에서 차례 지낼 때는 제일 큰 집에 가서 지냈어요?

제보자: 집안마다 지내지. 집안마다 제일 큰집가서 지내고 내려오지. 우리 제일 큰집은 이 집 뒤에 사셨어. 지금도 종손 아저씨 살아 계셔. 밖에 나가 사는데 집이 있으니깐 가끔 오셔. 류기봉씨라고 거기가 원래 종손이야. 그 아버지가 류장희씨라고. 차례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려고 하니 다 지내야되잖아. 그러면 초하룻날 초사흘날 창희네 그 형네 가서 지내고 우리는 초 엿새날 지냈어. 여기 지낼 때는 다 모여 지냈어. 따로 지낼 때는



각자 지냈는데 그래도 차례 지내고 할 때는 같이 모여 지냈어. 제사때나 시제때나 다 같이 모여 지냈지. 각 파에 논이 서마지기가 있었어. 600평씩 있었어, 각 집안내마다. 근데 다 팔고 지금은 없어. 요양원 앞에 있는 논 있잖아. 거기가 집안내 옷토였어. 근데 그걸 파는데 느 할아버지가 샀지. 예전에는 집안내 다 모여서 지냈는데, 지금은 그런것도 없어. 다 없애고 서울서 지내고 각자 지내니깐,

조사자: 시제 지내러 가실때는 마을 분들 다 같이 가시는거예요?

제보자: 그 때는 다 같이 가는거지. 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니깐. 또 고양시에도 산소가 있어. 우리 회헌공 할아버지가. '회헌공'이라는 할아버지가 거기 계셔. 옛날에 왕자들 글 가르치셨대. 그 할아버지가 고양에 계셔. 그래 여기서 거기로 벌초하러 들 다녔어. 파마다 날 정해서 갔었어. 여기서 한 번 가면 신평리에서 한 번 가고 그렇게 댕졌는데 그것도 이제 안해. 여기 마을 사람 전부다 회헌공 할아버지 자손들이여. 여기 말고도 신평리 운학리 다. 그러니 해마다 돌아가면서 벌초 하고 시제 지내러 다 같이 갔지.

조사자: 그럼 회장님은 회헌공파 몇 세손이세요?

제보자: 나는 21세손. 정문 할아버지 류복립 할아버지도가 회헌공 할아버지 자손이여.

조사자: 여기 시제는요?

제보자: 지금은 다 안지내. 가서 지내질 못하니깐. 여기서 지내다가 남리에 한꺼번에 가서 지내. 산소가 거기 가 계시거든. 송동에. 그래서 나한테 11대 할아버지들은 남리에서 한번에 지내. 류복립 할아버지가 아들을 삼형제를 두셨어. 삼형제 두셨는데 큰덕이 운학리 거기있고 우리는 둘째. 또 여기 류형수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네 집 안내가 셋째. 그 셋째네도 같이 지내자니깐 거기는 안해서 우리랑 큰덕만 합해가지고 남리에서 같이 지내. 남리서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 일요일에 지내는데 이번에는 며칠날 지낼라 몰라. 일요일에 지내야 많이 오니깐. 가면 차비도 줘.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5만원씩. 제사 참석하면 주고. 예전에는 시제 지내러 전라도도 가고 안동도 가고 전주 인후동에 할머니 제사도 지내러 댕기고 그랬지. 정문 할아버지가 진주성에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진주서도 지내. 거기도 위패가 있어가지고.



조사자: 그렇게 멀리 시제 지내러 가시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제보자: 종중돈으로.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중 돈으로 낸다는 것 만 알아.

조사자: 그럼 거기 안다니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보자: 거긴 해마다 갔지. 안동도 내려가고 가 들. 올 해는 언제 갈는지 몰라. 아직 연락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 각 파들은 다 안지내고 거기 다 같이 가서 지내지. 종손이 강희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냈는데 지금은 안지내. 나는 제사 지내러 가. 거기 시제 지내면 제사 지내러 오라고 연락이 와. 그럼 가서 제관하고. 여기는 시제 지내고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 시제 지내러 오면 단 얼마씩이라도 주니깐. 끝나고 밥 식당에 가서 먹고. 음복은 따로 안해. 식당에서 밥먹고 가.

조사자: 시제 지내러 갈 때 자손분들도 같이 가요?

제보자: 가자고 하는데 다들 바쁘니 갈 수가 있나.

선생은 38살이 되던 해에 마을일을 맡게 되었다. 80년도 중반에 접어들 무렵, 처음 이장직을 맡으면서 마을 도로를 닦고 전신주를 세우는 등 마을을 가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 당시에는 외지인들이 마을 건너편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시 이장을 맡았던 선생은 토박이들이 아닌 외지인과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 그럼 이장은 언제부터 맡으셨던거예요?

제보자: 38, 39살에 그때부터 했나봐. 추천받아서 한거지. 류봉수씨 다음에 한거야. 그 분이 내놓고 그 다음에 한거지. 이장 나왔을 때 후보가 두명이었는데 24대 4로 이겼어. 그랬는데 전 이장이 안넘겨주는거야.

조사자: 임기는 몇 년이었어요?

제보자: 그전에는 임기가 없어. 옛날에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하는거지. 근데 나때부터 임기가 있었어. 처음에는 임기가 없다가 6년인가 그렇게 보고 내 났다가 다시 또



했어. 83년도부터 6년 봤다가 쉬었다가 또 90년도에 그때 또 해서 5년 봤어. 그래가지고 그만 뒀다가 집사람이 이장본다고 해서 그 뒷바라지를 해 줬어. 6년동안. 집사람이 이름만 올려놓고 일은 내가 다 했지. 집사람은 일 다녔으니깐. 시방 임기는 3년인데 재임하면 3년 3년 해서 6년이라고. 그렇게 6년 이장 맡아서 하다가 임기 끝나고 1년이나 2년 지나고는 또 다시 할 수가 있는거라고.

조사자: 여기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제보자: 이 동네가 원래가 류서방네 살던 터잖아. 근데 김가, 이가, 박가 있었어도 외손들이었다고. 성은 달랐어도 류서방네랑 혈연관계였다고. 그렇게 얽혀서 살았어. 아저씨니 형이니 이런 관계였다고 들. 근데 그때는 80년대만 해도 서로 나눠 먹을 줄 알고 그랬다고 들. 근데 지금은 삭막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지 뭐.

다른 동네는 동네 법이 아주 집을 짓고 살면은 얼마씩 동네 기금으로 내놓기로. 근데 여기는 살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들은 안내고 그래, 근데 저 위에 전원주택들은 뼈끔도 안해. 마을 회의 참석도 안해. 거기 사람들은 우리 상대도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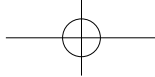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그 전에는 이사를 오면은 주민등록 주소를 이리로 옮기잖아. 그럼 이장한테 이사왔다고 신고를 해야돼. 또 가면 간다고 신고를 해야돼. 근데 지금은 그런게 없잖아. 왜 없앤고 하니 정부에서. 직장 댕기는 사람들이 이장한테 와서 신고를 하려면 이장을 만나야 신고를 할 것 아니야. 몇 번씩 댕겨도 바쁘니깐 이장을 못 만나니깐 신고를 못하지. 그러니깐 이의신청이 계속 되니깐 정부에서 이것을 없앴나보더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고만이야. 그럼 동사무소에서 이장한테 쪽지를 보내요. 누구누구가 그 동네로 이사갔다고.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조사자: 마을 이장일 보시면서 제일 보람있었던 적은 언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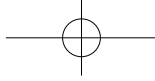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제보자: 보람이 어딴어. 고생만 하는거지.

조사자: 그럼 제일 고생하셨던 적은 언제예요?

제보자: 아무래도 초창기에 제일 고생이지. 모르니깐. 처음에 84년도 그 때 도로 포장 처음 했을 때 그때 참 힘들었었어. 고생 많이 했어. 마을 안길에 도로 포장 할 때 그 때 84



년도여. 근데 돈이 있어야 포장할 것 아녀. 마을에 돈이 얼마 없으니깐 저 아래 성수씨라고 옛날 대의원하셨던 분이 계셨어. 그 분하고 둘이 돈을 구하러 나간거여. 서울 갔어. 돈 구하러. 여기서 나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차용하려고 찾아간거여. 서울 저 올라가가지고 정릉가서 처음 '응수'씨라는 분을 만났어. 거기가 무슨 계곡이라고 했는데, 서울 정릉에 계곡이 있어. 거기서 밤새도록 술만 퍼마신거여. 그래 잘 때가 있어? 그러니깐 응수아저씨가 자기네 집에 가서 자제. 응수아저씨 집에 가서 잤어. 류성수 아저씨랑 나랑 같이. 아침 먹고 나서 얘기를 했지. 올라온 얘기를. 동네가 이렇게 돼서 동네 포장을 해야 할텐데 땅은 '평수'씨가 내 놔잖아. 돈이 없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하니깐 알았다고 하면서 응수 그 아저씨가 십만원을 주고, 그때 당시에. 능수 아저씨도 10만 원을 주고. 그래 20만 원을 얻었잖아. 그리고 얼로 간고 하니 그러고는 성남으로 갔어. 성남 가서 특수씨 정육점 하고 그럴 때 가가지고 가서 만났어. 특수씨는 아재뽀 아녀. 나는 조카뽀이고, 항렬이 내가 더 아랫니깐. '아이고, 형님이 어떻게 제 집에 다 오셨냐.'고 해서 같이 나왔다 그러니깐 '그럼 가 약주나 한 잔 하자.'고 해서 남한산성 넘어가서 식당에 갔는데 대문이 엄청 커. 차를 끌고 대문앞에 서니깐 거기 종업원이 나오면서 '사장님 오셨네요.' 그래. 들어가서 뭐 잔뜩 먹었어.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런 일로 왔다고. 그러니깐 '그러. 알았어. 내가 얼마 보내줄게.' 돈 10만 원 주더라고. 그렇게 30만 원 얻었지. 그리고 수원으로 갔어. 수원에 '류천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갔어. 거기서도 술, 밥 얻어먹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서울서 얼마 받고, 성남서 얼마 받고 형님 찾아 왔다고 했지. 그 형님 아들 이름이 기철이여. 형님이 '기철엄마' 이러니깐 그 나한테 형수지. 형수가 '네' 대답하니깐 '은행가서 돈 50만 원 빼 와.' '왜?' 그러니깐 '아! 여기 고향 아저씨하고 동생이 동네 도로포장 때문에 돈 모자라서 구하러 댕기니깐. 빼서 보태주라'고. 그래 바로 은행가서 50만 원을 찾아다 줬어. 그래 80만 원이 됐잖아. 그러고는 '오상근' 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도로 포장 돈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니깐 그 사람도 3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 110만 원 된 거 아녀. 그거하고 동네돈 모아서 수원에 아주레미콘이라고 있어. 신갈에 있어. 거기 가서 얘기 하니깐 공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결재를 안해준다는거여.



돈을 한번에 안주니깐. 그래서 자재는 말뚝은 집집마다 몇 개씩 해 오라고 하고 흙 준비하고 그래 한 40일을 준비를 했어. 그리고는 아주 래미콘을 갖더니만 수원 진성래미콘으로 가 보래. 그래 수원 진성 가니깐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해서 수원 진성래미콘이 와서 마을 공구리를 다 쳐 줬어. 저 신작로에서 여기 다리까지. 700메다.

조사자: 지자체나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하신 지 몰랐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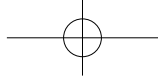
제보자: 그래 40여 일을 싸웠어. 아주래미콘 하고. 안 해줘서. 그리고 마을길 공구리 다 치고 한신에서 전주 세웠어. 그 때 저 위에 류영희씨라고. 내 이장볼 때 그 사람이 여기 양지 가는데 공장 하나 있었어. 코오롱이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형님, 전기만 끌어오세요. 전깃대는 제가 공장에서 댈 테니깐.’ 가로등대는 공장에서 댈 테니깐 전기만 끌어오래. 그래 한전에 가서 얘기했어. 그래서 마을에 가로등을 7개를 세웠어. 가로등대는 영희씨가 하고, 전기는 내가 하고. 근데 시방 지금 남아 있는 게 집 뒤에 하나 남고 다 없어졌어. 옛날 것 지금 하나 남았어.

그럼 전신주는 개인 돈으로 한 거예요?

제보자: 아니, 회사에 얘기한거지. 회사 가서 마을에 가로등 세워야 된다고 하니깐 회사에서 그걸 해 준거지. 그래서 가로등 세워준거야. 또, 여 내려가면 신호등 있지? 그 신호등이 양지에서 최고 먼저 한거여.

조사자: 그것도 이장 임기 때 하신 거예요?

제보자: 응. 여기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었어. 저쪽에는 논이 깊었었거든. 그래 차 돌리다가도 사고 나고, 높으니깐 떨어져서 사고 나고, 그래 누가 그래. ‘여기 신호등 하나 세워야지 안되겠다.’고. 그래 귀뜸을 나한테 누가 하더라고, 도로 총책임자가 서울 정동에 있는데 나한테 아저씨 빨이라고 해. ‘수’자 향렬이라고. 그 사람이 총책임자래. 그래 거기를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어. 마을 앞에 사고가 많이 나서 신호등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것 좀 아저씨가 밀어달라고.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깐 그럼 내가 해 줄테니깐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해. 용인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는거여. 이진 경찰서 소관



이거든. 신호등이. 그러니깐 시방 경찰서 말고 시장 건너편에 조그맣게 있었어. 거기 들어 가서 얘기를 하니깐, 처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안된다는거여. 저거 돈 많이 들어간데. 그래 사정 사정 얘기를 다 했자. 내 서울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니깐 여기서 신고만 해서 확정만 받으면 된다. 그럼 거기서 다 준비를 할테니깐. 그랬더니 그럼 ‘일단 접수는 받을게요.’ 그러더라고. 접수 받고 얼마만에 떨어져서 바로 신호등 세웠지. 용인서 양지 갈 때 신호등이 없었어. 마을 앞에 있는게 처음 생긴거야.

조사자: 이게 몇 년도에 세우신건지 기억 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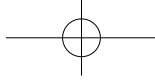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제보자: 이게 90몇년도였나봐. 내가 91년도부터 이장 봐서 96년도에 그만뒀어. 마을회관 96년도에 돈 5천만원 면에서 빼다가 놓고 그만뒀어. 그리고 마을회관을 지었어.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수일’이라는 사람한테 이장을 냉겨주고 그만뒀어.

조사자: 이장 일 보시면서 상 받으신것도 있어요?

제보자: 옛날에는 집집마다 개량곳간이라고 벼 말리는 기계 있잖아 왜. 창고 같은거. 그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어서 도지사가 고생했다고 그 때 도지사 상 받았어. 그 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했다고 방송에서 촬영도 오고 그랬어. 이 때 푸세식 화장실도 다 같이 고쳤어. 옛날에는 나무 놓고 그냥 썼잖아. 개량곳간 지으면서 새로 공구리로 화장실 만들고 슬리브 지붕 없었지 들.



이장 재임 시 받은 상장들



올 해 80세를 맞이한 류장희 선생은 노인회장직을 물러난 지 2년이 되었다고 한다. 노인들이 처음 결성될 당시에는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65세 미만이어도 가입을 시켜주었으나, 현재 마을에는 대다수의 인구가 노인회 회원이다. 그중에서도 류장희 씨는 몇 안 되는 노인회 남자 회원으로 꼽힌다.

조사자: 노인회장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보자: 올 해 내놓은지가 2년째요. 17년도부터 봤나봐. 집사람이 이장 내놓고 내가 노인회장 했어. 4년 하고 관뒀어. 원래 내가 4년 하고 오씨가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오씨가 이름만 걸어 놓으라고. 내가 뒷바라지 해 줄테니. 그래 다 해줬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사람이 안한다고 하니깐 내가 이어 받으니까 카드를 못받은거야. 그래서 포인트 카드랑 체크카드 두 개 다시 만들어서 다음에 물려줬지.

조사자: 65세 이상은 다 노인회 가입하는거죠?

제보자: 65세였는데 면에서 30명을 맞추라고 해서. 우리가 30명을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65세 안된 사람들도 준회원으로 해서 다 넣었지. 그래서 29명으로 해서 넣었지. 지금은 이보다 더 줄었어. 다들 돌아가시니까. 요양병원에 가 계시거나 시내 나가서 살고 그러니까 다 빠져 나가는거야. 남자들은 노인회원이 지금 여덟명이야. 그게 다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야. 근데 요 아랫동네도 다 여자야. 남자가 없어.

조사자: 그럼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회장님이 남자중에 제일 어른이신가요?

제보자: 류광수씨라고 아흔 여덟살이신 분 계셔. 요 바로 밑에. 마을 초입에 사셔. 그분이 제일 연세 많아. 근데 아흔 댓 까지도 노인회 나오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통 안나오셔. 25년생이니깐.

조사자: 여기 마을회관이 저 신작로에 있는 게 먼저 있는 회관인가요?

제보자: 원래 송문리인데, 노인 회관 송문리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는 회관을 썼었어. 지금 막국수집 옆에 있는 회관. 거기를 썼단 말이야. 거기서 다 모였어. 시방도 건물은 있어. 거기서 삼동네 사람들 노인들이 다 거기로 모였어. 그래 나도 노인회 가입을 하래. 이



장 볼 때. 그래 아니 애들이 무슨 노인회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지. 그러다가 송문2리에서 먼저 떨어져 나갔어. 송문2리가 개울 건너 옛날 철도자리. 여기는 송문1리였었어. 저 아래하고 여기는 1리. 그래 저기 2리가 떨어져 나가니깐 저 아랫동네에서도 떨어져 나가자고 해서 거기도 떨어져 나가서 이 동네가 3리가 된거.

조사자: 그럼 여기 반정마을회관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거예요?

제보자: 그러. 그 때 떨어져 나온거여. 노인회 기금이 있었잖아. 2리에 조금 때 췌어. 거기 떨어져 나갔으니깐. 그래 거기에 다 가입했다가 떨어져 나오니깐 그거 받아가지고 나왔지. 조금. 나 이장볼 때 떨어져 나왔어. 그 때 90 몇 년돈가 떨어져 나왔어. 노인회가 먼저 떨어져 나오고 마을이 3리로 분리가 된거지.


마지막으로 약 80여년 간 마을에서 수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온 류장희 선생에게 마을은 조상들이 살아온 터전이며,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때문에 점차 불어드는 마을 개발소식에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마을 공동체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조사자: 마을에 도로 난다고 하던데요.

제보자: 그거 여직 하고 있어. 내 이장볼 때 제 땅 재고 했는데. 토지 측량을. 그거 한지 몇 십년 됐는데 여태까지 하는겨.

조사자: 마을에 길 나고 그러면 마을이 더 발전 할 수 있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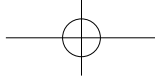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제보자: 거기 길 난다고 더 좋은건 아니야. 뭐 발전을 될는지 모르지만은, 사람 사는데는 좋을 게 없어. 마을 분위기가. 개발 되면 돈 받는 사람들이 여기 살겠냐고. 농사 짓는 사람들만 여기 살지. 돈은 쓰게 마련이야. 막 그냥. 그러다보면 거지되는거지.

 김지현



장애의 역경을 딛고 인장(印章)을 새긴 류희송 선생

류희송 선생은 1946년 송문리 반정(3리)에서 전주류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6.25전쟁 격동기에 다친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다. 이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인장 기술을 거의 독학으로 익혀 평생 천직으로 알고 도장을 새겨왔다. 선생은 혼을 담아 인장을 새기면서 글자의 원래 모양을 잘 나타내야 길인이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선생은 자녀 양육과 계속된 병마의 시련 속에서 덮친 경제적 고통으로 인장에 전념하긴 어려웠다. 더구나 컴퓨터로 인장을 새기는 방법이 도입되어 더 이상 인장을 계속하기에 어려워져서 평생 하던 인장업을 접고 말았다.

인장업을 그만 두고 여러 사업에 손을 대봤지만 계속된 건강 문제와 사고로 성공하지는 못하고 그동안 진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역부족이었다. 선생은 송문리를 떠나 비록 경제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인장을 예술로 생각하며 한길을 걸어왔다.

한편 고향인 송문리가 개발되어 원주민도 떠나고 원래 모습이 사라지며 생활 여건을 좋아지고 있지만, 고향이 사라지는 심정이 든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송문리에서 태어나실 때 가정환경은 어떠셨나요?

1946년 8월에 송문리 344번지(반정 아랫말)의 전주류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호적에는 1947년도 출생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류인수이고 어머니는 오명희로 원삼면 죽릉리 출신이죠. 우리 외가가 원삼면이기 때문에 죽릉리 어현에 사시는 오민근 씨가 외사촌 형님이 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일제 말기까지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었나 봐요. 우리 할머니가 안성 난실리 출신이시라 택호를 난실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난실리 출신인 유명한 시인인 조병화 선생이 아버지의 외사촌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제로 할머니한테는 조카가 되요. 족보의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하시고 서울 무관학교 다니시다가 졸업할 때 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청상과부가 되시고 수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시동생의 아들인 아버지를 양자로 들이시고 증조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신 것이죠.

아버지도 상업에 투신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동대문 시장에서 점포 대지가 1천 평 가까이 되었고 집에서는 머슴 둘 두고 농사짓고 그랬었대요.

그렇게 돈을 버니 주위에서 끈들이 금광하면 돈 번다고 유혹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전국의 금맥을 다 쫓아다니셨는데 이상하게 금맥을 잡았다고 파 들어가면 중간에서 없어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기둥뿌리 하나 없이 다 날아가고 집까지 다 뜯기고 그랬죠.

아버지는 그렇게 사기당하시고 화를 못 이기셔서 쓰러지셨다가 6개월 만에 작대기 짚고 일어나셨대요. 그때 동네 어른들은 아버지가 사람 구실 못할 거라고 그랬대요. 하지만 6개월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후유증으로 굉장히 아프셔도 동여매시고 아마 산판 같은 데 다니신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두통으로 실명이 와서 앞을 못 보시게 되셨는데 그때가 40대도 안 되실 때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누에치고 길쌈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을 지키셨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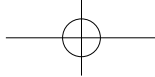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그러다 내가 태어날 때쯤 새로 집을 지었는데 문도 제대로 못 달고 가마때기로 대충 막고 저를 낳았대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제 자란 거죠. 우리가 아들 삼형제에 딸 4자매로 7남매인데 제가 아들 중 막내예요. 누이동생 둘 있고 형님 둘 누님 둘 계시죠. 어려운 가정환경에 살다보니 우리 형제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닌 사람들이 없어요.

어릴 때 장애를 입으시고 힘들게 성장하셨을 텐데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어릴 때는 송문리에서 부모님 밑에서 거의 무위도식을 한 거죠. 다리가 불편하니까 농사일 이런 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장애를 입은 거는 대여섯 살 때인데 6.25가 나던 해예요. 넘어져서 관절을 다쳤는데 전쟁통이라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무릎이 붓고 그러니까 그저 집의 사약(私藥)으로 부기 내리라고 식초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바르고, 또 나무 진 그걸 태워 바르고 그러다가 무릎 관절만 더 상했지. 수복한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완전히 썩어서 꺾었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간 곳이 대동의원이었어요. 거기 원장님인 이대영 씨가 어머니한테 고종 사촌이 되시죠. 거기서 관절의 종기를 따는 파종(破腫)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기억나는 것이 지금 가재(거즈)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호파이(봉대)라고 하는데 그게 그 파종한 구멍으로 한 두어 발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1953년도 쯤 전쟁이 막 끝난 때인데 옛날에는 누나들하고 고무줄을 많이 했



잡아요. 눈 오는데 고무줄 하려 쫓아갔다가 넘어져서 같은 다리에 골절상을 또 입은 거예요.

이듬해에 외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영등포 미군부대에는 좋은 병원이 있으니깐 거기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어머니보고 가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영등포에 외당숙이 사는데 어머니 사촌이죠. 이분들하고 미군병원에 갔더니 팔을 막 묶더니 다리를 무슨 기계로 잡아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로 공구리(콘크리트, 필자 주) 치듯이 기브스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가려워서 도저히 배길 수가 있어야죠. 몇 개월 지났는데 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기브스를 잘랐어요. 칼로 그거 뜯어내고 보니까 다리 관절이 굳어가지고 뼈짱다리가 돼 버린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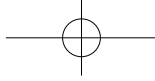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옛날에 다리만 절었는데 이제는 관절이 완전히 굳었어요. 그 후에 골수염이 나서 여기 저기 터진 자리에서 항상 고름이 흘러나오는데 그래도 병원에 못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56년도에 누나가 부모님한테 내가도 성치 않은데 지금 공부 안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인국민학교에 들어갔어요. 송문리에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방을 얻어서 다니다 1년 후에 양지국민학교로 전학을 갔죠.

2학년 때 양지로 전학한지 얼마 안돼서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중퇴한 거죠. 그게 제 최종 학력입니다. 그때 넘어져 몇 개월 동안 꼼짝을 못 했으니까요.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치료했어요.

학교를 그만두시고도 장애 때문에 계속 어렵게 생활하신 거죠?

네, 그렇죠. 송문리에서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게 있나요. 입을 게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6 25 지나고 한 3, 4년 지났나. 그 무렵에 방물장사라고 옛날에는 아주머니들이 보따리 이고 장사들 많이 다녔죠.

거기에 군복 잘라서 바지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걸 사달라고 졸랐다가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어요. 철딱서니 없이 먹을 것도 없는데 바지 사달라고 그런다고. 어려서 그게 혼난



게 한이 돼서 일체 옷 같은 거 사 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때는 아침에 보리쌀밥을 한 술 얻어먹으면 점심은 굶는 거예요. 먹을 것이 가을이면 고구마, 여름에 감자 먹고 살고 그랬죠. 저녁에 지금 김치라고 하는 짬지 죽을 쑤면 쌀은 얼마 안 들어가고 그것만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그릇 먹고 나서도 좀 더 주기를 바랬지요. 또 보리가 누룽지 해 질 때 춘궁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누런 보리 이삭을 잘라다가 술에다 볶아 가지고 그것을 절구에다 찧어서 아욱죽을 쑤면 그렇게 끝맛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릿겨 나오면 그걸 또 먹으며 다녔고요.

겨울이면 형님들이 나무해 오면 어머니는 밥을 이불 속에다 묻어놔다가 비벼요. 그러면 그거 한 술 줄까 하고 침을 꿀떡하면 어머니가 네놈들은 나가지도 못했다고 그냥 내쫓아요. 형님들도 남겨줄까 하면 다 먹어요. 그런 것이 어린 마음에 야속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 와중에도 논 한 열 닷 마지기, 밭 한 천여 평을 장만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때는 좋은 논이 한 평에 쌀 한 말 그렇지 않으면 쌀 일곱 여덟 되 정도 됐죠.

초등학교 그만두고 열두 살 되던 해라 1957년 쯤인가 8월에 아버지가 한문이라도 좀 배우라고 선생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14살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문을 배웠어요.

14살 때 그때 동네 한 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강의록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도 강의록을 좀 보게 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철딱서니 없는 소리 말라고 그렇게 혼나기만 했죠.

14살 때에 다리 부러지는 골절상을 또 입었어요. 그때 집안 내 조부뻘 되는 분의 초상이 났는데 가서 혼백을 접어달라고 그러더라고. 혼백은 옛날에 상청을 차리고 창호지로 접어 모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백을 접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백을 접고 나서 아이들이 공을 차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다리가 그러니까 키퍼만 보라고 해요. 조그만 고무공 하나 있었는데 그거 갖고 애들이 마당에서 공을 차는데 나는 키퍼를 봐서 골대 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공을 잡아가지고 찬다는데 헛디더서 그냥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골절상을 입어 대동의원에 가서 김



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후 얼마 안 있어 그때가 열다섯 살 되던 해인데 1959년도 쯤 1차적으로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집에 좋지 않은 일로 나한테 병신 육갑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병신자식은 왜 낳았느냐고 부모님들한테 막 대들고 우물에 빠지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불당골이라고 거기에 논이 있고 위에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논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어서 저를 보고 건져낸 거죠.

그 뒤에도 1962년도에 두 번째로 자살 기도를 또 했어요. 그때 우리가 옷말 유봉수 씨의 집 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 왜 이사를 했냐 하면 우리 집에 우환이 굉장히 끊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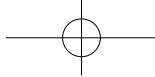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그때 나는 다친 다리 말고 다른 쪽 다리가 굉장히 아프고 꼭 바늘로 찌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씩 경련을 일으키고 그랬죠. 그러다 도드름산 절의 스님이 와서 그 사람은 반무당인데 다리에 침놓고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그때 형님도 맨날 아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이나 옮겨 분다고 옷말로 옮겼는데 같은 평수에 쌀을 세 가마나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평수인데 왜 그렇게 많이 주냐며 아버지하고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죽는다고까지 그랬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수원 도립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꺼운 안경을 쓰시고 길만 간신히 찾아 다니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상태에도 일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봄에 모심을 땀데 그때 저는 가끔 논에서 모를 찌고 못줄도 당겨주고 그 정도는 했었죠. 그런데 형님이 저녁 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바쁘데 와서 못 줄이라도 당겨주고 그래야지 그냥 집에서 쳐박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이 아파 괴롭고 성질이 나서 한마디 했더니 덤빈다고 형님이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 날 때까지 쳐다만 보고, 형님이 아프다고 하면 곳을 하느니 뭐하니 그러지 않았냐고 하며 왜 같은 형제간에 차별하냐”고 내가 막 따졌죠. 형



님한테 욕까지 하면서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었고 물도 안 먹었죠. 처음에는 저러다 그만 두겠지 했는데 닷새가 지나도록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다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서 그만두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그냥 우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음식을 들은 거죠.

인장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962년도인가 63년도에 제가 열여덟 살인가 열아홉 살 때가 그런데 동네에 인장업하는 사람이 행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한나절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니 배우고 싶으냐고 그래요. 제가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때의 시세로 쌀을 두 가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수업료로요.

그때는 쌀 한 말에 품을 세 번 줄 때니까 두 가마면 품값으로 따지면 60일분이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그거 배우고 싶는데 쌀을 두 가마 달란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어려운 형편에 쌀 두 가마가 어디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살게 할거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돈을 마련해줘서 인장 기술을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지도를 받다가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13일 만에 떠나게 되었고 그 뒤에는 계속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김량장에 있는 태양당으로 시계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시계를 배우면서 옆 가게에서 도장을 새겨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고 수고비는 준다고 하면서 학교 도장 새기는 것을 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개 학교 도장 맡아서 새겨다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다 받아 쓴 거예요.

1964년도에 누나가 결혼했는데 매형이 원삼사람이에요. 그런데 매형이 공무원을 하다가 고물상을 한다고 재산을 다 날리고 인천에 피신해 있었어요. 그때 누나가 인천에 조그마한 방 하나 갖고 가게 자리 있으니 와서 도장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1967년도인가 집안 내 친척분이 서울의 시티즌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때 큰 누나가 구파발에 살아서 거기서 출퇴근 한 거예요. 시티즌이 명동 삼릉 빌딩에 있었고 제가 시티즌 사원 번호가 이십칠 번이니까 초창기죠.

그해 다닌 지 1년을 못 넘기고 겨울에 넘어져서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그때 명동 시경 앞에서 내려서 가는데 날이 추워서 물 뿌려놓은 데가 얼었다가 살짝 녹으니까 굉장히 미끄럽죠. 다리도 시원치 않은데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져 골절상을 입은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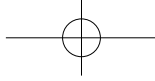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그런데 넘어져 신음을 해도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비켜갔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오길래 내가 다리가 부러져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연락처 없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때 누이동생이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가고 누이동생이 와서 큰 누나한테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거기서 겨울에 한동안 드러누워 생활하다가 그 이듬해 봄에 내려온 거예요. 그때 시티즌에서 제 봉급이 1만 2천원 받았는데 그때 회사원들이 3천원 받았을 거예요.

시티즌은 그만두고 내려와서 집에서 좀 노는데 밑에 동네 누가 용인에 도장 새기는 데 하나 있는데 시계포도 같이 하는데 가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잘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정시당으로 오게 된 거죠. 그때 정시당은 극장옆 오리골 올라가는 골목 입구에 있었구요.

정시당에 와서 1년 있다가 그 주인이 독일 광부로 간다고 그래서 1969년도에 제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지만 그 주인이 독일 가는 게 잘 안돼서 1년간 같이 일하다가 독일 광부로 갔죠.

그 사람이 독일 간지 4년만인 1974년도 쯤에 나왔는데 사거리에다 시계포를 차린 거예요. 사거리에서 시계포 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980년쯤 해동양조장에 건물을 새로 지면서 그 사람이 백금당 자리로 이사를 온 거예요. 길 건너 마주 보고 영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손님들이 왔다가 양쪽에 눈치 보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나 우리나라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죠.



결혼은 언제하시고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은 1975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1976년도 12월에 세쌍둥이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하늘이 주신 큰 축복이면서도 시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쌍둥이가 한 서너 살 되어 제가 그때 아이들 키우고 그러니까 빛도 많이 졌죠.

결혼해 갖고 1976년도에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한 3, 4개월 되니까 배가 남산만해 지는 거예요. 우리 시계 기사 부인이 서울 아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서울 병원을 같이 보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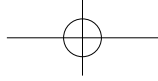
기사 부인하고 갔다 오더니 집사람이 사진을 내밀면서 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 낳으면 되지 그러면서 사진을 대동의원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대영 씨가 벌써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셋이로구나” 그러더라고.

산월이 가까워졌는데 그때 63훈련단 훈련생 도장을 새겨주면서 거기 주임 상사하고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서울 적십자 병원에서 훈련단에 주기적으로 와서 헌혈을 한 대요. 그 분이 적십자 병원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적십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더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죠. 그때 인큐베이터 비용이 하루에 9천 원이 넘어요. 그때 공무원들 한 달 봉급이 3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셋이라 하루에 3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인큐베이터에 도저히 못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고 그냥 수술하자고 하고 12월 7일 날 낳은 거죠. 그때 간호원이 오면서 세쌍둥이라며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도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와 있는데 우윳값이니 뭐니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한 15만 원씩 들어가더라구요. 그 중 제일 많은 게 아이들 병원비예요. 그때 아마 군청에서 와서 사진 한 장 찍어 주고 우유 한 박스 보내준 게 그만이예요.

그때 방을 하나 얻어 갖고 오리골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한 서너 살 되니까 거기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집사람하고 송문리 집으로 들여보내서 어머니



세 아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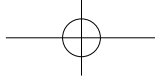
20여년전 가족 모습

하고 형수가 함께 키우다시피 했죠. 난 여기서 혼자 지냈고요.

그러다가 1979년 쯤 결핵성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그때 형편에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빛도 많이 지고 그래서 병원에 갈 형편은 안 되는데 수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결핵성 관절염으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을 비용을 2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집 한 채 200만원이면 사던 때인데 굉장히 큰돈이죠.

그래서 치료도 안 받고 집이 와서 들어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주선해줘서 로타리클럽에 연락이 됐어요. 그때 을지병원 문병기 박사가 로타리클럽 서울지구 총재인 데 용인 로타리클럽에서 얘기한 거예요. 을지병원에서 수술비 50만원으로 9월에 수술을 받고 오래 있을 입장이 못 되서 2주 만에 퇴원을 했죠.

그 이듬해에는 위출혈이 와서 빈센트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됐죠. 나중에 퇴원하고 남는



게 빛밖에 없더라고요. 빛을 그때 계산해 보니까 단독주택 다섯 채 값이에요. 그때 300이면 좋은 집 한 채 살 테니까 한 1500 정도 되더라고. 그때 진 부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이들 태어날 무렵부터 성당에 다니게 되었어요. 정시당 인수하고 얼마 안 되서 중앙 인쇄소 하던 박창웅 씨가 우리 집이 자주 놀러 와서 성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간다고 하면서도 3년 동안 안 나가다 시장에 있던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례명이 아우스틴이에요. 원래 아우구스티노인데 보통 아우스틴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신앙을 갖긴 잘했다고 봐요. 하지만 요즘에는 건강 문제는 몇 년 동안 못 다닌 적도 있고 그래요. 아이들도 셋 다 나가 살고 집사람도 건강이 좋지 못해 자주 못나가요.

이후 정시당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시당을 인수 받아 시계 쪽에는 기사를 두고 제가 일을 참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용인



용인성당 앞에서 세 아들



용인성당 신축 당시



에서 인장업에는 제가 명성이 있어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용인의 관공서는 제가 도맡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세쌍둥이 키우고 결핵성관절염과 위출혈에 빛만 잔뜩 지게 되었어요.

정시당은 세입자로 있었는데 1984년 시계포를 정리하고 화장품 할인가게를 인수하여 인장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인가 경기도 체육대회 한다고 앞의 도로를 확장했어요. 그때 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서 쫓겨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양조장하고 옆에 건물 사이 조그만 공간이 있었어요. 한 평 남짓한 자리에서 정시당이라고 하는 상호는 그대로 쓰면서 인장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행이 들어와서도 조금 더하다가 2005년도에는 정시당도 인장업도 완전히 그만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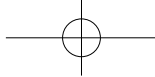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다들 인장을 컴퓨터로 새기는 바람에 그만 둔거예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장은 단순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인장은 예(藝)거든요. 조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장을 보통 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새긴다고 그래야죠. 이 예능을 갖다가 컴퓨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장을 그만둔 거죠.

컴퓨터로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난 손으로 조각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더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비싸다고 다 가더라구. 인장은 최소한 그 어느 도장이라도 제대로 새기려면 10시간 이상 잡아야 돼요. 그것도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못해요. 내 도장도 잊어버렸는데 못 새기고 있어요.

인장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인상 깊었던 일은 많았죠. 한 번은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3군사령부의 법무부에 근무한 법무관 출신인데 여기서 전역을 하고 광주에서 상아(象牙) 도장을 새기려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도저히 새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왔길래 새겨주고 우편을 붙여준 일도 있죠.

또 1970년대에는 용인에 도장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용인군 도장포 전체가 6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에 장부 검열 받고 회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도장을 새기



면 전부 다 장부에 기재하게끔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군 전체의 인장업자를 다 알았죠.

도장이 옛날에는 가격이 높았어요. 나무 도장 하나가 보통 지금 막도장이라고 많이 하죠. 목인(木印) 하나가 남자들 품값 하나 했어요. 그러다 전두환 정권 때인 5공화국때 물가 안정시킨다며 가격 인장업 사단법인체를 해체시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검열을 받았고 또 해체시킨다 해서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러다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서 인장업을 신고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격 덩핑이 오기 온 거죠. 아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는 도장을 신주 같이 모셨어요. 그땐 나무 도장 하나 잊어버리면 하루 품값이 달아나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가격이 헐값이 됐죠.

도장에 새겨진 글자에 의미가 있나요?

도장에도 길인(吉印)과 흉인(凶印)이 있어요. 도장에 글씨를 조각하는 것은 예(藝)를 떠나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어서 인장은 하나의 공간의 예술이죠. 공간의 예술이라는 것은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다가 모든 균형을 잡아야죠. 그래서 흉인은 시각적으로 봐서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봐서 아름다운 것은 그게 길인이라는 것이죠.

혹시 자제분 중에서 인장업을 하고 싶어 하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내가 한번 권해도 봤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지금 그걸 누가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안하게 된 것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인장이 완전히 맥이 끊겼거든요. 전부 컴퓨터로 해버리니...

인장을 하시면서 느끼신 또 다른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내가 장애가 있다보니까 인장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인장



의 맥이 완전히 끊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인장 배운다고 온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며칠 나오다가 안 나와요. 나는 처음 기초부터 이렇게 해라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지. 며칠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인장은 우리가 마음먹고 새겨놓은 거는 누구도 흉내 못 내요. 거기 그대로 똑같은 도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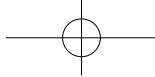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또 기억나는 게 인장 때문에 관공서에 많이 들어갔죠. 나는 올바른 서체를 새겨줬는데 관공서에서 인감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체를 모르니까 이 글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경(京)경자’죠. 서울 경자인데 이 글자를 도장을 새길 때는 한 획 더 넣어요. 이렇게 ‘京’으로 새겨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한 획 더 들어갔다고 인감을 안 내주는 거예요. 한 일(一)자 있잖아요. 이것을 도장에 새길 때는 ‘弋’ 이게 한일자거든요. 이게 옥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했다고 이게 한 일자가 아니라 인감을 안 내준다고 그래요.

한 번은 주북리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에 ‘경(京)’자가 들어가요. 이분이 면사무소에서 인감 안 내준다고 나보고 다시 새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아도장인데 나한테 재료 가져와서 30만 원에 새긴 거를 다시 새겨달라는 거예요. 30년 인장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나로선 도저히 다시 새겨줄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새긴 글자가 맞는 거다 라고 그랬더니 그럼 한 획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우면 이게 미적으로 완전히 버리고 다시 말하면 흉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나는 그렇게 못 하니까 내가 내사면을 가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양지면인데 내가 거길 가서 옥편을 가지고 가서 왜 안 내주느냐 따졌지요.

그랬더니 여기 한 획이 더 들어가 있어 경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신문도 안 보냐고 경향신문 보면 ‘京’자로 되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도장 새길 때는 이렇게 새기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서 옥편을 펴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되었죠. 여기 동사무소 있을 때 거기도 몇 번을 쫓아 들어갔어요.

도장 새길 때 제일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아주 쉬운 자에서 혼동을 해요. 아닐



미(未) 자 끝 말(末)자. 한자 모르면 아닐 미자를 끝 말자로 만들어놓고, 끝 말자를 아닐 미자로 만들어 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방패 간(干)자 어조사 우(于)자 이런 거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 놔요. 제일 많이 혼동해놓은 게 석(錫)자예요. 주석 석자의 ‘역(易)’을 ‘양(易)자’로 붙여. 金+易으로 만들어 양(錫)자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글자를 모르고 새겨서 그런 거죠.

인장업 그만두시고 무엇을 하셨나요?

인장을 그만두고 집사람 고생 많이 시켰죠. 집사람이 식당에 다니고 그러다 빚을 내서 식당을 했었어요. 처음에 식당은 둔전에서 ‘신통택 설렁탕’이라고 그거를 2004년도까지로 했어요. 그러다 마평리 파출소 지구대 옆에 ‘신촌설렁탕’ 그게 나와서 거기서 2006년도까지 한 2년 했죠.

그런데 거기가 환경 사업으로 주차장이 없어지고 집주인도 세를 좀 올려달라는 바람에 그것을 그만뒀죠. 다른 데 식당이나 분식집 하다가 전부 다 실패했죠. 신갈 가서 음식점하다 안되고 상갈동 거기서 ‘항아리 탁주’라고 하다가 종업원 잘못 만나가지고 크게 손해보고 나왔죠.

나는 인장업 그만두고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용인기원이라고 이것을 하다가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금년 7월에 그만뒀어요.

송문리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송문리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식구는 거의 안 살아요. 지금 조카 아들이 형님 살던 집을 세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당숙 하나 살고 있죠.

용마가 나왔다는 용마난골에 조그만 암자 하나 있어요. 거기서 스님이 김근태라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경봉스님이라고 불렀죠. 그 절에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모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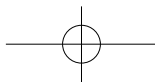
송문리를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일도 많았죠. 하지만 태어난 데는 어머니 젖줄과 같은 거 아니에요. 미물인 연어 같은 것도 자기 태어난 곳에 와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류희송 선생 부부와 손자

옛날 송문리에서는 동네 분들 전부 다 한 집안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부터 사셨던 분들은 몇 집 안 남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전부 다 문 딱 걸어 잠그고 사니까 가 봐도 마음은 좋지 않죠. 송문리는 지금 원주민은 열 몇집 정도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남의 동네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 좋게 나는 것이 반갑지 않아요. 길이 나서 땅값 오르면 원주민이 전부 다 팔고 나가니까 그렇죠.

👉 김태근





역동적인 삶 속에서 피어난 구심점 송문 2리 송철재 선생

현재 야성 송씨 선략공파 29세손으로, 종친회장을 맡고 있는 송철재 선생은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2년 8월 16일(양력) 현재 송문2리인 송동 492번지에서 태어났다. 형제로는 위로 누나가 있으며 밑으로는 여동생 2명이 있다.



조사자: 송문 1리 3리 류씨들은 괜찮은데 6.25때 송동은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되나, 류씨들 보담도 한 120년, 200년 먼저 들어왔다 보니깐, 집이라도 번듯한게 6.25때 폭격을 많이 맞았어요. 또 그 과정에 6.25 전에 왜정 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가 좋았다구요. 배운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로 갔으니깐요. 다 그리 간거예요. 그러다보니깐 폭격을 더 맞은거죠. 어느 집안에 누가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씨족 사회니깐 다 걸리는거죠. 하여튼 우리 동네 아랫말부터 웃말까지 다 걸리니깐. 한 집에 어떤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다 친척이니깐 다 숨겨주고 그러다보니깐 피해를 더 많이 봤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조심조심 하지 않았나 싶어요. 웃말서부터 폭격을 안맞은 데가 없어요.

조사자: 그럼 6.25 거의 끝나갈 무렵에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 집은 괜찮았나요?

제보자: 옛날에 우리집은 오막살이 집이니깐 거의 표 안나게 산거죠.

조사자: 그럼 부모님은 피난다녀 오신거예요?

제보자: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으니깐 오래 숨어 계셨고 어머니는 잠깐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마차타고 충주로.

조사자: 송문리에서 태어나신거예요?

제보자: 네. 맞습니다.

조사자: 실례지만 몇 년 생이신가요?

제보자: 1952년 8월 16일이예요.

조사자: 전쟁중에 태어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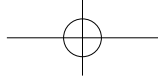
제보자: 끝나갈 무렵이었죠. 송동 492번지에서 출생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살고 있죠.

조사자: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제보자: 저까지 합쳐서 1남 3녀요. 위에 누나 있고 다음이 저고 밑에 여동생 둘 있습니다.

조사자: 외아들이시네요?

제보자: 네, 차중손이에요.



조사자: 그럼 제일 큰집이신가요?

제보자: 아니죠. 큰 형님이 계세요. ‘창재 형님’이라고 말하자면 사촌 형님이지. 거기가 제일 큰집이에요. 대종손이에요. 우리가 증조때 갈렸거든요. 증조부때 둘로 나뉘어서 큰집 작은집으로 갈렸는데 나는 작은집에 맏이고, 큰집에는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거긴 일찌감치 서울 올라갔어요. 그 큰집이 대종손이에요. 이 형님이 82년, 83년도에 올라갔어요. 종손 형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집이 종손역할을 했지. 지금 그 대종손인 창재 형님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 밑에 철호라고 조카가 있는데 철호도 3년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종손이 없어요.

선생의 아버지는 6남매 중에서 맏이셔서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 집안의 장손이 태어나 펍 이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한다. 더욱이 수여선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당시에 도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집안에 일꾼을 부리는 등 부유한 어린시절이었다고 회상한다.

조사자: 위에 누나고 손 귀한 집이었으면 어렸을 때 엄청 이쁨 받으시면서 자라셨겠어요.

제보자: 이쁨 많이 받고 자랐죠.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적 까지만 해도 밥은 먹고 자랐어요. 쌀밥으로. 아버지께서 월급쟁이로 사셨으니깐. 옛날에 남의 돈 들어오는게 엄청 귀한 돈이거든요. 철도국에 선로반에 다니셨기 때문에 누이나 동생들이나 보리밥을 안먹고 컸어요.

조사자: 그러면 혹시 집에 일해주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제보자: 계셨죠. 결혼하던 해 까지 계셨으니깐요. 이게 왜그러냐면 우리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다보니깐 아버님이 공부를 못하시고 일선에 취직을 빨리 하셨어요. 자수성가 하셨어요. 아버님 형제가 6남매세요. 아들 둘에 딸 넷. 그러다보니깐 한글을 다 못 떼셨어도 직장생활을 하시게 된거죠.

조사자: 종가로 내려오시면 아버님께서도 종친회 활동을 하셨어요?

제보자: 아버님께서서는 여기서 철도직에 보선직에서 28년간 기능직 공무원을 하셨어



요. 집에서 다니시면서. 여기 수여선 열차.

조사자: 선로반 회사가 용인에도 있었어요?

제보자: 수여선. 신평리에 있던거요. 그게 동네 앞에 지나갔어요. 본부 사무실은 수원에 있고. 보선 사무소라고 해서 용인에도 역사가 다 있으니깐. 신평리 송문리 사이에 역사 있었고. 양지에 역사 있었고. 신평리는 지금 송악빌라 자리고 용인은 지금 보물창고 자리에 역사가 있었어요. 송악빌라 있던데는 마평역이었어요. 그게 전기기관차기 때문에 용인에 와서는 물을 보충을 해서 신평리 다니는거지. 그거를 타고 수원으로 통학을 했어요. 아버님덕에 수원으로 통학을 하게 된거죠.

학교는 양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태성중학교를 거쳐 수원 농고에서 학업을 마쳤다. 당시 대다수 학생들은 인근의 태성고로 진학을 했고 수원 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수원까지 통학할 때에는 수여선 기차를 타고 다녔다. 현재 신평리 송악빌라 자리에 마평역이 있었는데, 이 곳에서 새벽 5시 45분 첫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이렇게 먼 곳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힘이 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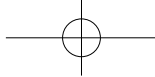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조사자: 학교를 수원으로 가신거예요?

제보자: 수원 농고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농고를 최고로 쳤죠. 나 학교 갈 적만 해도 농경사회니깐 농고를 최고로 쳤지. 초등학교는 양지초 가고, 중학교는 태성 나오고 고등학교는 농고로 가고. 그게 아버지 덕이죠. 열차가 있었기 때문에 수원까지 간 거지 버스타고는 못 다니죠.

조사자: 그럼 수원에서 자취는 안하신거예요?

제보자: 네. 새벽 5시 45분차 타고 다녔죠. 그 당시 어머니는 4시에 일어나서





서 도시락 싸 주시고. 그나마 아버님이 다니셨으니깐 석유 곤로가 있었어. 그 당시가 68년도. 태성중은 21회 졸업생이었어요.

조사자: 그럼 마을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통학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보자: 있었어요. 딱 한명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빨 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옷에 살았어요. 같이 태성중 21회, 수원농고도 같이 갔지. 동갑이었는데 촌수가 워니깐 할아버지빨이지. 송은오 씨라고.

고등학교 3학년인 해에 마을에서는 큰 경사가 있었다. 당시 양지면 추계리 출신인 이천배 경호과장에 의해 청와대 경호과와 송문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천배 과장은 송문 2리의 송병철 씨와 양지초등학교 33회 동창으로 우애가 돈독하였다고 한다. 그 덕분에 송문리는 시멘트로 마을 회관을 건립하였고, 마을회관 준공식 때 청년 대표로 선생은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였다.

조사자: 박정희 대통령때 송문리에 소 내려보내주고 그랬다면서요.

제보자: 71년돈가에 고박사 냉면 옆에 막국수집 있잖아요. 거기에 회관이 있어. 그 회관도 이천배 어르신이. 그 분이 우리 양지초등학교 33회 선배시거든. 그 때 과장님이셨어. 그래서 그 때 내가 기억을 하지. 회관 준공식때 청년대표로서 국민교육헌장을 내가 낭독한 사람이예요. 그 소 내려준게, 우리 마을에 송병철 씨 하고 이천배 경호과장님하고 양지초등학교 33회 동기 동창이예요. 그러다보니깐 내 동네는 못하고 친구 마을에 해 준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관을 시멘트로 지을 수 있었던것도 그런 특혜를 받은거지. 그리고 나서 고박사 냉면지에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다리도 아마 용인군에서 처음 시멘트 다리를 직접 놔 준거예요.

7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의 농사일을 도왔다. 아버지께서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선생은 농업을 배워 전문 농업인으로 나아가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서울 노량진에서 학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여름이면 참외농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집일을 돕기 위해 선생은 7월에 송문리로 내려왔다. 그 때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4H활동이 한창이었다고 한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4H를 접하게 되었지만, 학업으로 인해 다시 서울로 올라 가면서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

집안의 제사 참석으로 인해 잠깐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당시 함께 4H 활동을 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권유로 이듬해인 1972년 용인지부 부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 때부터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 본격적인 4H 활동을 시작하였다. 용인군 4H는 연합회로 조직되어 용인 11개 읍면동에 4개 지소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마을의 질서유지나 마을 정화사업을 주력하면서도, 청년들에게 건전한 서구문화를 전파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선생은 4H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수확한 농업을 기반으로 각종 농업경진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전문 농업인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조사자: 그럼 졸업하시고 바로 취직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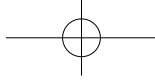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제보자: 바로 취직은 안하고 농사 짓다가 4H 활동을 했어요. 아버님은 대학을 가기 바라셨는데 대학 갈 능력은 안되고, 농사 저도 먹고 살 것 같아서 농사짓는다고 했어요. 집에서 농사 짓다 보니깐 아다니는 여학생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시골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보니깐 4H임원을 하게 됐어요.

조사자: 그게 언제예요?

제보자: 71년도예요. 71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깐 그 해 바로 4H 활동을 했어요.

조사자: 그 때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마을 청년회였나요?

제보자: 그렇죠. 그당시에는 조금 빼딱해서 공부를 안했는데 해야될 것 같아서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학원을 가야되겠다 했는데 7월인가 8월달에 옛날에는 참외를 많이 심었



어요. 옛날 송문리에. 그걸 아버님이 농사지으시니깐 와서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4H 하계 수련회를 해요. 한 2,300백명이 모여서 모현 조길생 원장님 그 동네에서 하는데 거기 가서 특혜를 받았어요. 가서 취사반장을 하다보니까 식혼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 활동을 하다가 일 하기 싫어서 서울로 갔다가 증조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내려왔다가 내가 내려왔다는걸 같이 활동 하는 사람들도 알게 됐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용인군 4H 연합회 부회장에 출마하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나가다보니까 11월에 총회를 하면서 부회장에 출마를 하고 농사를 잘 못지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거죠.

조사자: 부회장 하셨을 때는 마을마다 지부가 있었던거예요?

제보자: 그 때 용인군 4H 연합회. 그 조직이 조길생 원장님부터 지금 문화원장 있는 심언택 까지 연결 돼 있는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용인에 11개 읍면동에 4개 지소가 있었어요. 송전 이동 남사 하나. 백암 원삼 하나, 그 다음에 신갈 기흥 구성 수지 하나, 그 다음에 포곡 모현 하나. 그렇게 있었어요. 결국엔 ‘잘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한거죠.

조사자: 그 때 선거로 되신거예요?

제보자: 그렇죠. 어떻게 하다보니까 감자 가지고 경기도 3위를 했어요. 감자 다수확 분야에서요. 그래서 도경진대회에 두 번 나가서 상 받았어요. 지금은 실기 경진대회가 없어졌죠.

조사자: 감자를 개량재배 하신거예요?

제보자: 다수확이었어요. 감자재배량을 늘리는걸로 출전을 해서 3위를 했어요.

조사자: 그럼, 팀을 꾸려서 하신거예요?

제보자: 동네에서 하면서, 옛날에는 대두 이심척심 재배. 다수확 이런걸 했었어요. 지금 하면서 그런걸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농업이 빨리 변하지 못하다보니까 소주 20, 벼도 한 평에 90주 이상을 심어야 다수확이 된다. 콩도 직파를 하지 아니하고 모를 길러서 순을 잘라서 심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감자같은것도 밭에 직접 심는게 아니라 이모작을 하자. 냉상을 해서, 모를 하우스에 길러서 그거를 논에 빨리 가져다 심어서 그거를 캐서 출하를 하고 밭이었던 것을 다시 논으로 전환을 해서 벼를 심어 먹는거였죠.



조사자: 아, 그렇게도 이모작이 가능했네요. 근데 그게 왜 전국적으로 퍼지진 못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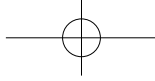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제보자: 가능한 한데, 우리가 인건비랑 농산물이 안맞다보니깐. 농업의 단점이 소규모고, 가족노작형이란 말이에요. 그 때당시만 해도 기계보다는 사람 손으로, 특히 가족들이 소작하는게 대부분이었으니깐요. 유통도 그렇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경작면적이 200헥타르도 안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300평을 농사짓는데 돈을 더 못벌지. 그 때나 지금이나 농사져서 먹고 살기는 힘든건 마찬가지예요. 나갈 수 있으며 내보내고 취직하라고 했지, 남아서 농사지으라는 부모님은 없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사자: 그럼 그 때 4H 활동 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은 반대 안하셨어요?

제보자: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집식구가 오기 전까지는 집에 일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깐. 4H가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클럽 활동하는거라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활동이 건전한 편이었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고, 시골에서 우두커니 있는 사람들은 그 활동들을 안했고. 좀 활발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활동해서 마을에서도 나쁘게 보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반대도 없었어요. 그시절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활동이 진보중에 상 진보지. 왜그러냐면 시골에서 노름하는 노름방에 작대기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4H회원들 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 부원들은 용인 경진대회 행사참석을 위해서 달빛에 지게질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절약하는 사람들이 참여 했었던거예요. 그러다가 수출이라는 명분아래 우리 머리카락 가발 이런게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깐 농사를 천대한거지.

조사자: 그럼 마을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제보자: 그 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한 열 몇 살부터 스물 한 살인가 스물 몇 살까지가 회원이니까. 군대 갔다오면 끝나니까. 그 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마을을 길 청소라던가 꽃 심고 이런 마을 정화사업을 많이 했죠. 이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70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양지면 주북리 같은 동네에서는 고속도로 제설



작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거죠. 그리고 청년 4H 활동 할 때 용인시 부회장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OB팀 활동을 시작한거죠. 조길생 선배님 하시고 그 다음에 회장을 한거지.

조사자: 부회장을 하신거는 몇 년도였어요?

제보자: 그거는 72년도.

조사자: 그럼 71년도부터 4H하시면서 그 다음해에 바로 부회장 되신거네요?

제보자: 네. 그리고 73년도에 군대를 간거지. 그 해에 농사 짓는것도 별로여서 공무원 시험도 보고 별 짓 다 해봤죠.

조사자: 그럼 군대 가시면 자연스럽게 4H는 탈퇴 되는거예요?

제보자: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28살까지 활동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농업 경영인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거고, 저희가 했던 과정은 시골 농촌의 젊은 청소년들의 클럽 활동을 권장했던거예요. 기존에 구태연하게 팽과리 치고 놀던 것을 없애고 그당시에 포크댄스 오락경기를 하게 시킨거예요. 그 좋은 뜻을 지덕노체에 담아서 가자고 한거지. 80년대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스펙이 넓어진거지. 그 이전에 4H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농업경영인 자격을 준거죠. 그 사람들은 목적하에 간거고, 그 전 4H들은 시골에 만날 자치기나 제기 차는 사람들에게 오락경기부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사업으로 간거고요. 근데 뿌리는 그게 맞는거지.

그러던 중, 73년도에 군대에 입대하였다.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하여 76년 5월에 전역하였다. 군 생활 중에 이미 그의 어머니께서는 신붓감을 점찍어 놓으셨다. 아내는 선생의 동생과 직장 동료로, 친구집에 놀러왔다가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며느리로 삼고자 하셨다. 군대에 전역한 선생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던 중 지금의 아내를 처음 보았고, 아내는 당시의 선생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해 냈다.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였고, 1978년 10월 1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선생 부부는 가정을 꾸려 1남 2녀를 낳았다.



조사자: 76년도에 군 제대 하신거예요?

제보자: 네.

조사자: 군대는 어디로 가셨어요?

제보자: 강원도 화천이요.

조사자: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제보자: 78년 10월 1일예요. 집사람은 그 때 23 살이었어요.

조사자: 중매로 만나셨어요?

제보자: 반반이에요. 동생 중매로 만났어요. 밑에 동생이랑 집사람이랑 친구예요. 4살차 이. 집사람이 동생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 사람을 보고 며느리 하자고 하셔서 만나 본거죠. 나는 군대가서 없었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집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나보더라고요.

조사자: 그럼 제대하고 처음 보신거예요?

제보자: 네, 4H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5월에 4일날 전역하고 6월에 되면서 그 해 농사수확하는데 9월인가 첫 벼 수확해서 우리 아버님하고 마차갈 때 그때 집사람을 처음 봤어요. 벼단 싫어 올 때 집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 그 때 처음 봤어요. 그때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얼굴 까매서.

조사자: 결혼하시고 나서도 계속 송문리에 사셨던거예요?

제보자: 네.

조사자: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제보자: 딸 둘 아들 하나예요. 딸, 딸, 아들이예요.

선생은 1977년 9월에 대농그룹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회사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골프장이었다. 그 곳에서 골프장을 관리하는 직종을 맡았다. 이후 골프장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화성의 동탄으로 이전하였다. 당시만 해도 골프장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수가 적었다. 이후 여러 곳에서 골프장이 생기면서 그의 명성 또한 전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로는 박



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일화이다.

조사자: 마을에서 오래 사셨으며 마을 일도 보셨어요? 아니면 밖에서 직장 생활 하셨어요?

제보자: 제가 회사를 빨리 관렸어요. 대농그룹에 있다가 차장 달고 있다가 사업을 한다고 빨리 나왔죠. 91년도에 나온 거예요. 대농그룹은 77년 9월 1일 발령받아 91년 7월 10일부로 정리를 했으니깐요. 햇수로 14년 돼요. 그때 너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농업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가 좋았냐면, 심판 없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이 막 퍼져 나갈 때예요. 그전까지 제가 회사 들어갈 때에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전국에 20개 미만의 골프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만 둘 때에는 한 150개로 늘어났었어요. 지금은 한 500개는 넘을 거예요. 그때는 골프장이 희귀 직장이었어요. 그린키피가. 그리고 젊은 나이에 헤드를 했기 때문에 유명세를 탔었어요. 그 계통에서. 전국에서 송철재 하면 젊은 나이에 일찍 승진을 했죠. 36홀을 하는 헤드로서 전국에서 그린키피들이 오면 항상 인사하고 찾아보고 갔었어요. 청와대에서 박정희 골프치러 오셨을 때 모셨던 적도 있어요. 육여사가 돌아가시고나서는 굉장히 경호가 엄했어요. 그래서 골프장에 직원이 150명 돼도 청와대 비표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5명 미만이니깐. 경호원들한테 쌓여서 우리만 움직일 수 있지. 빗자루를 하나 잡아도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해.

조사자: 그럼 여기서 출퇴근 하셨던거예요?

제보자: 여기서 출퇴근 했어요. 셔틀 타고 다녔어요.

조사자: 그럼 다니셨던 골프장은 어디였어요?

제보자: 관악골프장. 동탄에 있는거. 원래는 그게 관악산에 있는건데 지금 서울대학교 자리에. 근데 서울대 학생들이 하도 데모를 하다보니깐 박정희 대통령이 관악골프장 사장 보고 동탄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지금은 그게 리베라지. 그러고 서울대학을 그 골프장 자리에 집어 넣은거야. 서울대학교 자리가 관악골프장 자리고 동탄으로 오면서 서울서 오는 셔틀버스를 신갈서 타고 매일 출퇴근했어요. 여기서 신갈까지 가면 신갈고속도로 올라가면 서울서 대농그룹 그 버스가 싣고 골프장 가고. 거기서 퇴근해서 또



오고 그렇게 다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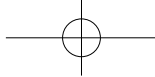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조사자: 출퇴근하시기 힘들셨겠어요. 그럼 이게 언제 옮겨진거예요?

제보자: 올해가 70주년이에요. 72년도에 옮긴거예요.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했거든.

1991년 7월에 다니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마평동에 ‘그린 농업사’라는 농업관련 도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직후에는 주변의 권유로 시의원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당에도 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탓에 낙선하게 되었다. 주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기를 권하였으나 선생은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다.

제보자: 마평동에서 그린농약사를 했어요. 골프장 퇴직하면서 차린거예요. 농자재 납품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아들이 물려받아서 소매로 하고 있어요. 사업하다가 90년도 이후에 사람들에게 등떠밀려서 시의원 출마했는데 안됐어요. 사람들이 추천해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안하고. 회사생활 하다가 회사 퇴직하고 고향에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간 거였으니깐. 그렇게 한 번 나가고는 그만됐어요. 내가 안 나간다고 하니깐 주변에서 한 번 더 나가보라고 했는데 칼같이 끊었어요.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 돈을 좋은데 쓰는게 낫겠더라고. 불우이웃 돕는게 더 값진거니깐. 그길로 그만됐어요. 그 때는 돈으로 선거치르던 시기였으니깐. 지금은 그렇게 선거하면 큰일나죠. 근데 그 때는 그게 가능했다고. 그리고 어느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갔으니깐. 그러고는 아예 생각도 안해요.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OB 4H 활동을 시작하였다. 과거 청년 시절의 4H 활동은 오락적인 요소를 겸한 활동이었다면, OB 4H 활동은 봉사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선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양했던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활동한 내용들을 신문에 내는 것을 꺼려하였다. 때문에 스스로 행했던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뭍쓸 짓’이라고 평하였다.



제보자: 노태우 대통령 선거운동 목적으로 OB 4H 팀을 만들자고 한거예요. 그래서 4H연명을 발족한거예요. 그래서 초대 회장을 류관희 회장을 하고 2대 3대가 오혁근 형님, 그 다음에 조길생 형님, 그 다음 4대 회장이 저예요.

조사자: 그럼 몇 년을 하신거예요?

제보자: 6년이에요. 3년 임기제로 한 번 연임까지 가능해서 6년이에요. 총무연임, 회장 연임 해서 총 12년을 한거예요.

조사자: 그 활동들은 어떤 일들을 하신거예요

제보자: 기본은 4H 정신에 의한 사회활동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서로 안면을 트고, 농사는 안져도 우리가 4H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남기자. 이런 생각으로 한거죠. 후배들 지원금도 줬고, 12월달이면 절대 관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죠. 또, 용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용부가 유명하잖아요. 개네들 장려들도 지원하고. 항상 하는 불우이웃돕기 있어요. 그거 하고, 여름에 하계수련회 겨울에 동계수련회 1박 2일 부부동반으로 해요.

조사자: 그럼 거기 회원은 몇 명정도 되요?

제보자: 하다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해서 관면단체에서 빠져나가고 연천에 수혜가 나고 그러면 직접 가요. 가서 조그만 성의라도 하려고 하고, 포항에 지진났을 때 버스회사에서 200만원 찬조를 받아서 그게 기간이 짧더라구요. 12월인가 2월에 고성 산불났을 때 그럴 때 찾아가는거예요. 그런 못된 짓을 해요.

조사자: 그게 왜 못된 짓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보자: 아니 그게 우리 선배님들 철학이 있어요. 절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을 하지 말아라. 절대 사진찍지 말아라. 선배님들이 봉사활동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사진찍고 신문에 내고 이런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그는 2012년부터 5년 간 마을 이장직을 맡으며 마을을 돌보았다. 젊은 시절 마을 밖 직장을 다니며, 사업체를 꾸리느라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가 처음 이



장직을 맡으면서 마을에 새긴 송전탑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다. 이 보상금사용을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 결과 그는 마을에 상수도과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조사자: 마을에서 이장도 하셨어요?

제보자: 했어요.

조사자: 몇 년도에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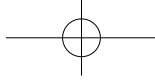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제보자: 5년차니깐. 내가 이장을 늦게 했어요. 5년전에 끝났으니깐 앞에 5년 한거예요.

조사자: 17년도에 끝이 났으니깐 그럼 12년도에 하셨던거예요?

제보자: 네. 이장을 늦게 한 편이죠. 계속 사업했으니깐.

처음 이장하면서 송전탑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있었어요. 처음 받아보니깐 다 해서 돈이 4천만 원 됐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쓰는지 쓰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그랬지. 어디다 쓸지 모르니깐 장학금 만들자고 하니깐 그런쪽으로는 또 지정이 안되더라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쓸 수가 없대. 장학금으로 쓰려면 학교에 써야 되는 거지. 나중에 보니깐 야유회도 일회성으로 쓰는 비용으로만 되고 규정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송전탑에서 나오는 돈을 다른 동네들은 먹고 놀러가는 데 쓰는데 이게 돈 쓰는 방법들을 모르는거예요. 첫 번째 시행이니깐. 한전사무실을 수도 없이 갔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한전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깐 한전에서 본보기로 송문2리 이장님한테 가면 보상금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으니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나 혼자 해서 되는게 아니고. 회의를 많이 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말 안건을 잘 내시더라고. 빌라 사시는 분이 상수도를 동네사람들이 다 나눠쓰다보니 모자르니 이장님이 한 가구당 60만 원씩이니깐 10가구만 지원을 해 주면 10가구가 물을 안쓰면 나머지 가구들은 물을 나눠 쓸 수 있지 않냐고 해서 그렇게 한거죠. 그래서 내 임기동안에는 도시가스 들여놓고 상수도 개통하는 일을 끝냈어요. 도시가스는 웃말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게 길이 승인이 나와 되는거니깐 못 들어가고 그게 올해 공사 마저 하고 있어요. 1차는 아랫말 전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됐고, 상수도는 전체다 놓은거죠.

조사자: 마을 분들이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제보자: 좋아했죠. 근데 반만 한거라. 이게 시골땅이다 보니깐 전부 사유지여서 그래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도시가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샤워하고 그러느냐고 뜨거운 물 많이 쓰는데 시골은 전부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얼마 안써요. 그래서 도시가스쪽에서도 빨리 해주려고 하질 않더라고. 아랫말은 3년전에 다 들어왔고, 웃말은 올해에는 끝날거예요. 그래 4천만원 넘는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았다가 삼천리 가스에서 공사를 하는거지.

조사자: 다른 동네들도 토박이들이 사는 마을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마을일 돌보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일들 없으셨나요?

제보자: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제가 월급쟁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개성이 있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동의받는 수 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애향반 활동할 때만 해도 30가구됐는데 그 중에 20가구가 송가였거든요. 집성촌이었으니깐. 지금은 송가가 15가구정도 밖에 안되요. 아주 뿌리째 이사가신 집안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차손파는 거의 형수들만 계시지 형님들은 안계세요. 돌아가시고. 자손들 있어도 다 나가살고. 장손파는 한 여섯 가구 정도 돼요.

송철재 선생은 마을의 개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하에 발전이 수행되어야 하는 ‘계획된 도시화’를 주장하였다.

조사자: 송문리가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양지도 지금 한창 개발중이어서 송문리도 곧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자: 그거는 그래요. 어쩔수 없이 농경사회는 해체가 되고 진짜 ‘계획된 도시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92년도에 고매리 땅에서 이병화 선생님이 얘기 하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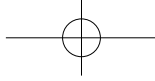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그 당시에 10만원 짜리 세상없는 금을 캐내도 농사지어서는 수지가 안맞다고 하셨어요. 양지나 송문리에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땅에서 무슨 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남겠냐구요. 땅값오르기 바라는거지. 이런것도 조금씩 변화를 줘 가면서 계획하에 발전하는게 낫죠. 땅 한 번만 파면 되는데 여러번 파 내고 덮고 깨고 또 덮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훨씬 효율적이죠,

이른바 ‘송동’에 거주한 송씨들은 일제 강점기 유명한 친일파였던 송병준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당시 사회상으로 인해 야성 송씨들은 은진 송씨였던 송병준과 동성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심지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제보자: 우리가 을사조약 때 송병준이 은진송가거든요. 그 사람이 양지 추계리에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든데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하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때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내가 태성중학교 갔는데 ‘양지국민학교에서 온 송철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공부 잘 하는 놈이 뒤에서 그러더라고. ‘야! 매국노 송가.’ 그러는거야. 송병준네 집안네인줄 알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송병준이 을사오적이라고. 어쩔수 없이 우리 조상님들은 바둑바둑 우기면서 야성 송가는 아니라고 떠들 수가 없었으니깐. 우리 송가들이 고집이 강한거죠. 너네들이 아무리 송병준을 우리 가문이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거다.라고 생각하다보니깐 마음을 열지 못한 부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때,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 보니깐 ‘그래, 네들 그렇게 떠들어라. 우린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송문 2리 마을에는 ‘송릉원’이라는 야성 송씨 종원들의 묘역을 조성해 놓았다. 이 곳에는 송문리에 처음 정착한 11세손 송성립 할아버지를 묘를 비롯하여 그 후대 조상들의 봉분을 모셔 놓고, 그 하단에는 각각의 지손들의 가족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족 묘원 조성은 점점 핵가족화 하여 조상묘를 돌보기 어려운 종원들에게 산소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점점 변화하는 사회상에 빠르게 발맞춘 조치였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시제 및 기제사의 날짜는 물론, 제사 절차 에도 조금씩 변화의 흔적들이 들어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종친회에서 고문을 맡고 계시는 어른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아랫사람이 차마 먼저 제안할 수 없는 것들을 어른들이 먼저 건의하여 아랫사람들의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해 선생은 존경심을 표하였다.

제보자: 저희 파시조가 저한테 29세손인데, 11세부터 파시조가 되는 18대 할아버지를 여기에 모시고 있어요. 제가 18대고 11세손이 여기 모시게 된거죠. 산수공부도 어려워요, 세에서 대를 빼야 되니깐.

조사자: 아까 11대 되시는 분이 송문리 입향조이신가요?

제보자: 그렇죠. 11세.

조사자: 휘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보자: 휘가 성자 립자에
요. 성립할아버지요.

제보자: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제 돈이 생기다
보니까 돈에 대한 고민이 생
겨요. 여태까지 아버님만 다
니던 시제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 있겠다 싶으니까



관여를 하려고 하더라구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에 또 맞춰 줘야지. 이번에 내가 아주 큰
자랑 하나 하자면, 이번에 시제 지내는데 젊은 사람위해서 음복을 못 하게 하는거야. 위
에서부터 빨리 빨리 지내서 젊은 사람들 시간 맞춰 주려고. 그리고 끝나고는 시간에 관
계치 않고 갈 사람들은 가게 하고. 음복 할 사람들은 먹으라고 하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쌀 한포대씩 줘어 보내고. 그렇게 해서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렇
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지내지. 우리 같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거기 오래 있어도 상관 없
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잖아. 그래 일찍 지내고 갈 사람들은 다 가라고 하지.

집행부가 어려운게, 며칠 전에 시제지내러 내려갔다 오면서도 어르신들 식사 대접 해
드리고 올라가자고 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집행부는 전부 일거리예요. 뭐 시
제나 종친회 때마다 일일이 다 전화 돌리고, 세금 내고, 이번에도 도로 보상이 나서 이것
도 처리 해야되요. 22억 수령을 하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일처리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조사자: 그럼 시제 음식은 집에서 직접 준비하시나요?

제보자: 그럼요, 아직까지 집에서 준비하죠. 우리 종원이 2천 2백평 정도 시제답이 있
어요. 그래서 집안내 시제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옷토도 있고, 음식을 맡아서 하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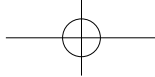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직접 차려주시니깐 아직까지는 큰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죠. 그 분이 우리 10촌내 중간이에요. 그 날 차리면서 음복하고 술도 마셔야되서 제주를 직접 담귀요. 쌀 두어가마 정도 들어요. 한 한달정도 전부터 술을 빚기 시작하죠. 그 술로 각 종원들 모이면 부모님 산소에 잔 올리라고 잔까지 다 준비를 해 주지. 웃어른들한테 시제 다 지내고 음복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술 받아다가 자기 부모님 산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시제때 와서 잔만 올려도 되니깐. 다 한 곳에 계시니깐. 그게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거지. 송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송릉원에 들어오시면 잔은 다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린거죠.

그렇게 묘를 한 곳에 다 모아서 조성을 해 놓으니깐 시제 때나 명절에 못보던 종친들도 봐서 좋고, 산소가 마을 가까이 있으니깐 산책겸 가기도 좋아요. 그거는 진짜 자랑이에요. 아주 소풍오는 것처럼 좋더라구요. 처음에는 남자들 벌초하기 좋아서 잘 해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족이 모이는 장소가 된거예요. 여자들도 좋아지고. 집으로 안모이고 산으로 가져와서 산에서 지내니깐 편해졌지. 벌초는 대종회에서 다 해주니깐 신경 쓸 일도 없죠.

조사자: 아까 시제지내실 때 양력으로 지낸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지내신거예요?

제보자: 한 20년 됐어요. 우리는 양력으로 바꾸고, 축도 한글로 읽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중과세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글날도 지정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야되는데. 그래서 난 아버님 어머님 제사도 내 맘대로 지내요. ‘오늘 제사에 이만저만 해서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화기에애하게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난 ‘상향’ 안해요. 아니 ‘상향’이 뭘 뜻인 줄 알아 내가. 분향 재배, 갱신 이게 한 틀이잖아요. 왜 한글 좋다면서 이런건 다 한글로 안바꾸냐고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중국 글 갖다놓고 제사지낼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여섯분 상 제사 지내고 명절 하고 일년에 여덟 번 지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어요.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는 산소 가서 지내고. 이게 코로나가 집안 문화를 바꿨어요. 본의 아니게 바뀌었어요. 코로나여서 집에서 다 못 지내니깐 포하고 잔 가져가서 산소에서 지내요. 그래



서 지금은 명절 차례는 3대까지 다 지내고 기제사를 없애고 나중에 산소에 가서 잔 올리는걸로 대신해요. 그래서 제사가 줄었지. 기제사를 여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고 차례 두 번 지내고해서 총 다섯 번 만 지내요. 지금.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에 적응하는게 좋지요.

마지막으로 송철재 선생은 앞으로 야성 송씨 종친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 점차 출산율이 줄어드는 사회속에서 이제는 종손 중심의 종친회가 아닌 종친회장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 나갈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야성 송씨 문중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조사자: 아까 종손의 대를 잇는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제보자: 우리 성군관 옛법에 종손이 돌아가고 없어서 우리 종친회에서 직면한 문제가 그게 제일 커요. 앞으로 천상 종친회위주로 가게 되겠죠. 뭐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이 자식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니깐 종손의 개념이 무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종친회 회장을 하면서 어쩔수 없이 계자를 들이지 않는 이상 종손의 개념은 점점 희미해져 가니깐 회장위주로 가야된다고도 해요. 내가 알기로는 용인의 종친회에서 종손이 회장을 맡는데도 영일정씨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손의 개념보다는 종친회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종친회의 결의를 받아야되고 그 후손들의 입장도 들어야 결정을 할 수 있는거여서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협의 과정에 있었을 텐데, 다들 만나기가 어려워서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가 만나왔어요. 종손 형님이 돌아가신지 십여년 되고, 조카가 간 지 3년 정도 되다 보니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대종손 형님 동생분도 계시는데 거기도 딸만 둘이어서 양자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종친회장이 종손노릇을 하고 있어요.

김지현



살맛 나는 삶을 살고 계신 서각(書刻)가 산촌 송병우 선생

송문리 우등생,
수원북중과 수원농고로 진학하며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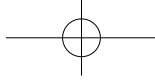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산촌가든. 고박사 냉면, 아마도 송문리 뿐만 아니라 근처 용인지역 사람들에게는 꽤 알려진 음식점일 것이다. 가족 모임은 물론 생일잔치, 회갑, 칠순까지도 이곳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사람들이 많다. 33년째 이 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는 주인은 산촌 송병우 선생이다. 산촌은 그의 '호'이다. 지금은 고박사 냉면으로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으나, 그가 처음 지은 음식점의 이름은 산촌가든이었다. 산촌가든은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산촌



가든 삼거리'이란 명칭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송병우 선생은 1955년 송문2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양지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주로 걸어서 학교에 다녔지만 가끔은 마을 앞 마평 정거장에서 수여선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가기도 했다. 수여선은 1930년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수원~여주간에 부설했던 협궤열차이며, 광복 이후에는 통학이나 통근 목적으로 이용되었지만 1972년에 폐선 되었다. 송병우 선생은 한동안 수여선을 탈 수밖에 없었다. 학급에서 상위권 우등생이었던 그가 당시 담임이었던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원북중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이다. 선생의 부모님께서서는 내심 그가 가까운 태성중학교로 진학하길 바라셨을 테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55회 졸업생으로 양지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수원북중으로 수여선을 타고 다녔지만 제시간 안에 학교에 도착하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여선은 석탄 때서 가는 증기 기관차였기 때문에 종종 용인역 급수장에 정차하여 급수를 해야 했으므로 새벽 5시 반 기차를 타더라도 수업 시간에 1시간씩 늦기 일쑤였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3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며 꼭 참고 학교를 다녔던 선생은 수원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수여선을 3년 더 타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를 다니던 본인보다도 부모님이 더 힘드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나보다도 부모님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새벽 다섯 시 반에 나가니 어머니는 더 일찍 일어나셔야 했으니까요. 기차 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행히 학교가 공립이라 조금은 상쇄가 됐지만.”

통학길은 고되었지만 중학교에 진학해 동기생이었던 차범근 선수를 만나고, 학교 대항전에 출전할 만큼의 유도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수원농고로의 진학도 마찬가지였다. 명문 수원농고에서 그가 품었던 장래 희망은 넓은 초원에서의 '목장 경영'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꿈을 잠시 묻어두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협신농기'에서 사회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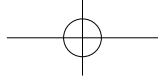
수원농업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년생으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당시 청량리 파출소장이었던 매형의 소개로 들 어간 협신농기였지만, 생각보다 업무를 꽤 잘 해내어 직무적으로도 만족스러웠 으며 당시 송문리 크로바공장 노동자 월급이 1만 6천 원에 비해 훨씬 많은 3 만 원을 받았으니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조건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원주 하사관학교로 차출, 하사로 군 생활 시작

그가 협신농기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 할 즈음 군대 영장이 나왔다. 영장을 받은 선생은 지체 없이 논산 훈련소로 입소했 다. 신체가 건강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 력을 갖춘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하사관으 로 차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생이 바 로 그 대상이었다. 원주 하사관 학교에 입학해 6개월 동안 교육을 마치면 바로 하사 가 된다. 하사로서 교육을 받은 선생은 동해경비사령부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동해경비 사령부는 동해안에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한 부대였는데, 부대에는 현역군인 있는 것이 아 니라 방위병들도 함께 교대로 근무했다. 당시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지라, 선생은 동해경비사령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교육 시 켜야만 했었고, 배움이 짧은 방위병들에게 자기소개서 쓰기 등 전반적인 글쓰기를 세심 하게 봐주며 초소장으로 부하들을 보듬었다. 이후 그는 강릉 경포대 초소장, 목호 경





비대 초소장, 임원항 초소장을 거쳐 제대 말년에는 유격대 조교 반장, 취사반장도 해보며 34개월의 군 생활을 마쳤다.

나의 꿈은 목장 경영, 양지면 농어민후계자 1호 송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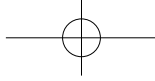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질문: 군 제대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나요?

송병우: 아니요. 군대 가기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우리 매형을 통해서 데리러 왔는데 제가 안 갔어요. 제 꿈이 원래 진짜 넓은 초원에서 목장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군 복무를 마친 그는 입대 전에 근무했던 협신농기의 재입사를 두고 잠시 고민하였다 고 한다. 협신농기가 워터캡(축산에 관련된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니 다시 가볼까? 라며 생각해보았지만, 자신이 품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입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향에 정착하였다. 그때쯤 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3살 아래 주북리 처자를 소개받았다.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질문에 ‘처음에는 안경을 써서 별로 맘에 들지 않았다’며 농담 섞인 대답을 하셨다. 시력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에 결혼해 낳을 2세가 걱정되어 약간은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한다. 시력이 어느 정도 인지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 수원 중앙극장 스크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좌석에 일부러 앉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인연은 어쩔 수 없었다. 2년간의 연애를 거쳐 결혼하였고, 결혼 후 지금 사는 집 바로 옆으로 분가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를 기르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양지면에서 처음으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다. 농어민후계자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출, 특히 청·장년층의 대량 이농 현상으로 미래의 농어촌을 담당할 일꾼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가 1978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펼치며 실시하게 되었는데, 농림수산부의 지도·감독하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했다. 농



송문리에 있었던 목장



농어민후계자 교육

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기부재산, 정부출연금, 정부투자기관·단체·개인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이다. 1981년도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부정 축재자 환수금도 기금으로 운용되었다. 당시 각 면에서 한 명씩 뽑았기 때문에 용인에는 12명의 농업인 후계자가 뽑혔고, 송병우 선생은 양지면 농어민후계자 1호가 되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300만 원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젃소 7마리를 샀고 정성으로 키운 젃소가 점점 불어나 50두까지 불어났다. 50마리의 소를 먹으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아침밥 먹으면 경운기 끌고 가서 경운기 가득 풀을 베어 와야 했고, 점심밥 먹으면 또 경운기에 풀을 가득 베어 와야 했다. 그래도 그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서는 것 같아서 좋았다. 하지만 소를 기른 지 10년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즈음, 소값 파동으로 인해 소값은 바닥을 쳤고 부인이 연쇄점에서 벌어들인 돈은 사료값을 대기에 바빴다. 사장이 나빠지자 하는 수 없이 낙농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소값 파동으로 좌절된 농부의 꿈, 요식업으로 방향 전환

질문: 소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어서 갈비집을 하시게 되었나요?

송병우: 아니요. 집사람도 연쇄점을 17~18년을 하며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소 기르는 걸 접고 이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갈비집을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수원에 사는 동창생 이정섭이라는 친구에게 갈비집을 하고 싶은데 도와 달라고 했어요.



갈비집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여쭙어 보았더니,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말씀을 해주셨다. 중학교 시절, 선생은 당시 수원에서 유명한 갈비집이었던 화춘옥이 있는 골목으로 매일같이 걸어 다녔다. 그는 화춘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갈비 냄새를 맡으며 ‘세상에 저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부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갈비집을 먼저 하고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주방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조연도 받으며 마침내 갈비집을 오픈하게 되었다. 널찍하게 지어진 음식점 건물은 넓은 주차장에 2층엔 빔프로젝트, 무대, 조명, 음악 시설까지 갖춰어 근교 사람들의 칠순 잔치, 회갑 잔치 등의 장소로 인기가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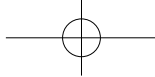
산촌가든을 고박사냉면으로 상호변경

송담대에 외식산업 최고위 과정을 만들다

질문: 용인 송담대에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송병우: 제가 용인시 요식업 조합장을 했어요. 조합장을 하면서 보니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업소 경영에 필요한 세무라든가 인력 관리, 메뉴관리, 매장관리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니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연유로 당시 사무국장과 협의해 송담대학교에 질의한 후 동자부 장관을 역임했던 송담대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정문 전 시장에게 학비 지원을 요청해 개인당 자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과정을 2004년 개설하게 되었다. 당초 1년 과정의 자부담은 6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송담대와 시에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8기까지 졸업시킬 수가 있었다고 한다. 8기는 선생이 요식업 조합장을 역임한 기간이다. 9기부터는 수강자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시대가 변해 젊은 사장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요식업을 제대



송담대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세미나

로 배워보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송담대 요식업 최고위 과정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의한 수업으로만 구성돼 있어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지만, ‘ 지금은 배우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다. 여담으로, 선생의 음식점

은 큰아들이 물려받겠다고 하여 1년간 송담대 요식업 최고위 과정을 밟았다고 한다.

용인시 음식문화축제를 만들다

질문: 용인시 음식문화축제를 처음으로 만드셨던데요.

송병우: 사실 용인에는 민속촌이라든가 한택식물원 등 엄청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식은 거기에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 당시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용인도 대표음식 하나 만들자고.

대표 음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용인 백옥쌀, 성산한방포크 등을 이용해서 음식문화 축제를 열고 그렇게 전통을 짚아가다 보면 용인의 대표 음식이 만들어질 것이라 한다. 전주비빔밥도 거의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기에 오늘날 전주비빔밥이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것이라 덧붙이시면서 용인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관광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용인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 아래, 시에서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2006년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제1회 용인 음식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행사는 요리경연대회, 홍보전시관 운영, 체험관, 먹거리장터, 위생 관련 사항 등을 알리며 진행됐다. 물론 시 지원금만으로 부족해 조합의 돈도 많이 투입되었다. 인근의 안성, 여주, 이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며



준비했는데, 결론은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순대국 1,500명분, 수타짜장면 1,500명분을 준비해 시민들이 축제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청광장에서 열렸던 당시에는 초대형 남북재료 비빔밥을 만드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해 사스가 오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던 축제는 그대로 맥이 끊겨 버렸다. 더욱이 선생이 조합장을 할 때는 3구에서 한 명의 조합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행사 준비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3구에 각각 3명의 지부장이 있기에 과거처럼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일도 이렇게 잘할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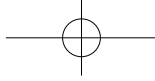
질문: 한국소방안전협회 자격증도 있군요

송병우: 왜냐면 건물이 200평이 넘으면 방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그래서 수원에 가서 교육받고 공부해서 방화 관리자 자격증을 땀어요.



그렇게 취득한 자격증으로 선생은 2008년 한국소방안전협회 이사와 2010년 중앙회 감사를 역임했었다. 과정은 이렇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각도에서 한 명씩 선출된 8명의 이사가 있었다. 경기도에도 지회가 있었는데 지회장이 수원농고 선배였다. 방

화 관리자 중에서 경기도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송병우 선생을 추천한 것이다. 1년에 400~500억을 집행하는 자리라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3년을 하다 보니 그에게 중앙회 감사 자리가 추천되었다. 그렇게 맡은 감사의 임무는 더 열심히 했었다. 감사의 업무는 전국 대도시를 돌며 2박 3일씩 진행된다. 한번은 부산에서 감사를 마치고 떠나려는데 차에 선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



고“감사에게 무슨 선물을 주느냐. 마음만 가지고 갈 테니 도로 내려라.”라고 했더니 관례 대로 한다는 답을 듣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절대 용납 못해”라는 말을 남기고 출발했다. 그런 후 감사실 직원들은 출장 가면 협회에서 수당도 받고 식비도 받고 숙박비까지 받고 있으니 예외적인 선물 등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감사직원들에게 표명하기도 했다. 감사평가 회의에서도 감사의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진행해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회 감사를 마친 지금도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때마다 전화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시절을 얘기하곤 한다.

서각(書刻)으로 인생의 의미를 느끼다

질문: 음식점 입구에 산촌각(山村閣)이라는 정자가 있던데요

송병우: 여기 사거리 이름이 산촌가든 사거리라고 네비에도 나와요. 손님들이 여기 산촌가든 사거리인데 산촌가든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옛날 산촌가든이라는 걸 알리는 의미로 정자를 짓고 제가 <산촌각>이름을 새겼어요.

송병우 선생은 전통서각을 하며 작업실도 운영하는 서각가다. 서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다. 어느 해인가 일산에서 요식업 총회가 열렸는데 행사 후 한국전통예술협회를 만든 유명 서각가의 전시장에 들러본 후부터 서각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그 서각가는 당시 현대 정몽준 회장의 부탁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서각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몽준 회장의 낙마로 작업이 어려워지자, 선생의 권유로 송문리로 내려오게 되었다.

송병우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실력가였던 그에게 서각을 배우면서 서각의 매력에 푹 빠졌고 그 매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여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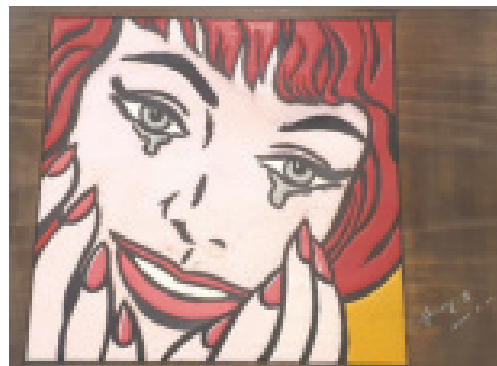


선생이 논어 학이편을 새기고, 미술을 전공한 큰며느리가 공자의 그림을 그린 콜라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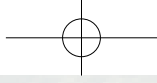


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선생의 실력도 일취월장해 전국 서각대전에 해마다 작품을 출품하며 그때마다 수상도 해오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권유받아도 바쁜 일정으로 고사하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다. 돈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나뭇값과 기본적인 수고비만 받고 의뢰작품을 완성해주기도 하고, 선생에게 서각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작품 지도를 겸하고 있어서 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가장 애착 가는 작품은 신홍일 선생이 쓴 '역지사지'를 서각한 작품, 가장 맘에 드는 글귀는 '공수래공수거'라고 하신다. 아마도 송병우 선생은 그의 '호'처럼 산촌에 살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수래공수거처럼 욕심부리지 않으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픈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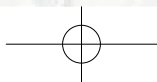
위로부터
송병우 선생의 호 '산촌'을 새긴 <산촌각> 정자 / 서각을 배우는 제자의 작품 지도
가장 애착 가는 글귀 '역지사지' / 독특한 기법으로 새긴 '행복한 눈물'



5

마을 전경과 이모저모

1. 하늘에서 본 송문리 (우상표)
2. 송문리 국채보상운동 자료 (정리 김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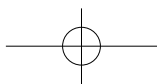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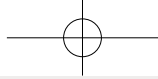


하늘에서 본 송문리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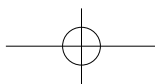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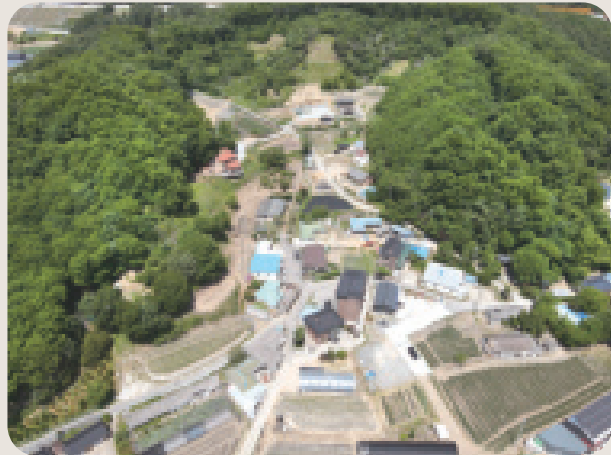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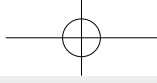
마을 전경과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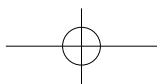


하늘에서 본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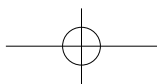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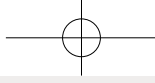
송동





하늘에서 본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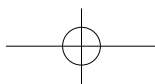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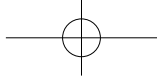


마을 전경과 이모저모



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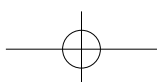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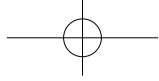


하늘에서 본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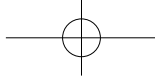
302 • 충효 전통 품고 발전하는 양지의 관문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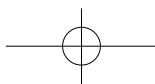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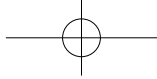
마을 전경과 이모저모





하늘에서 본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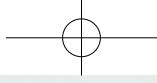


마을 전경과 이모저모



송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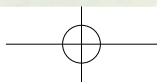
마을 전경과 이모저모 • 305



송문리

국채보상운동

자료



송문리의 1907년 국채보상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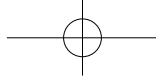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국채를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에서 조직적 운동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언론 기관과 애국계몽 단체가 중심이 되어 거족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국채 보상 운동은 경제적 구국 운동을 넘어 거족적인 반일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용인지역에서는 먼저 언남동 용인향교에 맹보순이 설립한 명륜학교의 학생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1907년 3월 24일 국채보상운동을 알리는 통문을 발표하고 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용인 지역에서 4월 이후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에 따르면 4월 초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다. 용인에서 연인원 1,530명 이상 참여하였고 고 모금액도 新貨 532元 77전, 舊貨 67圓 50전, 當五 1,462兩이 모금되었다.

< 현재 송문리 지역 국채보상운동 참여 인사 명단과 모금액 >

마을명	참여인사 및 납부액	모금 총액	출 처
旋門里 (송문1리)	柳學秀 五十錢 柳得秀 十錢 柳觀秀 柳洪珪 權聖佐 各二十錢 柳正珪 拾錢 柳貞珪 柳完秀 各二十錢 柳璉 三十錢 金道學 崔載仁 各二十錢 崔龍雲 十錢 崔命吉 三十錢 劉聖俊 金昌雲 彬永先 各十錢 崔今石 二十錢	330錢	[皇城新聞] 1907년 5월 11일자
松洞里 (송문2리)	柳면 一百兩 宋源 宋敬淳 各五拾兩 宋宅東 李圭白 柳桓根 各二十五兩 宋淳根 柳喜秀 各二拾兩 李益宰 張奎煥 朴榮睦 李範翼 各十五兩 宋演 權用悅 申德均 李祖升 宋夏榮 金奎培 元永豐 柳次朋 張安植 李相稷 全敬禹 金永壽 方長得 權均悅 趙聖禹 各拾兩 宋慶鉉 金昌玉 金萬俊 李斗夏 權成玉 高武言 朴俊汝 柳明云 權元順 柳富興 崔大利 宋淳洪 各五兩	當五 585兩	[皇城新聞] 1907년 5월 13일자
盤亭里 (송문3리)	柳道根 一圓 柳英根 柳은 李鼎鉉 各二拾錢 柳琦 三拾錢 柳現 拾四錢 柳一根 柳碧 各四拾錢 柳恒根 二拾錢 柳雨根 三拾錢 柳溟根 沈鍾大 柳瑢 各二拾錢 柳容根 拾錢 柳宗根 二十錢 柳卓根 五十錢 張俊相 二十錢 柳章根 一圓 柳汶根 金花水分 李石萬 各廿錢 高再哲 金福伊 各十錢	6圓 74錢	[皇城新聞] 1907년 5월 11일자
총 계	79명	6圓 404錢 當五 585兩	



용인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주로 마을 단위로 납부가 되었는데 이 마을들은 용인을 관통하는 영남대로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모금은 마을 내에서는 동족 문중이 공동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전직 관리나 마을의 지식인층, 또는 학교나 서당의 학동들이 주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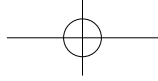
1907년 당시 양지군 주서면에 속한 송문리 지역도 영남대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국채보상운동에 마을 단위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서면 출신 류근 선생이 <황성신문>의 주필로 있으며 을사늑약 체결을 반박하는 ‘시일야방성대곡’ 논설을 실어 이 지역에는 일제 침략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었다.

송문리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이 지역이 세거성씨인 전주 류씨와 야성 송씨 가문 인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문1리인 정문은 전주 류씨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송문2리인 송동은 야성 송씨 집성촌이라 이 성씨가 주도하고 있으며 송문3리인 반정은 대부분 전주 류씨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송문리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성금을 납부한 사람 가운데 근대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서면 반정(현 송문 3리)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참

< 현 처인구 마평동의 국채보상운동 참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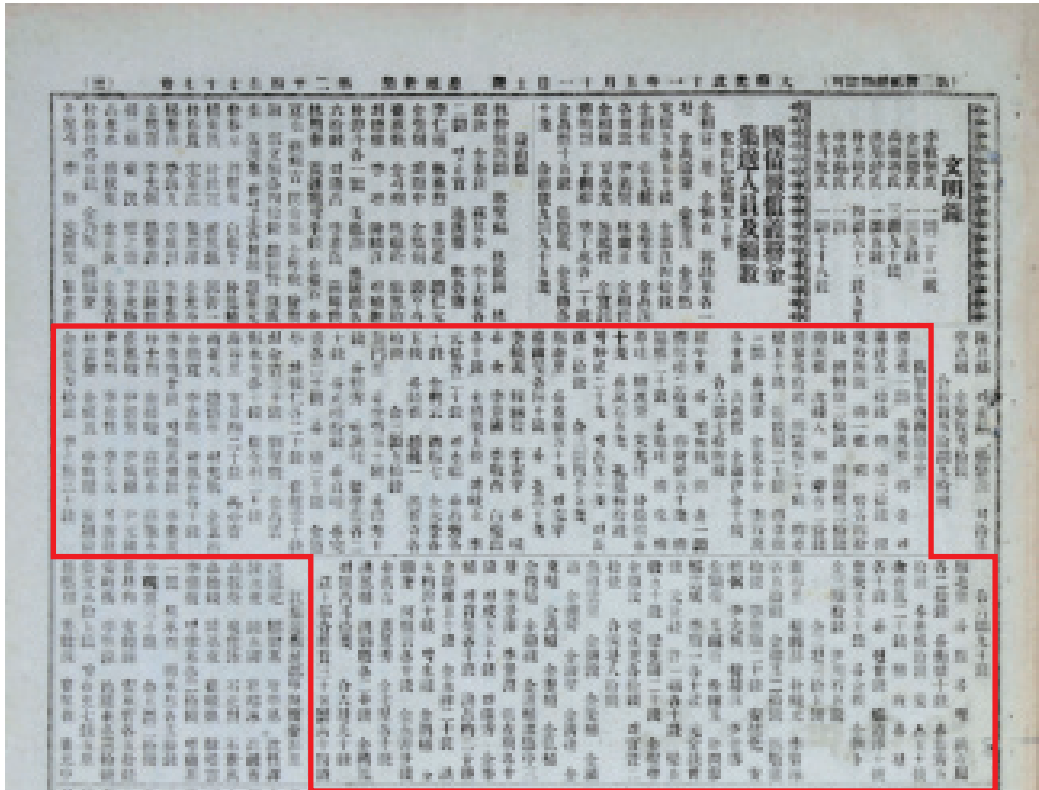
마을명	참여 인사 및 납부액	모금 총액	출 처
新平里	柳진 卅錢 柳윤 一圓 柳信珪 二拾錢 柳尙根 五十錢 柳攝根 二十錢 柳範珪 柳琮 柳章珪 柳漢秀 宋允珪 朴松鶴 各十錢 柳萬石 五錢 孔鳳柝 拾錢 朴妙成 二十錢 朴昌先 十錢 李長孫 二拾錢	3圓 45錢	[皇城新聞] 1907년 5월 11일자
麻南里	柳重根 五十錢 李完宰 韓鎮燮 各四十錢 柳흔 三十錢 李敏義 韓鎮益 李寅宰 柳璜 柳수 李景國 李敬西 白蔓出 各十錢 金興樂 五錢 崔岐永 李元弘 各二十錢 李永福 柳昌秀 各十錢 金興云 洪順七 金永돌 各五錢 柳麟根 趙鍾一 洪新奇 各拾錢	3圓 50錢	
麻北里	柳環 柳형 洪在周 各二拾錢 柳衡根 十錢 柳春秀 五拾錢 柳善根 拾錢 姜스 五十錢 金在鳳 二十錢 柳班 柳진 各十錢 柳현 廿錢 鄭道淳 十錢 曹秉文 五十錢 柳命根 金興卜 金三順 拾錢 尹用石 五錢	3圓 35錢	
총계	66명	9圓 130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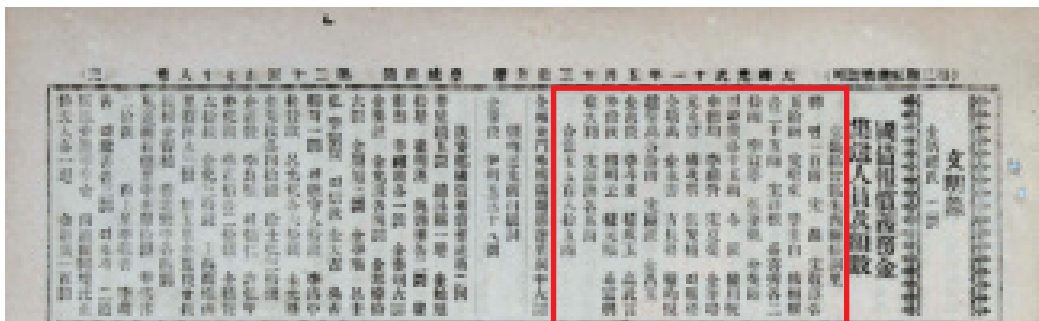
여한 유벽과 유장근은 추양학교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송문리와 인접하여 전주 류씨 집성촌이 형성된 현 처인구 마평동 지역에서도 전주 류씨가 주도한 가운데 마을 단위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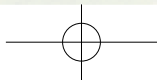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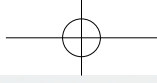
정리 김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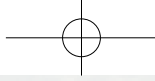


[皇城新聞], 1907년 5월 11일자



[皇城新聞], 1907년 5월 13일자





송문리 마을지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송설재 (위원장) 이세용 (송문1리 이장) 김우용 (송문2리 이장) 유진섭 (송문3리 이장) 유한중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 회장) 송병우 (송문회 회장) 송철재 (야성송씨 종친회장) 유혜순 (송문3리 부녀회장) 송성재 (송문2리 반장)
자문위원	이장섭 (송문1리 노인회장) 양일선 (송문2리 노인회장) 유장희 (송문3리 노인회장)

송문리 마을지 집필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용인학연구소장)
조사 집필위원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 이종구 (용인학연구소 고문) 김장환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정희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현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혜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남기주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숙현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송무경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상표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성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감 수	이인영(전 용인문화원장)
마을지도 사무행정	김정희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현구 (용인문화원 팀장)

※ 송문리 마을지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본 마을지는 <송문1리 정문> <송문2리 송동> <송문3리 반정> 3개 마을과 <야성 송씨 종중> <전주 류씨 목계공파 및 선전관파 종친회> <송문회> <고박사 냉면> <충남석재> <출향인 유선희 (주)디에스 PM.C 회장> <대중셀프주유소 유한중 대표>에서 물심양면 지원하였음을 밝힙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충효 전통 품고 발전하는 양지의 관문

송문리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 심언택

발행기관 · 용인문화원

전화 · 031.324.9600 팩스 · 031.324.9634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예술원 1층

홈페이지 · <http://www.ycc50.org>

인쇄 · 좋은사람들

ISBN 979-11-978200-1-4 03010

<비매품>

- 이 책의 저작권은 용인문화원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용인시 보조금과 송문리마을·중흥·출향민·향토기업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